

定本 退溪全書

25

定本 退溪全書 四

印 刷: 2025年 4月 20日

發 行: 2025年 4月 25日

編 輯 人: 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팀
(研究責任者: 李光虎)

發 行 人: 朴炳元

發 行 處: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

出版登錄: 1989年 12月 15日 第1-987號

住 所: (030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9길 25,
명륜빌딩 4층
Tel (02)765-2181~3 Fax (02)741-3478
URL <http://www.toegye.org>
E-mail toegyeh@hanmail.net

製 作 處: 도서출판 동과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파로151번길 24
Tel (02)333-7533 Fax (02)6280-2353

ISBN 979-11-992429-1-3 94150

ISBN 978-89-85009-65-2 (세트)

비매품

定本 退溪全書

25

朱子書節要記疑

退溪學研究院 院長: 宋載邵

行政 支援: 李重煥, 金銀永

研究責任者: 李光虎

共同研究員: 金彥鍾, 文錫胤, 李俸珪, 李相夏

研究專擔人力: 姜志喜, 金太年, 柳浩珍, 尹璿香, 尹相洙

研究補助員: 朴秀英

25책 校勘 및 標點: 柳浩珍(권1~권7), 尹璿香(권8~권15)

校閱: 文錫胤

* 이 결과물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 AKS-2018-CDM-1230002).

解題

退溪가 《朱子書節要》를 편성한 뒤 문인들은 난해한 어휘들을 몰았는데, 《朱子書節要記疑》는 李滉이 답한 내용을 門人들이 기록한 것이다. 본문은 대개 표제어와 이를 설명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석은 주로 간결한 한문 문장으로 쓰여 있지만 더러는 한글 고어와 구결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朱子書節要》가 20권인 데 비하여 《朱子書節要記疑》는 15권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朱子書節要》의 초기본인 《晦庵書節要》 체제를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애초에 강의 대본 자체가 《晦庵書節要》였음을 암시한다. 이 책은 현재 필사본의 형태로만 전해지는데, 서울대 규장각본, 고려대본, 국립중앙도서관본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朱子書節要記疑》는 《朱子書節要講錄》과 더불어 《朱子書節要》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라고 할 수 있다. 《朱子書節要記疑》와 《朱子書節要講錄》은 주해 항목, 해석 분량, 표기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내용상으로 거의 같다. 후자는 艮齋 李德弘(1541~1596)이 기록한 《朱子書節要講錄》을 天山齋 李咸亨이 다시 보완한 것이 《朱子書節要記疑》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같은 책의 다른 명칭으로 간주되기도 한다.¹⁾

《朱子書節要》에 대한 퇴계의 강의록 혹은 주석을 기록한 것으로는 이들 뿐 아니라, 蒙齋 李安道(1541~1584)와 惺齋 琴蘭秀(1530~1604)가 기록한 것도 있었으며, 朴光前(1526~1597)이 기록한 『朱子書節要質疑』도 있었다고 한다.²⁾ 이들 퇴계의 강의록 들은 어떤 식으로든 상호 관련을 가지면서

1) 柳鐸一, 〈《節要》의 註釋書에 對하여〉, 《退溪學論叢》 제3집(퇴계학부산연구원, 1997); 李相夏, 〈解題〉, 《朱子書節要記疑·朱子書節要講錄》, 서울대학교 奎章閣(2004); 이상하, 〈《주자서절요》가 조선조에 끼친 영향〉, 《退溪學報》 제132집(退溪學研究院, 2012) 등 참조.

2) 金鍾錫, 〈密庵 李裁의 朱子書研究와 『朱子書節要刊補』〉, 《退溪學報》 제101집(退

분산적으로 전해졌으며, 본 정본 편성의 대상이 된 《朱子書節要記疑》는 그러한 강의록 중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정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시기가 내려와 密庵 李裁(1657~1730)는 이러한 강의록들을 집성하고, 그 가운데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깎아내고 보충한 후 권두경 등 여러 동문들과의 토론을 거쳐 1713년 《朱子書節要講錄刊補》를 완성하였다. 이것은 그의 문인이자 외손인 大山 李象靖(1711~1781)의 주도로 여러 문도들의 校勘을 거쳐 안동 虎溪書院에서 1785년 6권 3책으로 간행되었다.³⁾

《朱子書節要》의 주석과 관련해서는 梅山 鄭重器(1685~1757)의 《朱書節要集解》가 있고, 《朱子書節要講錄刊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 能皋 朴申慶(1713~1790)의 《朱書講錄刊補筭疑》 등이 있다. 조선에서는 한편으로는 《朱子大全》 자체에 대한 주석 작업도 시도되어, 尤庵 宋時烈(1607~1689)의 《朱子大全筭疑》가 나온 후 여러 차례의 증보와 보완이 이루어지다가 華西 李恒老(1792~1868)의 《朱子大全筭疑輯補》 편찬으로 이어졌다. 《朱子書節要記疑》 편찬은 이러한 작업들의 선구로서 그 내용이 이들 작업에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었다.

溪學研究院, 1999). 朴光前의 문집인 《竹川集》 권3에 실려 있는 〈上退溪先生問目〉은 ‘朱子書節要疑義’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3) 金鍾錫, 위의 논문 참조.

凡例

1. 基準本과 對校本

《朱子書節要記疑》는 현재 필사본의 형태로만 전해진다. 주요한 것으로는 서울대 규장각본(1종), 고려대 도서관본(1종), 국립중앙도서관본(2종)을 들 수 있다. 이들 필사본 4종은 각각 약간의 글자 상의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간행 연도, 필사자 등은 未詳이다. 현재 통행본인 《朱子書節要》가 20권인 데 비하여, 《朱子書節要記疑》는 15권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朱子書節要》의 초기본인 《晦庵書節要》 체제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4종의 필사본 중 필사 사항이 비교적 양호하고 수정 흔적이 적은 규장각본을 基準本으로 삼고, 고려대본 1종, 국립중앙도서관본 2종 등 총 3종을 對校本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朱子書節要》(陶山本)와 《定本 退溪全書》 退溪先生文集의 관련 내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규장각본은 서울대奎章閣에서奎章閣資料叢書로 영인한 것을 이용하였으며, 고려대본은 실물 촬영을 통해 전체 이미지를 확보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본-1과 국립중앙도서관본-2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이미지를 활용하였으며, 추기와 부전지 등 이미지에서 잘려진 부분은 실물 촬영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였다. 각 異本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고려대본>

- (1) 표지 제목은 《朱書記疑》로 乾(권1~8)·坤(권9~15) 2책으로 되어 있다.
- (2) 규장각본과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나 일부 글자가 다르다.
- (3) 상란에 다수의 추기가 있다. 추기의 내용은 모든 卷內에서 上·下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 타 판본과 비교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 내용의 뜻

定本 退溪全書 四

을 설명한 것 등이다.

(4) 본문에 직접 첨자 등의 교정을 한 기록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1>

(1) 표지 제목은 《朱書記疑》로 乾(권1~9)·坤(권10~15) 2책으로 되어 있다.

(2) 권15 뒷부분에 규장각본, 고려대본에는 없는 추가된 기록(“記疑續集”)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2의 追錄과 서로 다르다.

<국립중앙도서관본-2>

(1) 표지 제목은 《朱書記疑》이며 1책으로 되어 있다.

(2) 다수의 추기 및 부전지가 있다.

(3) 권15 뒷부분에 규장각본, 고려대본에는 없는 추가된 기록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1의 追錄과 서로 다르다.

2. 定本の 構成

1) 머리말: 固有番號

(1) 《朱子書節要記疑》에 수록된 순서에 따라 각 서간 자료별로 전체 일련번호인 고유번호를 머리말에 표기한다.

(2) 고유번호는 ‘記疑0101’로 시작한다. ‘記疑0101’은 《朱子書節要記疑》 권1에 수록된 첫 번째 자료라는 의미이다.

(3) 고유번호 외에, 고유번호 오른쪽에 참고하기에 편리하도록 괄호 속에 다음과 같이 자료가 수록된 卷次事項을 표시한다.

凡例

<예시> 記疑0101 (卷1:1右) (節要0101; 時事出處01) (晦庵集 卷24)

(卷1:1右): 이것은 수록 자료의 《朱子書節要記疑》(基準本) 본문의 原 卷次 사항을 밝혀 놓은 것이다.

(節要0101; 時事出處01): 《朱子書節要記疑》는 《朱子書節要》의 해설 혹은 주석이다. 따라서 해당하는 《朱子書節要》의 본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용이하도록 해당 대상 《定本 退溪全書》朱子書節要 수록 편지의 일련번호를 병기한다. ‘節要0101’은 朱子書節要 권1에 수록된 첫 번째 편지라는 의미이며, ‘時事出處01’은 ‘時事出處’라는 주제로 분류된 편지들 중 첫 번째 편지인 것을 의미한다.

(晦庵集 卷24): 《朱子全書》원 본문과의 대조와 참고가 용이하도록 해당 대상 서간의 《晦庵先生朱文公文集》 수록 권수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定本 退溪全書》朱子書節要의 범례에 따라 《朱子書節要》를 중국 上海古籍出版社에서 간행한 《朱子全書》晦庵先生朱文公文集의 서간과 대조한 것으로, 《定本 退溪全書》朱子書節要에서 병기한 《晦庵先生朱文公文集》의 일련번호와 동일하다.(교감주에서는 ‘《全書》’로 약칭함.)

2) 題目

基準本の 제목을 표시한다. 異本の 表題가 基準本과 차이가 있는 경우 校勘記를 달아 이본의 표제 전체를 표시하여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校勘記에는 基準本の 제목을 다시 표기하지는 않는다.

3) 本文

- (1) 표제어와 주석을 포함하여 《朱子書節要記疑》 본문 전체를 기록한다.
- (2) 기본적으로 기준본의 글자를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대교본 등에 의해 기준본의 본문 글자를 수정하는 것이 합당할 경우, 본문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교감기에 표시한다. 예) 彼 : 기준본에는 ‘被’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節要》 본문에 의해 고쳤다.

(3) 附箋紙, 追記, 頭註 등의 형태로 기록된 것은 본문으로 간주하지 않고 문집 범례에 준하여 校勘記에 표시한다.

(4) 기준본과 諸 異本들 사이에 異同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글자·단어·문장의 끝에 註 번호를 달고 아래에 각주의 형태로 내용을 정리한 校勘記를 작성한다. 校勘記 작성 원칙은 아래를 참고.

(5) 본문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標點을 가한다. 표점의 원칙은 표점 범례 참고.

(6) 본문 중 표제어는 ‘()’로 표시하고 이어 해당 주석을 수록하며, 〈표제어〉를 기준으로 행을 구분한다.

(7) 표제어가 《朱子書節要》의 원주인 경우에는 ‘【 】’로 구분하여, ‘(【원주】)’와 같이 표시한다.

(8) 退溪의 주석 본문에 대한 주석에 대해서는 ‘[]’안에 기록한다.

(9) 본문 상에 생략 표시된 것은 원문을 복원하여 수록한다.

(10) 基準本 상에 마모된 글자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 빈 글자

■ : 마멸 또는 훼손된 글자

{ } : 추정한 글자

4) 校勘記

校勘記는 基準本과 對校本 들 사이의 異同사항을 脚注의 형태로 표시한

凡例

다. 異本 자료 모두를 비교 검토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되, 定本을 활용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번쇄해 보이지 않으면서 자료의 異同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작성한다. 신뢰할 만한 校正 및 校勘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작업자 자신의 교정 및 교감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今按:’이라 표시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그러나 작업자 자신의 校正 및 校勘 의견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1) 校勘記에 인용되는 각 版本들의 본문 표시방식은 위의 本文과 관련된 범례에 따르되, 표점의 경우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단다.

(2) 校勘記의 校勘 臺本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 속의 略號를 사용한다.

고려대본 (高大本),
국립중앙도서관본-1 (國中本1),
국립중앙도서관본-2 (國中本2),
《朱子書節要》(《節要》)

(3) 校勘記는 먼저 교감 대상이 되는 글자, 단어, 구절을 쓰고 ‘:’을 찍은 후 高大本, 國中本1, 國中本2의 순서로 분류해서 기록한다. 이는 이용자가 대조 자료 사이의 異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4) 基準本과 對校本의 글자가 다른 경우는 해당 版本의 略號 혹은 표제를 쓰고 그다음에 해당 글자를 인용(‘ ’) 표시를 해서 밝힌다. 또한 출입이 있는 경우, 글자가 없으면 ‘없다.’라고 쓰고, 글자가 더 있으면 ‘앞에 ‘ ’가 있다.’, 혹은 ‘뒤에 ‘ ’가 있다.’ 등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예1) 也 : 國中本1에는 뒤에 ‘帖’이 있다.

예2) 處士……先生 : 高大本에는 없고 [추기 ‘處士’, 周葵指謂先生.]이 있다.

(5) 위에서 열거된 독립적인 교정기 외에 각 대본별로 본문 上欄이나 下欄 혹은 左右側 餘白에 校正이나 편집 기록이 있는 京우 그것은 본문과 별도로 취급한다. 그 중 교감 의의가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 속에 넣어 표시하되, [추가], [두주]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6) 對校本의 글자가 誤字, 變形字 혹은 異體字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校勘記를 달지 않는다. 다만 교감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校勘記를 달 수 있으며, 對校本이 手稿本 및 그에 준한 원고인 경우에는 異體字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차이를 반영하여 校勘記를 달도록 한다.

(7) 對校本의 글자가 通用字인 경우는 校勘記를 단다.

(8) 구결토 및 한글고어의 경우, 동일한 음과 뜻이면 형태가 다르더라도 별도로 교감주를 달지 않는다.

예) 규장각본 : 周禮之文邦애 朋ㅎ며 / 고려대본 : 周禮之文邦ㄹ 朋ㄷㅎ

(9) 작업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校勘記의 뒷부분에 ‘今按:’이라는 형식으로 작업자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한다.

(10) 校勘記에 사용된 符號로서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符號는 다음과 같다.

…… : 글자 줄임

() : 校勘記 작성자가 첨가한 글자

3. 文字 處理

1) 기존에 간행되거나 편성된 퇴계 저작에는 다수의 異體字 혹은 異形

凡例

字, 通用字 등이 사용되고 있다. 《定本 退溪全書》에서는 正字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正字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표준자로 사용하는 글자로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 글자에 대한 正字를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다. 퇴계 정본 편성에서는 주요 글자에 대한 正字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異體字는 筆寫上, 板刻上에 발생한 誤字, 別字, 俗字, 簡字, 略字 등을 의미하고, 異形字는 異體字 중 독자적인 正字로도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한다. 通用字는 별개의 正字인데 일반적으로 상호 통용하여 쓰는 글자를 의미한다.

3)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體字는 正字로 고친다.

4)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形字는 正字에 준한 것으로 여겨 원래 형태를 보존한다. 다만 對校本에 異形字가 사용된 경우는 관련 교감기를 달지 않는다.

5) 通用字의 경우는 교감기를 단다.

6) 선정된 正字와 異體字와 異形字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별도의 표를 만들어 제시한다.

4. 標點

1) 본문, 그리고 본문 및 제목의 주석에는 상세 표점을 가한다.

2) 상세 표점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겹낫표 및 홑낫표(《 》, 〈 〉), 주석 표시([]), []), 밑줄(_), 쌍점(:), 쌍반점(;) 등 14가지 표점 부호를 사용한다.

3) 제목과 교감기의 표점은 간략한 방식으로 하고 본문 등과 같이 상세 표점은 하지 않는다. 즉, 본문에서와는 달리 인명, 지명 등에 밑줄을 긋지 않으며, 책·편 표시 등도 하지 않는다.

4) 각 부호의 기본 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마침표(.)

-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단구이든 복구이든, 의미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문맥에 따라 문장의 단위를 설정하여 마침표를 찍는다.
- 중간에 의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전체가 평서문일 경우 마침표를 사용한다.
- 주어가 바뀔 경우에는 가급적 마침표(.)를 표시한다.

(2) 물음표(?)

- 형식상 또는 의미상 의문을 표현하는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자문자답, 수사 의문의 형식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 선택의문문의 경우 마지막 의문문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3) 느낌표(!)

- 감탄문의 끝에 사용한다.
- 독립된 감탄 부사와 호칭 뒤에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뒤 문장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되도록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쉼표(,)

- 한 문장 안에서 의미 단락을 이루는 때 구절 끝에 사용한다.
- 주어 부분이 길어서 술어와 구분해줄 필요가 있거나, 주석에서처럼 주어가 피정의항이 될 경우 사용한다.
- 병렬구가 길 경우 중점이나 마침표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어가 글에서 새로 거론하는 일이거나 목적어가 될 때는 구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以’자, ‘而’자 등으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凡例

- 구가 짧아도 역접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문장의 호흡에 맞추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5) 큰따옴표(“ ”)

- 직접인용문에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다음 문장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문장을 형성할 때에는 큰따옴표(“ ”) 밖에 쉼표(.)를 사용한다.
- 편지에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해 인용할 경우에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에는 콜론(:)을 하지 않고 큰따옴표(“ ”)만 사용한다.
- 云云과 같은 말 줄임을 표시하는 말은 큰따옴표(“ ”) 또는 작은따옴표(‘ ’) 안에 넣는다.

(6) 작은따옴표(‘ ’)

- 큰 따옴표(“ ”) 안의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인용문에 사용한다.
- 작은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자구(字句)를 표시하는 맥락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간접 인용 등 문맥상 인용된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다만 문맥상 분명히 파악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짧은 명사구 안에서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 자기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말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으로 간주하여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7) 가운뎃점(·)

- 단어나 어구가 병렬이 되었을 때 단어와 단어, 또는 어구와 어구 사이에 사용한다.
- 가운데뎡점이 연이어 와서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가운데뎡점이 들어가는 큰 단위의 어구에 쉼표를 해서 혼동을 피한다.
- 병렬되는 어구가 길 경우, 가운데뎡점(·)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 짧은 어구에는 가운데뎡점(·)을 쓰지 않는다.

(8) 겹낫표(《 》), 홑낫표(〈 〉), 주석 표시(【 】 , [])

- 서명(書名)은 겹낫표(《 》)로 그 이외의 글,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은 홑낫표(〈 〉)로 표시한다.
-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이 겹쳐진 경우 《서명·편(篇)·장(章)》의 형태로 표시한다.
- 주석 혹은 본문 속의 구절은 ‘【 】’로 표시한다. 작자 자신 혹은 원 편집자의 原註와 후대의 주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는 ‘【 】’로, 후자는 ‘[]’로 표시한다.

(9) 밑줄()

- 인명과 지명, 왕조명, 연호, 시호 등 고유명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 관직, 부서, ‘公’, ‘生’, ‘先生’ 등 일반명사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도 밑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성(姓)과 결합하는 경우는 성에 이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사람의 성명을 지칭하는 글자가 있어도 이미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10) 콜론, 혹은 쌍점(:)

- 직접인용문을 수반하는 ‘曰’, ‘云’ 등 뒤에 콜론(:)을 사용하고 인용문 자체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 저자 자신의 按說임을 밝힌 다음에 설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今按’ 뒤

凡例

에 콜론(:) 붙여 쓴다.

- 사전의 단어 설명처럼 표제어를 앞에 놓고 그 아래에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표제어 뒤에 콜론(:)을 붙인다.
- 인용문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콜론(:)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 ”로 표시한다.
- ‘**ㄷ**’字 뒤에 앞의 단락 또는 구절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콜론(:)과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11) 세미콜론, 혹은 쌍반점(;)

- 세미콜론은 병렬문을 구분 짓기 위한 휴지를 나타낸다.

目錄

目錄

朱子書節要記疑 卷之一	1
記疑0101 (節要0101) 與延平李先生	1
記疑0102 (節要0102) 與魏元履	2
記疑0103 (節要0103) 與陳侍郎	3
記疑0104 (節要0104) 與曹晉叔	4
記疑0105 (節要0105) 與陳丞相	5
記疑0106 (節要0106) 與汪尙書	6
記疑0107 (節要0107) 答汪尙書	7
記疑0108 (節要0108) 答張欽夫	8
記疑0109 (節要0109) 答張敬夫	9
記疑0110 (節要0110) 與呂伯恭	12
記疑0111 (節要0111) 答韓尙書	13
記疑0112 (節要0112) 答呂伯恭書	14
記疑0113 (節要0113) 答鄭自明	15
記疑0114 (節要0114) 與袁寺丞	16
記疑0115 (節要0115) 與臺端	17
記疑0116 (節要0116) 與皇甫帥	18
記疑0117 (節要0117) 與丞相筭子	19
記疑0118 (節要0118) 與丞相別紙	20
記疑0119 (節要0119) 答黃教授書	21
記疑0120 (節要0120) 與王運使	21
記疑0121 (節要0121) 與顏漕書	23

記疑0122 (節要0122) 上宰相書	24
記疑0123 (節要0201) 與趙帥書	28
記疑0124 (節要0202) 答梁丞相書	29
記疑0125 (節要0203) 與陳丞相書	30
記疑0126 (節要0204) 答詹帥書	31
記疑0127 (節要0205) 與周丞相書	35
記疑0128 (節要0206) 答陳同父書	37
記疑0129 (節要0207) 與李誠父	39
記疑0130 (節要0208) 與張元善	41
記疑0131 (節要0209) 與留丞相筭子	43
記疑0132 (節要0210) 與留丞相	45
記疑0133 (節要0211) 與趙帥書	51
記疑0134 (節要0212) 與趙尙書	52
記疑0135 (節要0213) 與留丞相	53
記疑0136 (節要0214) 與王樞使謙仲	54
記疑0137 (節要0215) 與趙丞相書	56
記疑0138 (節要0216) 答李季章	57
記疑0139 (節要0217) 答黃仁卿	57
記疑0140 (節要0218) 答李公晦書	58
記疑0141 (節要0219) 與鄭參政書	59
記疑0142 (節要0220) 與李季章書	59
記疑0143 (節要0221) 與留丞相書	60
記疑0144 (節要0222) 與楊子直	61
記疑0145 (節要0224) 答張定叟	61
記疑0146 (節要0225) 答劉季章書	62
記疑0147 (節要0226) 與黃直卿	63
追錄	63

目錄

朱子書節要記疑 卷之二 65

記疑0201 (節要0301) 答汪尙書	65
記疑0202 (節要0302) 與汪尙書【己丑】	68
記疑0203 (節要0303) 答汪尙書	68
記疑0204 (節要0304) 答汪尙書論家廟	69
記疑0205 (節要0305) 答汪尙書	70
記疑0206 (節要0306) 與汪尙書	71
記疑0207 (節要0307) 與張欽夫別紙	71
記疑0208 (節要0308) 答張欽夫	72
記疑0209 (節要0309) 與張欽夫	73
記疑0210 (節要0310) 答張欽夫	73
記疑0211 (節要0311) 答張敬夫	74
記疑0212 (節要0312) 與張敬夫	76
記疑0213 (節要0313) 答張敬夫	76
記疑0214 (節要0314) 答敬夫孟子說疑義	79
記疑0215 (節要0315) 答張敬夫	80
記疑0216 (節要0316) 問張敬夫	80
記疑0217 (節要0317) 答張敬夫	81
記疑0218 (節要0318) 答張敬夫問目	81
記疑0219 (節要0319) 又論仁說	82
記疑0220 (節要0320) 答張欽夫	83
記疑0221 (節要0401) 答呂伯恭	84
追錄	88

朱子書節要記疑 卷之三 89

記疑0301 (節要0401) 答呂伯恭	89
記疑0302 (節要0402) 別紙	100
記疑0303 (節要0403) 論淵源錄	101
記疑0304 (節要0404) 答呂伯恭	102
記疑0305 (節要0405) 答劉子澄	103
記疑0306 (節要0406) 與劉子澄	104
記疑0307 (節要0407) 答劉子澄	104
記疑0308 (節要0408) 與劉子澄	106
記疑0309 (節要0501) 答陸子壽	111
記疑0310 (節要0502) 答陸子美	111
記疑0311 (節要0503) 答陸子靜	112
記疑0312 (節要0504) 答陳同甫	113
記疑0313 (節要0505) 與陳同甫	114
追錄	114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四	117
記疑0401 (節要0506) 答陳同甫	117
記疑0402 (節要0601) 與籍溪胡原仲先生	122
記疑0403 (節要0602) 與范直閣	122
記疑0404 (節要0603) 與慶國卓夫人	123
記疑0405 (節要0604) 上黃端明	124
記疑0406 (節要0605) 與王龜齡	124
記疑0407 (節要0606) 與陳丞相【一本作‘與龔實之’】	126
記疑0408 (節要0607) 與劉共父	126
記疑0409 (節要0608) 答韓無咎	128
記疑0410 (節要0609) 與芮國器【燁】	129

目錄

記疑0411 (節要0610) 答鄭景望	129
記疑0412 (節要0611) 答尤廷之【表】	130
記疑0413 (節要0612) 與郭冲晦	131
記疑0414 (節要0613) 答程可久【迥】	132
記疑0415 (節要0614) 答程泰之【大昌】	132
記疑0416 (節要0615) 答李壽翁	133
記疑0417 (節要0616) 答陳體仁	134
記疑0418 (節要0617) 答顏魯子	135
記疑0419 (節要0701) 答袁機仲【樞】	135
記疑0420 (節要0702) 答袁機仲別幅	136
記疑0421 (節要0704) 答趙提舉【善譽】	136
記疑0422 (節要0705) 答周益公	137
記疑0423 (節要0706) 答留丞相	139
追錄	139
 朱子書節要記疑 卷之五	 143
記疑0501 (節要0707) 與曾裘父	143
記疑0502 (節要0708) 答耿直之【秉】	143
記疑0503 (節要0709) 答薛士龍【季宣】	144
記疑0504 (節要0710) 答林謙之【光朝】	145
記疑0505 (節要0711) 答江元適【泳】	145
記疑0506 (節要0712) 答詹體仁【儀之】	147
記疑0507 (節要0713) 答楊庭秀【萬里】	147
記疑0508 (節要0714) 答李季章【璧】	148
記疑0509 (節要0715) 答范文叔	150
記疑0510 (節要0716) 答陳君舉	150

記疑0511 (節要0717) 與劉德修【光祖】	151
記疑0512 (節要0718) 答黃文叔【度】	151
記疑0513 (節要0719) 答徐元敏	152
記疑0514 (節要0720) 答林正夫【湜】	153
記疑0515 (節要0721) 答戴邁	153
記疑0516 (節要0722) 答林巒	153
記疑0517 (節要0723) 答呂旻	154
記疑0518 (節要0725) 答柯國材【翰】	154
記疑0519 (節要0726) 答許順之	155
記疑0520 (節要0727) 答陳齊仲	160
記疑0521 (節要0728) 答王近思	161
記疑0522 (節要0729) 答魏元履	162
記疑0523 (節要0730) 與魏應仲【元履子】	162
記疑0524 (節要0731) 答范伯崇【癸未】	163
記疑0525 (節要0801) 答劉平甫【珙】	164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六	167

記疑0601 (節要0802) 答何叔京	167
記疑0602 (節要0803) 答馮作肅	173
記疑0603 (節要0805) 答程允夫【洵】	173
記疑0604 (節要0806) 答黃子厚	176
記疑0605 (節要0901) 答胡廣仲	176
記疑0606 (節要0902) 答吳晦叔	180
記疑0607 (節要0903) 答石子重【密】	182
記疑0608 (節要0904) 答陳明仲【焯. 嘗爲侯官宰.】	184

目錄

朱子書節要記疑 卷之七 187

記疑0701 (節要0905) 答李伯諫	187
記疑0702 (節要0906) 答吳公濟	190
記疑0703 (節要0907) 答曹晉叔	190
記疑0704 (節要0908) 答林擇之【用中】	191
記疑0705 (節要0909) 答林充之	198
記疑0706 (節要1001) 答蔡季通【元定】	198
記疑0707 (節要1002) 答方伯謨【士繇】	201
記疑0708 (節要1003) 與方伯謨	202
記疑0709 (節要1004) 答梁文叔【瑒】	203
記疑0710 (節要1005) 與吳茂實【英】	203
記疑0711 (節要1006) 答任伯起【希夷】	204
記疑0712 (節要1007) 答江德功【黹】	205
記疑0713 (節要1008) 答游誠之	206
記疑0714 (節要1009) 答吳伯起	206
記疑0715 (節要1010) 答歐陽慶似【光祖】	208
記疑0716 (節要1011) 答嚴居厚【士敦】	208
記疑0717 (節要1012) 答李深卿【泳】	209
記疑0718 (節要1013) 答胡寬夫	210
記疑0719 (節要1014) 答吳德夫【獵】	210
記疑0720 (節要1015) 答楊子直【方】	211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八 213

記疑0801 (節要1016) 答廖子晦【德明】	213
記疑0802 (節要1101) 答李濱老【呂】	222

記疑0803 (節要1102) 答汪太初	222
記疑0804 (節要1104) 答呂士瞻【疎】	223
記疑0805 (節要1105) 答呂道一	225
記疑0806 (節要1108) 答黃商伯	225
記疑0807 (節要1109) 答詹元善【體仁】	226
記疑0808 (節要1110) 答潘叔度	228
記疑0809 (節要1111) 答潘叔昌	230
記疑0810 (節要1112) 答劉叔文	232
記疑0811 (節要1114) 答胡伯逢	234
記疑0812 (節要1115) 答黃仁卿【東】	235
追錄	235

朱子書節要記疑 卷之九 237

記疑0901 (節要1117) 答呂子約【祖儉】	237
記疑0902 (節要1201) 答王子合【遇】	247
記疑0903 (節要1202) 答林伯和	250
記疑0904 (節要1204) 答陳膚仲【孔碩】	251
記疑0905 (節要1205) 答滕德粹【璘】	252
記疑0906 (節要1206) 答滕德章【璘】	254
記疑0907 (節要1207) 答寥季碩【俟】	254
記疑0908 (節要1209) 答潘文叔【友文】	254
記疑0909 (節要1210) 答潘端叔【友端】	256
記疑0910 (節要1211) 答潘恭叔【友恭】	256
記疑0911 (節要1212) 答鄭仲禮	257
記疑0912 (節要1213) 答余占之	258
記疑0913 (節要1214) 答程正思	258

目錄

記疑0914 (節要1215) 答汪子文	261
記疑0915 (節要1217) 答周舜弼【謨】	261
記疑0916 (節要1218) 答董叔重【銖】	263
記疑0917 (節要1219) 答黃子耕	264
記疑0918 (節要1220) 答曹立之	266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	 269
記疑1001 (節要1221) 答萬正淳	269
記疑1002 (節要1301) 答吳伯豐【必大】	271
記疑1003 (節要1302) 答姜叔權【大中】	276
記疑1004 (節要1303) 答汪長孺【德輔】	277
記疑1005 (節要1304) 答李叔文	279
記疑1006 (節要1305) 答都昌縣學諸生	279
記疑1007 (節要1306) 答白鹿長貳	279
記疑1008 (節要1307) 答劉公度【孟容】	280
記疑1009 (節要1308) 答劉仲升	282
記疑1010 (節要1309) 答劉季章	282
記疑1011 (節要1311) 答胡季履【大壯】	287
記疑1012 (節要1312) 胡季隨【大時】	288
記疑1013 (節要1313) 答高應朝	293
記疑1014 (節要1314) 答石天民	293
記疑1015 (節要1315) 答沈叔晦	294
記疑1016 (節要1401) 答孫季和【應時】	295
記疑1017 (節要1402) 答石應之	296
記疑1018 (節要1403) 答諸葛誠之	296
記疑1019 (節要1404) 答項平父【安世】	297

追錄	299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一	301
記疑1101 (節要1408) 答周叔謹【葉公謹, 改姓字.】	301
記疑1102 (節要1409) 答王季和【鉛】	301
記疑1103 (節要1410) 答傅子淵【夢泉】	302
記疑1104 (節要1411) 陳正巳【剛】	304
記疑1105 (節要1412) 答路德章	306
記疑1106 (節要1413) 答康炳道	310
記疑1107 (節要1414) 答郭希呂【律】	310
記疑1108 (節要1416) 答時子雲	311
記疑1109 (節要1417) 答楊深父	312
記疑1110 (節要1418) 答汪子卿	313
記疑1111 (節要1419) 答趙幾道【師淵】	313
記疑1112 (節要1420) 答劉仲則【渠】	315
記疑1113 (節要1421) 答黃冕仲	315
記疑1114 (節要1422) 答楊簡卿【迪】	316
記疑1115 (節要1423) 答吳宜之【南】	317
記疑1116 (節要1424) 答徐斯遠【文卿】	318
記疑1117 (節要1425) 答趙昌甫【蕃】	319
記疑1118 (節要1426) 答徐彥章	319
記疑1119 (節要1427) 答包定之	320
記疑1120 (節要1428) 答潘謙之【柄】	321
記疑1121 (節要1429) 答楊至之【至】	321
記疑1122 (節要1430~31) 答李守約【閔祖】	322
記疑1123 (節要1433) 答劉定夫	325

目錄

記疑1124 (節要1434) 答包顯道【揚】	325
記疑1125 (節要1435) 答包詳道	326
記疑1126 (節要1436) 答包敏道	328
記疑1127 (節要1438) 答符復仲【初】	328
記疑1128 (節要1439) 答符國瑞	329
記疑1129 (節要1440) 答陳超宗	329
記疑1130 (節要1441) 答顏子堅	330
記疑1131 (節要1442) 答熊夢兆	331
記疑1132 (節要1443) 答安仁吳生	331
記疑1133 (節要1444) 答趙然道【師雍】	332
記疑1134 (節要1445) 答康戶曹【仲穎，一本無‘仲’字。】	332
記疑1135 (節要1446) 答邵叔義答邵叔義【一本無‘叔義’二字，有‘機’字。】	333
記疑1136 (節要1447) 答王德修	333
記疑1137 (節要1448) 答蘇晋叟【溱】	334
記疑1138 (節要1501) 答趙子欽【彦肅】	335
記疑1139 (節要1502) 答詹子厚	336
記疑1140 (節要1504) 答徐載叔【虞】	337
記疑1141 (節要1505) 答葉正則【適】	338
記疑1142 (節要1506) 答徐居厚【元德】	340
記疑1143 (節要1507) 答方賓王【誼】	341
記疑1144 (節要1508) 答陳師德【定】	344
記疑1145 (節要1509) 答李周翰	344
記疑1146 (節要1510) 答朱飛卿	344
記疑1147 (節要1511) 答鄭子上【可學】	345
記疑1148 (節要1512) 答林一之【揆】	346
記疑1149 (節要1513) 答李堯卿【唐咨】	347
記疑1150 (節要1514) 答陳安卿【淳】	348

追錄	350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二	353
記疑1201 (節要1601) 答楊仲思	353
記疑1202 (節要1602) 答謝誠之	353
記疑1203 (節要1604) 答陳廉夫	353
記疑1204 (節要1606) 答舒提幹	354
記疑1205 (節要1607) 答顏子壽【鑄】	354
記疑1206 (節要1608) 答李次張	355
記疑1207 (節要1609) 答方平叔【銓】	355
記疑1208 (節要1610) 答王欽之	356
記疑1209 (節要1611) 答胡平一【元衡】	356
記疑1210 (節要1612) 答楊志仁【璠】	357
記疑1211 (節要1613) 答徐子融【昭然】	357
記疑1212 (節要1614) 答宋深之【之源】	359
記疑1213 (節要1615) 答宋容之【之汪】	359
記疑1214 (節要1616) 答宋澤之	360
記疑1215 (節要1617) 答陳器之	360
記疑1216 (節要1618) 答陳器之【問〈玉山講義〉】	360
記疑1217 (節要1619) 答葉味道【賀孫】	361
記疑1218 (節要1620) 答徐居甫	364
記疑1219 (節要1621) 答徐志伯【浩】	364
記疑1220 (節要1622) 答鄧衛老【綱 問《近思錄》】	365
記疑1221 (節要1623) 答張敬之【顯父】	366
記疑1222 (節要1624) 答丁賓臣【碩】	366
記疑1223 (節要1625) 答黃嵩老	366

目錄

記疑1224 (節要1626) 答黃令裕【一作‘黃敬之’】	367
記疑1225 (節要1627) 答林正卿	367
記疑1226 (節要1629) 答程次卿	368
記疑1227 (節要1630) 答龔伯著	369
記疑1228 (節要1631) 答汪叔耕	369
記疑1229 (節要1632) 答李元翰	371
記疑1230 (節要1633) 答方履之	371
記疑1231 (節要1634) 答方若水【壬】	372
記疑1232 (節要1636) 答竇文卿	372
記疑1233 (節要1637) 答李公晦	373
記疑1234 (節要1638) 答李處謙	373
記疑1235 (節要1640) 答楊子順【履正】	374
記疑1236 (節要1641) 答吳仲【玘】	375
記疑1237 (節要1642) 答吳斗南【人傑】	375
記疑1238 (節要1643) 答輔漢卿【廣】	376
記疑1239 (節要1644) 答陳思誠【景思】	378
記疑1240 (節要1645) 答陳衛道【鞏】	378
記疑1241 (節要1646) 答陳才卿	380
記疑1242 (節要1647) 答余正叔	381
記疑1243 (節要1648) 答余方叔【大猷】	382
記疑1244 (節要1649) 答趙共父【師邦】	383
記疑1245 (節要1650) 答趙致道【師夏】	383
記疑1246 (節要1701) 答朱朋孫	385
記疑1247 (節要1702) 答周純仁	385
記疑1248 (節要1703) 答周南仲【南】	386
記疑1249 (節要1704) 答孟良夫【猷】	387
記疑1250 (節要1705) 答許生【中應】	388
記疑1251 (節要1706) 答章季思【康】	388

記疑1252 (節要1707 答杜叔高【游】)	388
追錄	389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三	 391
記疑1301 (節要1708) 答汪易直	391
記疑1302 (節要1709) 答彭子壽【龜年】	391
記疑1303 (節要1710) 答折子明	392
記疑1304 (節要1711) 答劉君房【元城之孫】	392
記疑1305 (節要1712) 答曾無疑【三異】	393
記疑1306 (節要1713) 答曾擇之【祖道】	395
記疑1307 (節要1715) 答李誠之【訖】	395
記疑1308 (節要1716) 答徐崇父【僑】	397
記疑1309 (節要1718) 答潘子善【時舉】	398
記疑1310 (節要1719) 答林德久【至】	399
記疑1311 (節要1720) 答歐陽希遜【謙之】	401
記疑1312 (節要1721) 答嚴時亨【世文】	401
記疑1313 (節要1722) 答曾光祖【興宗】	402
記疑1314 (節要1723) 答曾景建	403
記疑1315 (節要1724) 答張元德【洽】	405
記疑1316 (節要1727) 答王晉輔【峴】	407
記疑1317 (節要1729) 答杜仁仲	409
記疑1318 (節要1730) 答杜貫道	409
記疑1319 (節要1731) 答池從周	410
記疑1320 (節要1732) 答明文叔【璟】	410
記疑1321 (節要1733) 答奚仲淵	411
記疑1322 (節要1734) 答黎季忱	411

目錄

記疑1323 (節要1736) 答傅誠子	412
記疑1324 (節要1737) 答高國楹	412
記疑1325 (節要1738) 答常鄭卿	413
記疑1326 (節要1739) 答李晦叔【燁】	413
記疑1327 (節要1740) 答余國秀【宋傑】	415
記疑1328 (節要1741) 答李敬子【燁】	416
記疑1329 (節要1801) 答胡伯量【泳】	418
記疑1330 (節要1802) 答李繼善【孝述】	419
記疑1331 (節要1803) 與晏亞夫【淵】	420
記疑1332 (節要1804) 答郭子從【叔雲】	420
記疑1333 (節要1805) 答葉仁父	421
記疑1334 (節要1806) 答孫敬甫	421
記疑1335 (節要1807) 答孫仁甫【自任】	425
記疑1336 (節要1808) 答余正甫	426
記疑1337 (節要1810) 答鞏仲至【豐】	432
記疑1338 (節要1811) 答易簡	435
追錄	435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四	 439
記疑1401 (節要1812) 答何倅	439
記疑1402 (節要1813) 答江彥謀	439
記疑1403 (節要1814) 答吳尉	440
記疑1404 (節要1815) 答卓周佐	441
記疑1405 (節要1816) 答任行甫	442
記疑1406 (節要1817) 答江端伯	442
記疑1407 (節要1819) 答陳謩	443

記疑1408 (節要1820) 答劉朝弼	443
記疑1409 (節要1822) 答李好古	444
記疑1410 (節要1823) 答孫吉甫	444
記疑1411 (節要1824) 與湖南諸公論中和第一書	445
記疑1412 (節要1825~1826) 答或人	446
記疑1413 (節要1827~1828) 答劉公度	448
記疑1414 (節要1815) 答卓周佐	449
 朱子書節要記疑 續集	 451
記疑1415 (節要1901) 答黃直卿	451
記疑1416 (節要1902) 答蔡季通	464
記疑1417 (節要1903) 答蔡伯靜	476
記疑1418 (節要1904) 答蔡仲默	477
記疑1419 (節要1905) 答劉晦伯	477
記疑1420 (節要1907) 答呂東萊	478
記疑1421 (節要1908) 與田侍郎【子真】	478
記疑1422 (節要1909) 與章侍郎【茂獻】	482
記疑1423 (節要1910) 答郭察院【邦瑞】	482
記疑1424 (節要1911) 答羅參議	483
記疑1425 (節要1912) 答羅縣尉【南劍沙縣人.】	484
記疑1426 (節要1913) 與趙昌甫	484
記疑1427 (節要1914) 答江隱居	485
記疑1428 (節要1915) 與饒廷老	486
記疑1429 (節要1916) 答劉德修	487
記疑1430 (節要1917) 答方耕道	488
記疑1431 (節要1918) 答儲行之	488
記疑1432 (節要1919) 答黃子厚【銖】	490
記疑1433 (節要1920) 與劉平父	490

目錄

記疑1434 (節要1921) 與方伯謨	491
記疑1435 (節要1923) 答余景思	491
記疑1436 (節要1924) 答江清卿	491
追錄	492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五	 493
記疑1501 (節要1926) 答馮奇之【椅】	493
記疑1502 (節要1927) 與長子受之書	494
記疑1503 (節要1928) 韋齋與祝公書	495
記疑1504 (節要1930) 答李孝述繼善問目【燔之姪.】	497
記疑1505 (節要2001) 劉共甫【珙】	499
記疑1506 (節要2002) 彭子壽【龜年】	501
記疑1507 (節要2003) 魏元履【揆之】	502
記疑1508 (節要2004) 向伯元	502
記疑1509 (節要2005) 林井伯【成季】	503
記疑1510 (節要2006) 劉德修【光祖】	503
記疑1511 (節要2007) 李端甫	505
記疑1512 (節要2008) 祝汝玉	505
記疑1513 (節要2009) 劉公度	506
記疑1514 (節要2010) 蔡季通	506
記疑1515 (節要2011) 劉智夫【崇之】	506
記疑1516 (節要2012) 與長兒書	508
記疑1517 (節要2014) 程允夫【詢. ○以下講學及雜往來帖.】	509
記疑1518 (節要2015) 程欽國【後更字允夫.】	510
記疑1519 (節要2016) 彭子壽【龜年】	511
記疑1520 (節要2017) 孫季和【應時】	511

記疑1521 (節要2018) 劉子澄【清之】	512
記疑1522 (節要2019) 劉共甫	514
記疑1523 (節要2020) 何叔京【鎬】	515
記疑1524 (節要2021) 汪時法【大度】	516
記疑1525 (節要2022) 向伯元【浯】	516
記疑1526 (節要2023) 林井伯【成季】	518
記疑1527 (節要2024) 趙子欽【彥肅】	519
記疑1528 (節要2025) 方耕道【耒】	519
記疑1529 (節要2026) 鄭景明【昭先】	520
記疑1530 (節要2027) 朱魯叔	521
記疑1531 (節要2029) 忠南上人	522
記疑1532 (節要2030) 西原崔嘉彦	522
記疑1533 (節要2031) 林師魯	523
記疑1534 (節要2032) 林熙之	525
記疑1535 (節要2033) 林擇之【用中】	526
記疑1536 (節要2034) 黃商伯	533
記疑1537 (節要2035) 楊伯起	534
記疑1538 (節要2036) 葉永卿·吳唐卿·周得之·李深子	534
追錄	535

朱子書節要記疑 卷之一¹⁾

記疑0101 (節要0101 : 時事出處1) (晦庵集 卷24)

與延平李先生

〔○²⁾與延平李先生 註 先生被召〕 以監潭州南嶽廟被召也.

〔拜違〕 猶拜別也.

〔建寧〕 延平, 劍州人. 建寧府近於劍州, 故附書建寧, 俾達于延平也.

〔關聽〕 關, 猶디내다.

〔離膝下〕 母夫人在, 故云“離膝下”.

〔成文〕 作疏章也.

〔代之〕 代其義利之說.

記疑0102 (節要0102 : 時事出處2) (晦庵集 卷24)

1) 朱子書節要記疑卷之一 : 高大本에는 [소주 ‘朱子【止】之一’, 本作‘朱子書質疑’, 其下層書填‘退溪李先生’.]이 있다.

2) ○ :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與魏元履

〔○與魏元履 周葵〕 見《言行錄》. 本善類也.

〔處士〕 周葵指謂先生.³⁾

〔參政〕 周葵.

〔議論〕 朝廷議論.

〔遂初賦〕 晉 孫綽遊放山水, 作〈遂初賦〉. 後論桓
溫移都, 溫曰: “何不尋君〈遂初賦〉, 知人家國事
耶!”⁴⁾

〔一種議論〕 不正之論.

〔含糊鶻突〕 不分明之意.

〔憤憤〕 心亂貌.

〔抵當〕 猶擔當, 擔當⁵⁾國事也.

記疑0103 (節要0103 : 時事出處3) (晦庵集 卷24)

與陳侍郎

3) 處士……先生 : 高大本에는 없고 [추가 ‘處士’, 周葵指謂先生.]이 있다.

4) 何不尋……國事耶 : 《世說新語》 ‘君何不尋遂初賦, 而彊知人家國事?’

5) 抵當 : 高大本에는 [추가 ‘抵當’, 一本作‘言擔當’.]이 있다.

〔○與陳侍郎〕

〔荐臻〕 荐，猶再也，累也。

〔將一二〕 흔 6) 나 둘 ㅎ야.

〔圖回〕 挽回 乙 圖 ㄴ 7) ㄹ ㅍ .

〔爲是說〕 爲講和，獨斷國是之說者。

〔故國來蘇之望〕 故國之民，有來蘇之望，故云云。

〔議者〕 以講和爲非而議者。

〔幸而得之則〕 得戎狄之許其講和則。

〔薄物細故〕 以前日與金人爭增幣·割地·去帝號等事，爲薄物細故，而云云。

〔豪〕 8) 與毫同用。

〔迫不得已之言〕 以講和爲不得已 厶 迫 ㅎ 단 말로. 9)

〔防者〕 防乃君臣之義·父子之恩，“無復”之意，止此。

〔發號施令〕 如上文“肆然以令云云”。

〔文致〕 文，上聲。

〔本其爲說〕 爲獨斷之說。

〔重悞〕 悞與誤同。

6) ㅎ : 高大本 ‘ㅎ’

7) ㄴ : 高大本 ‘ㄴㅍ’

8) 豪 : 高大本 ‘豪分’

9) ㄹ로 : 高大本 ‘ㄹ’

〔攬〕 거르다.

〔其亦不仁〕 謂爲獨斷者.¹⁰⁾

〔應之者〕 應其獨斷之說者.¹¹⁾

〔一辭〕 猶一其言.

〔此論矣〕 國是之論.

〔不合乎此〕 不合乎國是之說.

〔邦朋邦誣〕 《周禮》之文. 邦애 朋호며 邦애서 誣호야. 朋謂朋黨小人, 指君子, 以爲邦朋邦誣.

〔斯時〕 王安石·章·蔡之時.

〔破其說者〕 破其講和·獨斷·國是三說.

〔閣下之言〕 疑陳侍郎求言于¹²⁾先生.

〔二公〕 陳·汪.

〔有所恃〕 恃二公.

記疑0104 (節要0104 : 時事出處4) (晦庵集 卷24)

與曹晉叔

10) 謂爲獨斷者 : 高大本 ‘謂爲獨斷說者’

11) 者 : 國中本1·國中本2에는 없다.

12) 于 : 高大本 ‘於’

〔○與曹晉叔 語說〕 敬夫所著《論語說》。

〔敬夫不可辭也〕 岳麓與敬夫居處不遠，故如是云云。

晉叔時爲湘西間縣尉之屬，故先生言彼處之事如此。

記疑0105 (節要0105：時事出處5) (晦庵集 卷24)

與陳丞相

〔○與陳丞相〕

〔註堂帖〕 堂，中書堂也。¹³⁾

〔修致慶問〕 陳公新拜丞相，故修致慶問，猶書問也。

〔小人〕 先生自謂。

〔祇事〕 祇事于朝也。

〔無所短長〕 無才之謂。無長處，故亦無短處。

〔之情而〕 “豈不知”之意，止於‘情’字下。

〔鼎食〕 〈象〉曰：“聖人亨以享上帝，而大亨以養聖賢。”此鼎食，指陳丞相。

13) 也：國中本1에는 뒤에 ‘帖’이 있다.

記疑0106 (節要0106 : 時事出處6) (晦庵集 卷24)

與汪尚書

〔○與汪尚書 省闈取舍〕 汪尚書爲省闈試官，時取用蘇文之人，故下文云云。

〔浮華之習〕 以文取人之事。

〔經行〕 行，上聲。經術取人事。

〔力攻之〕 力攻其經行取人也。

〔古道〕 經行也。

〔苟簡之計〕 以文取人。

〔爲法者〕 爲試官取舍者

〔下寒而〕 比偷薄浮華之習。

〔客熱〕 比經行亦爲舊習之姦。

〔貢舉之議〕 蘇東坡¹⁴⁾以科學事作貢舉議。

〔東州二先生〕 疑謂二程，亦貢舉議¹⁵⁾言。¹⁶⁾

〔此文〕 貢舉議之文。

14) 蘇東坡：高大本‘東坡’。

15) 議：諸 異本에는 뒤에 ‘之’가 있다.

16) 言：國中本1에는 없다.

《其說》 東坡之說。

《其書》 東坡之書。

《不爲非也》 以詆欺不爲非也。

《王氏之失》 疑王安石於張謐有所助，故汪尙書深詆之也。

《驗矣故》 汪尙書以取舍失正¹⁷⁾，故云驗矣。

《願忠之意》 先生自言於汪尙書處願忠之意。

記疑0107（節要0107：時事出處7）（晦庵集 卷24）

答汪尙書

《○答汪尙書》

《來歸》 歸朝也。

《既到》 到，到京也。

《在我矣》 行止在我也。我指先生。

《量而後入》 《禮記》言。◎後量，“不”字意，止此。

《明公之計》 謂“既到之後，若有所未安，則在我矣”

17) 正：高大本‘政’[추가] 一本‘政’作‘正’.]

之言.

〔老人〕 先生謂母夫人.

〔單行〕 先生獨行.

〔至彼〕 至京也.

〔○前書〕 汪尚書前書.

〔小臣〕 謂元履.

〔乃如此〕 陳俊卿, 時在相位, 故云云.

〔以遂前日之非〕 謂文過也.

記疑0108 (節要0108 : 時事出處8) (晦庵集 卷24)

答張欽夫

〔○答張欽夫〕

〔設意〕 吳才老諸書設意也.

〔樊籠〕 樊謂藩也.

〔諸公〕 謂汪·陳輩.

記疑0109 (節要0109：時事出處9) (晦庵集 卷25)

答張敬夫

〔○答張敬夫 小註 建遣使〕 建，建白也。

〔小註不得而去〕 去，去國也。

〔此蓋〕 南軒以當時當爲之策問于先生。‘此’字乃當時所當爲之事。

〔計〕 先生計之也。

〔議者〕 議請陵寢者。

〔引此〕 引《春秋》之言。但所引之意¹⁸⁾，未詳。

〔存亡〕 陵寢欽廟存亡也。¹⁹⁾

〔益盡死〕 盡死力也。

〔此語〕 宗思之語。

〔不復〕 “何患”之意，止此。

〔所論盡之〕 南軒所論盡之也。

〔彼己〕 謂宋與金。

〔萌芽〕 暴露之²⁰⁾萌芽。

18) 意：高大本‘義’

19) 存亡也：高大本에는 [추기 一本，‘存亡’註下有‘沫血’，‘沫’與‘視’同，洒面也。‘視’與‘頰’，音義同。]이 있다.

〔○²¹⁾奏草〕 南軒奏草.

〔使介〕 請陵寢²²⁾之使介.

〔追還〕 追還使介也.

〔雖不見却〕 雖不見却于君相也.

〔前議〕 乃上文云上策.

〔蓋此〕 此遣使之事.

〔會慶爲期〕 會慶乃如今誕日之名. 南軒去國, 以過會慶爲期, 故云云. 會慶, 孝宗誕日.

〔彌綸又疏〕 ‘彌’, 〈繫辭〉“終竟聯合之意”; ‘綸’, 經綸也.

〔彼²³⁾若〕 彼, 虞允文.²⁴⁾

〔四牘〕 南軒所送四牘, 四牘, 猶四簡也.

〔識事物之²⁵⁾要〕 謂格物也.²⁶⁾

〔吾人〕 謂南軒.

〔孟子手段〕 宣王好貨好色之言, 孟子不²⁷⁾言貨色之

20) 之：高大本에는 없다.

21)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22) 陵寢：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寢陵’

23) 彼：기준본에는 ‘被’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24) 虞允文：기준본에는 ‘吳允文’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25) 之：高大本에는 없다.

26) 謂格物也：國中本1 ‘謂物格’.

非，因貨色，而及爲政之端，以納於遏人欲存天理之實，故如是云云。

〔循此塗轍〕 謂上文以聲色貨利爲至戒也。

〔○造膝之規〕 皇帝所居處，一云‘青規’，一云‘青蒲’。青規之中，外人莫敢窺，后妃不敢入。漢成帝時，史丹以諫外戚事，入青規，細陳其弊云云。講席으로 造膝하는 規에 延하다. 造膝於君膝下也。

〔立說〕 學者之立說。

〔能之則〕 立說新奇，推類廣博²⁸⁾，人主能之則。

〔制於聚斂掊克之臣〕 聚斂掊克之臣，任意裁制也。

〔非泛〕 未詳。

〔金谷〕 ‘谷’與‘穀’，通用。

〔復古〕 行井法之謂。

〔施行〕 排奸進賢之事施行。

記疑0110 (節要0110 : 時事出處10) (晦庵集 卷25)

27) 不 : 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所’

28) 博 : 기준본에는 ‘搏’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與呂伯恭

〔○與呂伯恭〕

〔叨異恩〕 先生，乾道九年癸巳有旨，安貧守道，廉退可嘉，特改合入官，主管台州崇道觀。先生以改秩畀祠皆進賢賞功·優老報功之典，今無故驟得之，求退得進，於義未安，遜避逾年，上意逾堅，不得已拜命。

〔遣時〕 遣書之時。

〔是說〕 除名²⁹⁾之說。

〔姓名〕 先生姓名。

〔緣此〕 除命緣此。

〔收殺〕 收命也。

〔又思此〕 此謂癸巳有旨之事。³⁰⁾

〔四面之責〕 先生雖不得已拜命，然朋友³¹⁾而³²⁾以拜命不可事責之也。

〔如此之輕〕 輕，處身輕也。

29) 名：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命’

30) 事：高大本 ‘年’

31) 朋友：國中本1·國中本2 ‘友朋’

32) 而：高大本에는 없다.

記疑0111 (節要0111：時事出處11) (晦庵集 卷25)

答韓尚書

〔○答韓尚書〕

〔行役〕 婺源之行。

〔寵褒〕 癸巳有旨也。

〔大繆不然者〕 祕書之命也。

〔行事議論〕 賢公名卿之行事議論。

〔府中〕 建寧府也。

〔遞到〕 傳遞送到。

〔別紙〕 韓尚書³³⁾別紙。

〔所欲就者〕 著書之事。

〔已試不驗之書〕 先生雖出世而無所成功，則其所著書，人亦必以爲已試不驗之書。

〔充其數〕 乃上文一流之數也。

記疑0112 (節要0112：時事出處12) (晦庵集 卷25)

33) 韓尚書：高大本‘尚書’

答呂伯恭書

〔○答呂伯恭書〕

〔資歷〕 資，加資；歷，猶歷任³⁴⁾也。

〔仁賢〕 謂東萊。

〔狀中備見〕 狀乃申省狀也。

〔打乖〕 明道和堯夫〈打乖吟〉云：“打乖非是要安身，道大方能混世塵。陋巷一生顏氏樂，清風千古伯夷貧。客求墨妙多携券³⁵⁾，天爲詩豪剩借春。儘把笑談親俗子，德言猶足畏鄉人。”康節本意爲乖異也，明道反其意云云。康節復反明道意³⁶⁾云：“經論事業須才者，變理功夫有巨臣。安樂窩中間偃仰，焉知不是打乖人。”以此觀之，打字是爲字之意也。

〔慣却心性〕 恣意打乖之事，慣却心性也。

〔緩頰〕 不卒遽之意。

〔足以³⁷⁾〕 此恐有闕誤，不然，‘足’字恐‘所’字。

〔之功〕 於此_厶力_厶。

34) 任：高大本 ‘仕’[추가 註中‘仕’字，一本作‘任’.]

35) 券：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卷’

36) 意：高大本에는 없다.

37) 以：國中本2에는 [추가 ‘以’，唐本作‘矣’.]가 있다.

記疑0113 (節要0113 : 時事出處13) (晦庵集 卷25)

答鄭自明

〔○答鄭自明〕 名鑑. 陳俊卿壻. 鄭自明早死, 陳女再嫁羅點. 鄭·羅皆知名之士.

〔副封〕 乃鄭自明所上疏章也. 上疏者, 一件直上御前, 一件上尚書省. 上書省者, 謂之副封, 故云云. 尚書省, 如今承政院也.

〔如何爾〕 元城³⁸⁾·了翁, 比自明才辨智略³⁹⁾爲如何爾.

〔補郡〕 自明上疏之後, 卽見出補郡, 故如是之補郡.⁴⁰⁾

〔懷章〕 章, 印章也. ○朱買臣貧賤, 妻辭去. 乃西游, 爲武帝所知, 卽除爲會稽太守. 懷其印章, 夜歸會稽邸, 邸人方飲酒, 不知買臣爲太守, 多所陵轢. 一人見印綬, 大驚. 懷章之言, 出於此.

〔剴切〕 메티⁴¹⁾듯.

38) 城 : 기준본에는 ‘成’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39) 智略 : 國中本2 ‘略智’

40) 之補郡 : 高大本에는 없다.

〔不足言〕 “失”字之意，止此。

〔吾人〕 謂鄭自明.⁴²⁾

〔少日〕 猶少年也。

〔末俗易高〕 末俗에 高호미 쉽고. 俗已末矣，故所以易其爲高也。高，謂高於末俗之中也。

〔險塗難盡〕 險塗能盡，則是夷險一節，故云險塗難盡。

記疑0114 (節要0114：時事出處14) (晦庵集 卷26)

與袁寺丞

〔○與袁寺丞 簽書〕 書에 簽ㅅㅅ. 簽, 일홈 두다.

〔決遣〕 結尾也。

〔支遣不行〕 支遣을 不行.

〔官吏〕 南康官吏.

〔不聊〕⁴³⁾ 聊, 賴也。

41) 티：高大本 ‘치’

42) 鄭自明：高大本 ‘自明’

43) 不聊：高大本에는 [추기 一本, ‘不聊’上, 有‘〔睢盱〕, 《韻會》, “小人喜悅貌.”’]

〔難危〕 危키 難호모로.

〔無婦女看當〕 時令人劉氏新喪.

〔不病〕 小女及甥, 無日不病.

〔久計〕 留南康之計.

〔諸公〕⁴⁴⁾ 袁機仲勸先生, 以辭南康事作書于諸公也.

記疑0115 (節要0115 : 時事出處15) (晦庵集 卷26)

與臺端

〔○與臺端〕 侍御史, 謂之臺端.

〔欲起膏盲之疾者〕 膏盲疾호 사르믈 起호고저 호
딘대.⁴⁵⁾

〔夫人〕 猶言凡人.

〔膏盲之餘證〕 所屏去之奸惡, 乃膏盲之餘證, 非膏
盲之本根.⁴⁶⁾

〔從事於此〕 此, 謂屏去姦⁴⁷⁾惡事.

가 있다.

44) 諸公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諸公’上, 有‘〔般〕般, 移也’.]가 있다.

45) 대 : 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덴’

46) 本根 : 高大本 ‘根本’

【二豎子者】 謂曾覲·龍大淵也。昔晉君求良醫於秦，一豎子憂曰：“良醫將來，將安逃乎？”一豎子曰：“深入膏之上·盲之下，則無所憂矣。”二豎子即入膏盲之中，良醫來見晉君，診脈而言曰：“不可治也。”遂去。

【先爲術以去之】 去其良醫。

【撼而覺之矣】 撼虎而覺之矣。

【扶擿苛細】 扶擿小人之苛細。

【拂土】 ‘拂’與‘弼’，音·意同。

【不武】 武，勇也。

【九日指揮】 求言指揮也。

記疑0116（節要0116：時事出處16）（晦庵集 卷26）

與皇甫帥

【○與皇甫帥】 當時有皇甫倬·皇甫斌父子，皆爲將帥。此所謂皇甫帥，不知父子中⁴⁸⁾某人。

【山寇】 匿山潛林之盜。

47) 姦：高大本‘奸’

48) 不知父子中：高大本‘父子中不知’

〔陳太尉〕 名敏.

〔左翼軍〕 陳太尉軍名.

〔江西官兵〕 上文所云官兵，異意，乃征茶寇之江西官兵.

〔困之〕 困其茶寇.

〔湖廣之寇〕 皇甫帥所征之寇也.

〔太尉〕 皇甫帥.

〔此獠〕 獠，南蠻部落名.

〔獮〕 音션. 秋獵曰‘獮’.

〔西北〕 疑皇甫帥西北之人，故如是云云.

記疑0117 (節要0117 : 時事出處17) (晦庵集 卷26)

與丞相筭子49)

〔○與丞相筭子 符竹〕 符，或以竹爲之，故云符竹.

〔駑頓〕 ‘頓’與‘鈍’同.

〔譙責〕 ‘譙’與‘詔’同.

49) 子 : 기준본에는 ‘字’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固必〕 固必其罷免也。

記疑0118 (節要0118：時事出處18) (晦庵集 卷26)

與丞相別紙

〔○與丞相〕

〔別紙 踰涯之請〕 涯，涯分也，猶言越分。

〔某官〕 丞相。

〔七架〕 乃前後兩退柱也。

〔復修廢官〕 自南唐以後，建國庠於白鹿，且置教官，而今已久廢，故云云。

〔稍廩〕 廩，教官之廩。計日月，稍稍以給，故曰稍廩。

〔州縣云云有糜耗〕 糜乃糜費也。洞主不有其廩，則州縣將饋食，不無其弊，故云假之。稍廩略如祠官之入，則州縣不至有糜耗。

〔希濶〕 假廩事體希濶也。

記疑0119 (節要0119 : 時事出處19) (晦庵集 卷26)

答黃教授書

〔○答黃教授書〕

〔餽啗云云〕‘啗’，音담. 先生於南康抑制豪強，而黃商伯勸先生不爲，故如是云云.

〔姓高人事〕 高姓之人，亦南康土豪也. 商伯書亦問其人之事，故云云.

〔木炭錢〕 時有木炭價錢，而先生於南康說弊報司，蠲減木炭錢，而商伯書，致賀於先生可以歌頌云，故如是言之也.⁵⁰⁾

記疑0120 (節要0120 : 時事出處20) (晦庵集 卷26)

與王運使

〔○與王運使〕 名藺. 轉運使也.

〔取會〕 會，會計也. 取乃運使取其所會計之數也.

50) 也 : 高大本에는 없다.

〔本軍〕 乃南康軍也.

〔攢寫〕 攢, 聚也. 音贊, 平聲, 集聚而寫之.

〔供申〕 俵音謂之供, 報上司文字謂之申.

〔會得池州式樣〕 會得, 猶照會也. 以池州式樣, 照會於南康也.

〔所爲〕 池州之所爲也.

〔窠〕 우믈 칙.

〔收支之數〕 “遂止”之意, 止此. 收, 入數也; 支, 用數也.

〔多方措畫〕 窠名之外, 多方措畫也.

〔一面〕 猶一邊也.

〔○⁵¹⁾如此〕 乃上文官吏所言也.

〔使臺〕 乃轉運使也.

〔自謂有餘〕 遂止言窠名合收, 而不言其外多方措畫, 則是乃自謂有餘之⁵²⁾意.

〔出數〕 出數, 支用之數也. 多方添助, 以補支用不足之數, 今實供此數, 以望均給, 而未必得蒙均給也.

〔入數〕 入數, 多方措畫所收之數, 并言之也.

5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52) 之 : 高大本에는 없다.

〔上官〕 轉運使也.

〔伏念旬日〕 伏念至於旬日也.

記疑0121 (節要0121 : 時事出處21) (晦庵集 卷26)

與顏漕書

〔○與顏漕書 小註 竣事〕 竣救荒也.

〔大侵〕 五穀不升曰‘大侵’.

〔數十萬〕 數十萬錢也.

〔越人〕 浙東乃越地故云.

〔宿留〕 宿, 去聲, 淹留有所候望也.

〔帳目〕⁵³⁾ 如今儀軌也. 國有某事, 事畢後, 卽修儀軌. 帳目乃救荒之帳目. 見, 猶見今也.

〔申發〕 攢帳目畢後, 必申于省而發送也.

〔前請〕 前日求去之請.

〔觀變玩占〕 〈繫辭〉云: “君子於易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居動, 以身言.

53) 帳目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帳目’上, 有‘見攢’二字.]가 있다.

〔山佳處〕‘山’下當有‘水’字。

〔石橋龍湫以歸〕石橋在天台，龍湫在鴈蕩。天台·鴈蕩，乃一山相連處，皆台州地。台州，浙東屬州也。古詩，僧有句云：“鴈蕩經行雲漠漠，龍湫宴坐雨濛濛。”

記疑0122 (節要0122：時事出處22) (晦庵集 卷26)

上宰相書

〔○上宰相書〕疑此書當在〈與顏漕劄子〉上。

〔事幾〕猶事機也。

〔今日之政則反是〕當急而不急，不可緩而反緩也。

〔紹興〕府名。

〔使令趨走之末〕謂提舉浙東常平茶鹽公事也。

〔時也〕“恐無”之意，止此。

〔抑却〕王丞相抑却也。

〔稽緩〕稽，音計，俗云計，非。

〔墮深井〕謂漠然之意。

〔按劾不行〕按劾唐仲友文字，王丞相不舉行也。先

生行狀云：“知台州 唐仲友，與時相王淮⁵⁴⁾，同里爲姻家，遷江西提刑，未行。先生行部〔台州部〕，訟者紛然得其姦贓僞造楮⁵⁵⁾幣等事劾之。時久旱而雨，奏上，淮匿不以聞云云，故如是言之。

〔反遭中傷〕 先生反遭中傷也。

〔意所左右〕 意에 左右하느 배. 左右謂助也。

〔不可期〕 雨之來否，年之豐凶，不可期也。

〔頻年〕 猶累年也。

〔給降〕 降ヒ⁵⁶⁾ 惠也。自國給降也。

〔糴〕 音狄。

〔二廣〕 廣東·廣西也。其年二廣則⁵⁷⁾不至凶荒，故如是云云。

〔四明〕 台州地也。

〔支撥〕 撥，猶發也。發其畜積支給也。

〔與彼〕 彼謂大農也。

〔無所〕 猶無處也。

〔本利〕 米船之人，坐失本利。

54) 王淮：高大本에는 뒤에 ‘爲’가 있다.

55) 楮：高大本 ‘紙’

56) ヒ：國中本1·國中本2 ‘降’

57) 二廣則：高大本 ‘則二廣’

〔後者〕 米船之後者.

〔賞典〕 入穀者拜官之謂.

〔一策〕 賞典之一策.

〔元降〕 入穀者拜爵，乃元降詔旨，如是云云.

〔歆艷〕 브러히다

〔此策〕 賞官入穀之事.

〔二者之請〕 上文荒政中兩事.

〔饋餽之臣〕 如轉運使也. 餽，音運，野餉也.

〔苞苴云云〕 並言將帥饋餽之臣.

〔限數也〕 言無窮之意.

〔北來歸正之人〕 當時自金歸宋之人，名爲歸正之人而拜官，故如是云云.

〔正任〕 疑然⁵⁸⁾權職者，謂之正任.

〔橫行〕 未詳.

〔所聚〕 所聚之財.

〔不爲大盜積者耶〕 《莊子》語.

〔已事〕 已過之事.

〔數公〕 謂王淮輩.

〔從今觀之〕 古之人雍容云云者，從今觀之也.

58) 然：高大本‘非’，國中本2‘如’

〔泄泄沓沓〕 指王淮.

〔文武之境土〕 比周家事言之，而且〈車攻篇〉大指，有復文武之境土言，故如是云.

〔官吏〕 征盜賊之官吏.

〔漆室〕 漆室憂葵. 魯 漆室邑之女，過時未適人，倚柱而嘯曰：“魯君老，太子幼.” 隣婦曰：“此卿大夫之憂.” 女曰：“不然. 昔有客馬逸踐吾葵，終歲不飽葵. 吾聞河潤九里，漸洳三百里. 魯國有患，君臣父子被其辱，婦女獨所⁵⁹⁾避乎?”

〔嫠婦〕 晉 子太叔⁶⁰⁾曰：“嫠不恤其緯，而憂宗周之隕”，然則漆室嫠婦，非一事也.

〔顧憂〕 君之顧憂.

59) 獨所：高大本에는 [추가 註中‘獨所’，一本作‘將安所’.]가 있다.

60) 晉子太叔：今按: 기준본에는 ‘晉太子叔’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따라 고쳤다. 嫠婦에 대한 고사는 鄭나라 子太叔이 晉에 가서 范獻子와 나눈 대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이다.(《左傳》 昭公二十四年) 子太叔은 晉나라 사람이 아니라 鄭나라 사람인데 이 주석에 잘못 기록되어 있다.

記疑0123 (節要0201 : 時事出處23) (晦庵集 卷27)

與趙帥書

〔○與趙帥書〕 汝愚，時知建寧府。

〔崇安宰丞〕 崇安，建寧屬縣。宰丞，崇安之宰及丞也。

〔精舍〕 武夷精舍。

〔使檄〕 趙公檄也。

〔有所營造〕 時汝愚爲先生令崇安建造精舍，故如是云云。

〔恩煩〕 ‘恩’與‘溷’同。

〔彼等〕 小人也。

〔侍郎〕 汝愚。◎自侍郎出知建寧，故如是云云。

〔在彼〕 彼，武夷也。

〔要束〕 ‘要’與‘約’，同用。

〔圖榜〕 圖，精舍圖也；榜，如今勸資也。

〔題疏〕 勸緣 호라 호 題疏也。如今詩文也。

〔印本〕 印本乃上文僞印之本也。

〔如此〕 此，作精舍也。

〔穩便〕“具稟”之意，止此。

〔不能如法〕 能히 法다운 일ㄴ티 몬 흘디라.

〔遞〕 遞所也。

〔前諾〕⁶¹⁾ 乃上文所云“蒙喻”之意。

〔○第二 軫〕 軫，念也。

〔清俸〕 趙公之俸，本不多，故云清俸。

〔不知後生輩〕 不知常分之後生輩也。

〔創見〕 不知常分，故以疏⁶²⁾菜爲創見也。

〔劉家典庫事〕 未知何事。

記疑0124 (節要0202：時事出處24) (晦庵集 卷27)

答梁丞相書

〔○答梁丞相書〕

〔一無所進〕 進，進其言也。

〔不當出位〕 不當出位而思也。

61) 前諾：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前諾’上, 有‘〔遞〕 遞所也.』가 있다.

62) 疏：高大本 ‘蔬’

〔雖近〕 近，淺近也。

〔叵〕 不可之意。

記疑0125 (節要0203：時事出處25) (晦庵集 卷27)

與陳丞相書

〔○與陳丞相書〕

〔廉夫〕 陳丞相之孫。廉夫，名址。

〔終無意味〕 《易》則本占筮，而今之說者，則不知《易》之本意，說時徒硬說道理，故揆以人情，則終無意味也。

〔功夫也〕 “莫若”之意，止此。

〔元城劉忠定公〕 名安世，字器之。

〔寧可〕 출하리 可하.

記疑0126 (節要0204：時事出處26) (晦庵集 卷27)

答詹帥書

〔○答詹帥書〕

〔拜狀〕 拜狀于詹帥也。

〔餘庇〕 詹帥之餘庇也。猶今人之德蔭也。

〔還自三山〕 來使傳書於先生，後又往三山，故云云。

〔收拾補綴〕 其所書不滿意處，剪去，而其可者，收拾補綴也。

〔胡寫〕 亂寫也。

〔補貼處〕 其不滿意者，以好寫之字補貼之處。

〔行道〕 ‘行’，音杭。⁶³⁾

〔○如前所陳〕 此書前，有所陳之書，不知何⁶⁴⁾言。

〔上及前賢〕 當時有一人疾先生之學，上疏極陳其程學之非，故如是云云。

〔侍郎丈〕 謂詹帥。

〔消息盈虛〕 道之消息盈虛也。

63) 杭：高大本‘抗’

64) 何：高大本‘所’

〔與之〕 與之⁶⁵⁾小人也.

〔分朋樹黨〕 與先生，分朋樹黨.

〔白馬清流〕 唐昭宣二年，朱全忠殺朝士於白馬津，李振曰：“此輩清流，宜投黃河.”

〔一德大臣〕 謂秦檜也. 高宗之母邢后，以後宮生高宗，亦爲金所執去. 厥後不知生死，高宗卽位，遙尊爲太皇太后. 秦檜請和于金，金許其和而還邢后. 君臣相慶，乃忘戴天之讐. 檜自以爲功，作一德格天閣于家，取君臣一德格天心之義.

〔說經〕 先生自謂.

〔建昌學官〕 建昌縣屬南康，又有建昌府，未知指何邑. 學官亦未知何人.

〔註釋〕 諸生以詩中某言爲譏訕當時某事라 하야 註釋 하야.

〔臺諫〕 “遂爲”之意，止此.

〔用過官錢〕 用 하야 過 하다. 過字虛.

〔使府〕 詹帥所居之府.

〔書狎入案〕 欲望其使書狎于公狀，入置公狀于文案中也. 所以申公狀如此者後에 發明호려 하시미라.

65) 之：國中本1 ‘與’，國中本2에는 없다.

- 〔收索焚毀〕 收索其刊板而焚毀也。
- 〔此輩〕 小人輩也。
- 〔今日紛紛〕 論程學之非者。
- 〔風旨〕 韓侂胄之風旨。
- 〔幸修〕 “幸”字之意，未詳。
- 〔衡論〕 ‘衡’與‘橫’同。
- 〔怒室色市〕 古語云：“怒於市而色於室。”
- 〔較是非曲直〕 詹帥有此病，故如是云云。
- 〔辨者〕 不知當時所辨何事。
- 〔此言〕 信伯之此⁶⁶⁾言也。
- 〔憚於此耶〕 憚，畏屈也。此字乃上文所云此言也。⁶⁷⁾
- 〔○每經〕 經，經過也。
- 〔其正之指〕 《易》，“進退存亡，不失其正。”
- 〔上流於此學〕 此學에 上流 ㅎ야。
- 〔信鄉〕 “不當”之意，止此。
- 〔杼〕 疑當作‘柅’。《易·姤卦》云：“繫于金柅。”
- 〔稷下〕 齊地名。戰國時處士橫議，而公孫龍等居稷下，尚堅白之論，諸侯風靡膝行，莫敢當其談鋒。

66) 此：高大本에는 없다.

67) 此言也：高大本에는 [추가 一本有‘註序之，《論語說》序之也.’]가 있다.

〔甘陵〕 桓帝爲侯時，受學於甘陵 周福，及卽位，推爲尙書。時同郡房植有名，鄉人謠曰：“天下規矩房伯武，因師獲印周仲進。”二家賓客，互相譏揣成隙。由是有甘陵南北部，黨人之議始此。

〔節次〕 버검디검.

〔卽見〕 詹帥卽見也.⁶⁸⁾

〔鑄而藏之〕鑄흔 거슬⁶⁹⁾藏호미.

〔其字〕其改定字.

〔不知妄作〕謂不知而妄作著書事也.

〔怪論百出〕東萊史學，流爲管·商功利之學，故如是云云.

〔侍郎丈〕謂詹帥也.

〔高教授〕未詳.

〔開導其人〕開導諸生也.

〔伎倆〕猶言技⁷⁰⁾能.

68) 卽見也：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卽見’註下有‘繆本, 繆誤之本’.]이 있다.

69) 거슬：高大本 ‘거슬’

70) 技：高大本 ‘伎’

記疑0127 (節要0205 : 時事出處27) (晦庵集 卷27)

與周丞相書

〔○與周丞相書〕

〔報聞〕 但報其上聞，而無可否者。

〔經由〕 歷過也。

〔所被賜教〕 내게 被_히 바 賜教也。周丞相所賜之教也。

〔代者〕 先生力辭江西提刑，故朝廷以他人代之，而所代之人爲人所劾罷，故如是云云。

〔臨遣〕 引見而送，謂之臨遣。

〔有此〕 趣某躬聽臨遣事。

〔罷去〕 危惡之證⁷¹⁾，罷去也。

〔踣〕 音北. 엎더디다.

〔鴻慶守祧〕 鴻慶，宮祭。宋先祧主，故如是云云。

〔○奏記〕 上書丞相，謂之奏記；直達御前，謂之奏狀。奏記語本〈霍光傳〉，“杜延年奏記光也。”

〔先所遣人〕 先乃專人奏記之先也。

71) 證：高大本‘恐’

〔進職疏恩〕 疏，通也。進職疏恩，指轉朝奉郎。

〔奉祠得請〕 指主管西京崇福宮。

〔銜戢〕 戢，藏也。感意銜戢于中也。

〔註職名〕 乃直寶文閣也。

〔註磨勘〕 如今吏曹，計仕日出朝謝也。

〔欬然〕 音坎。欬然，不自滿之意。

〔彼黜己升〕 除兵部郎，以足疾丐祠，未供職。本部侍郎林栗，前數日與先生論《易》·〈西銘〉不合，至是遣吏抱印，迫以供職。先生以疾告，遂疏先生欺慢。時上意方嚮先生，欲易以他部郎，時相〔周必大〕竟請授以前江西之命，仍舊職名。先生行且辭曰：“論者謂‘臣事君無禮’，爲人臣子，有此名，罪當誅戮，豈可復任外臺耳目之寄？”章再上，除直寶文閣主管西京嵩山崇福宮，栗亦罷。◎栗劾先生，故事無侍郎劾本部郎者，滿朝駭笑之。於是左補闕薛叔似·太常博士葉適·侍御史胡晉臣，相繼論栗，黜⁷²⁾知泉州。

〔鞶帶〕 訟之上九曰：“或賜之鞶帶，終朝三褫之。”傳云：“設或使之善訟能勝，至於受服命之賞，是亦與人仇爭所獲，其能安保乎？”故如是云云。

72) 黜：기준본에는 ‘黜’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근거하여 고쳤다.

〔近制〕 近來朝制也.

〔此等遷除〕 謂除直寶文閣主管崇福宮，轉朝奉郎也.

〔大抵〕 此下言周丞相私厚於先生之非.

〔倍費財處〕 倍히 財處호를 費호야.

記疑0128 (節要0206 : 時事出處28) (晦庵集 卷27)

答陳同父書

〔○答陳同父書〕

〔自看一過〕 先生言其所上封事，自看一過也.

〔難行〕 封事中所言之事，難行.

〔罷休矣〕 封事中所言之事，八九分罷休矣.

〔不如所料〕 所料⁷³⁾乃罷休，不如所料，是封事中所言之事皆舉行之謂.

〔來教所云〕 同父之書，望先生以出仕，故如是云云.

〔間界〕 힘힘흔.

〔閒漠〕 閒暇호를 놔.

73) 所料 : 國中本1에는 [추가 與本文不同.]이 있다.

〔恐爲豪士所笑〕 同父書，以先生之不仕，恐爲豪士所笑云，故云云.

〔○⁷⁴應文〕 只應文法也.

〔僥冒〕 乃召命也.

〔無乃太早計〕 《莊子》，“見卵而求時夜，見彈而求鶚炙”，無乃太早計乎？

〔思之〕 先生思之也.

〔麤拳大踢〕 麤拳，猶大拳也. ‘踢’，音唐，又音宕，搶也. 搶，飛掠也.

〔無此伎倆〕 伎，能也，謂孔子之至公血誠，孟子之麤拳大踢也.

〔勾當〕 猶言主管. 如曹彬伐南唐，迴閣門，通榜子曰：“奉勅江南，勾當公事回.⁷⁵⁾”亦主管之意.

〔奈何不下〕 猶言아무리티 못하다.

〔不相識〕 與我不相識.

〔推排〕 밀며 번⁷⁶⁾바다 올이다.

〔虛聲〕 先生自謂.

〔彼去都城〕 彼，同父所居之地.

7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75) 回 : 高大本에는 없다.

76) 번 : 國中本2 ‘벗’

【爻象】言時事之⁷⁷⁾吉凶消長，可應《易》卦之某爻某象也。

【見訪於蘭溪】先生再辭不得而赴召命，同父來訪於蘭溪。

【到彼】到蘭溪也。

【大意】“先得”之意，止此。先乃未相見之先也。大意乃講論之大意也。

【閒追逐】힘힘이⁷⁸⁾ 追逐흠두곤⁷⁹⁾ 勝호리라. 追逐，猶追隨也。

記疑0129 (節要0207：時事出處29) (晦庵集 卷27)

與李誠父

【○與李誠父】

【六察之聯】六察官，唐大曆十四年，監察御史分察尚書省六司，號曰六察官。興元元年，以第一人察吏·

77) 之：高大本에는 없다.

78) 힘힘이：高大本 ‘힘힘히’

79) 흠두곤：高大本 ‘흔두곤’

禮部，第二人察兵·工部，第三人察戶·刑部。又唐〈百官志〉云：“監察御史，其一察官人善惡，其二察戶口流散·帳籍隱沒·賦役不均，其三察農桑不勤·倉廩耗減，其四察妖猾盜賊，不事生業，爲私蠹害，其五察德行孝悌，茂才異等，藏器晦迹，應時用者，其六察詰吏豪兼并縱暴，貧弱冤苦，不能自伸者。”〔見《翰墨全書·官職門》〕。‘聯’，《周禮·小宰篇》云：“以官府之六，聯合邦治。”註賈氏曰：“官府中有六事，皆聯事通職爲之”，劉迎曰：“用人最多，分職最衆，所以聯事合治。”黃氏曰：“凡官府之相開通者，聯合之。”

〔先生〕 延平。

〔門人弟子〕 先生自謂。

〔一意〕 흥글ㄴ타。

〔無徇常日往還厚善之私〕 當時當國之奸，乃誠父常日往還厚善者也。其當國之奸，疾其監察御史之正言，乃劾去，以誠父代其任。先生之意，謂誠父懦弱，必不能直言，故上下書如是云云。

〔除用〕 謂除監察御史。

〔胡公論事〕 疑胡晉臣爲侍御史時，與左補闕薛叔似·太常博士葉適，相繼論林栗出知泉州。

《二小諫》 小官⁸⁰⁾乃諫官之亞官，故云小官。⁸¹⁾ 但未知何人。

《遂其言》 胡公乃不能遂其言也。言⁸²⁾二諫之去也。

《薛許》 薛乃上文所云薛叔似也。許未詳何人。

記疑0130 (節要0208：時事出處30) (晦庵集 卷27)

與張元善

《○與張元善》

《狀稿》 乃辭狀草。

《立節抗論》 元善以先生辭狀爲立節抗論，故云云。

《却非事實》 非實事之謂。

《清源》 元善望先生以清源，故云。清源，謂清其國本也。

《中》 朝廷也。

《對班》 自唐後，經筵之官，對朝班而奏事，故經筵

80) 官：國中本2 ‘諫’

81) 官：國中本2 ‘諫’

82) 言：高大本에는 [추가 註‘言’字下, 一本又有‘言’字.]가 있다.

之講，謂之對班。

〔來書所云〕來書言經筵所論之事，故云云。

〔非甚利害〕言不切當也。

〔江夏〕黃姓人，謂之江夏，如云隴西之李。時黃姓人以奸⁸³⁾黨升職，故云云。

〔不犯手勢〕當國之奸，不犯手勢也。猶言손뎌 저치디 아니햐셔。言不露形迹而能爲其事也。

〔幹旋〕‘幹’與‘幹’同，音알。

〔運轉〕謂黜陟也。

〔彼之〕謂吾黨中人。

〔亦止如此〕止於隱忍回互也。

〔奮發直前〕如二諫之人。

〔禍根〕謂奸黨也。

〔却未必不做得事也〕言猶⁸⁴⁾做事之理。

〔境外之事〕謂金事也。

〔諉〕托辭也。

〔無後段〕當時主和議之姦諉曰：“今假令一得伐金，國勢孤弱，不可連征屢伐，是無後段之論。”

83) 奸：高大本‘姦’

84) 猶：國中本2‘有’

- 〔此輩〕 謂奸黨輩.
〔遷後〕 遷監察御史後.
〔渠〕 誠父.
〔鄰居〕 謂當國之奸.
〔不爲所使〕 不爲當國之奸所使.
〔虞丞相〕 允文也. 虞丞相優游於兩間之人也.
〔憤憤〕 心亂也.
〔以是〕 以御史.
〔其黨〕 允文之黨.
〔遂并攻之〕 遂并攻其虞允文也.
〔道氣〕 爲道學者, 指目爲此人有道氣也.

記疑0131 (節要0209 : 時事出處31) (晦庵集 卷28)

與留丞相劄子

- 〔○與留丞相劄子⁸⁵⁾〕
〔假守〕 不欲久留之計, 故云假守.

85) 子 : 《記疑》의 諸 板本에는 ‘字’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歲月〕 “意謂”之意，止此。

〔依準通融蠲減指揮〕 通融蠲減，乃先令州縣各會計金穀出納之數，然後通融合計州縣所會計金穀之數，蠲減其多而增益其寡者，蓋均其民力之意。指揮乃詔書指揮也。◎通融蠲減하라 하신 指揮를 依準하야.

〔上供〕 如今貢物，謂之上供。⁸⁶⁾

〔科茶錢〕 茶價로 놀화⁸⁷⁾받는 錢.

〔及減無額經總制錢之額〕 無額，無本額也，乃非正賦之謂。蓋靖康之亂，金谷盡蕩，高宗之初，軍糧難辦，命遣陳姓人爲經制使，〔其名未詳〕措置金谷。陳奏曰：“若正賦之內，則金谷之辦，計無所出，請又收其常賦外之⁸⁸⁾錢，姑用今年，而罷此法云云。”朝廷施行之。陳之父嘆曰：“民之憔悴，自吾子始。”其後非徒不罷經制錢，又遣總制使，又收其經制外之錢，民之出錢，蓋三倍也。

〔相度〕 相視也。

〔是皆〕 并言上文上供・科茶・經總制錢・經界也。

〔首鼠〕 鼠欲出穴而畏人，首出還入，出入無定，故

86) 上供：高大本에는 [추가 註‘上供’，一本作‘供上’.]이 있다.

87) 놀화：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놀와’

88) 外之：高大本・國中本2 ‘之外’

多疑謂之首鼠。

〔行下〕“欲得”之意，止此。

〔版曹〕戶部。

〔滿散錫宴〕當時令州縣定日，或設醮祭，或設僧家水陸會，又令州縣之宰往參焉，皆是祝上之事。及其定日之日滿，而來會者將散，則又令州縣錫宴，蓋會享之事也。先生以病不參，故如是云云。

〔批判〕公事結尾，謂之批判。

〔就木〕入棺之謂。

〔某官〕謂留丞相。

記疑0132（節要0210：時事出處32）（晦庵集 卷28）

與留丞相

〔○與留丞相〕

〔臨庇〕荷留丞相臨庇也。

〔私計不便〕指言哭子悲傷而仍在官，是爲私計不便。

〔干冒威嚴〕吐口。卽上書所云“乞罷請祠”也。

〔爲患〕 “又蒙”之意，止此。

〔上之人〕 並謂君相。

〔反爲所擠〕 反爲惡朋黨者之所擠擯也。

〔紹聖〕 哲宗年號。

〔未能不以朋黨爲慮〕 留丞相未能不以朋黨爲慮。若以朋黨爲慮，則恐不能合天下之人·濟天下之事，故如是云云。

〔干祿之章〕 如殿策之類。

〔誣〕 誣陷也。

〔出語〕 留丞相向先生出語也。

〔似不爲無可取者〕 丞相以先生似不爲無可取者。

〔○⁸⁹紹興〕 南宋 高宗年號。

〔忠簡公〕 趙鼎。

〔○七月四日〕 自漳歸寓建陽 同由橋時。

〔省筭〕 中書省筭記也。不許辭狀之筭記。

〔所請上還進職恩命〕 進職恩命을 上還하야지라 흔 마를.

〔建寧〕 崇安屬府。

〔不願爲忠臣之說〕 魏徵謂唐 太宗曰：“臣幸得奉事

89) ○ :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陛下，願使臣爲良臣，勿爲忠臣。”上曰：“忠·良有以異乎？”對曰：“稷·契·皋陶，君臣協心，俱享尊榮，所謂良臣。龍逢·比干，面折廷爭，身誅國亡，所謂忠臣。”太宗大悅。當時亦有以不願爲忠臣之說言於上前，故如是云云。

〔當〕 上聲。

〔小人過計之憂〕 先生自謂。

〔其人〕 上文所云朝士也。

〔門牆〕 留丞相門牆也。

〔當是其時〕 出入門牆之時。

〔未有此⁹⁰論〕 不願爲忠臣之說。

〔格心〕 格君心。

〔諸有〕 諸，謂諸人。

〔前記〕 記，奏記也。

〔縟〕 蕃盛也。

〔九年之間〕 指元祐。

〔靖康〕 欽宗年號。

〔建炎〕 高宗年號。

〔無此〕 無此九年之事也。

90) 此：기준본에는 ‘如’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元豐〕 神宗年號.

〔紹聖〕 哲宗年號.

〔嘉祐〕 仁宗年號.

〔不至朝廷〕 兼用小人，故禍不至於朝廷也。“有論”之意，止此.

〔此舉〕 ‘並用異趣’之事也.

〔慶曆〕 仁宗年號. 若盡用韓·富之徒，則卒就慶曆云云.

〔熙寧〕 神宗年號. 若無王安石·蔡京，則盡革熙寧云云.

〔秕政〕 糠秕之政.

〔太甚〕 留丞相以爲元祐之失在於分別太甚也.

〔遇〕 指〈姤卦〉. 姤之爲言，遇也.

〔其黨〕 小人之黨.

〔○省筭〕 省，中書省；筭，筭記也.

〔仰體〕 仰⁹¹⁾體得也.

〔委曲〕 委亦曲字之意. 고비고비.

〔祓〕 音不，祓除不祥也.

〔告命〕 與誥命之意同，宮觀之誥命也.

91) 仰：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體’

〔小註〔拜祠命〕〕 宮觀也.

〔註〔辭職命〕〕 秘閣修撰也.

〔解組〕 遞知漳州也.

〔同由〕 同由橋在建陽.

〔灑掃之勞〕 魏勃事見上.

〔以伸報效〕 以伸其報效也.

〔調停〕 調和均停也. 元祐末, 呂大防以丞相, 首爲調停之說, 欲和解君子小人之黨也. ◎按哲宗 紹聖·元符中, 章·蔡得志, 治元祐黨人, 極矣. 徽宗初政清明, 稍進正人, 逐章·蔡. 時議者以爲元祐·紹聖均有所失, 欲以大公至正⁹²⁾, 消釋朋黨, 遂詔改明年元爲建中靖國. 由是邪正雜進, 未幾君子盡逐, 而滿朝皆小人云云.

〔持平〕⁹³⁾

〔窮勝事樂清時〕 劉禹錫詠裴度詩云: “林園窮勝事, 鍾鼓樂清時.”

〔○其言之不効〕 其言乃因致謝罄鄙懷之言也. 卽前書中“深觀《大易》陰陽消長·否泰往來之變”以下之言也. 丞相未見前書之前, 業已忠誠感格天意爲回, 則是

92) 至正: 高大本‘正人’

93) 持平: 기준본에 풀이가 없으나, 高大本에 ‘調均之意’라는 풀이가 있다.

前言之不効也。故云“其言之不効”。

〔前日之論〕 前書中所論也。

〔抵巇〕 抵，猶投至也。

〔間於其間〕 ‘自非’意，止此。

〔進對〕 進君前而論對也。

〔近習織人〕 織人，小人。

〔以助其勢〕 小人之勢。

〔清言路〕 “絕無”之意，止此。

〔助者〕 그 可히 니라씨곰 公道의 助 者를。

〔蹞步之間〕 ‘蹞’，音企，卽‘跬’字。蹞步，半步也。
“不能留”之意，止此。

〔欲求千里之外〕 善人爲公道之助者，不能留半步之間，而求去千里之外也。

〔甚惡之人〕 泛指善類也。

〔彼亦〕 謂小人。

〔其勢〕 君子之勢。

〔害己〕 害小人之己也。

〔眴〕 與‘瞬’通用。

〔來者至者〕 君子之來者至者。

〔已除〕 已除官也。

- 《射人云云禽王》 杜詩。
《學士大夫》 學士及大夫也。
《上心》 乃治小人之本原也。
《疾攻》 疾攻小人也。

記疑0133 (節要0211：時事出處33) (晦庵集 卷28)

與趙帥書

- 《○與趙帥書 經界一事》 先生前知漳州時，嘗報稟經界，而竟不施行，故云云。
《一人之訴》 指吳禹圭也。
《亦合》 또 혼 말당이。
《押下諸司》 押，如今押領人以去。
《教誘資給》 教誘資給乎吳禹圭也。
《誣罔》 誣罔朝廷也。
《施行》 施行經界可否事。
《此人》 吳禹圭。
《丞相》 疑指留正，下文所云亦同。

〔相知〕 與先生相知也.

〔自他者〕 他, 猶外也.

〔林黃中〕 栗見上.

〔侍郎〕 謂趙帥也.

記疑0134 (節要0212 : 時事出處34) (晦庵集 卷29)

與趙尙書

〔○與趙尙書 不然〕 卽⁹⁴⁾勸得人主, 收拾身心, 保惜⁹⁵⁾精神也.

〔患害者〕 “唯其”之意, 止此.

〔學校之政〕 趙尙書, 時建議學校之政, 故云云.

〔此等事〕 如學校之政.

〔任事〕 任學校之事者.

〔行之〕 行學校之政.

〔慮之〕 慮其將來姦弊之生.

94) 卽 : 國中本2 ‘不能’

95) 惜 : 기준본에는 ‘措’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未知所以爲計〕 未知所以爲防姦弊之計也。

〔爭此嘗試疏闊之策〕 이 말⁹⁶⁾보 試ᄃᆞᆫ 疏闊之策을
爭ᄃᆞᆫ야. 嘗試疏闊之策，乃學校之政也。

〔合變〕 變乃事變也。

〔簡貴自重〕 簡，略也。謂略於待士之禮而以貴重自
高。

記疑0135 (節要0213：時事出處35) (晦庵集 卷29)

與留丞相

〔○與留丞相〕

〔方拙〕 方, 모나다.

〔戊申之夏〕 爲林栗所劾時。

〔不堪劇部爲辭〕 除江東轉運副使，以疾辭，故云云。

〔郡符〕 知漳州。

〔高公〕 高登，宋朝死節人。○事見《大全》。

〔讒賊〕 吳禹圭。

96) 말：國中本1・國中本2 ‘맞’

- 〔瑣瑣姻婭〕 泛指留相鄉⁹⁷⁾親之因緣請托者.
- 〔匹夫〕 先生自謂.
- 〔粗伸己志〕 不欲出仕, 先生之志也. 故以再辭爲粗伸己志云.
- 〔來歸〕⁹⁸⁾ 來歸于朝廷也.
- 〔以稱所蒙〕 稱, 上聲; 蒙, 蒙恩也.
- 〔前事〕 經界不行事.
- 〔今茲之事〕 見《宋史》.
- 〔啓擬謙尊〕 留丞相於先生有⁹⁹⁾啓擬之恩・謙尊之美也. ○謙, 《易謙·卦》, “尊而光, 卑而不可踰.”
- 〔門墻〕 “母使”之意, 止此.
- 〔所有〕 吏文니의여.
- 〔將上〕 將하야 上하다. 將省狀上于御前.

記疑0136 (節要0214 : 時事出處36) (晦庵集 卷29)

與王樞使謙仲

97) 鄉 : 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門’

98) 來歸 : 기준본에는 ‘歸來’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99) 有 : 高大本 ‘處’[추가 註‘處’字, 一本作‘有’字], 國中本2 ‘處’

〔○與王樞使謙仲 註¹⁰⁰⁾行在 〕 卽臨安。

〔脩門〕 楚都城門名。宋玉〈招魂〉：“魂兮歸來，入脩門些。”故後世復因謂國門爲‘脩門’。

〔閔勞〕 王樞使閔勞于先生也。

〔職務〕 乃煥章閣待制也。

〔湘西精舍〕 湘西在潭州。先生爲湖南安撫使知漳州¹⁰¹⁾時，嘗建造精舍，而未畢其役，故云云。

〔漕臺〕 漕臺，如今監司也。轉運使兼風憲之任，故云云。

〔昨欲〕 昨乃言先生在潭州時。

〔廟祀〕 於湘西精舍廟祀一二忠賢云云。

〔委官相視〕 委送官于其處，相視也。

〔二事〕 乃上文俾遂其役，乃¹⁰²⁾廟祀忠賢¹⁰³⁾之事。

〔并幾〕 幾與冀通用。

100) 註：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01) 漳：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漳’疑作‘潭’字.]가 있다.

102) 乃：國中本2 ‘及’；高大本에는 [추가 ‘乃’，一本作‘及’]이 있고, 國中本1에는 [추가 ‘乃’疑作‘及’.]이 있다.

103) 賢：기준본에는 ‘順’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1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記疑0137 (節要0215 : 時事出處37) (晦庵集 卷29)

與趙丞相書

〔○與趙丞相書 註批與〕 批, 寧宗御筆自批也.

〔註依舊〕 前爲煥章閣待制, 故云云.

〔註復辭〕 復辭待制也.

〔獻歲發春〕 見《楚辭》. 獻, 猶進也. 舊歲退而新歲進也.

〔鐫職之請〕 卽鐫去職名之請.

〔特從所請〕 卽祠官之請.

〔復有祈¹⁰⁴⁾懇〕 卽復辭鴻慶宮之請.

〔祧祖之議〕 親盡出廟之主, 謂之祧. 祧者, 超然遠去之義.

〔太廟毀折〕 紂始祖之謂.

〔記府之問〕¹⁰⁵⁾ 記府, 丞相下官, 如今不敢直稱尊官, 而稱下執事也.

104) 祈: 기준본에는 '所'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105) 記府之問: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記府'上, 有'〔後省〕門下省'.]이 있다.

記疑0138 (節要0216：時事出處38) (晦庵集 卷29)

答李季章

〔○答李季章 計此形勢云云止幾許時耳〕 言今善類皆逐，以此形勢計之，必與季章相關涉而並見逐矣。但不知能復幾時而見逐耳。言必見逐，所未知者，久近如何耳。集賢，季章也。

記疑0139 (節要0217：時事出處39) (晦庵集 卷29)

答黃仁卿

〔○答黃仁卿〕

〔事體郎當〕 郎當，猶狼藉。헤적시다.

〔自家亦立不住〕 自家指趙汝愚。

〔此公有憂國〕 此公亦指趙。

記疑0140 (節要0218 : 時事出處40) (晦庵集 卷29)

答李公晦書

〔○答李公晦書〕

〔別紙封贈奏補磨勘〕 封贈，如今父母追贈；奏補，如今子弟代加；磨勘，書上。

〔次對〕 經筵以次入對，故云次對。次對恩數上三者，皆所寵待經筵官之恩數也。

〔講職〕 經筵官也。

〔職名〕 煥章閣待制，侍從職名也。◎前日先生以煥章閣待制兼侍講，其後降爲秘閣修撰。

〔侍講¹⁰⁶⁾〕 講職也。

〔侍郎〕 六部侍郎也。

〔給舍〕 給事中，中書舍人也。

〔論撰職名〕 秘閣修撰也。

〔鄧舍¹⁰⁷⁾〕 鄧駟也。

106) 講：高大本에는 [추가 ‘侍講’之‘講’字，疑當作‘從’，不然則‘侍’上當有‘註’字.]가 있다.

107) 鄧舍：高大本 ‘鄧舍人’

記疑0141 (節要0219：時事出處41) (晦庵集 卷29)

與鄭參政書

〔○與鄭參政書 大戾〕 大罪。

〔許以再上〕 趙公許先生以再上辭職名之奏牘也。

〔○第二書 一二鉅公〕 如韋齋所屬三公及延平諸先生，是也。

記疑0142 (節要0220：時事出處42) (晦庵集 卷29)

與李季章書

〔○與李季章書〕

〔史院〕 是時先生兼實錄院同修撰，故同僚來餞耳。

〔餞別靈芝〕 初，先生以煥章待制侍講供職，經筵事事規諫，寧宗畏憚，加以侂冑譖毀。一日忽御批曰：“卿耆艾，恐難立講，已與卿宮觀。”宰相奏臺諫給舍爭留之際，其命未行，故出靈芝待命之時也。

【季章未也】 先生自謂吾老故知此味，季章盛年，宜不知此味也。

【解携】 猶言分袂也。

【隱侯之言猶¹⁰⁸未盡】 先生更思之，臨別，但一人有衰暮之歎，足使滿座皆惡懷。是別也，吾一人衰暮，宜乎季章懷抱之惡也。然則隱侯詩必以同衰暮爲言，是爲猶未盡也。

記疑0143（節要0221：時事出處43）（晦庵集 卷29）

與留丞相書

【○與留丞相書】

【註誤連染】 ‘註’，音卦，亦誤也。爲人所誤，曰‘註誤’。

【杜門循習】 循習，循不違之意。舉世見攻，無可奈何，順而循之，習以爲常，故謂之循習。

108) 猶：高大本·國中本2 ‘猶有’

記疑0144 (節要0222 : 時事出處44) (晦庵集 卷29)

與楊子直

【○與楊子直】

【去下致仕文字】 去下，疑¹⁰⁹⁾猶言往致之意。但此等處宜用上字，却用下字，此不可曉。必是俗語如此耳。

【不知尚及拜受否也】 言已病重，不知未死之前，尚及拜受致仕之命與否也。

記疑0145 (節要0224 : 時事出處46) (晦庵集 卷29)

答張定叟

【○答張定叟 忠獻公】 張浚。

【荷知遇之意不薄】 雖未及¹¹⁰⁾趨拜，而必曾有獎許之及，故云然。

109) 疑：高大本에는 없다.

110) 及：高大本‘必’

〔姑出此下計〕 謂掛冠之請.

〔燕居深念〕 用陳平圖制諸呂時語.

記疑0146 (節要0225 : 時事出處47) (晦庵集 卷29)

答劉季章書

〔○答劉季章書〕

〔子壽〕 姓彭, 名龜年.

〔湖南所按吏〕 吏姓名林采, 先生爲湖南按撫時, 嘗按治其罪者.

〔體量改正〕 體量, 猶今推考.

〔勸其且急收藏〕 令季章勸晉輔收藏也.

〔橫起猜疑〕 ‘橫’, 去聲, 不以理也.

〔書中枉費心力分疏〕 謂已實背正向邪, 而來書中力爲發明其不背正而¹¹¹⁾向邪之意.

111) 而 : 諸 異本에는 없다.

記疑0147 (節要0226 : 時事出處48) (晦庵集 卷29)

與黃直卿

〔○與黃直卿 知己至三山〕 福州 閩縣謂之三山，以其有九仙山·烏石山·越王山故也。直卿，閩縣人，時挈家歸，故云一行安樂。

〔礪砂巴豆〕 皆毒藥名。

〔泰兒〕 疑是埜小字。是時埜已卒。

追錄

〔沈約詩 分手易前期〕 易，忽也，言易別也。

〔非復別離時〕 宋預聘吳，孫權捉預手曰：“今君年長，孤亦老，恐不復相見。”正此意也。

〔夢中不識路〕 《韓非子》曰：“六國時，張敏與高惠二人爲友，每相思不得見。敏于夢中往尋，但行至半道，卽迷不知路，遂如此者三。”

〔無麪之不托〕¹¹²⁾ 喫大碗不托。按，‘不托’或作‘飢

112) 無麪之不托 : 이 조목의 내용은 《定本 退溪全書》7, 〈答李剛而問目〉【《朱

飣’，食物名．麪卽麥末，卽所以爲不托者也．言‘荒政所謂廣糴·米賞·納穀等事，宰相一切不聽，則米穀無從而得之．旣無米穀，雖欲救荒，不可得也．’故云‘某不能爲無麪之不托．’

書》】〉(KNL0760)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朱子書節要記疑 卷之二

記疑0201（節要0301：汪張問答1）（晦庵集 卷30）

答汪尙書

〔答汪尙書 疑晦未祛〕 祛，去也，開也。先生自謂。

〔感戢〕 戢，藏也。感心藏于中也。

〔亡已〕 ‘亡’與‘無’同。

〔必有如此〕 彼之安於釋氏，如吾安於此也。

〔若曰〕 이리 너겨 니르니라. “若曰”之意，止於“克已也”之下。

〔參請〕 亦佛語。彼之問道於師，參謁而請學也。

〔語錄〕 上蔡語錄。

〔此句〕 此句謂上蔡所云止觀之說。

〔叢林〕 僧會之處，謂之叢林。

〔楞嚴圓覺〕 ‘楞’，音能。《楞嚴》·《圓覺》，二經名。

〔以資已學〕 上文“正如”之意，止此。

〔○¹未足於言也〕 言^庚足^地2) 묻³홀가 恐ッタ。

〔益推〕 益推其心也.

〔物必格云云後盡〕 孟子言: “舜明於庶物, 察於人倫.” 此言蓋出於《孟子》.

〔於此〕 謂學問.

〔俟之〕 乃上文所謂“俟其廓然”之‘俟’.

〔較然〕 ‘較’, 音却, 較然, 明也. 《漢書》云: “較然, 明甚.”

〔○⁴〕第三 見解眞實〕 見解謂知也, 眞實謂行也. 彼之爲說者, 自以爲見解眞實, 有過於吾學也.

〔他求之賊道〕 他 ^{乙5)} 求乎未 道 匪 賊.

〔不若〕 곧⁶⁾디 아니타 너기니.

〔王務家私〕 國之公務·家之私事.

〔兩蘇〕 軾·轍.

〔王氏〕 安石.

〔此乃淺陋〕 淺陋, 先生自謂.

〔俳優〕 난재.

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2) 地 : 國中本2 ‘디’

3) 몬 : 國中本2 ‘뭇’

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5) 乙 : 高大本·國中本2 ‘릴’

6) 곧 : 高大本·國中本2 ‘긔’

《本不足以惑衆》 幾類俳優，故본⁷⁾ 足⁸⁾ 衆⁹⁾ 乙¹⁰⁾ 고.

《出入有無》 有無，猶言道器有無也。

《薛昂》 王黨之極者。

《金陵》 謂王安石。

《李薦》 ‘薦’，音泰，與‘多’同。

《捭闔》 ‘捭’，音斗，與‘擺’同。捭闔，猶闔闢也。

《厭其心》 厭，益涉切，伏也。

《○彼之粗角其精》 彼·其字，皆謂佛氏。下彼·其字，亦同。

《孫石》 孫明復·石守道。孫號泰山處士，石號組練¹¹⁾先生。

《束縑》 묻근 소음.

《差其罪》 差，差等也。

《工訶》 訶ッ기를 工ッ夕.

《求益》 求益於我也。

7) 딴：國中本2 ‘딴’

8) 乙：高大本 ‘乙’

9) 治：國中本2 ‘디’

10) 묻：國中本2 ‘뭉’

11) 組練：高大本 ‘徂徠’

記疑0202 (節要0302 : 汪張問答2) (晦庵集 卷30)

與汪尚書【己丑】

〔○與汪尚書己丑 第二義看〕 乃作第一義看也.

〔先生自言〕 先生謂二程也.

記疑0203 (節要0303 : 汪張問答3) (晦庵集 卷30)

答汪尚書

〔○答汪尚書 大段〕 마장.

〔文理¹²⁾密察〕 文ッ古 理ッ古 密ッ古 察ッ古.¹³⁾

〔卽西銘〕 卽, 就也.

〔平易蹉過〕 平易, 不恐懼戒謹而尋常平易也. 蹉ッ也 過ッタ, 그럭 하야 디내단之意. 先生前有平易蹉過之論. 先生之意, 以爲不戒恐謹¹⁴⁾懼, 而尋常平易, 則

12) 文理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文理’上有‘此序’.]가 있다.

13) 察ッ古 : 國中本2 ‘하야’ ; 高大本에는 [추가 ‘察ッ古’, 一本作‘察ッ타’.]가 있다.

14) 恐謹 : 高大本 ‘謹恐’

蹉過也。欲使人常守恐懼戒謹而不平易也。汪公語及此論，而稱許甚過，故如是云云也。

《易於近》近乙¹⁵⁾輕易屏 너기다.

《忽然有見》猶一超頓悟也。

《卒道其言》¹⁶⁾卒道明道之言也。

記疑0204 (節要0304 : 汪張問答4) (晦庵集 卷30)

答汪尚書論家廟

《○同前論家廟 至和》仁宗年號.

《政和》徽宗.¹⁷⁾

《得用諸侯之禮》諸侯，七命也。

《所厭》‘厭’，音압.

《於義何所當乎》以上論公卿一¹⁸⁾制之得失.

《幕職官》幕下官也。

15) 乙：高大本 ‘를’

16) 卒道其言：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卒道’上, 有‘《玩歲愒日》愒, 猶貪也. 玩歲愒日, 猶俗言人生.』이 있다.

17) 徽宗：高大本에는 뒤에 ‘年號’가 있다.

18) 一：高大本·國中本2 ‘二’

〔三少〕 少師·少傅·少保.

〔適士〕 疑今之五六品也.¹⁹⁾

〔官師〕 疑今之七八²⁰⁾品也.²¹⁾

〔一等之說〕 “固未必”之意，止此.

〔論其得失而已〕 以上論大夫二制之得失.

〔但其所謂廟者〕 政和之禮所謂廟者.

〔雖三廟一廟云云及於高祖〕 廟未得四而祭及高祖者，其廟數外神主，不知何處藏置. 但以臆度之，三廟者，其高祖·曾祖，自尊爲二廟，其祖與考並入²²⁾，一廟者，四代神主，并入一廟也. 祭寢者，亦可類推.

〔疏數〕 日祭·月祭·享嘗之數.

〔省於其君〕 省，告也.

記疑0205 (節要0305 : 汪張問答5) (晦庵集 卷30)

答汪尙書

19) 也 : 高大本에는 없다.

20) 七八 : 國中本2 ‘八七’

21) 也 : 高大本에는 없다.

22) 並入 : 高大本·國中本1에는 [추가 ‘並入’之下, 疑落書‘一廟’二字.]가 있다.

〔○同前 宋公〕 不知何人.

〔不得專美於前〕 後世法宋公之事而爲宋公之事者多,
則是不得專美於前.

〔若果如此〕 謂不忘母家之恩也.

記疑0206 (節要0306 : 汪張問答6) (晦庵集 卷30)

與汪尙書

〔○²³⁾黨事後〕 黨, 洛黨也.

〔意似〕 譙公之意.

〔所著〕 譙公所著.

記疑0207 (節要0307 : 汪張問答7) (晦庵集 卷30)

與張欽夫別紙

〔○與張欽夫別紙²⁴⁾ 內上〕²⁵⁾ ‘內’·‘納’同.

23) ○ : 今按: 뒤에 ‘與汪尙書’가 있어야 할 듯하다.

〔醲郁〕 醲酒之好味郁烈也.²⁶⁾

〔不得於言求諸心〕 侯公²⁷⁾不得於言也. 故論侯公者, 求於侯公之心則.

記疑0208 (節要0308 : 汪張問答8) (晦庵集 卷30)

答張欽夫

〔○同前 正坐〕 坐, 猶坐罪之坐.

〔般柴〕 般, 移也.

〔境界〕 心虛之境界.

〔擲撲〕 擲撲 닳드티다 又쫓티²⁸⁾다.

〔底消息〕 消息, 猶²⁹⁾쁘디라.³⁰⁾

24) 與張欽夫別紙 : 기준본에는 ‘答張欽夫別紙’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25) 內上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內’上, 有‘〔侯子〕 侯師聖, 程門人.』이 있다.

26) 郁烈也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作‘旭, 香氣郁烈也.』가 있다.

27) 侯公 : 기준본에는 ‘候公’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아래 ‘侯公’ 역시 마찬가지다.

28) 티 : 高大本 ‘치’

29) 猶 : 高大本에는 뒤에 ‘言’이 있다.

30) 라 : 高大本 ‘다’

記疑0209 (節要0309 : 汪張問答9) (晦庵集 卷30)

與張欽夫

〔○與張欽夫 共父〕 劉坪³¹⁾之兄，子羽之子。◎劉珙字也。

〔家問〕 제지비 혼유무를 謂之家問。

〔未曉所謂〕 絕句。

〔特改〕 文定特改也。

〔近世諸先達〕 此下微指文定。

記疑0210 (節要0310 : 汪張問答10) (晦庵集 卷30)

答張欽夫

〔○同前 不易處〕 不輕易議處也。

〔無害於義理〕³²⁾ 亦指俗節宴樂。

〔不能行遠〕 俗節宴樂之事，不能行遠。

31) 劉坪：高大本·國中本2 ‘劉坪’

32) 無害於義理：高大本 [추가 一本, ‘無害’上, 有‘〔必盡廢之然後可〕 欽夫之意, 俗節相宴, 未及祭先祖之事, 必盡廢之然後可.’]가 있다.

【告朔】 廟中朔祭。

【元日履端】 《左傳》文公元年傳“履端于始”註曰：“日月運傳³³⁾於天，猶人行步，故推曆謂之步曆，步曆之始以爲術之端首。” 謂以十一月一日子初一刻冬至爲曆首。◎《左》則以冬至爲履端，此云“元日履端”，未詳其義。◎《翰墨全書·天時門》“履端”註：“六帖履端於始。” 與此不同。

【○所乘之氣】 理乘于氣，故云云。

【盡性至命】 〈繫辭〉，“窮理盡性，以至於命。”

【左右迷藏】 如今숨바질。戲索者左則藏於右，索者右則藏於左，故謂之左右迷藏。蓋互相隱匿之譬也。

記疑0211（節要0311：汪張問答11）（晦庵集 卷31）

答張敬夫

【○答張敬夫 政成事簡】 疑是南軒知嚴州時，故云云。

33) 傳：高大本·國中本2‘轉’

〔舊疑〕疑伯恭史學，故云漸釋舊疑。

〔於此³⁴⁾〕謂道學也。

〔前語〕論辨之語。

〔前日之見悞矣〕此所謂前日之見，是伯聞以天命之性爲實之處。

〔福州一朋友³⁵⁾〕指李深卿。深卿溺於禪學，先生與書痛闢。其書見下卷。³⁶⁾卽此書下問所謂深卿者，乃福州古田人也。

〔正論此事〕此事謂禪學。

〔其言果驗〕謂伯聞捐舊學得回頭也。

〔上呈二人〕上呈，疑指此書也；二人，亦疑指伯聞·深卿也。

〔粹〕과글리.

記疑0212 (節要0312 : 汪張問答12) (晦庵集 卷31)

與張敬夫

34) 此 : 기준본에는 ‘是’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35) 友 : 高大本에는 없고 [추가 一本, ‘朋’字下有‘友’字.]가 있다.

36) 卷 : 기준본에는 ‘券’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與張敬夫 極害事〕 極害於事也。

〔闕範〕 伯恭所纂，故云云。

〔玩物喪志〕 程門語。

記疑0213 (節要0313：汪張問答13) (晦庵集 卷31)

答張敬夫

〔○答張敬夫 臨安〕 宋都。

〔奉教〕 奉教于南軒也。

〔遽已更端者〕 과마리 이미 端乙 更ッp 者乙。問者，遽已更端者也。

〔日衆〕 學者日衆於南軒之門。

〔中都官守〕 猶言都中官守。

〔却不慮此〕 此字，謂元履嘗疑學徒以下語也。

〔俯就〕 猶言降屈。

〔所自〕 學者所自也。

〔○同前 程子爲人〕 程子嘗言：“類聚孔·孟言仁處，以求夫仁。” 故云“程子爲人”。南軒遵程子之言，已類

聚其言仁處，故先生言其不可。

【不敢只作愛說】 敢 屍 오직 愛 乙 37) 作 ㄴ 也 說 ㄷ
아니 ㅎ 나. 38)

【揣摩】 揣，揣度也。模，모지다. 39)

【擗埴冥行】 楊子擗埴索塗冥行而已。言盲人以杖擗地求途也。埴，黏土也，亦以水合土之名泥濘處。埴 ㄹ
擗 ㄴ 也 冥行 ㄴ 夕。

【此雖】 此字，謂仁之所以愛，而愛之所以不能盡也之處。

【○中字之說】 敬夫釋中之說。

【在中】 此中字乃心中也。

【尤耐】 耐 참는 단 마리니 40)，猶言久也。

【成人材尊師道】 成人材，乃明道也；尊師道，乃伊川也。

【○却不思】 先生却不思也。“却不思”之意，止於“安有此弊”之下。先生言我之言 41)類聚之不可時，却不思

37) 乙：高大本‘을’

38) 나：高大本‘다’

39) 모지다：高大本‘묻디다’

40) 마리니：高大本‘말이니’

41) 言：高大本‘意’

所類諸說云云安有此弊也.

〔過計〕 너모⁴²⁾흔 計라. 過計, 先生自謂. 其計乃指以南軒類聚言仁之事爲非之計也. 卽指⁴³⁾上文所云前說之非也.

〔○已發之後云云不在裏面〕 乃南軒之言也. 此裏面, 已發之裏面, 與裏面底道理之裏面, 不同意.

〔未嘗不在於此〕 此, 謂事物上也.

〔以道言之〕 體也.

〔以事〕 用也.

〔此物〕 謂中也.

〔○張閔中〕 程門人.

〔書雖未出〕 書乃《易傳》書也.

〔東見錄〕 呂大臨, 關中人. 初事橫渠, 後見二程於洛陽, 錄其講論之語, 名曰《東見錄》. 洛在關中之東, 故云云.⁴⁴⁾

〔清虛一大〕 清ッ古 虛ッ古 一ッ古 大ッP. 言理不可只以清虛一大名之, 而橫渠乃云清虛一大, 故程子云: “使人向別處走云云.” 此《東見錄》所記也.

42) 모 : 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무’

43) 指 : 國中本1·國中本2에는 없다.

44) 云云 : 高大本 ‘云’

〔○所引家語〕 《中庸》二十章，章下所引《家語》也.

〔○如云〕 云，佛氏⁴⁵⁾云也.

〔兩個主宰〕 猶言兩心.

〔○尋復失之〕 이듬고 다시 失타. 失其警省也.

〔走作〕 헤디⁴⁶⁾르다.

〔止酒例〕 時先生有戒止酒之事.

〔下士云云⁴⁷⁾自修〕 東坡詩：“貧家淨掃地，貧女淨梳頭. 下士晚聞道，聊以拙自修.”

記疑0214 (節要0314 : 汪張問答14) (晦庵集 卷31)

答敬夫孟子說疑義

〔○⁴⁸⁾無事生事〕 無事之中⁴⁹⁾生事也.

記疑0215 (節要0315 : 汪張問答15) (晦庵集 卷32)

45) 氏：高大本에는 뒤에 ‘之’가 있다.

46) 디：高大本 ‘지’

47) 下士云云：高大本에는 없다.

48) ○：今按：뒤에 ‘答敬夫孟子說疑義’가 있어야 할 듯하다.

49) 之中：高大本 ‘中之’

答張敬夫

〔○答張敬夫 馬范〕 未詳何人，疑謂司馬公·范鎮。

〔不得力〕 不得學力。

〔當此責〕 接引學者之責。

〔周君〕 未詳。

〔本根長久之計〕 國家本根長久之計也。

〔○隴侗〕 與‘隴朦’⁵⁰⁾同意。

〔一家〕 未詳。

〔安排〕⁵¹⁾ 私心布置也。

〔范伯崇〕 名念德，先生同婿。

記疑0216 (節要0316：汪張問答16) (晦庵集 卷32)

問張敬夫

〔○問張敬夫 遺書〕 《程氏遺書》。

〔謂之人心〕 此及下篇所論人心私欲，與今⁵²⁾〈中庸

50) 隴朦：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朦朧’

51) 安排：高大本에는 이 조목이 없다.

序說〉不同。所以收此，欲見先生入道本末。

【又以鳶飛魚躍明之】程子以鳶飛魚躍明其道心也。

記疑0217 (節要0317：汪張問答17) (晦庵集 卷32)

答張敬夫

【○答張敬夫 有不善】 〈繫辭〉，孔子說〈復卦〉云：“顏氏之子，其殆庶幾乎！有不善，未嘗不知，知之，未嘗復行也。”

記疑0218 (節要0318：汪張問答18) (晦庵集 卷32)

答張敬夫問目

【○答張敬夫問目 腔子】 全體。

【充塞處】 卽謂⁵³⁾滿腔子。

52) 今：高大本에는 없다.

53) 謂：高大本에는 앞에 ‘所’가 있다.

《知言》 五峯所著書名.

《和》 머므려.

《沙界》 猶言世界. 佛世界之多, 比恒河沙.

《○⁵⁴⁾更無打不過》 打티 못흔⁵⁵⁾ 일 업다. 漢語,
凡事稱其爲之, 曰‘打過’. 打, 猶爲也; 過, 猶了也.

《孝經首》 《孝經》註首也.

記疑0219 (節要0319 : 汪張問答19) (晦庵集 卷32)

又論仁說

《○又論仁說 生之性》 人物稟生之性.

《三言》 情·性·用.⁵⁶⁾

《一言》 公.

《以情爲性》 情, 謂愛也.

《○⁵⁷⁾若無天地萬物》 天地萬物이 업스⁵⁸⁾면.

5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55) 못흔 : 高大本 ‘못흔’

56) 情性用 : 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性情用三言’

57)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58) 스 : 高大本 ‘스’

〔鶻突〕 不分明也.

〔復見〕 〈復卦〉也.

記疑0220 (節要0320 : 汪張問答20) (晦庵集 卷32)

答張欽夫

〔○答張欽夫 印可〕 佛語, 올타.

〔未發之旨〕 未發之中.

〔語⁵⁹⁾默之間〕 間, 去聲. 上同.

〔其所謂和〕 發而中節之和.

〔孟子才高〕 孟子多言動處, 故云云. 其言四端之處, 可見.

〔顏子之學〕 指四勿之處.

〔有用力處〕 程子之言, 止此.

〔仁爲本爾〕 以中仁屬靜, 與〈圖說〉註異.⁶⁰⁾ 詳下
〈答伯恭書〉.

〔諦當也〕 諦, 審也.

59) 語 : 諸 異本에는 없다.

60) 異 :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과 《節要》 본문 自註에 의해 보충하였다.

【易而置之】當以‘察夫動’以下六字，易置‘靜以涵’六字之下。⁶¹⁾

記疑0221 (節要0401：呂劉問答1) (晦庵集 卷33)

答呂伯恭

【○答呂伯恭 見屬】見屬於先生。

【自外】與上文‘自外於明哲’同。

【所未安者】承喻所疑之中所未安者。

【惟恐說得不鶻突】近世一種似是而非之說，惟恐說得不鶻突也。

【只著個無對包】無對乙 著ッ也 包ッ面。

【欲以此致學者而告語】欲以科學之事致會學者，而後告語道學。

【○審時措之宜】出處，審時措之宜也。

【有所不同】‘同’疑當作‘周’。

61) 六字之下：高大本‘以下六字’。今按：國中本2에는 ‘察夫動以下六字’의 ‘六’이 ‘九’로 수정 표시되어 있고, ‘靜以涵六字’의 ‘六’이 ‘以下七’로 수정 표시되어 있다. 내용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문을 고치지는 않았다.

- 〔觀伊川〕“觀”字之意，止於“異處”下。
- 〔所以自治者〕謂內修也。
- 〔唐景〕唐不知何人，景乃景差。
- 〔左右之〕左右，蘇氏也。
- 〔家學〕伯恭乃正獻之後，故云。
- 〔謝公〕上蔡。
- 〔○近事曲折〕近事，近來朝廷之事。
- 〔愍重〕愍，慎也。
- 〔○竟未了然〕了然，猶明白也。
- 〔○郎中丈〕東萊之父，名大器。
- 〔蒙以契舊之故〕疑郎中與韋齋有契分⁶²⁾，故云也。
- 〔濶別〕濶，隔遠之意。
- 〔婺女〕郎中所居之地，金華府也。屬浙東路，春秋時越地。
- 〔○深知前此〕伯恭深知也。
- 〔○⁶³⁾照管〕猶言明心不忘也。
- 〔○謝遣學徒〕伯恭謝遣學徒也。
- 〔○⁶⁴⁾其相與之意〕謂與己相與也。

62) 分：高大本‘合’

63)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64)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飽經歷〕 猶言多更事也.

〔顚俟〕 顚，仰望也.

〔韓丈〕 無咎，東萊婦翁，故托以達意.

〔拈出〕 拈出吾身，薦爲秘書郎，當云拈出也.⁶⁵⁾

〔大家〕 猶言大段，或大故.

〔出場〕 猶言畢其事也.

〔西監〕⁶⁶⁾ 宋都汴京，故謂洛陽 西京也. 西監，西京國子監也.

〔元官〕 伊川嘗爲西監，遭喪而遞，除服後又除元官. 此乃昔拜之官，故云元官.

〔○周子充〕 必大.

〔賭此〕 此字，指子澄事.

〔親切用工處〕 來喻欲使子澄親切用工處也.

〔想相見〕 伯恭與子澄相見也.

〔○梁公〕 名克家. 爲丞相.

〔始知〕 梁公始知也.

〔今茲之請〕 辭職之請.

〔此外無致力處〕 此外朝廷之事，無致力處也.

65) 也：高大本에는 [추가 ‘也’, 一本作‘乙’.]이 있다.

66) 西監：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西監’上, 有‘〔打乖〕 打, 猶爲也. 言爲乖僻不同俗也.』가 있다.

〔鄉民云云告飢〕 此社倉之制所以創始也.

〔○裒多益寡〕 此言才無所長，所當裒其多而益其⁶⁷⁾寡也. 多猶長也，寡猶短也.

〔此二事〕 二事乃講學·克己也. 講學乃致知，克己乃力行.

〔足目〕 足乃行，目乃知.

〔若曰〕 “若曰”之意，止於“說過”之下. 이리곳 니르면.

〔○展墓〕 《禮》，士大夫去國而還，展墓而入. 凡物卷則不見，展則可見，故省墓謂之展墓.

〔懇辭〕 辭免之辭也.

〔慰人〕 人，先生自謂.

〔門牆〕 東萊門牆.

〔○見徹克盡〕 ‘人各有偏云云止能免’，乃東萊之言. 言不能見徹道理，而克盡己私，故未免有偏處也.

67) 益其：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追錄⁶⁸⁾

【一個出場】 未詳此義. 竊謂場者作事之地, 故凡言了其事, 謂之出場, 言了事而出於所事之場耳.

68) 追錄 : 기준본에는 없지만 國中本2 권2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이하 내용을 본문으로 수록하였다. 여기 追錄의 내용은 《定本 退溪全書》5, 〈答李仲久問目【《朱子書》疑語】〉(KNL0090A)에도 수록되어 있다.

朱子書節要記疑 卷之三

記疑0301 (節要0401 : 呂劉問答1) (晦庵集 卷33~35)

答呂伯恭

〔答呂伯恭 兒子〕 塾.

〔車馬〕 東萊之¹⁾車馬.

〔會稽〕 山名. 在紹興府, 故亦號會稽, 在臨安近畿.

〔留此勝概〕 勝概, 天台·鴈蕩也. 此勝概乙 留ッ也.

〔津遣〕²⁾ 갈일출와 보내다.

〔次第〕 預言其事勢當然之意.

〔○疢疾〕 疢, 時廉切, 謂今之瘡疾.

〔其間〕 凝³⁾聚收斂之間.

〔節宣〕 《左傳》⁴⁾語.⁵⁾ 너른 일을 節ッロ 沈鬱乙
宣ッ飞P.

〔○幼弟〕 東萊之幼弟.

1) 之 : 國中本2에는 없다.

2) 津遣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作‘爲人治行具以遣, 謂津遣’.]이 있다.

3) 凝 : 기준본에는 ‘擬’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4) 左傳 : 國中本2에는 뒤에 ‘之’가 있다.

5) 語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有‘節齋宣暢, 養氣之法也.’]가 있다.

〔襄事〕襄，成也。葬事謂之襄事者，葬事乃⁶⁾喪事之成，故云云。

〔神觀〕觀，去聲。儀容爲人所觀，故曰‘儀觀’。

〔邵武〕閩中府名。

〔寒泉〕寒泉精舍，在天湖山，先生母墳在處。

〔料理葬〕料理葬事也。

〔○忽忽〕元作忽忽。

〔奉告〕猶言奉書也。

〔信後〕信，書信也。此書，上文奉告之書。

〔至彼〕蘆山也。

〔就此〕此，謂小作功程也。

〔節度〕節制法度。

〔○⁷⁾苦淡〕古語云：“攻苦食淡也。”今塾苦淡也。

〔恐無此日〕雖欲自知進步，恐無攻苦食淡之日。

〔○近甸〕近於畿也。應辰卒於都中，而今將還鄉，故云。

〔○衢〕衢，州名。

〔城寺〕疑寺名。

6) 乃：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迺’

7)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去處〕 疑⁸⁾語助辭.

〔跽〕 蹠也.

〔○放此〕 放兼看經史之言，而接學者也. ‘放’與‘傲’同.

〔少有不偏向外去者〕 偏히 外⁹⁾ 向¹⁰⁾ 也 去¹⁰⁾ 阿히¹⁰⁾ 乙 者¹⁰⁾ 少¹⁰⁾ 히.

〔○乍到〕 到婺源也. 乍到，猶言纔到也.

〔彊¹¹⁾探〕 彊，去¹²⁾聲.

〔似有頓進之功〕 이런 줄¹³⁾ 아라 고티니，似有頓進之功也.

〔保此〕 保頓之功.

〔頓悟〕 禪家所謂一超頓悟也.¹⁴⁾

〔○端明黃丈〕 黃中曾爲端明殿學士，故云.

〔淺之爲丈夫〕 猶言淺丈夫.

〔辭受之說〕 先生，時方辭職，故東萊誨諭辭受之道.

8) 疑：高大本‘去’

9) 乙：高大本‘를’

10) 治：高大本‘티’

11) 彊：기준본에는 ‘疆’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12) 去：高大本·國中本2 ‘上’

13) 줄¹³⁾：高大本 ‘주를’，國中本1·國中本2 ‘주닐’

14) 也：高大本에는 없다.

〔一出忠誠〕 東萊諭辭受之說，一出忠誠也。

〔欣厭利害〕 欣利厭害。

〔幸其衰熄〕 衰熄¹⁵⁾幸^屏。

〔○新除〕 東萊新除也。

〔鄭自明〕 名鑑。曾上彈劾時事，而其後無繼之者，故云莫之或繼。

〔大兒方幸云云如何〕 朱塾嘗受學於東萊之門，故云方幸依托。而今以¹⁶⁾入都，不知今當如何耶。

〔催畢親事〕¹⁷⁾ 親，去聲。親事乃婚事，塾與潘約婚，而時未成，故云催畢親事。

〔一言速之〕 令東萊一言而勸速其親事也。

〔○已後其母〕 不及見其母也。母^乙 後^{ッヒ}。

〔一體胖合〕 胖，半體也。婚禮，夫婦同牢一體，各得其半，故謂之‘胖合’。

〔宛轉回互〕 不以直道爲之，而宛轉回互也。

〔彼術〕 宛轉回互之術。

〔誠意益衰〕 不以直道爲之，故云。

15) 熄：高大本에는 뒤에 ‘乙’이 있다.

16) 以：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已’

17) 催畢親事：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催畢’上, 有‘〔從欲〕 辭秘書, 除武夷冲佑觀時也.』가 있다.

〔祠命〕 祠祿之命.

〔差彊¹⁸⁾人意〕 저기 人意에¹⁹⁾ 彊 ヽ ャ.

〔櫟括〕 ‘櫟’, 音隱, 皆正木之器. 欲令東萊正其綱目, 故云.

〔○純叟〕 劉純叟, 朱門人.

〔林叔文〕 誠叟之弟子.

〔館客者〕 當時士大夫, 延致賢德之²⁰⁾人, 館接于家, 以爲師法, 教子弟, 謂之館客. 故浙中有求館客, 欲伯恭薦爲林叔文爲之耳.

〔○進長著廷〕 自校書正字升爲著作, 故云進長著廷. 著作爲其官之長, 故云長.

〔一向如此〕 辭職事也.

〔○末疾〕 四肢不仁之病, 謂之末疾. 四肢²¹⁾, 一體之末也.

〔○鉛山〕 信州縣名.

〔已交郡事〕 交, 交代也; 郡, 南康也.

18) 彊 : 기준본에는 ‘疆’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19) 예 : 高大本 ‘에’

20) 之 : 國中本2에는 없다.

21) 肢 : 國中本2 ‘支’

- 〔漱玉〕 亭名. 在廬山.
- 〔簡寂〕 觀名.
- 〔未間〕 未往見之間.
- 〔○學中〕 南康學中.
- 〔劉凝之〕 凝之子, 名恕. 蘇子由美其父子, 題曰‘冰清玉剛’.
- 〔陳了翁〕 名瑾.
- 〔歸宗〕 寺名.
- 〔谷簾〕²²⁾ 康王谷 水簾也. ◎瀑布名. 瀑布之形如簾, 故名以谷簾. 康王谷 水簾·無錫 惠山泉·楊子江 中冷水, 謂之天下第一味.
- 〔周先生之子〕 ‘子’疑當作‘孫’.
- 〔○俸金〕 月俸之金.
- 〔同中子〕²³⁾ 中子, 朱堃²⁴⁾也. 同中子而歸本家也.
- 〔○挑覆所授〕 挑覆 스이스이 쎄²⁵⁾여받다之意. 挑覆, 抽出而講問也.²⁶⁾

22) 簾：《節要》‘廉’

23) 同中子：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同中’上, 有‘〔鴈門之跨〕‘跨’與‘奇’同, 奇, 數也.]가 있다.

24) 朱堃：기준본에는 ‘朱堃’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25) 쎄：國中本2 ‘쎄’

26) 挑覆……講問也：高大本에는 없다.

〔侵官〕 侵教官之任.²⁷⁾

〔文翁常袞〕 漢 文翁爲蜀郡太官²⁸⁾, 唐 常袞爲福建觀察使, 皆興文教.

〔略加點檢〕 朱先生略加點檢也.

〔差擇一二根治〕 一二, 謂吏胥權豪也. 根治, 猶言根究.

〔諸縣〕 南康屬縣, 有都昌·建昌·星子三縣.

〔丞²⁹⁾佐〕 南康軍幕下官.

〔追人吏〕 追, 捉致也.

〔監禁〕 가도다.

〔斷遣〕 터 보내다. 猶斷罪而遣也.

〔不敢諱人指目也〕 不敢避人之指目也.

〔利益底事〕 얼마 利益底事 乙 作호려 ㅎ다가.

〔因舊〕 因舊學字³⁰⁾也.

〔菴亭〕 先生爲凝之父子作堂, 名曰冰玉, 取蘇子由‘冰清玉剛’之語. 菴亭, 亦堂之³¹⁾類.

27) 侵官……教官之任 : 高大本에는 없다.

28) 太官 : 高大本·國中本1 ‘太守’, 國中本2 ‘大官’

29) 丞 : 기준본에는 ‘承’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30) 字 : 기준본에는 ‘官’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31) 之 : 高大本에는 없다.

【送代者折送香藥】 送字未詳. 代者, 朱先生知南康郡時, 前交代也. 折送, 것거혀여 보내다. 香藥, 價也, 香藥之價³²⁾, 折送흔 것과.

【不應得】 猶言不當得也.

【椿管】 ‘椿’, 音當, 杙也, 杙不動之物. 凡錢物儲畜封不動者, 謂之椿管.

【○尊嫂宜人】 東萊³³⁾之內室.

【意若】³⁴⁾ 諸公之意.

【○子壽相見】 東萊與子壽相見.

【曹立之】 名建.

【近答渠書】 子靜近來答立之書.

【○信陽】³⁵⁾ 荊州屬縣.

【頗不直】 南軒劾奏信陽守劉大辯罪, 時論反以南軒爲不直也.³⁶⁾

【黃子厚】³⁷⁾ 名銖, 號穀城. 先生故友.

32) 價 : 高大本에는 뒤에 ‘ㄷ’이 있다.

33) 東萊 : 國中本2에는 ‘東萊’부터 아래 〈論淵源錄〉【每事】 조목까지의 내용이 일실되었다.

34) 意若 : 高大本에는 [추가 ‘意若’下, 一本有‘以’字.]가 있다.

35) 信陽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信陽’上, 有‘【荊州】 南軒知江陵府, 即荊州也.’]가 있다.

36) 也 : 高大本에는 없다.

37) 黃子厚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黃子’上, 有‘【記文定本】 朱先生要伯恭作〈白

〔到卽入石〕 石厓 入ッタ.³⁸⁾

〔奏請數事〕 如信陽之事.

〔請祠〕 辭職而請祠祿也.

〔命下〕 命，從請祠之命也.

〔自此〕 自南康郡也.

〔○上饒書〕 上饒，地名．在上饒之所修書，故謂之上饒書．

〔尤延之〕 名袤．

〔○三五擔行李〕³⁹⁾ 三五擔，猶俗言三五馱也．

〔甥〕 疑魏恪．

〔噎〕 音얼．

〔祭文〕 東萊所作〈祭南軒文〉也．

〔一篇〕 朱先生⁴⁰⁾所作祭文一篇．

〔天意〕 向來有書之意，止此．

〔褊狹〕 先生自謂．

〔一節〕 從善受言之節．

鹿洞書院記〉，有未穩處，往復參訂而後定，故云定本.’]이 있다.

38) 石厓 入ッタ：高大本 ‘到커든 石厓’，國中本1 ‘到巨等’

39) 三五擔行李：高大本에는 [추기] 一本，‘三五’上，有‘〔後省〕 門下省．〔前日妄發〕 應詔上封事.’]가 있다.

40) 朱先生：高大本 ‘先生’

〔四亭八當〕 四方亭亭，八方當當。

〔放倒〕 프리 버리다.

〔上說不從〕 猶言於觀察使而不得請也。

〔闌珊〕 謂物已盡而但有餘殘之意。

〔不允〕 不從辭免也。

〔不敢作此念〕 此念，自事有經心，至因循廢弛者。

〔狂妄之舉〕 謂應詔上封事也。乃上文所謂‘前日妄發’也。

〔彼猶〕 彼，南軒也。

〔他人〕 南軒從游之士。

〔自己〕 先生自謂。

〔換却主人〕 若辭免南康，則是換却主人也。

〔立碑〕 爲先生立碑之事。

〔道人於善〕 道，導也。

〔○囊封付出〕 囊封，卽封事也；付出，卽付出後省事。

〔甚人〕 엇던 사람⁴¹⁾。

〔草本〕⁴²⁾ 上封事草本。

41) 략미：高大本 ‘람’

42) 草本：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草本’上, 有‘〔不托〕 謂나화之類, 或作“飢飪”.’]이 있다.

〔題目〕 封事中題目也。

〔根本〕 自有意做好人也。

〔新參〕 疑鄭僑。

〔大承氣〕 藥名，當飲大承氣湯之證。大承氣湯，至死域當用之藥。言此者，參政所爲之事不急切也。

〔○分數〕 消磨之⁴³⁾分數。

〔○自彼〕⁴⁴⁾ 彼，南康也。

〔女弟〕 先生之妹，劉子翊之⁴⁵⁾妻。

〔替後〕 替南康之後。

〔費力處〕 辭與意不合處，謂之費力處。

〔稍定〕 人事紛冗稍定也。⁴⁶⁾

〔定本〕 猶言表準。“多說”之意，止⁴⁷⁾此。

〔渠〕 子靜也。

〔分明〕 分明^屎。

〔揮斥〕 揮斥定本也。

〔湖⁴⁸⁾口〕 山名。自南康與子澄·東萊至此分手也。

43) 之：高大本에는 없다.

44) 自彼：高大本에는 [추가] 一本，‘自彼’上，有‘〔合符而歸〕 自南康解紱東歸之時.’]가 있다.

45) 之：高大本에는 없다.

46) 也：高大本에는 없다.

47) 止：高大本 ‘至’

- 〔○仙洲〕 山名.
〔疏薶〕 疏水而薶草也.
〔自此〕 自爲臺之後.
〔論著〕 東萊方著書, 故云論著.
〔每書〕 所論著之每書也.⁴⁹⁾
〔○著力〕 猶助長.
〔自此去〕 此字, 指整頓收斂也.
〔等候〕 言待候.

記疑0302 (節要0402 : 呂劉問答2) (晦庵集 卷35)

別紙

- 〔○別紙 參前倚衡之說〕 東萊釋‘參前倚衡’之說.
〔尹公〕 彥明.
〔頓放〕 參前倚衡之意.
〔○學者〕 朱門學者.

48) 湖 : 《記疑》의諸 板本에는 ‘糊’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49) 也 : 高大本에는 없다.

【放著】노화 있다.

【不得指東】‘不得指’⁵⁰⁾‘得’，疑當作‘待’。

【○澆浮】‘澆’，堅堯切，薄也。

【自不相妨】與‘養忠厚’·‘革澆浮’，自不相妨也。

記疑0303 (節要0403：呂劉問答3) (晦庵集 卷35)

論淵源錄

【○論淵源錄 元豐大臣】王安石輩。此明道方便處新法之事。

【自是信不及】信，真知之謂。《語錄》，“真知其理，謂之信得及；不得真知，謂之信不及。”

【○折柳事】伊川，崇政殿說書時，入講筵，哲宗講罷，戲折檻前柳枝，伊川以方春生長之節方長不折，諫之。

【劉公】元城 劉氏 安世.⁵¹⁾

50) 指：高大本‘之’

51) 安世：高大本에는 없다.

〔范公〕 祖禹.

〔葷素〕 葷, ‘不茹葷’之‘葷’. 若茹葷, 則是食肉也.
葷 ヽ ㄱ 素 ㄴ.

〔秦黃〕 秦少游·黃山谷

〔每事徇從〕 “不”字意, 止此. 不徇從東坡也.

〔辦理伊川之奏〕 伊川見竄涪州後, 范公爲伊川辦理,
故云. 詳見《宋史》.

〔其所重在此云云義理之公也〕 在此, 指伊川. 所重
在伊川, 故向者徇東坡之私, 不能勝重伊川義理之公
也.

〔右袒〕 謂范公從伊川, 如爲劉氏右袒也. 東坡於范
公, 雖有此嫌, 而不害平生之交也.

記疑0304 (節要0404 : 呂劉問答4) (晦庵集 卷35)

答呂伯恭

〔○答呂伯恭⁵²⁾ 奇卿〕 未詳.

52) ○答呂伯恭 : 기준본 및 諸 異本에는 없으나, 《節要》(陶山本)에 의해 보충하였
다. 다만 《節要》 海州本에는 제목이 없이 앞의 편지와 함께 편집되어 있다.

【講授次第】 東萊之講授次第，因奇卿而敬扣之。

【從事其間】 《左氏》·奏疏之間。

記疑0305 (節要0405 : 呂劉問答5) (晦庵集 卷35)

答劉子澄

【○答劉子澄 主簿學士】 宋時雖外爲主簿⁵³⁾，或兼秘書閣，故云主簿學士。

【說學好問】 ‘說’，音悅。

【○第二 異學侵畔】 爲異學所侵，而畔於吾道也。

【憤憤】 心亂貌。

【○近況】 況⁵⁴⁾，興味之意。⁵⁵⁾

【吾友】 子澄。

【追咎往昔】 子澄追咎往昔，故云。

【迫切】 追咎之心迫切也。

【○⁵⁶⁾無補於事祇以取名】 子澄憂其無補於事而祇以

53) 主簿：기준본에는 ‘主夫’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54) 況：高大本에는 없다.

55) 意：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義’

取名，故云．

記疑0306（節要0406：呂劉問答6）（晦庵集 卷35）

與劉子澄

〔○與劉子澄 之烈〕 烈，功烈也．

〔唐衡〕 宦官．

〔一之中也〕 “眞以爲”之意，止此．

〔參前倚衡〕 此則上文‘剛大直方之氣，參前倚衡’也．

〔所謂云云〕 指上文所云．

〔頗有所疑〕 欽夫疑子澄不能自振於頽波之中也．言此者，欲使子澄戒也．

記疑0307（節要0407：呂劉問答7）（晦庵集 卷35）

答劉子澄

56)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答劉子澄⁵⁷⁾ 游誠之〕 南軒門人，亦受業於先生。其名未詳。

〔上蔡鸚鵡之譏〕 《禮記》云：“鸚鵡能言，不離飛鳥；猩猩能言，不離走獸。禽獸惟不知義⁵⁸⁾，故父子聚麀。”上蔡以此譏其不務躬行而徒務詞章者云：“今之士大夫，何足道？能言，真如鸚鵡耳。”

〔向安〕 向平安也。

〔小學書〕 子澄方纂《小學》，故云。

〔主張程氏〕 子澄纂《小學》時，欲多取程氏之言，而恐世人譏主張程氏，而欲避其譏，故云云。

〔其詳〕 指程子之說。

〔吾人〕 指子澄。

〔非據之稱〕 子澄尊稱先生，故云。

〔○到泉〕 泉，泉州也。

〔南宗司〕 主宗室教養之官。

〔接續〕⁵⁹⁾ 接續吾道也。

〔似他不俗〕 此言子澄學文章也。‘故紙’，古人作文

57) 答劉子澄：기존본에는 ‘答子澄’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58) 義：高大本 ‘禮義’

59) 接續：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接續’上, 有‘〔杜撰〕 無義理無事實, 而以意撰造言語, 謂之杜撰.’이 있다.

之紙也。‘似他’之‘他’，作文之古人也。

【河南數珠】 司馬公患思慮紛擾，欲常念一中字。程子謂：“如此，則是爲中所亂。與其爲中所亂，若不⁶⁰⁾如一串數珠之爲愈也。”

【彼其爲此】 河南爲此言者。

【班范外事】⁶¹⁾ 班固·范曄也。子澄好讀《漢書》，欲編述《班范外事》，故云云。

【羅守】 羅願時爲守，故云。

【不補其所不足反益其有餘】 羅公本能文章，而子澄不以道學導之，乃以文章益之，故云云。

【却非此比】 《小學》書，却非文章之比。⁶²⁾

記疑0308 (節要0408 : 呂劉問答8) (晦庵集 卷35)

與劉子澄

60) 若不：高大本‘不若’，國中本2‘却不’

61) 班范外事：기준본에는 ‘范外事’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の 행간 추기에 의해 고쳤다.

62) 比：高大本‘家有此役’，國中本1·國中本2‘家有此役也’；高大本에는 [추기 一本作‘文章之比’.]가 있다.

〔○與劉子澄⁶³⁾ 此事〕⁶⁴⁾ 襄陽之役.

〔所喻戲謔本欲⁶⁵⁾詞之巧而然〕 先生欲令子澄不戲謔,故子澄言所以戲謔者,本欲詞之巧也.

〔情信詞巧〕 《禮記》,“情欲信,詞欲巧.”

〔橫渠先生嘗言之〕 〈東銘〉言戲言戲事,故云.

〔把做小事忽略了〕 子澄以博雜又⁶⁶⁾小事々々也.把做々々也,忽略了々々也.

〔零星揆合〕 零星,餘殘之數;揆合,收合也.

〔○端良〕 羅願字也.

〔一味〕⁶⁷⁾ 猶言一切.

〔別說一般差異底話〕 一般差異底話云 別說也.⁶⁸⁾

〔汝昭〕 未詳.

〔伯起〕 姓吳.

〔居晦〕 姓周.

〔韜仲〕 名炳.

63) 與劉子澄: 기준본과 諸 異本에는 없으나, 《節要》에 의해 보충하였다.

64) 此事: 高大本에는 [추가 ‘此事’上, 一本(有), ‘〔襄陽之役〕 未詳. 恐當時國家有此事.’]가 있다.

65) 欲: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節要》에 의해 보충하였다.

66) 又: 諸 異本에는 없다.

67) 一味: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一味’上, 有‘〔作壞〕 作, 猶爲也, 爲所壞也.’]가 있다.

68) 也: 高大本 ‘々々’

- 〔德夫〕 名時.
〔兄弟〕 友端·友恭.
〔西山詩〕 武昌 西山詩也.
〔攙搶⁶⁹⁾枉矢〕 西山詩中語. 攙搶·枉矢, 皆妖星, 以妖星比小人. 但未知指何人.
〔廣陵歸塗〕 子澄 廣陵歸塗也.⁷⁰⁾
〔○數時〕 “奉問”之意, 止此. 猶言數日.
〔此去處〕 猶言此時也.
〔麻姑〕 山名.
〔書院中寢食則〕 非武夷書院, 乃常居之書堂.
〔仲叔〕 未詳.
〔倉庫〕⁷¹⁾ 疑仲叔任社倉之事.
〔超距〕 《漢書》云: “超距, 搶頭擋地貌.”
〔不透〕 如憤悻之意也.⁷²⁾
〔糊塗〕 讀作鶻突.
〔惡口小家〕 惡口, 사오납다. 小家, 호오릿도⁷³⁾호

69) 攙搶: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攙搶’上有‘〔三孔〕文仲·武仲·經仲.’]이 있다.

70) 也: 高大本에는 없다.

71) 倉庫: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倉庫’上有‘〔方討冊子〕討, 求也.’]가 있다.

72) 也: 國中本1·國中本2에는 없다.

73) 도: 高大本 ‘되’

다.

〔對語〕 對經筵之語.⁷⁴⁾

〔葱嶺帶來〕 葱嶺, 西域山名.

〔撐眉弩眼〕⁷⁵⁾ 撐蹙其眉, 弩開其眼, 皆禪學人作勢用力之狀.

〔但不合〕 “不合”之意, 止於“狂妄”下. 맞당티 아니
흔디라.

〔得此氣力〕 禪家作勢用力之氣力.

〔偏枯〕 俗言手足偏枯.

〔發作〕 怪妄也.

〔陽藏人〕 藏腑陽盛人.

〔八字打開〕 八, 別也. 象分別相背之義, 言分明也.

〔○亂道誤人〕 道乙 亂ッ糸.

〔趙子直〕 汝愚.

〔一等人〕 直言之人也.

〔周子充〕 周必大, 字子充. 乃當時賢相. 先生亦所推重, 然此處則以周爲不足於剛直, 譏之.

〔湖南之行〕 子澄嘗知衡州, 衡州屬湖南, 時將赴

74) 語: 諸 異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75) 撐眉弩眼: 高大本에는 [추기 一本, ‘撐眉’上, 有‘〔建昌〕 包顯道·敏道·詳道三兄弟, 建昌人, 爲禪學士, 故云.』이 있다.

任.76)

〔在彼〕 在湖南.

〔○居官無修業之益〕 子澄之言.

〔浙中〕 宋都中也. 言都中, 後來事體也.

〔○廬陵〕 子澄所居.

〔高劉諸人〕 未詳.

〔○攙斷〕 ‘攙’, 士咸切, 貫刺之也. 言以己意貫入文義而斷之也.

〔景陽〕 77) 許子春字.

〔又忒〕 또 심히.

〔公度〕 劉孟容字.

〔卷子批在紙背〕 批, 批云也. 卷子, 疑是疑記78)之屬.

〔應課〕 課, 試也.

〔今將實踐履事〕 事乙 將ㄴ也.

76) 赴任 : 高大本에는 뒤에 ‘故云’이 있다.

77) 景陽 : 高大本에는 [추기] 一本, ‘景陽’上, 有‘〔扭担〕 “扭”, 女九切, 手轉貌. 又陟有切, 扭按也. “担”·“捏”同, 年結切, 拾也, 捺也.’]가 있다.

78) 疑記 : 國中本2 ‘記疑’

記疑0309 (節要0501 : 陸陳辨答1) (晦庵集 卷36)

答陸子壽

〔○答陸子壽 主復于寢〕 卒哭祔廟後，神主復于寢。

〔鄭氏〕 玄。

〔杜氏〕 預。

〔力詆鄭杜〕 子壽力詆鄭·杜也。

〔畢原鄆郇〕 四國，皆文王子。

〔邳晉應韓〕 四國，皆武王子。

〔役文〕 不量情義而徒用禮文之謂。

〔義起〕 古無其禮而以義新作禮文也。

〔閒併及之〕 閒 힘힘히。

記疑0310 (節要0502 : 陸陳辨答2) (晦庵集 卷36)

答陸子美

〔○答陸子美 長者〕 子美。

〔乃在此而不在彼也〕 此指所見未分明直截之人也。
彼指濂溪。

〔非意之也〕 非私意也。

〔小己之私〕 쥬고마흔⁷⁹⁾ 己矣 私。

〔合有分別〕 虛名果 實理이 合當屏 分別이 이실
거시어늘。

〔膠固二字〕 子美以〈西銘〉爲膠固，故云。

記疑0311 (節要0503 : 陸陳辨答3) (晦庵集 卷36)

答陸子靜

〔○答陸子靜 玉山〕 信州也。

〔時以入都〕 其⁸⁰⁾時先生入都。

〔今既不然則〕 不能灼見太極。

〔三者〕 兩儀・四象・八卦也。

〔築底〕 此漢語未詳，恐築窮極之義。底，猶本根也。
言窮極至本根更無去處之意。

79) 쥬고마흔 : 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쥬고만흔’

80) 其 : 高大本에는 없다.

- 〔眞無耳〕⁸¹⁾ “以爲”之意，止此。
- 〔太煞分明〕 ‘煞’，音쇄，ㄴ장。
- 〔過甚〕 “自謂”之意，止此。
- 〔與人言易〕 人，林栗。
- 〔隨語生解〕 語乙 隨ㄴ也 解乙 生。
- 〔實出乎彼〕 彼，謂老子無極也。
- 〔較是二者〕 二者乙 較ㄴ大 ㅍ。
- 〔○參伍〕 猶俗言⁸²⁾事干。言或三以證之，或五以考之，以得其情也。

記疑0312 (節要0504 : 陸陳辨答4) (晦庵集 卷36)

答陳同甫

- 〔○答陳同甫 納甲〕 推命法。
- 〔賤命〕 先生自謂。
- 〔此事〕 納甲之事。
- 〔騫騰〕 늘⁸³⁾웃처。

81) 眞無耳 : 기준본에는 ‘眞無以’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82) 俗言 : 高大本 ‘言俗’

記疑0313 (節要0505 : 陸陳辨答5) (晦庵集 卷36)

與陳同甫

〔○與陳同甫⁸⁴⁾ 合說多時〕 맞당히 說ᄃ얌즉 ᄃ안
디 오란디라. 說于同甫也.

〔相處〕 以同甫相處於法度之外.

〔罷逐之遽〕 先生罷逐之遽也.

〔今茲之故〕 指意外之禍.

追錄⁸⁵⁾

〔○⁸⁶⁾太陽之餘證〕 人之稟受陽氣偏多者, 病有太陽
之證. 先生每患氣質過剛, 力加醫治之功, 故於此以是
自比. 其曰餘證者, 言醫治未盡去之餘證耳.

〔大椀不托〕 雪來爲麥豐之祥, 故飢寒者, 因爲怨嗟

83) 늘 : 高大本 ‘술’

84) 與陳同甫 : 기준본에는 ‘與同甫’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85) 追錄 : 기준본에는 ‘太陽之餘證’과 ‘大椀不托’, 두 조목만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는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大椀不托’은 《定本 退溪全書》7, 〈答李剛而問目【《朱書》】〉(KNL0760)에 수록되어 있고, ‘太陽之餘證’과 나머지 다른 조목들은 《定本 退溪全書》5, 〈答李仲久問目【『朱子書』疑語】〉(KNL0090A)에 수록되어 있다..

86)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之諺曰：“哀哉窮人，今被雪寒凍死，不知明年何人享麥豐之樂，喫得⁸⁷⁾大碗麪食乎？”時先生上封事，極言近小人之禍，言多觸諱，囊封付出，上意叵測。⁸⁸⁾ 伯恭戒之，故答之云云。言我今若因此得罪，正如雪寒凍死之人，不知何人得意恣橫反享其樂耶？

【○四亭八當無凹凸】言四方勻亭，八面正當，既無凹陷處，亦無凸起處也。勻亭字，見《詩·行葦篇》“四鍤既鈞”註。蓋持權衡稱物者，權與物輕重不等之時，權之移前却後不定，及輕重兩勻，則權始停於此，故謂之勻亭。亭之爲言，停也。

【便與河南數珠不同】程子謂：“君實患思慮紛擾，常欲以中爲念，却是爲中所亂。與其爲中所亂，却不如與一串數珠之爲愈也。”子澄不免有文章博雜之病，想其書中自言：“非不知文章之爲玩物喪志，而不能決舍。”又却爲自解之言曰：“吾雖有此病，寧不與河南數珠之意同乎？”先生攻破其說之非曰：“既以文章爲玩物喪志，則便與河南欲與數珠之意不同。彼程子之欲與數珠，政是

87) 得：高大本에는 없다.

88) 測：기준본에는 ‘側’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와 《定本 退溪全書》에 의해 고쳤다.

恐人之喪失心志，而欲以此物救之耳。”蓋禪家患心之難持，手把串珠，個個循環數之，欲其念念在此，庶無走作流注之失。此程子之所以借引其語用戒君實之意，與子澄役心外馳於文章博雜之病，政相反也。乃引彼說，以爲自解之地，可乎？故先生云然。

【葱嶺帶來】葱嶺在西域，此譏陸氏爲禪學，故其奏對之語雖好，不免帶得西竺意思來。渠，指子靜，言子靜聞吾此語，定不降伏，然實是如此，掩諱不得也。

【八字打開】《韻書》，“八，別也。象分別相背之形。”此書上文力言禪學之非，至是因言近讀《大學》，見得聖賢說學，已如許分明，如八字之打開，無可疑處云云。

【向前攙斷，扭捏主張】‘攙’，楚銜切，攙挽，貫刺之也。向前攙斷，言妄以己意，直向前頭，貫刺聖賢言語，而斷置之也。‘扭’，陟有切，按也。‘捏’，年結切，捺也。按·捺，皆用手抑物之名，言不識文義，而據己意，抑勒看取，又自以爲是，而妄自主張也。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四

記疑0401 (節要0506 : 陸陳辨答6) (晦庵集 卷36)

答陳同甫

〔○¹⁾答陳同甫²⁾ 生朝〕 猶言生日.

〔孤露〕 言無父母.³⁾

〔新詞〕 同甫作生辰新詞, 送于先生, 故云.

〔裘材〕 猶言衣服之材.

〔正坐如此〕 正坐於如此之議論.

〔架漏牽補云云〕 言治道也.

〔所能預〕 道之常存, 非人所能預也.

〔作壞〕 爲人之所壞也. 作壞, 壞也.

〔終殄滅他不得耳〕 ㄹ ㅎ내 他 ㄷ 殄滅코져 ㅎ여도
못 ㅎ디라.

〔得失長短〕 老兄之得失長短也.

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高大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2) 答陳同甫 : 기준본에는 ‘答陳甫’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3) 父母 : 諸 異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百尺竿頭云云〕 禪語，借而用之也.

〔省得氣力爲漢唐分疏〕 氣力又 漢·唐^乙 爲^ㄴ也 分疏^ㄴ只^乙 省得^ㄴ面. 分疏，發明也；省，減也.

〔吾豈敢〕 同甫以李·孔·霍·張期望先生，故先生云吾豈敢.

〔大字〕 同甫爲寺觀請大字於先生，故云.

〔窘束〕 家計窮也.

〔無人力往來〕 無往來之人力也.

〔○此念〕 富貴之念.

〔便要主張將來做一般看了〕 主張^ㄴ也 가져다가 一般^乙 做^ㄴ也 看호물⁴⁾ 要^ㄴ히. 言將富貴之念，以浴沂⁵⁾躬耕一般看也.

〔二公詩〕 二公詩，咏園亭詩. 二公，以下第三書考之，陳傅良·葉正則也. 正則，葉適字也.⁶⁾

〔頂門上〕⁷⁾ 빅회.

〔不可委之他人〕 同甫欲以先生座右銘委之他人，故

4) 물 : 高大本 ‘물’

5) 沂 : 기준본에는 ‘浙’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6) 正則……字也 : 高大本에는 없다.

7) 頂門上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頂門’上, 有‘〔關振〕 關, 機關也. “振”, 或云當作 “榦”, 治者鼓風板所安之木也.]가 있다.

云.

〔○又不肯說此⁸⁾不是義理〕 이 義理 아니라 ㄷ也
肯說타⁹⁾ 아니 ㄷ ㄱ 故.

〔有息〕“不應”之意，止此.

〔只消如此〕如此，爲一世英雄也.

〔田地〕 바닷.

〔不要十分是當〕一種道理 十分是當致 아니 ㄷ 也 斗
諸般作爲 厓 礙致 阿히 ㄷ 也¹⁰⁾ 大功名 乙 立 ㄷ 矣 富
貴¹¹⁾ 乙 取爲要勿 見 ㄷ 古.

〔此等去處〕言此等處.

〔驗也〕“不可”之意，止此.

〔而況謂其云云止以爲制〕 同甫所謂之言.

〔諳合〕諳合於道.

〔限隔〕 三代·漢·唐之限隔.

〔聖賢也〕“不當”之意，止此.

〔自有欠闕〕後之觀者，自有欠闕.

〔觀其所謂〕所謂，同甫之所謂.

8) 此：《記疑》의 諸 板本에는 없으나 《節要》에 의해 보충하였다.

9) 타：高大本 ‘치’

10) 也：高大本 ‘니’

11) 富貴：國中本2에는 [추가 ‘大’]가 있다.

〔攪金銀〕 攪, 亂也.

〔絕學一事〕 不傳之絕學一事, 同甫嘗論之, 故云.

〔○分數之多小〕 暗合分數之多小也.

〔去就〕 利欲場中厓 去爲也 就ㄴ也.

〔目固大心固平〕 同甫欲大其目平其心, 而不必屑屑於其是非, 故先生反覆¹²⁾之.

〔淘擇不淨〕 淘, 猶‘이다’之意. 言淘擇之而不能致其淨耳.¹³⁾

〔查礦〕 쇠불일 제 줏의¹⁴⁾니, 猶쇠똥이라.

〔不假言傳〕¹⁵⁾ 假ㄴ也 言傳乙 아닐 거시오.

〔○一二有業〕 有業, 言著書之業.

〔吹倒亭子〕¹⁶⁾ 言如大風吹倒同甫亭子也. 同甫嘗有富貴氣象, 故下文云: “天公會事發.”

〔掀却卧房〕 大風掀却卧房也.

12) 反覆: 高大本에는 뒤에 ‘言’이 있다.

13) 耳: 高大本에는 없다.

14) 줏의: 高大本 ‘줍기’, 國中本2 ‘즈의’

15) 不假言傳: 기준본에는 ‘不暇言傳’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不假’上, 有‘〔笆籬〕 삼자기. 以傳底絕學爲笆籬邊物也.』가 있다.

16) 吹倒亭子: 기준본에는 ‘吹倒亭字’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吹倒’上, 有‘〔子雲堯夫〕 楊子雲·邵堯夫, 皆數學之人, 必指《本義》·《啓蒙》等書而言.』이 있다.

【何處得來】言如伯恭之賢何處可得而來乎。言¹⁷⁾世間無如¹⁸⁾此等人也。

【職事】以往來武夷爲職事也。

【付叔度子約】因入城之人而寄書付于叔度·子約處，使傳來于我也。

【○不能自爲時】同甫謂¹⁹⁾“雖欲遇時行道，而不能自做好時”云，故先生言之也。

【兗公】顏子也。

【告於巍巍當坐之時之心則】疑同甫曾作祭文時，有‘巍巍當坐’之言，故云云。巍巍當坐，指孔·顏。

【仕久止速】當作‘仕止久速’。

【○伯恭之論】‘志大宇宙，勇邁終古’，乃伯恭之論也。

【如來喻】²⁰⁾來喻以先生期望於當世，故云云。

【象先】陸象先，當時儒士。

17) 言：高大本에는 뒤에 ‘如’가 있다.

18) 如：高大本에는 없다.

19) 謂：高大本에는 없다.

20) 如來喻：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如來’上, 有‘【出日口氣】吐辭說爲文章.’]이 있다.

記疑0402 (節要0601 : 問答論事1) (晦庵集 卷37)

與籍溪胡原仲先生

【○與籍溪胡原仲先生 拜覆】 猶言拜白也。‘覆’字，與‘白’同意。

【未知所稅】 稅，猶止也。范公時未定居而死，故云。猶言未知所居也。

【從其卜居之志】 范公生時，欲其卜居于渭南，故云。

【○江上消息】 江·淮以北爲金，以南爲宋，金每至江上侵宋，故云。

【轉輸科斂】 轉輸ハ 科斂乙。

【劉子源】 未詳。

【道嶺上】 嶺，分水嶺也。往臨安，過此嶺也。

【如前所云】 指‘不待加兵而坐受弊’也。

記疑0403 (節要0602 : 問答論事2) (晦庵集 卷37)

與范直閣

【○與范直閣 直閣】²¹⁾ 直秘閣也.

【向上一著】 《易》謂：“形而上者謂之道.” 故凡做功反天理，謂之向上一著，猶言一番下手做也.

【豈有二言哉】 忠恕與一貫，豈有二言哉？

【其棄後學久矣】 言棄後學而去世也.

【鬱然】 ‘鬱’與‘苑’同用，言²²⁾文彩苑茂也.

【○武林²³⁾之行】 武林即臨安，言入都城.

記疑0404 (節要0603 : 問答論事3) (晦庵集 卷37)

與慶國卓夫人

【○與慶國卓夫人 五哥嶽廟】 五，行第也. 哥，兄也，謂劉坪²⁴⁾也. 坪爲岳廟，故云五哥嶽廟. 坪，劉子羽繼室之子，爲劉子翬²⁵⁾繼後.

21) 直閣：기준본과 諸 異本에는 이 표제어가 없으나 내용상 보충하였다.

22) 言：國中本2에는 없다.

23) 武林：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武林’上有‘(先子) 猶言先君.’]가 있다.

24) 坪：기준본에는 ‘坪’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이 항목의 ‘坪’은 모두 같다.

25) 劉子翬：高大本 ‘子翬’

【幹官】 時藩府有幹辦公事官，乃幕職也。

【出己】 出於幹官之下。

【參部】 部，吏部也。時用人有兩道，其一，堂除，由中省所除也；其一，參部，由吏部所差也。堂除則出於丞相聞見而除，或²⁶⁾有干求之弊；參部則自有定規，故無此弊。患所以欲令平父參部受職也。

記疑0405 (節要0604 : 問答論事4) (晦庵集 卷37)

上黃端明

【○上黃端明 中默而成之不言而信】 〈繫辭〉言。

【鄉往之深】 言心常鄉往於彼，非身往也。

記疑0406 (節要0605 : 問答論事5) (晦庵集 卷37)

與王龜齡

26) 或：國中本2에는 앞에 '故'가 있다.

〔○與王龜齡〕

〔如孟子所譏也〕 “人病舍其田而芸人之田，所求於人者重而所以自任者輕”，孟子言也。

〔前日所爲切切然者〕 卽上文“切切然以不得見乎其人爲嘆”者也。

〔楚東〕 地名。

〔燕咲從容〕 謂唱酬詩語也。

〔不求其素〕 猶言‘내의 사오나온 일란 求티²⁷⁾ 아니헝고’。

〔行百里者半九十里〕 行百里者，以九十里爲半也。

〔狂易〕 《韻府》，“‘易’，入聲，狂易，失心貌。”
《韻會》同。言變其常性。

〔此來時通問否〕 撫臨近甸，故云。

〔一至湖湘〕 以訪南軒事，一至湖·湘也。

〔宋倅〕 疑²⁸⁾宋若水。

記疑0407 (節要0606 : 問答論事6) (晦庵集 卷37)

27) 티 : 高大本 ‘치’

28) 疑 : 기준본에는 ‘擬’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與陳丞相【一本作‘與龔實之’。】

〔○與陳丞相書〕

〔初無此意〕 無好賢樂善之誠。

〔陳太傳〕 未詳。

記疑0408 (節要0607 : 問答論事7) (晦庵集 卷37)

與劉共父

〔○與劉共父 註文定本〕 文定本，文定所藏二程書也。

〔伯逢〕 見下。文定子弟也。

〔彼中本〕 卽共父·南軒所刊本也。

〔別得善本〕 先生別得善本也。

〔所用二本〕 先生所用二本。

〔亦有灼然却是此間本誤者〕 조흔 灼然 屏 도로혀
是此間本、誤호미 인²⁹⁾는 者 p.

29) 인 : 高大本 ‘잇’

《不曾寫去》 不曾寫去于共父·南軒處也。

《橫却一個胡文定後》 一個胡文定乙 橫ッ 後ル。

《定性書》 明道嘗作〈定性書〉。

《表弟》 父姊妹之子，謂之表弟。橫渠乃程珦之表弟，程珦乃程子父也，橫渠於程子五寸叔。

《不過減得數十個閒字而》 數十個閒字乙 減得ッ 요
메 過티 아니호되。

《游察院》 游定夫。

《非所施於平時》 ‘猶子’之言，非所施於平時。

《嫂叔之無服 姑姊妹之薄也》 《禮記》之文。嫂，兄弟之妻；叔，夫之兄弟也；姑，父之姊妹也。嫂與叔之無服과 與姑姊妹之服薄也。◎姑姊妹本期，適人則降服大功，是從薄也。

《未安處》 “不得”之意，止此。

《元寄胡家本》 胡家本，即下所云³⁰⁾印本也，乃胡家子弟所傳印文定本也。

《大於此者》 樂聞過·勇遷善之事，有大於此者。

《小節》 二公指文定小節之非，疑不當立祠也。

《賭是》 賭，賭得也，不得其是也。

30) 云：高大本‘謂’

【微似有此】 有此，謂文定之意亦不欲後人改之也。

【勞煩衆人】 以書寫勞煩衆人也。

【○參伍校量】 〈繫辭〉，“參伍錯綜。”參，以三數之也；伍，以五數之也。蓋三數五數，多方校量，以知其實之意也。

【方其責之必加於己而未及也】 責、반드시 己、加、
里又代 及디 아니하야³¹⁾서.

【須】 與‘需’同用也。

【望實】 望，德望；實，事實也。

記疑0409 (節要0608：問答論事8) (晦庵集 卷37)

答韓無咎

【○答韓無咎 分合之間】 釋分理事爲二，儒合理事爲一。

【是豈知天命】 是乃蘇·張也。“豈知”之意，止於“中乎”下。

31) 야：高大本 ‘여’

〔有得於斯耳〕 斯，吾學也.

記疑0410 (節要0609 : 問答論事9) (晦庵集 卷37)

與芮國器【燁】

〔○與芮國器³²⁾ 學政〕 學校之政.

〔崇觀〕 崇寧·大觀，徽宗年號也.

〔月書季考〕 月書ふ 季考又. 季考乃季月之考也.

〔○未嘗行之〕 言前書請行程子學制，而芮公有此學制，未嘗行之云，故復言之.

〔方且懲之而〕 懲ッ乙 巨寸今乙.

記疑0411 (節要0610 : 問答論事10) (晦庵集 卷37)

答鄭景望

32) 與芮國器 : 기준본에는 ‘國器’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 〔○答鄭景望 道其語〕 道其龔帥³³⁾之語也.
- 〔范忠宣〕 謂純仁.
- 〔蔡新州〕 謂蔡確, 小人也.
- 〔元祐流人〕 元祐流竄之小人.
- 〔欲以口語擠之〕 謂確嘗登車蓋亭, 賦詩十首, 知漢陽軍 吳處厚, 指以爲謗訕, 上之. 劉安世等諸賢, 因此成罪, 流確 新州.
- 〔邵子文〕 伯溫.
- 〔明道所見〕 元豐大臣共政之事也.

記疑0412 (節要0611 : 問答論事11) (晦庵集 卷37)

答尤廷之【袤】

- 〔○答尤廷之 虎食其外〕 單豹岩居水飲云云而虎食其外. 言養生自保而爲虎所食, 以比有不免世禍之虞.
- 〔經說〕 先生所著經說也.
- 〔綱目不敢動着〕 《綱目》功夫浩穰, 起草中輟, 而

33) 帥 : 기준본에는 '師'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不敢再下手也。

〔王舜〕 莽臣。

〔按本例〕 溫公本例。

〔楊雄死〕 “不免”之意，止此。

〔胡氏〕 寅。

〔刼遷九錫〕 刼遷 ~~果~~ 九錫二事。

〔皆略識之〕 先生皆略識其人也。

〔叔祖〕 先生自稱朱弁爲叔祖，乃先生五寸叔也。

記疑0413（節要0612：問答論事12）（晦庵集 卷37）

與郭冲晦

〔○與郭冲晦 小註忠孝〕 雍父，名忠孝。

〔次輯諸書〕 先生次輯諸書也。

〔疑信異傳〕 《左傳》云：“疑以傳疑，信以傳信。”

記疑0414（節要0613：問答論事13）（晦庵集 卷37）

答程可久【迥】

〔○答程可久 乖刺〕‘刺’，音날，乖戾也。

〔繳繞〕버르다.

〔死法〕非活法之謂.

〔○上下相迫〕程可久疑曾有去就難處之言，故云上下相迫也.

〔常在入〕常在他人也.

〔○³⁴）繫閔〕‘閔’與‘礙’同.

〔行亦力請〕行，猶將也. 將亦力請也.

〔祈還故官〕祈，猶冀也. 望其還爲祠官，故云.

記疑0415 (節要0614 : 問答論事14) (晦庵集 卷37)

答程泰之【大昌】

〔○答程泰之 卦氣〕猶言卦之氣也.

〔辟〕猶君也. 十二卦，爲君於衆卦也.

3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高大本·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以附十二辟卦》 分四十八卦，以附十二辟³⁵⁾卦，則乃六十卦也。

《不待論其減去云云》 泰之論其減去四卦二十四爻，以言其失，故先生言雖不待論減去而見其失也。

《八十一首》 首，猶卦也。《太玄經》，乃八十一首也。

《踦羸》³⁶⁾ 踦贊·羸贊。

《反據其說》 反據《太玄》之說。

《○已有奏篇》 程公於〈禹貢〉之書嘗作一篇，奏於上前，故云。

《其地》 南康³⁷⁾地也。

記疑0416 (節要0615 : 問答論事15) (晦庵集 卷37)

答李壽翁

《○答李壽翁 麻衣易說》 戴師愈著《易說》，托言

35) 辟：諸 異本에는 없다.

36) 踦羸：기준本에는 ‘踦羸’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37) 南康：諸 異本에는 뒤에 ‘之’가 있다.

陳搏師麻衣道者所著，後爲先生覺得其僞。³⁸⁾

〔物故〕言死也.

〔見爲進賢令〕見，猶見在。進賢，地名.

〔去年至此〕至南康也.

〔自別有易說〕乃《啓蒙》也. 先生自作，故云自別有《易說》.

〔視至〕至커든 視ッム.

記疑0417 (節要0616 : 問答論事16) (晦庵集 卷37)

答陳體仁

〔○答陳體仁 就使得之〕得其聲.

〔絃歌已乎〕絃歌厓 被ッ乙 만히고 말랴.

〔誠既得之則〕誠既推而得之古樂則.

〔畫餅〕魏明帝詔盧毓曰：“有名士，如畫地爲餅，不可啖食.”

〔以求之性情之中〕以求詩於性情之中也.

38) 僞 : 기준본에는 ‘爲’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記疑0418 (節要0617 : 問答論事17) (晦庵集 卷37)

答顏魯子

【○答顏魯子 書儀】 司馬公所著禮也.

記疑0419 (節要0701 : 問答1) (晦庵集 卷38)

答袁機仲【樞】

【○答袁機仲 丹竈之術】 《參同契》，以乾·坤分人身上下，以爲³⁹⁾爐鼎；以坎·離爲一身水火，以火煉⁴⁰⁾水；以餘六十卦，爲一月火候抽添之法。其法每一日直以二卦，如初一日晝直數·夜直蒙之類，望前則添火，望後則抽火。如此循環，久之功成，自然丹結於中，所謂⁴¹⁾內丹也。

39) 以爲：高大本‘二’

40) 煉：高大本‘鍊’

41) 謂：기준본에는 ‘望’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目今〕 猶言見今，卽當今也.

記疑0420 (節要0702 : 問答2) (晦庵集 卷38)

答袁機仲別幅

〔○答袁機仲別幅 鄉飲酒義〕 《禮記》篇名.

〔其後復有⁴²⁾〕 〈鄉飲酒〉復有.

記疑0421 (節要0704 : 問答4) (晦庵集 卷38)

答趙提舉【善譽】

〔○答趙提舉 慕用之久〕 慕用，語出《漢書》，言思其人而效其法·其所爲也.

〔倥傯〕 困於多事也.

〔名理〕 猶言名義道理也.

42) 復有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復有’下, 有‘〔良遂〕 僧名.’이 있다.

記疑0422 (節要0705：問答5) (晦庵集 卷38)

答周益公

〔○答周益公 安可置之而不論〕 安可置呂公而不論効哉？

〔承其善意〕 承其呂公之善意也。

〔汾陽臨淮〕 汾陽 郭子儀·臨淮 李光弼二人，初有怨隙，及祿山之亂，急於王事，棄故怨，同心戮力，以成中興之功。

〔特書之〕 歐公作范碑時，特書之。

〔西事〕 西夏 趙元昊叛亂制禦之事也。

〔其於用人〕 其言范·歐之用人。

〔專用德而遺才矣〕 ‘范·歐用人’之言，止此。

〔張李〕 未詳。

〔二宋〕 宋郊·宋祁。

〔優於二公〕 范·歐也。

〔跡弛〕 不入規矩之謂。

〔悔前言之失〕 悔其前日論効呂公之事。

〔以無爲有〕 歐公撫范碑時，以所無之事爲有也。

〔忠宣〕純仁.

〔墨藏記〕⁴³⁾ 劉靜春先祖, 劉式以下攸·敝諸公, 未的何時, 號其所居, 爲墨藏. 先生嘗有〈墨藏記〉. 但此所謂記, 非先生記, 乃其前自⁴⁴⁾有記耳.

〔告絕〕⁴⁵⁾ 告, 〆也. 絕, 〆古. 言絕交也.

〔出處文辭之實〕 出處與文辭也. 文辭乃上文范公自誦⁴⁶⁾之書.

〔害其守正〕 忠宣之刊去·解仇事, 雖未達權, 然亦可謂守正也.

〔所與子約書〕 益公所與子約書也.

〔學道三十年〕 歐陽詩句.

〔爲後學之言〕 益公〈與子約書〉云: “學⁴⁷⁾三十年, 爲後學之言.” 益公之意以爲歐公非學道云云如爲後學之言, 故先生言之.

〔綴緝纂組〕 言文辭⁴⁸⁾也.

〔豈近世後學之言哉〕 言自古有之也.

43) 墨藏記: 《節要》에는 ‘墨藏’이 ‘墨莊’으로 되어 있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44) 自: 國中本2 ‘日’

45) 告絶: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告絶’上, 有‘〔沫血〕“沫”與“賴”同音義.』가 있다.

46) 誦: 高大本에는 [추가 注‘誦’, 一本作‘訟’.]이 있다.

47) 學: 高大本에는 뒤에 ‘道’가 있다.

48) 辭: 國中本1·國中本2 ‘詞’

〔學此〕 學道也.

〔本論〕 歐陽⁴⁹⁾所著.

〔仁義之人〕 韓文言: “仁義之人, 其言藹然也.”

記疑0423 (節要0706 : 問答6) (晦庵集 卷38)

答留丞相

〔○答留丞相 歷選〕 選, 數也.

〔得此於人蓋鮮〕 此, 指留公親賜點閱以下精切事.

追錄⁵⁰⁾

〔大風吹倒亭子 却似⁵¹⁾是天⁵²⁾公會事發 彼洛陽亭館

49) 陽: 高大本 ‘公’

50) 追錄: 여기의 追錄은 내용상 이 자리가 아니라 아래 권5의 끝부분에 편집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해당 내용 중 ‘大風吹倒亭子’ 조목은 《定本 退溪全書》7, 〈答李剛而問目【『朱書』】〉(KNL0760)에 들어있고, ‘答袁機仲書’ 조목은 〈答李剛而問目【朱書】〉(KNL0773)에 들어있다.

51) 似: 기준본에는 ‘以’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 《定本 退溪全書》에 의해 고쳤다.

52) 天: 기준본에는 ‘元’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 《定本 退溪全書》에 의해 고쳤다.

何足深羨也」53) 同父爲人，豪縱不檢，無心地精一功夫，故未免心累於外物。是時其家亭子爲大風吹倒，來書言及，因又稱羨舊日西京士大夫亭館之盛，而自歎其不如。故先生之答，反其意而諷之曰：“亭子爲風吹倒，非君之不幸也。却是天意適會事機，而發此戲劇以警君。君當因54)以自省，不須歎恨。況彼洛陽亭館，競尙奢華，非君子之高致，又何足羨耶？辦得此心，卽更掀55)卧房，亦且露地睡，似此方是真正大英雄人。”此心卽上文勿視巍巍之心也。言‘人能辦得如此壁立萬仞底心志氣概，則或更有大風，掀破自家寢當56)卧之房屋，亦不爲之動心隕廢，方且恬然露處而睡。如此，方爲真正大英雄人，又何爲風倒一亭，而屑屑歎恨耶？’

【答袁機仲書 論啓蒙下云 說得大郎當了 只少個拄杖卓一下 便是一回皆普說矣」57) 郎當，猶言狼藉也。

53) 大風吹倒亭子……深羨也：기존본에는 표제가 ‘大風吹倒亭子’로만 되어 있으나, 주자의 편지 내용이 ‘深羨也’까지이므로, 여기까지를 표제로 보았다. 《定本 退溪全書》에도 ‘深羨也’까지가 표제로 되어 있다.

54) 因：高大本에는 없다.

55) 掀：高大本에는 뒤에 ‘却’이 있다.

56) 寢：기존본에는 ‘當’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定本 退溪全書》에 의해 고쳤다.

57) 答袁機仲書……普說矣：기존본에는 표제가 ‘答袁機仲書’로만 되어 있으나, 주자의 편지 내용이 ‘普說矣’까지이므로, 여기까지를 표제로 보았다. 《定本 退溪全書》에도 ‘普說矣’까지가 표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節要》

卓，立也。一下·一回，皆猶言一番也。天地變化之神·陰陽消長之妙，本不可以言語形容，今吾說形容極盡，無復餘蘊，似不合如此太漏洩天機，故云說得太郎當了。竺氏教有二，其禪宗，不立文字，只拄杖卓一次，便可以曉人悟入；其教宗者，必普徧說法，乃可以曉人得法。故先生於此，戲借其說曰：“吾只欠個拄杖卓一次，無言以悟人之妙，便是一番普徧說法，豈不可以曉你傳法乎？”先生此言，頗若自誇，非自誇也。程子所謂“賢人之言，引而自高。不然，道不尊”也。蓋機仲雖是清名直節之人，性執苦，不信先生之言，故喻之以此。

에는 없다. 高大本에는 이 항목이 없고 다음 항목이 있다. ‘【小己之私 合有分別】此爲假設之辭，以見陸說之非。蓋上文自“今若必謂”至“破有我之私而已”，直說子美誤解〈西銘〉之意。自“則是所謂”至“破壞其所有也”，乃假解陸說之意以論西銘之旨，而子美之謬誤自見矣。其意若曰：“公之看〈西銘〉如此，則是仁爲虛名無實體，而已私乃是實理。然則天地萬物與我一己之私，當有分別而非一體也，聖賢不知有分別而妄爲言語，如〈西銘〉之類，以爲天地萬物與我一體，以增飭其無之仁體，破壞其所有之己私也耶？是必不然矣。” 쇼고만 혼 己 私.’

朱子書節要記疑 卷之五

記疑0501 (節要0707 : 問答7) (晦庵集 卷38)

與曾裘父

〔與曾裘父 遇合非常〕 魏掞之以處士召爲國子學錄。

記疑0502 (節要0708 : 問答8) (晦庵集 卷38)

答耿直之【秉】

〔○答耿直之 入浙〕 浙指臨安，宋都。

〔綜理名實〕 綜，訓機縷，乃今之잉아。此物錯挈經絲而低昂開合，令絲不亂而布得成，故稱摠攝辨覈曰‘綜理’。

〔圓融之妙〕 “不唯有以見”之意，止此。體用、圓融、

記疑0503 (節要0709：問答9) (晦庵集 卷38)

答薛士龍【季宣】

〔○答薛士龍 講服〕 講，猶論也。

〔餘論〕 乃士龍餘論也。

〔懷然大懼〕 懷，禮韻，敬也，畏也。

〔出處之義略聞之〕 先生自言有聞於古義耳。

〔影纓〕 ‘影’與‘飄’同音。影纓，長組貌。

〔湖學〕 安定先生 胡璣，字翼之，爲湖州教授，以明體適用之學教育人材，經學大興。濂·洛之前，倡道之漸，已見於此。士龍爲湖州，故言及此。

〔賢太守〕 薛，時知湖州。

〔章句誦說〕 乃下學之事，卽洒掃應對之類也。

〔高明自得〕 指禪學。

〔嘗竊疑之〕 謂胡教與禪學，卑者有效，高者無實，故疑之。

〔○竊意高明止能諭也〕 此先生聞薛士龍所論胡公之學，得於古之所謂洒掃應對進退者，而歎美之。言前書

所云章句誦說，乃下學之事，卽洒掃應對之類。

記疑0504 (節要0710 : 問答10) (晦庵集 卷38)

答林謙之【光朝】

〔○答林謙之 祇召〕 祇，敬也。敬承召命也。

〔黃亭〕 亭名，在武夷近處。

〔執御〕¹⁾ 不敢指言謙之，故云執御，猶今侍史也。

〔其以此與〕 此字，卽上孝悌忠信下學工夫。

〔周行却立瞬目揚眉〕 指禪學之人用心力礪精神，以爲一超頓悟之機之狀。

〔綿力薄材〕 古語。古²⁾綿力薄。綿，柔弱之意。

記疑0505 (節要0711 : 問答11) (晦庵集 卷38)

答江元適【泳】

1) 執御 : 기준본에는 ‘替御’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2) 古 : 高大本에는 없고,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古’字恐‘材’字.]가 있다.

〔○答江元適 發明道要〕 道要乙 發明ッ p.

〔三編〕 吐ッ 古. 承上‘致’字意, 故ッ 古.

〔先君子〕 韋齋.

〔有道〕 延平.

〔一二〕 一二之下, 不須絕句.

〔○無分段〕 논호미 업다.

〔且欲會通其旨要以爲駐足之地者〕 江意似以此爲窮理, 而到融會貫通處, 以爲立身之本也. 然此豈傷時痛俗而後自反而始爲此耶? 倒置如此, 故斥之.

〔○方維〕 方, 四方之位; 維, 四方之間位. [四方八維.]

〔存眞合體〕 彼意以謂‘存天理之眞, 以合天性之體’云耳.

〔精義之云〕 江舉《易》‘精義入神’之語而錯認云云.

〔不充實用〕 實用ㄱ 充되 몬ッ 也. ○充, 猶備也.

〔不待認而合〕 因其說‘反身自認, 存眞合體’之語, 而反之以爲私去, 則廓然貫通, 不待揣認而自合一矣.

記疑0506 (節要0712：問答12) (晦庵集 卷38)

答詹體仁【儀之】

〔○答詹體仁 高自標致〕 標，猶表也；致，如格致·風致之致。高自標其風致也。纔見其人如是爲之，便知其人虛夸不務實也。

記疑0507 (節要0713：問答13) (晦庵集 卷38)

答楊庭秀【萬里】

〔○答楊庭秀 程弟〕 程允夫先生內弟。

〔脾疾〕 脾胃之疾。

〔底止〕 底，止也。底於止也。

〔忘與人同憂之憂〕 賢者雖不遇，而不敢果於忘世卽與人同憂之憂也。

〔遁思〕 《詩·白駒篇》，“勉爾遁思。”此用其語以勉誠齋。

記疑0508 (節要0714 : 問答14-1~4) (晦庵集 卷38)

答李季章【壁】

〔○³⁾答李季章〕 李爲史官.

〔舊官〕 祠錄.

〔同入文字〕 入, 猶上也.

〔一宗〕 凡物摠合其數而稱之曰‘一宗’.

〔有無登載〕 不知何如, 故問之曰: “有登載乎? 無登載乎?” 此乃中國俗下文字有此例, 吏文多有之.

〔如館中未有得行下〕⁴⁾ ‘有’下絕句, ‘得’字屬‘下’讀.

〔建寧〕 揆之, 建寧府人.

〔○吏議〕 臺論之類.

〔附以傳記〕 以《儀禮》爲經, 而附以傳記. 今《儀禮經傳》十卷, 正依此例爲之者. 蓋《儀禮》自有本經記, 又《小戴禮》如〈燕義〉・〈昏義〉・〈祭義〉之類, 皆釋《儀禮》之義, 故謂之傳. 言以此傳記等附之

3) ○ :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4) 如館中未有得行下 : 기준본 및 제 이본에서는 ‘如館中未有行下’라 하여 ‘有’ 아래에 ‘得’이 빠져 있으나, ‘得’을 넣어야 아래 주석을 이해할 수 있다. 《節要》 본문에 의해 고쳤다.

經下也。

〔袞作一片不成段落〕 袞，猶混合也。許多禮文，混雜爲一片也。段落，分段而各有下落也。如冠從冠類，昏從昏類，爲段落也。

〔○留衛公〕 正。

〔得詩說〕 卽今《詩傳》也。

〔點抹〕 或點或抹，以自標識所得之意旨也。循行間而長引筆曰‘抹’，非今塗抹之謂。

〔德修〕 劉光祖。

〔文叔〕 黃度。

〔子直〕 趙汝愚。

〔楊子直〕 方。

〔項平父〕 安世。

〔○齧舌〕 혀젯므다⁵⁾之意。⁶⁾

〔廩廩〕 ‘廩’通作‘懷’。

〔破戒〕 破屏氣齧舌之意。

5) 혀젯므다：高大本 ‘혀즈모다’

6) 意：高大本에는 [추기 注之‘意’，一本作‘戒’.]가 있다.

記疑0509 (節要0715 : 問答15) (晦庵集 卷38)

答范文叔

〔○答范文叔 第二書 春風堂〕 文叔作堂，名以春風，而求記於先生，故云云。

記疑0510 (節要0716 : 問答16) (晦庵集 卷38)

答陳君舉

〔○答陳君舉〕

〔寓書〕 寄書。

〔向來之辯〕 先生與林栗論〈西銘〉不合事。

〔之趣〕 “恨”字之意，止此。

〔不敢以爲悔〕 不悔其遭讒取辱事。

記疑0511 (節要0717 : 問答17) (晦庵集 卷38)

與劉德修【光祖】

〔○與劉德修 馮李〕 未詳。

〔乃弟疏中〕 馮·李之李，乃季章之弟，而疏乃劾李之疏也。

〔名見乃弟疏中〕 此非謂壁弟所上之疏，乃他人劾壁弟之疏也。

〔跬步〕 半步也。

〔玄中之趣〕 似指養生之法。其法祖述黃老玄虛之法。⁷⁾

記疑0512 (節要0718：問答18) (晦庵集 卷38)

答黃文叔【度】

〔○答黃文叔 新天子〕 寧宗。

〔罷遣還家〕 先生論獨斷，侂冑使優問之，除宮觀歸。

〔閱理〕 古有閱天下之義理之語。閱，謂更歷而知之

7) 法：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道’

也.

【古昔聖賢所處之難易】 謂得君行道所處之難易.

【有志於此】 此, 得君行道.

【說將尙不下者】 《後漢書·第五倫傳》. 將, 州將也. 蓋延爲馮翊, 多不法. 倫數切諫, 延恨之, 故滯不得舉. 後倫每讀詔書, 歎曰: “此聖主也, 一見決矣.” 等輩笑曰: “爾說將尙不下, 安能動萬乘乎?”

【必將與明者慮之】 吾君必將與明者慮之.

記疑0513 (節要0719 : 問答19) (晦庵集 卷38)

答徐元敏

【○答徐元敏 曲禮首章】 首章言: “母不敬, 儼若思, 安定辭⁸⁾, 安民⁹⁾哉!”

8) 辭: 기준본에는 ‘思’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禮記》에 의해 고쳤다.

9) 安民: 기준본에는 ‘民安’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와 《禮記》에 의해 고쳤다.

朱子書節要記疑 卷之五

記疑0514 (節要0720 : 問答20) (晦庵集 卷38)

答林正夫【湜】

〔○答林正夫 力究之計〕“無復”之意，止此。

〔聞其對客誦言以此自必〕謂直以竄謫事自必也。

記疑0515 (節要0721 : 問答21) (晦庵集 卷39)

答戴邁

〔○答戴邁 愕眙〕‘眙’，丑吏切，驚貌。

記疑0516 (節要0722 : 問答22) (晦庵集 卷39)

答林巒

〔○答林巒書 講學閩里間〕林巒欲爲師於閩里間，故先生言之。

記疑0517 (節要0723：問答23) (晦庵集 卷39)

答呂侑

〔○答呂侑 無以副足下之意〕 呂公有求於先生，而先生不得副求，故云云。

記疑0518 (節要0725：問答25) (晦庵集 卷39)

答柯國材【翰】

〔○答柯國材 武學闕尙有三年〕 先生除武學博士，其闕尙隔三年，以養親爲急，不得已欲請祠云云。如今教官預付待闕之類，當時有此例耳。

〔監前事之失〕 前者必以輕爲渡江計，卒不得志故云。然未有考。

〔往年妄論〕 孝宗卽位，求直言，先生上疏，論復讐之義。

【不合無愧】 不合，謂不合於時君。此國材之說。

【先生棄去】 先生，延平。

【不能無失耳】 ハッ サヒ。自‘以爲’以下止此，延平說。

【○石丈】 子重。

【有少反覆】 前後議論有相¹⁰⁾，故謂之反覆。○言柯公前日議論，與今議論有少反覆處也。釋잠싼 다르미 있다。

【取決於心】 上所云近與深，取決於心也。

【各自爲方】 近與深各異故云。

【陳許】 齊仲·順之，皆同安人。先生嘗爲同安主簿。

【地位】 程·尹之地位。

記疑0519 (節要0726 : 問答26) (晦庵集 卷39)

答許順之

【○答許順之 於此】 存養用力處。

10) 相 : 高大本에는 [추가 ‘相’字下落‘違’字.]가 있고, 國中本1에는 [추가 ‘相’下落‘違’字, 未知是否.]가 있다. 今按: ‘違’를 보충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詞命之間】 凡作文詞，必立意而爲之。詞¹¹⁾命，卽立意之謂。

【○因見讀禮】 非因其言而見之，乃先生見順之讀禮，因勸以致詳微細耳。讀禮^乙 見乎勿 因爲也。

【損所有餘】 指先向上達處。

【不足】 指下學。

【儻侗】 不分別之意。

【坐却】 猶言坐在也。‘却’，語辭。○順之爲禪學者，故前後書痛言之。

【今動不動】 釋動ッ P タケ¹²⁾タ。指言順之。

【鶻崙吞棗】 鶻崙，如今俗語어쁘려 습¹³⁾키다之意。吞棗，未詳。以意推之，不嚼棗實而吞之，食而不知其味之喻也。

【鐵籠罩却】 罩者，罟之自上籠下以捕漁者。謂以鐵作籠，自上¹⁴⁾籠下，則其中籠入之物，無緣脫出。舍下學，先向上達者，似之。古語或延平語，未可知也。¹⁵⁾

11) 詞：기존본에는 ‘辭’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12) ㄱ：高大本 ‘ッ’

13) 습：高大本 ‘습’

14) 自上：기존본에는 ‘上自’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15) 未可知也：國中本2에는 뒤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鶻圖”，或作“渾淪”。先生嘗謂鶻曰：“若只是握得一個鶻崙底果子，不知裏面是酸是苦，須是與他嚼破，便是滋味。”’

〔○縣庠〕 同安縣庠.

〔范尹〕 疑淳夫·和靖¹⁶⁾也.

〔一副當〕¹⁷⁾ 흔 가지.¹⁸⁾

〔倚閣〕 아니쁘고 연¹⁹⁾저두다.

〔都使不著〕 使，使用也．都使不著，謂高奇新妙之說，皆無所用矣．

〔子韶之說〕 張九成，高宗時人，字子韶．溺禪最甚，妄作經解．

〔一般〕 흔 가지라．非謂與順之一般也．

〔一般說話〕 誤入別一端²⁰⁾，故謂之一般說話．

〔二公〕 國材·元聘．

〔二序〕 未詳．

〔因書〕 謂順之寄國材·元聘之書．

鵲崙，圓也全也．所以狀棗之圓而全也．謂不嚼棗，全而吞之，不知味之喻也．罩，魚罟之自上籠下者，以鐵籠自上籠下，則籠得牢固，無由脫出．蓋順之每說精粗本末無二致，其見理儻侗，不能從事於文理密察而以造夫融會貫通之妙，是不知其味而無由到得脫灑處，故云云．李丈，恐指李延平．蓋先生〈與范直閣書〉，亦稱延平爲丈．『〈答李仲久〉』’ 이것은 《定本 退溪全書》5 〈答李仲久問目【《朱子大全》疑義】〉(KNL0095)에 실려 있다.

16) 靖：기존본에는 ‘靜’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17) 一副當：기존본에는 ‘一富當’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18) 지：高大本 ‘디’

19) 연：高大本·國中本2 ‘언’

20) 端：高大本 ‘般’

【是亦一格】 格，例也。言伯崇依李先生說，捨高妙而慤實做工夫，故後來便別。二公能依此格例而做工夫，則亦與²¹⁾伯崇之便別矣。

【硬將拗橫】 硬，堅固不通之義。拗，戾違也。如俗言뽀트다之意。言堅固將文義^乙也 뽀틀며 빗겨시기다。

【恐失正理】 恐^켄²²⁾덴 正理^乙 失^乙也。

【○不曾接得】 接得，猶言見得也。謂順之曾論‘必有事焉’之書，上于先生，先生未見，故言其書不曾接得，不知何故而然也。

【上蔡云云止異於衆人】 按，《延平答問》以此爲明道答上蔡語，今直以爲上蔡語。恐當以《答問》²³⁾爲是。

【○以夫子】 以夫子見稱於先生。

【夫夫之人】 ‘夫夫’，或云出《左傳》，未考。‘之人’，出《莊子》。

【幸爲一言】 令順之言於石丈也。

【可刊落者】 ^乙。

【○心間】 ‘間’，音閑。

21) 與：國中本2 ‘如’

22) 켄：高大本·國中本2 ‘컨’

23) 以答問：기준본에는 ‘以爲問答’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衆盲》 指群²⁴⁾弟子.

《其說在石丈書中》 秋來體驗所得明快下工夫之說.

《試舉似石丈》 似，向也. 言舉此詩向石丈也.

《○百千萬億》 指萬殊.

《九經三史》 九經，未詳. 三史，《韻府羣玉》·馬遷
《史》·前後《漢書》.

《○所與祝弟》²⁵⁾ 祝康國，先生內弟.

《細讀二書》 與祝弟及上先生書，未可必也.

《勘過》 마감하야 디내다.

《此心是個什麼》 什麼，猶言何物.

《只看六經語孟》 ‘看’字疑誤.

《文字著》 爲也.

《磨挫掩藏得》 蘭秀問言：“挫磨其氣，而掩藏其身與？”◎答來說：“大概得之，但不必分氣與身.”

《徐柯二丈見》 問：“二丈，徐元敏·柯國材歟？先生前以說先覺義，送于順之，令傳示徐·柯，而順之竟不傳示，故先生言之歟？”◎答來說：“是所以不示者，亦自是已見之意.”

24) 群：高大本‘諸’

25) 所與祝弟：기준본에는 ‘與祝弟’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所’를 보충하였다.

〔此等處〕 乃掩覆處。

〔○尤溪〕 石整 子重嘗爲尤溪。

〔若無異同則亦可疑〕 順之所見既差，則石丈講論之言，當有不同者。若無異同，則石丈說，亦可疑耳。

〔○孟子此四句〕 “操則存，舍則亡，出入無時，莫知其鄉”四句。

〔教分明〕 教，猶令也。

〔○尤川學政甚肅〕 尤川卽尤溪。子重爲尤溪，命擇之掌教學，學者甚盛。

〔○閤中安好〕 許順之妻，疑先生之族。

〔○佛老之似云云〕 先生自謂。

〔鄧尉〕 未詳，不必尋。

記疑0520 (節要0727：問答27) (晦庵集 卷39)

答陳齊仲

〔○答陳齊仲 相馬之說〕 秦穆公使九方皋求善馬，還報曰：“已得之，牝而黃。”往視之，牡而驪。公曰：

“牝牡色物不能知，何知馬？”伯樂曰：“皋之所觀，天機也。得其精，遺其粗，在其內，而忘其外。”馬至，果天下良馬。今以此論忠恕則不可，故云云。

【隱約】 猶依傍髣髴之意。

【以爲二物】 齊仲不知無忠做恕不出之理，故以爲二物耳。

記疑0521（節要0728：問答28）（卷7:48右）（晦庵集 卷39）

答王近思

【○答王近思 窮居】 厓。

【且爾】 ‘爾’下絕句，然‘居’下亦當有讀。²⁶⁾ 言窮居之中厓 聊且如此消遣也。

【懶廢於此】 此，乃科舉之文。

【○不待問】 不待問我也。

【○祭文】 王近思所作祭其母之文。

26) 讀：高大本에는 뒤에 ‘書’가 있다.

記疑0522 (節要0729 : 問答29) (卷7:49左) (晦庵集 卷39)

答魏元履

〔○答魏元履 却看證候如何說得行道救時底話〕 問：“證候，猶言病處。‘行道救時’，此元履之說歟？”○答：“兩條來說，皆得之。元履以學官言天下事太多，時論以出位爲非而逐之。蓋疏於學而過於自任者，故以此規之。”

〔語錄〕 程子《語錄》。

〔○三哥〕 元履子應仲也。

〔失解〕 言見屈於場中也。

記疑0523 (節要0730 : 問答30) (晦庵集 卷39)

與魏應仲【元履子】

〔○與魏應仲 置簿記云起止〕 所誦說、 起_은 되_며 止_은 되_를 記²⁷⁾ 也。

記疑0524 (節要0731 : 問答31) (晦庵集 卷39)

答范伯崇【癸未】

〔○答范伯崇 無此心〕 無舜竊負之心也.

〔八議〕 親·故·功·賢·能·勤·貴·賓.

〔蔽罪〕 蔽, 斷也. 見《書·康誥》.

〔輔之〕 輔其輒也.

〔○衆理昭晰〕 言知止.

〔自欺不得〕 言意誠.

〔○几筵〕 乃死者靈座.

〔○須送行語〕 謂伯崇所須送之語也. 時伯崇赴任所, 請於先生要得所行語, 故云云. 伯崇嘗爲廬陵屬邑主簿, 官至江東師機宜文字, 此未知赴何任耳. ‘須’與‘需’同, 待用²⁸⁾也.

〔哀苦〕 先生, 時居喪.

〔伯諫之言〕 李伯諫先有贈行語, 伯崇以示先生, 故先生稱許之.

27) 記 : 기준본에는 ‘富’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28) 用 : 高大本에는 뒤에 ‘之’가 있다.

【剛之大本乎】 伯崇氣質柔弱，求剛以自治之道，故告之以此。

【○又得賢守】 此似是爲主簿時語。然未知何人爲守也。

【氣質用小學問力大】 〈責沈文〉語。

【○底下著實】 ‘底’疑‘低’字。此事乙 아오로 低下厓放在ッ也 著實ッヒ。

【○鶻圀說作一塊】 鶻圀，團圓爲一而不分析之狀。言伯恭論道，樂渾全而惡剖析，每事要渾合爲一塊說也。

【又生怕】 生，猶甚也。

【○以開有我之私】 老·佛皆自私利者。

【自敝】 敝，敝困也。自敝ッ飞 P 譏也。²⁹⁾

記疑0525 (節要0801：知舊門人問答1) (晦庵集 卷40)

答劉平甫【坪】

²⁹⁾ 也：高大本‘乙’

【○答劉平甫 讐校】 凡校勘文字，謂之讐校。

【裴丈】 未詳。

【恐不能堪】 裴丈不能堪忍耳。

【○試思自去冬云云止其間】 去冬以來又 已過之日
、 多少 厶 其間用心處、 放蕩 p 幾何 厶 存在 p 30)
幾何 五？多少，數未定之辭，猶言若干也。

30) p : 高大本 ‘厶 p’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六

記疑0601 (節要0802 : 知舊門人問答2) (晦庵集 卷40)

答何叔京

- 〔答何叔京 小註¹⁾馬伸〕 程門人.
- 〔知丞〕 謂知某縣丞也.
- 〔有道〕 延平.
- 〔瞽之無目〕 士敬, “‘目’當作‘相’.” 疑從.
- 〔警飭〕 “又聞”之意, 止此.
- 〔數舍〕 猶今言數息.
- 〔天地古今〕 充塞天地, 貫通古今而已.
- 〔是非可否〕 不必分吾道異端, 只是求道而得者爲是爲可, 失者爲非爲否.
- 〔彼此先後之間哉〕 惟是同一道也.
- 〔形跡之私〕 如稱道大過之事.
- 〔承顏盡歡〕 叔京侍母故云.
- 〔○伯崇相見〕 伯崇見叔京也.

1) 小註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通書〕 亦通書于叔京也。

〔備言之〕 備言踰月所講論事。

〔脫然之語〕 乃延平稱道先生之語，而叔京書云云，故先生言之。

〔必有不知所以然者〕 不知悅懌自得之所以然者。

〔先庭〕 叔京之父兌也。先庭，猶言親庭。

〔○提掇〕 掇，拾取也。言提起而拾²⁾取也。

〔論語要義〕 如今《集註》。

〔武陽學〕 武陽當是³⁾州縣號也，未詳何地。學，謂學教。⁴⁾

〔儘索眼力〕 向上事，固無指理而言。理雖無形象，然而曰見理曰看理，未嘗不以眼目言之，蓋無形之中，自有昭昭森列眼前者也。

〔○失於會計〕 先生自言其財力之會計。

〔袞冗方劇〕 袞字，相繼之意，猶言袞袞。亦有相混雜之意。

〔政和〕 縣名。

〔展墓〕 凡物舒展，則可省見，故省墓謂之展墓。語

2) 拾：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收’

3) 是：高大本 ‘時’

4) 教：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校’

見《禮記》。

〔尤川〕縣名。亦曰‘尤溪’。

〔○所憂所懼〕即下文躁妄之病。

〔記中所稱〕未詳何人記。

〔尹子〕和靖。

〔○世宗之事未爲失〕柴世宗父守禮殺人，世宗不問。歐以爲寧受屈法之過，以申父子之道。⁵⁾

〔今必以正理爲空言〕指孟子所言。

〔○遺說〕恐是叔京先公《遺說》也。

〔有智云云三十里〕邯鄲淳作曹娥碑，蔡邕題其後曰：“黃絹幼婦，外孫壺臼。”楊修曰：“黃絹，色絲，絕字；幼婦，少女，妙字；外孫，女子，好字；壺臼，受辛，辭字。乃絕妙好辭。”曹操行三十里方悟，歎曰：“有智無智，校三十里。”

〔○龍曾〕龍大淵·曾覲，孝宗時嬖閹。

〔去國〕逐爲副帥⁶⁾故云。

〔英斷〕孝宗英斷。

〔此意〕順英斷之意。

5) 道：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恩’

6) 帥：기준본에는 ‘師’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幾重公案】 公案，官家文案也．公家文案，重重相報，如縣報府，府報使，使以至啓，聞啓下該曹，該曹又下本道，本道又下府若縣，如此重重相報，或不能無差失．如因諸公以求程氏，因程氏以求聖人，重重求去，或不能無差失，亦如此．

【狐竄】 指龍·曾．

【獨斷之權執之益固】 問：“不聽諫言之謂歟？” ◎ 答：“不獨諫言，凡事皆君獨斷．”

【不患無財欣然納之】 此言小人迎合上意，以爲天下不患無財，其說與上意合，故上欣然納之．

【○細詢云云盡知曲折】 何公嘗調汀州 上饒⁷⁾丞，部使者鄭伯熊，以郡事不理，檄公佐其守．公盡力補⁸⁾助，而守顧不悅，公卽謝去，此其時也．

【移書漕臺】 漕臺如今監司．先生爲叔京通書漕臺，求一差檄，猶今差使員．檄，差除文字．

【○一出五句】⁹⁾

【○較】 較，差異之意．叔京所論，與先生所見差異

7) 饒：기준본에는 ‘杭’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8) 補：기준본에는 ‘彌’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9) 一出五句：高大本에는 뒤에 주석 내용으로 ‘指上文所謂東走政和，南下尤川之行也.’가 있다. 國中本2에도 동일한 내용이 상단에 추가되어 있다.

也。

【功效之名】以敬爲勿忘勿助之功效，叔京之意如此。

【○乾坤易簡】〈繫辭〉云：“乾以易知，坤以簡能。”此以乾比覺，坤比操。

【旁搜廣引頗費筋力】似¹⁰⁾泛言爲學之弊如此，非謂先生著書事也。

【○言動以禮】“所喻”之意，止此。

【直截】直截之言。¹¹⁾

【○從本根上】本根，卽存心。

【不察乎此】此字，指二先生之論。

【○純全者】叔京之言，止此。

【亦是如此】如聖人之存心也。

【換却】“不可謂”之意，止此。

【○必有事焉亦豈求中之謂哉】或問：“敬莫是靜否？”程子曰：“纔說靜，便入於釋氏之說也。不用靜字，只用敬字，纔說着靜，便是忘也。孟子曰：‘必有事焉而勿正，心勿忘，勿助長也。’必有事焉，便是心勿忘；勿正，便是勿助長。”叔京因程子此語而有疑，問

10) 似：國中本1 ‘以’；國中本2에는 없다.

11) 言：國中本1 ‘說’

於先生，其說恨不可考。今以己意代說云：‘程子不用靜字，只慮學者之誤入禪去耳，靜不可廢也。而引必有事焉爲說，竊恐有事則害於靜也。且程子嘗以呂氏求中於喜怒哀樂未發之時爲不可，今以必有事焉爲主敬存養工夫，則是與靜時求中何以異乎？’以此爲叔京問意，而看先生答辭，可曉然無疑矣。

【○仁是用功云云之說】言用功非仁之本體。

【完全之物】言本體而無用功。

【但不圓】體用不圓。

【孟子之言】卽下文‘仁人心也’之言。

【○先生後答】先生指李先生而言。但不知後答語爲何。

【消詳】消，或云“與‘須’¹²⁾同”，或云“凡爲其事，謂之消。”蓋語辭也。

【○光武之事】立四親廟於洛陽，祀高祖買·曾祖外·祖回·父¹³⁾欽也。蓋光武重興，非受命於哀·平，故不繼統於平，而自立其四親廟也。然其間有未盡善處者，故於此論之云云。

12) 須：高大本에는 뒤에 ‘字’가 있다.

13) 父：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考’

【論濮園事】事見《宋史》。宋仁宗無後，英宗本仁宗兄濮安懿王¹⁴⁾之子，仁宗養爲太子而立之。英宗既立，令朝臣議崇奉濮王典禮，司馬公謂“當稱皇伯”，伊川謂“當稱皇伯父濮國大王。”○‘園’恐當作‘國’也。¹⁵⁾

記疑0602 (節要0803：知舊門人問答3) (晦庵集 卷41)

答馮作肅

【○答馮作肅 第二書 須得力】須，必字之意。

記疑0603 (節要0805：知舊門人問答5) (晦庵集 卷41)

答程允夫【洵】

【○答程允夫 無論高而不可行之理】世俗以爲窮理

14) 濮安懿王：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濮園懿王’

15) 園恐當作國也：高大本에는 [추가] 此說非是. ‘園’, 乃‘園陵’之園字.]가 있고,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園’, 退溪先生注, “當作‘國’”, 此說非是. ‘園’, 乃‘園陵’之園字也. 他書以濮園稱之之處甚多.]

深則有論高而不可行云，故云．○論、高、也．

〔○蘇黃門〕 蘇，蘇轍．黃門，官名．

〔古史〕 卽蘇所著史．

〔老聃之屬〕 “論”字之意，止此．

〔○若如來諭〕 未知允夫說如何．只以‘安常’以下說看，允夫意可見．

〔匍匐而歸焉〕 歸，歸于禪學也．

〔先病後瘳〕 謂程子．

〔先瘳後病〕 謂蘇氏．

〔挾天子以令諸侯〕¹⁶⁾ 此允夫之言，以程子爲陰用佛·老而托吾道以排之，比之如此，故先生云云．

〔雜於其間〕 “自非”之意，止此．

〔一夫〕 先生自謂．

〔斯名〕 明道之號．

〔蘇程之室〕 室，謂所得之深密處．允夫意蘇·程得深處同故云．

〔嗾〕 音주.¹⁷⁾ 《韻會》，“使犬聲也．”

〔○寫此一銘去〕 南軒所作銘也，似指〈下良齋銘〉

16) 挾天子以令諸侯 : 기준본에는 ‘挾天下以令諸侯’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17) 주 : 高大本·國中本1 ‘수’

而言。但未見《南軒全集》，未知南軒有此銘與否。

【密院闕期尙遠】先生，時爲樞密院編修官。

【相與守之】ソヌヒ。與南軒諸人相與守之。

【○可者欲之】擇其可者而欲之，其不可者當去之，豈非擴充之事乎？若只云可欲¹⁸⁾，則無欲之¹⁹⁾去之之意，非擴充也。

【宗派圖】〈道學宗派圖〉。

【胡公答仲屏語】語見《伊洛淵源錄》。伊川下胡安國奏狀。

【元祐之於熙豐固有所謂不得已者】元祐，哲宗年號；熙豐，神宗年號。所謂不得已者，指言盡革新政。

【野花啼鳥】蘇公游山寺，聞神宗昇遐，題詩寺壁云：“山寺歸來聞好語，野花啼鳥亦欣然。”蓋喜之也。

【○遺書】《程氏遺書》。

【欲除一人爲給事中】溫公以是問於伊川，而伊川竟不答，故言之。

【○高沙】地名，寺名，未詳。

【○魏公】張魏公，名浚。

18) 欲：기준본에는 ‘言’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19) 欲：기준본에는 ‘言之’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記疑0604 (節要0806 : 知舊門人問答6) (晦庵集 卷41)

答黃子厚

【○答黃子厚 讀精義有得】 精義乙 讀ッ也 得乎未
있다.

【並觀】 곧와 보다. ○二先生之說固好. 然他人說亦
不可廢, 故當合取並觀乃善.

記疑0605 (節要0901 : 知舊門人問答7) (晦庵集 卷42)

答胡廣仲

【○答胡廣仲 欽夫未發之論】 欽夫之論, 必謂‘衆人
無未發之時云云’, 故先生謂‘此語分別賢愚之間似太
甚.’ 然非謂²⁰⁾‘無此理’, 但謂‘爲欲所牽, 無靜時’云耳.

【隨人云云止時節】 此亦隨人稟賦ッ也 不同ッヒ 性
靜者 卩 須或有此時節 今ヒト. ○有此時節, 謂有澄靜

20) 非謂: 高大本 ‘未爲’

未發之時也.

【敬以無失乃所以中】 敬而無失，則心無偏倚，豈非所以中乎？

【又論敬云】 程子之言，止於‘天理自明’，其下乃先生說也.

【○物則不通神妙萬物】 皆《通書》語. 其上文曰：“動而無靜，靜而無動，物也；動而無動，靜而無靜，神也.” 註，“有形則滯於一偏，〔釋物字.〕 神則不離於形，而不囿於形矣.” ○物非但衆人，凡有形者皆物也. 此言凡物局於形氣，故動靜不兼通. 神卽理也，不囿於形氣，故能通動靜而妙萬物. 釋云²¹⁾：“神 ㄲ 物 乙 妙 ㄴ ㅅ.”

【不能直遂】 直，無所撓屈之意.

【○既推之太過】 卽上文上蔡‘先使學者有所知識’，及五峯‘知不先至’之語.

【至於無傳】 上蔡之論，止此.

【蓋曰】 二字，先生語，而‘子厚’以下止‘据守’，程子語，乃先生引說²²⁾，故以‘蓋曰’起頭耳. ◎最善 ㄴ ㅅ 据

21) 釋云：高大本에는 뒤에 ‘ㄴㅅ’가 있다.

22) 設：기존본에는 ‘設’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守ハ ヌ古.

【但譏其】三字，又先生語．“說清虛”以下止“道敬”，又引程子語．其末“耳”字，又先生所下字也．一大，謂一而又大也．一卽萬殊一本之一，大謂大而無外．橫渠以四字狀道之體，程子譏之．◎別處走 ヌヒ．

【○龜山之意】“人欲非性”乃龜山之語，故云．

【只如此說】卽指道性善之說．

【不囿於物】物，謂形器，非謂物欲．

【知言】五峯 胡先生所著書也．廣仲，五峯之從昆弟，力主家學而失於偏，故先生喻之．

【○樂記之說】〈樂記〉言：“人生而靜，天之性也；感物而動，性之欲也．”

【眞妄又與動靜不同】蓋廣仲以眞妄與動靜之理同一而言²³⁾之，故先生言其不同．

【○²⁴⁾內外之道】內外，謂涵養·致知．

【○不當其所】指一圈爲陰靜·二圈爲陽動之論．

【兼體之陽】以陰陽分體用，則陰爲體，陽爲用．今廣仲以第二圈²⁵⁾爲兼陰之陽，故又以爲兼體之陽．

23) 言：기준본에는 ‘同’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24)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25) 圈：기준본에는 ‘囿’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知言疑義】 先生嘗作《知言疑義》。

【不必言心矣】 廣仲以心爲已發，故謂既以²⁶⁾情爲達道，則不必言心矣。

【宛轉說來】 宛轉，不直截而委曲輾轉之意。

【不須贊歎】 如以性爲至妙至深不可以形容不可以指名，皆贊嘆之辭也。

【將他骨子】 他骨子，謂仁義禮智。

【方圓爲天地】 謂天地之形爲圓爲方則可，遂謂方圓爲天地則不可，猶謂性道之體用爲中和則可，遂謂中和爲性道之體用則不可也。

【識痛癢²⁷⁾】 身體有痛有癢²⁸⁾，無不知之，此氣之靈所爲，衆人禽獸皆能之。

【二者亦不同】 二者指孟子·上蔡。

【憤驕險薄】 先生前書有‘憤驕險薄’之語，而廣仲以先生指謂上蔡，故先生言之。

【愛之理則不爲是而有也】 爲，去聲。是，指天地萬物。言愛之理不爲天地萬物而有也，乃仁之本然之體也。

26) 既以：기준본에는 ‘阮’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國中本2에는 ‘既’로 되어 있다.

27) 癢：기준본에는 ‘痒’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28) 癢：기준본에는 ‘痒’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不覺手舞足蹈】 程子思得其無無對之理，而不覺手舞足蹈也.

【既彊加云云止以配之】 釋，“主ッ P 맞者 P 無對ッ P 貴名오로²⁹⁾며 彊加ッ고 그 賤辱 녀겨 有對 P 列ッ P 맞者 P 또 各別이 혼 位乙 立ッ也 此 곧 配合ッ勿 免治 못 혼니.”

【畸零】 ‘畸’與‘奇’同. 數之餘者，謂之奇³⁰⁾數，而亦謂之零數.

【仰恃知照云云】 吐，知照ッ也 其愚ッ也 商論ッ也.
◎“仰恃”之意，止於“至當之³¹⁾歸”也.

記疑0606 (節要0902 : 知舊門人問答8) (晦庵集 卷42)

答吳晦叔

【○答吳晦叔 第二書 先成乎其小】 小，乃知之淺·行之小也.

29) 오로 : 高大本 ‘오로’

30) 奇 : 高大本 ‘畸’

31) 之 : 기준본에는 ‘與’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大者】 謂知之深·行之大者也。

【不離乎此】 此字乃小學之事。

【亦豈能居然】 猶言徒然偶³²⁾然. 엇데 能히 居然히.

【常視母誑】 卽〈文言〉‘忠信’事。

【男唯如俞】 卽〈文言〉‘修辭’事。

【直從事於此】 此卽‘格物致知’。

【家可以不齊也】 自‘又非謂’止此，兼言知行不可偏廢。

【如前所論二端】 指小學·大學知之淺深。

【機械】 《韻會》，“械者，器物總名。”◎猶今人言機械。

【觀彼】 彼，謂過。

【反識乎此】 “非如”之意，止此。“此”字，謂仁也。

【○名字界分】 名字，猶上文名義。

【先難下學】 《論語·雍也篇》：“樊遲問仁，子曰：‘仁者先難而後獲。’”註：“先其事之所難，而後其效之所得，仁者之心也。又曰：‘先難，克己也。’”又〈憲問篇〉：“子曰：‘莫我知也夫’，子貢曰：‘何爲其莫知子也？’曰：‘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知我者其天乎！’”註：“下學人事，便是上達天理。”

32) 偶：國中本2‘獨’

記疑0607 (節要0903 : 知舊門人問答9) (卷9:15右) (晦庵集 卷42)

答石子重【整】

〔○答石子重³³⁾ 空言之弊〕 ヲ也.

〔忘深遠〕 ㄴ ㄱ.

〔○若謂以其云云止如此走作〕 子重之所謂.

〔出入兩字〕 出則惡, 入則善.

〔○頗覺此病〕 欽夫頗覺也.

〔別後〕 欽夫與先生別後.

〔絕難得朴實頭理會者〕 釋, “朴實히 理會ッ乙者
得乎未 마장 어려우니.” ◎‘頭’, 只是語辭, 不必釋也.

〔及他門人〕 他來學之門人.

〔亦有語此者〕 此, 道學.

〔合下〕 猶言本來.

〔表裏通徹〕 南軒·五峯門人, 故及之.

〔愈見精密〕 ヲヒ.

〔鄙懷〕 ヲ ㄱ.

33) 答石子重 : 《記疑》의 諸 板本에는 ‘石子重’으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서 고쳤다.

〔次序〕 ㄷ.

〔看〕 ㄸ 沙.

〔始得〕 ㄴ ㄷ.

〔致知〕 ㄹ.

〔行將去〕 ㄷ.

〔行著習察〕 《孟子·盡心上篇》：“行之而不著焉，習矣而不察焉，終身由之而不知其道者衆也。”此反其語意，謂行之而能著，習矣而能察也。

〔前後行解〕 前與解乃知，後與行乃行。

〔克齋〕 子重齋號。

〔留書見徹〕 許順之來，崇安先生不在，故留書于先生而去。先生既還，乃得見其書故云。

〔伊蒲塞〕 桑門之饌，見〈楚王英傳〉，卽優婆塞。

〔湘中議論〕 先生往湖湘³⁴⁾，與欽夫所議論。

〔養吾眞者〕 順之言，止此。

〔勘過〕 勘³⁵⁾，猶言磨勘。釋，“勘ㄴ 也 過ㄴ ㄷ。”

〔洪适〕 适，邁之弟，皓之子。兄弟有文³⁶⁾名，然非正人也。◎皓嘗使金，守節十年乃還，比蘇武云。

34) 湖湘：國中本2 ‘湘中’

35) 勘：高大本에는 뒤에 ‘過’가 있다.

36) 有文：國中本1·國中本2 ‘盛有’

【稱謂屢請】稱謂，子重之所稱謂先生。

【○向來之勇銳】 ㄴ 五.

【寡過】 ㄴ 亦.

【自非深信得及下得朴實功夫】 기피 信得及 ㄴ ㄴ 朴實 ㄴ ㄴ 功夫 ㄴ 下得 ㄴ ㄴ 37) ㄴ 者 브터 아니어든. ◎聞道而信之不疑，謂之信得及。

【因書得示一³⁸⁾二云止受用處】 因書 ㄴ 也 一二 ㄴ ㄴ. 此既囑子重以觀書立論所得之意因來書示及一二， 因言此觀書立論之所得，便是公平日受用處，故吾欲得見而相勉勵云耳也。

【○子重所問書若任他事】 他事卽宰執臺諫之職事。

【○那個不是】 是謂道也。釋，“어느 거시 이 아니리오.”

記疑0608 (節要0904：知舊門人問答10) (晦庵集 卷43)

答陳明仲【堽，嘗爲侯官宰。】

37) ㄴ ㄴ：高大本 ‘ㄴ ㄴ’

38) 一：《記疑》의 諸 板本에는 없으나, 《節要》에 의해 보충하였다.

〔○答陳明仲 高明之見已如此〕 謂已與孔·孟無異³⁹⁾也.

〔雖言之過〕 明仲自謂與孔·孟無異, 故云言之過.

〔溫公之心爲心〕 未詳何謂.

〔有以容之〕 言容吾僭易之言而不怒也.

〔呂申公〕 名公著, 封申國公, 希哲之父.

〔爲準則〕 則, 法則.

〔學佛〕 不獨滎公也, 申公亦學佛, 此言申公.

〔吾不知其說也〕 其說卽自以爲簡易之說.

〔○第三書 段段立說〕 不顧先儒之說, 自爲立說也.

〔只略說過便休〕 讀時連下三字讀, 可也. 其意則略說過ッ古 便休乎未 不可也.

〔○僥倖而一得也〕 “非如”之意, 止此.

〔○⁴⁰⁾家無二主〕 主, 一家之所尊主也; 中堂, 尊者所居. 若妻之靈席居中堂, 則是二主矣.

〔似合少近西爲宜〕 合當히 저기 西에 갓가이⁴¹⁾ 호미 宜ッp 듯하다.

〔不須題奉祀之⁴²⁾名〕 夫存妻喪故云.

39) 異 : 기준본에는 ‘已’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40)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41) 이 : 國中本2 ‘히’

【廟別三世云云】 廟中別曾祖·祖及考三世，各爲一龕，其下爲妻設一位也.

【○⁴³踰期主祭之疑】 禮，爲妻服朞，朞年之內，夫有服而主祭當矣. 踰朞則夫已除無服，而主祭似不當，故疑而問之.

【○⁴⁴如配祭】 夫婦配祭.

【繼室別廟止凡五等】 此說舊亦疑之. 然以下文各有一室之語觀之，每一室謂之一廟，明矣. 然亦恐不可於正廟內有此五室也.

【○⁴⁵貫徹上下之語】 指事而言，則有上下之分. 以心而言，以此心而盡其道者，聖人之極致，以此心而不失於道者，賢愚皆可勉，故曰‘貫徹上下’.

【以是爲中制】 明仲之言也. 彼意以爲子遭父非道之事，以三年內不可改，故苟且仍行. 此非盡善極致之事，故曰‘中制’也.

【○⁴⁶不及思】 克己之目，視·聽·言·動而不及思故云.

【四者】 五事之中，貌·言·視·聽也.

42) 之：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보충하였다.

43)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44)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45)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46)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朱子書節要記疑 卷之七

記疑0701（節要0905：知舊門人問答11）（晦庵集 卷43）

答李伯諫

〔答李伯諫 不得於言而云云止資舉業〕 “不得於言，求諸心”，先生指言伯諫。自“從初”以下止“資舉業”，伯諫言。

〔怕生死〕 此，伯諫言。

〔拔本塞源〕 與孟子之言不同。此‘本’與‘源’，謂吾學。

〔○如此領會〕 如伯諫窺其藩籬也。

〔更有事在〕 가식야 이리 이스¹⁾미 잇느니. 言更有窮格踐履許多工夫在前頭也。

〔○克己於此〕 此，吾學。

〔於彼〕 彼，禪學。

〔○捏怪〕 捏，捻聚也。

〔達磨亦排斥之〕 達磨始爲禪學，專做心地工夫，其說高妙，故以輪迴因果爲淺陋而排斥。

1) 스：高大本·國中本2 ‘시’

【○空妄心見眞性】 妄心乙 空ッホ 眞性乙 見ッ也。

◎空，謂無之也。

【廉賈五之】 貪賈取十分之利，廉賈止²⁾取五分，雖減於半，其爲貨殖則同也。

【伊川之論】 伊川嘗言：“釋氏其情本怖死愛生，是利也。”又言：“佛氏亦極乎高深。然要之，卒歸乎自私自利之規模也。”◎雖上文不引伊川說，不害如此引之。

【○伊川先生所云内外不備者】 伊川指言釋氏。

【可謂失之恕矣】 釋氏内外俱未有。伊川謂：“敬以直内則有之，義以方外則未之有也。”故謂‘失之恕’。

【豈有是也】 엇³⁾데 올흐미 이스⁴⁾리오。

【不相連屬】 吾儒下學人事，便上達天理，理與事元不相離。釋氏理與事不相連屬，無下學故也。

【但有間斷非道】 道體無一息之停，釋氏有間斷，豈爲道耶？

【招認此語】 招，如今다답也；認，引以⁵⁾證也。此語卽上文伊川内外不備之語也。言伯諫從儒向佛之人，故

2) 止：高大本‘只’

3) 엇：高大本‘어’

4) 스：高大本·國中本2‘시’

5) 引以：高大本‘引而’，國中本2에는 없다。

引伊川語，證招辭；若眞胡種族⁶⁾者，亦不肯引伊川語，以證其招辭也。

【○王氏高明處己中庸處人】 中庸二字，俗傳⁷⁾誤以爲半上落下，中間常道而已。故王氏安石謂：“聖人以高明自處，以中庸處人。”其意謂君子當高自處而卑處衆人也。

【立地成佛】 自‘便欲’止此，伯諫言。

【○避正堂舍蓋公】 ‘蓋’，音合。蓋公，齊之賢人也。曹參爲齊相，尊事蓋公，自避正堂不居，而舍蓋公於此堂而事之也。‘如此’，指避舍事言也。

【八角磨盤】 磨卽今之磨石也，盤卽磨石所安之盤也。八角，盤輪有八角之制也。磨石輪轉，而米粉自四散而出，此必以是比輪迴之說。然未詳其說如何也。

【○一種稍向外】 向外，指日用行事。

【○期之異日】 期其所見之必同。

記疑0702 (節要0906：知舊門人問答12) (晦庵集 卷43)

6) 族：기준본에는 ‘佛’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7) 傳：高大本 [교정기 ‘儒’]

答吳公濟

〔○答吳公濟 第二書 上智不在此⁸⁾域〕 此域，指輪廻因果之說.

〔不可也〕 ㄴㅅㅅㅅ. 公濟之言，止此.

〔非眞諦〕 諦，猶審也. 禪家有四諦.

〔聖人無兩心〕 此聖人，指言釋氏.

記疑0703 (節要0907 : 知舊門人問答13) (晦庵集 卷43)

答曹晉叔

〔○答曹晉叔 近仁之說〕 ‘剛毅木訥，近仁’之說.

〔想像思量出仁體來〕 仁體ㄷ 想像ㅅㅅ 思量ㅅㅅ 也
나라 ㅅㅅ. 來字，不必釋.

記疑0704 (節要0908 : 知舊門人問答14) (晦庵集 卷43)

8) 此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보충하였다.

答林擇之【用中】

〔○答林擇之 此個端緒〕‘難與圖事’之謂。

〔頭影〕頭影，猶言端緒。

〔王丞文字足罷去〕王姓人爲丞此縣，故⁹⁾王丞。此人必有不勝任者，被論見罷。文字，論王丞之文字，如今論人啓辭也。先生言觀論王丞文字，其失足以罷去也。

〔將來檢放〕論檢覈被災之田而除其稅也。放，除也。如今檢災除稅。

〔攝其事〕攝王丞事。

〔○侍旁如昨〕先生侍母夫人。

〔當如所戒〕所戒，似是勸行之事。

〔近事〕朝廷近事。

〔左史之除〕左史，起居注也。《記·玉藻》，“天子言則左史書之，動則右史書之。”當時必以不合此選之人除之，故云紀綱紊。

〔揆路〕揆，百揆之任，如今三公之職。但未知下‘路’字之意。

9) 故：國中本2의 추가에는 ‘故’ 뒤에 ‘曰’이 있다.

【猶待就所安耳】 未發已發之義，南軒舊誤¹⁰⁾，先生爲之辯¹¹⁾論，南軒乃知其誤而易舊說矣。今先生得南軒新說而觀之，猶有義理未安處，故報擇之如此。言其乍易舊說，爲新說，舊誤尚有餘痕，新得猶未安熟，未免待後而方就所安，故云云。

【無異論矣】 ㄸ 乎 ㄸ. “亦已報”之意，止此。

【○第三書 可尙可尙】 尙，尊尙也。

【○所答二公問】 答，擇之答也。二公乃下文所云深父也。

【似禁不得如此鉗鎚】 擇之於仲弓大有期望，故先生云：“觀其氣質識致컨덴 이 마¹²⁾튼¹³⁾ 鉗鎚乙 禁當티 못¹⁴⁾홀 듯흔디라.”

【且如此】 此，悠悠也。

【附書】 附書于擇之也。

【未專一】 季通用力於古今制度，而少於切己之功故云。

10) 舊誤：高大本‘舊說差誤’

11) 辯：高大本·國中本2‘辨’

12) 마：高大本‘又’

13) 튼：國中本1·2‘뵐’

14) 못：高大本·國中本2‘못’，國中本1‘못’

- 〔添得此累〕 謂季通之病.
- 〔所記不審〕 戸ヒ. 審, 審當也.
- 〔○太山爲高云云止不屬太山〕 程語.
- 〔道體〕 比頂上.¹⁵⁾
- 〔事業〕 比太山高.
- 〔既得後須放¹⁶⁾開〕 亦程語.
- 〔放開忒早〕 上蔡語.
- 〔鳶飛云云止天理〕 亦上蔡語.
- 〔便入堯·舜云云止處爾〕 上蔡語.
- 〔可易其言耶〕 入堯·舜氣象, 可易言之耶?
- 〔○眞能如此〕 如此, 謂自然中理.
- 〔克己復禮〕 乙.
- 〔講說〕 ッ也.
- 〔禮字〕 ル.
- 〔快意〕 戸ヒ, ッ也.
- 〔然後已〕 ッヒ, 先生所見; 戸ヒ, 趙上舍所見.
- 〔精微縝密〕
- 〔○存久自明止窮索〕 程語.

15) 頂上: 기준본에는 '項山'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16) 須放: 기준본에는 '放教'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莊子詩〕 莊子，當時人。

〔向此〕 此亦謂詩。

〔爲達此懷也〕 達此懷於莊子。

〔呂公〕 希哲。

〔不主一門不私一說〕 呂語，猶儒釋並學無妨之說。

〔直截徑捷〕 亦呂語，猶禪家一超頓悟之語。

〔坐爲所悞〕 悞 흔 바에 坐 ッヒ。

〔○省事〕 減事也。

〔潘丈〕 名時。友端·友恭，其子。見下文。

〔投其隙〕 投，合也。隙，好高欲速之隙。好高欲速，指言禪。¹⁷⁾

〔避其名〕 避禪學之名。

〔爲所引取〕 爲禪學所引取也。

〔既從其招致〕 擇之從其潘丈以館客招致也。

〔開之〕 開其端叔·恭叔之病。

〔相向之意〕 潘丈相向之意。

〔○把此事來〕 此事，謂道學。

〔驚怪模樣〕 端叔·恭叔不於平常處做事，而必求異常處用力，故如此云云。

17) 禪：高大本에는 뒤에 ‘學’이 있다.

〔放者〕 “心有未嘗放”，乃元禮之一句。元禮之意以爲心有不動底之心，故有此語。元禮，當時人。

〔○切脈〕 切脈，猶言診脈。“切脈最可體仁。觀鷄雛，此可¹⁸⁾觀仁”，程子語。擇之引而問之，故云云。

〔許多曲折〕 擇之言‘切脈觀鷄之時，有許多曲折’之論，故云云。

〔卽此〕 就切脈觀鷄處也。

〔指以示人〕 以觀仁指以示人也。

〔同一機〕 擇之所問之語，不知某事。

〔○無此工夫〕 無此小學工夫。

〔十分〕 窺測道理十分也。

〔○疏密〕 《中庸》疏，而〈樂記〉密也。¹⁹⁾

〔交物之引然後差也〕 雖不待好惡無節處，天理之滅之意。

〔所見不同〕 朱先生自謂我之所見不同也。

〔爲人深切〕 李先生所謂爲人深切也。

〔如云又云〕 皆李先生之言。

18) 可：기준본에는 비어 있으나, 高大本과 《二程遺書》에 의해 보충하였다.

19) 中庸……密也：高大本에는 [추가 ‘〈樂記〉疏，而《中庸》密.’]이 있다,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按, ‘〈樂記〉疏，而《中庸》密.’ 註云, ‘《庸》疏〈記〉密’, 傳寫之誤歟.]가 있다.

- 〔致師〕 《春秋》語.
- 〔及和中〕 亦李先生言.
- 〔此翁〕 李先生.
- 〔○端倪〕 善端發處也.
- 〔互相發也〕 乃擇之言.
- 〔三傳〕 疑《春秋》三傳.
- 〔三語〕 三傳語.
- 〔因其明〕 明乃善端²⁰⁾明著之明.
- 〔甚底〕 端倪^乙 察識^티 아니^ㅎ면 涵養^乙 어^디 흘
것고 ^ㅎ니. 此乃擇之言.²¹⁾
- 〔○伊川論中〕 伊川〈好學論〉中.
- 〔就當體形容〕 伊川之語. 當體^ㄹ 就^ㅅ也 形容^타
ㅅ^ㅅ히. ‘當’, 去聲. 體乃體用之體.
- 〔承上文〕 言〈太極圖說〉曰: “聖人定之以中正仁
義, 而²²⁾主靜.” 故云承上文.
- 〔賓主〕 此猶體用之謂.
- 〔立脚處〕 謂靜也.
- 〔但須如此〕 謂立脚處也.

20) 端: 國中本1 ‘處’

21) 語: 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言’

22) 而: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과 〈太極圖說〉에 의해 보충하였다.

〔○似是如此〕 이 마뜩미 이리듯 하니.

〔前面一截功夫〕 謂主靜涵養工夫.

〔異時〕 猶²³⁾前時.

〔無本可據之說〕 朱先生自謂.

〔如此看否〕 擇之亦如此看否?

〔○未嘗離此〕 此，謂全體也.

〔小註前一書〕 擇之書也.

〔小註未嘗作爲〕 作爲，如助長之病.

〔○見〕 猶見在之見.

〔相似與否〕 “點檢”之意，止此.

〔與渠〕 渠，謂陸氏門人.²⁴⁾

〔自能入德〕 “初謂”之意，止此.

〔○欲心〕 欲，疑謂色欲也。湘江乃繁華之地，其處諸人，多有好色之病，故如是云云.

〔野火〕 以比色欲.

〔易其言〕 渠，未詳所指爲何人。疑湘江某人，以絕色易其言，故云云.

〔納交要譽〕 亦是難事。廣仲曾有易其言故云.

23) 猶：高大本에는 뒤에 ‘言’이 있다.

24) 人：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病’

〔○羞愧〕‘所諭’云云，至此，擇之言。

〔得失〕“論”字意，止此。

〔○²⁵⁾爲仁之本〕²⁶⁾ 謂孝悌也。

記疑0705 (節要0909 : 知舊門人問答15) (晦庵集 卷43)

答林充之

〔○答林充之 害於此〕 此，謂孝弟也。

記疑0706 (節要1001 : 知舊門人問答16) (晦庵集 卷44)

答蔡季通【元定】

〔○答蔡季通 一劍兩段〕 有改過一劍兩段之語故云。

○一劍又 兩段乙 버히듯.

25)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26) 爲仁之本 : 國中本2에는 상란에 추가 ‘答林充之’가 있다. 今按: 이 조목은 바로 아래 〈答林充之〉의 첫 번째 조목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 〔○序文〕 《中庸》序文也.
- 〔所疑也〕 “固未嘗”之意，止此.
- 〔形氣之偶然〕 清明純粹乃形氣之偶然.
- 〔發揮〕 清明純粹之氣發揮也.
- 〔於此有不察〕 季通於孟子論夜氣·養氣之處不察也.
- 〔○淺切文字〕 當時諸人文字.
- 〔曲拍〕 曲拍，猶曲調節拍也. 朱先生自言.
- 〔韓歐曾蘇〕 曾謂曾鞏.
- 〔無向背往來之勢〕 猶言無抑揚.
- 〔足米〕²⁷⁾ ‘足’，去聲. 足其不足曰‘足’.
- 〔到后山〕 朱先生到后山也.
- 〔價廉〕 米賤而錢貴也. 價，卽錢也；廉，猶小也.
- 〔○過宿其家〕 朱先生過宿伯諫之家.
- 〔示之〕 示其伯諫也.
- 〔孤立〕 公濟入禪學故云.
- 〔○豈亦〕 豈，乃豈不之意.
- 〔○不能辦〕 指其舊學之非.
- 〔○范蜀公〕 公名鎮. 范蜀公曾與司馬公嘗定制樂之議，而季通於其磬制立論之失²⁸⁾推於范蜀公故云.

27) 足米：기준본에는 ‘足末’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說著處〕 에 난. 說을 혼 딛란.

〔錯了〕 그른 딛란.

〔執殢〕 “若道²⁹⁾”之意, 止此.

〔護前〕 압플³⁰⁾ 쓰리다.

〔○通鑑板〕 《通鑑》, 《資治》也. 板乙 毀호라
하다가 坐罪³¹⁾也.

〔出幽遷喬〕 言改過也.

〔此輩〕 謂林黃中·袁機仲.

〔并按〕 按, 按罪也.

〔○作肅所求〕 作肅以求官事請簡于朱先生故云.

〔其人〕 如今吏判.

〔○來討書〕 猶今유무받³¹⁾다. 公濟亦以求官事請書
于朱先生也.

〔相識〕 若有公濟相識之人.

〔寫得〕 寫簡書也.

〔不成〕 猶言못³²⁾호려넛드너. “不成”之意, 止於

28) 失 : 기준본에는 ‘矣’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29) 道 : 기준본에는 ‘通’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30) 플 : 高大本·國中本1에는 없다.

31) 받 : 高大本·國中本1 ‘받’

32) 못 : 國中本1·2 ‘못’

“老子”下.

〔○夏口云云〕 季通時方遊故云.

〔○約左右〕 季通.

〔孤城悉拔〕 伯諫舊入禪學，來此後漸棄其學，故以比³³⁾孤城悉拔.

〔○有無之慮〕 財物有無之慮.

〔○拒客〕 朱先生欲往西山，而季通.³⁴⁾

〔專心致志〕 孟子言.

〔絕利一源〕 《陰符經》語.

〔不須枉費〕 季通似亦不須枉費心力教元吉也

〔○千周萬徧〕 《參同契》語.

〔○衆至之患〕 學者衆至.

〔○病敗〕 “便覺”之意，止此.

記疑0707 (節要1002 : 知舊門人問答17) (晦庵集 卷44)

答方伯謨【士繇】

33) 比 : 기준본에는 ‘此’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34) 季通 : 今按: 뒤에 ‘拒客’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答方伯謨 見牛兩段】 伯謨以見牛事作兩段，問于朱先生，故云云.

【○所論聖賢立言之意】 疑伯謨言朱先生著書勇決，不合聖賢之立言，故朱先生云云.

【○³⁵⁾杯杓】 ‘杓’與‘勺’同.

【又迫朝命云云³⁶⁾】 朝命、³⁷⁾託故稽留 흔³⁸⁾다 헉야 憲府 옴 헉야³⁹⁾ 옴 覺察 헉라 흔 指揮 이시매 迫、也. 託故稽留，朱先生自謂.

記疑0708 (節要1003 : 知舊門人問答18) (晦庵集 卷44)

與方伯謨

【○與方伯謨 趙幹之喻】 疑趙幹以受業事通書，故云.

【不彼】 不以我爲彼也.

35) ○ :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36) 云云 : 기준본에는 ‘云’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37) 、 : 國中本1·2에는 없다.

38) 흔 : 高大本 ‘헉’

39) 야 : 國中本1·2 ‘여’

〔險巇〕 時僞學之禁方起故云.

記疑0709 (節要1004 : 知舊門人問答19) (晦庵集 卷44)

答梁文叔〔瑑〕

〔○答梁文叔〕 ‘瑑’, 音⁴⁰⁾던.

〔一向如此〕 只一向存養如此.

〔○在這裏〕 孟子之意, 止此.

〔○⁴¹⁾嘘吸聰明〕 嘘吸, 魂; 聰明, 魄.

〔煖氣〕 더운 기운. 煖氣乃生氣.

記疑0710 (節要1005 : 知舊門人問答20) (晦庵集 卷44)

與吳茂實〔英〕

40) 音 : 高大本에는 뒤에 ‘煎’이 있다.

4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그리고 基準本에는 뒤의 표
제 ‘煖氣’ 앞에는 원래 ‘○’이 있으나, 삭제하였다.

- 〔○與吳茂實 得力處〕 “以爲”之意，止此。
〔徧以告之〕 徧以告諸朋友也。
〔大過〕 自主張大過호미 맞당티 아니하고.
〔省發覺悟〕 猶一超頓悟之意。

記疑0711 (節要1006 : 知舊門人問答21) (晦庵集 卷44)

答任伯起【希夷】

- 〔○答任伯起 多爲何事〕 私意之萌이 어니 이레⁴²⁾
한고 也.
〔○逐項用力〕 逐項，猶言逐事。
〔○⁴³⁾行遣〕 『語錄』，“竄逐也.”
〔符〕 行遣之符也。

記疑0712 (節要1007 : 知舊門人問答22) (晦庵集 卷44)

42) 레 : 高大本·國中本2 ‘리’

43) ○ :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答江德功【默】

〔○答江德功 近似之言〕 聖賢⁴⁴⁾近似之言.

〔不異於彼〕 彼謂吾學.

〔出入〕 出入儒釋.

〔兩是之私〕 兩是儒釋之私. “幸”字之意, 止此.

〔左右之矣〕 左右聖賢也. 左右, 言左右使之也.

〔精神氣象〕 乃聖賢之言之精神氣象也. 今聖賢之言, 推高鑿深, 故其精神氣象, 有加於前也.

〔○亦放前意〕 前意, 前書意也.

〔分別君相云云〕 德功分別君·相·諸侯·卿大夫·庶人之學有高下也.

〔非我族類〕 以吾學爲非我族類也.

〔○亦非苟同〕 쏘흔 苟同호라 ㅎ는 거시 아니라.

〔小註不當以此訓彼〕 此, 知字; 彼, 理字.

〔究極〕 窮理究極也.

〔小註聞聲悟道見色明心〕 佛語.

〔離乎物者〕 致知乎代 物^ㄱ 離^ㅎ다 ㅎ니. ‘離’, 去聲.

44) 賢: 기준본에는 뒤에 ‘切’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제거하였다.

- 〔○六度萬行〕‘行’，去聲．佛語．
- 〔○絕學捐書〕德功疑朱先生絕學捐書故云．
- 〔莊生所謂〕絕學捐書乃莊子之言，故云云．
- 〔○窮忙〕窮，極；忙，迫．
- 〔至當之歸〕“不暇⁴⁵⁾”之意，止此．
- 〔骨董〕『語錄』，“잡도이⁴⁶⁾다.”
- 〔此等說話〕即爭論之事．

記疑0713（節要1008：知舊門人問答23）（晦庵集 卷45）

答游誠之

- 〔○答游誠之 他人不得與〕他人不得與於自改也．

記疑0714（節要1009：知舊門人問答24）（晦庵集 卷45）

答吳伯起

45) 暇：《記疑》의 諸 板本에는 ‘假’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46) 도이：高大本 ‘되외’, 國中本2 ‘되’

〔○答吳伯起 成都之諾云〕 汪應辰·趙汝愚皆知成都，此所謂，未知指何。◎但疑指趙汝愚。蓋伯起當時蜀地守令，而適爲上官憎，將對移他郡主簿。故伯起請於朱先生通以救⁴⁷⁾而趙公見諾，竟爲事勢所拘，不得救之，故云云。輕發，言不量事勢而輕發諾也。

〔致之〕 成都之不救，亦在我致之也。

〔渠〕 趙公。

〔不下〕 ‘近辟韜仲而不下’者，亦爲事勢所拘，是以愈縮手而不能救也。

〔相念〕 相念其伯起也。

〔所許〕 其書有許救之言，故朱先生問之。

〔具析〕 猶分辨也。具，猶兩造具備之具；析，分析也。

〔體究〕 猶言推考。

〔此處〕 義理。

〔海上單方〕 猶言一言半句也。

〔抵當不去〕 디덕하기를 못흔⁴⁸⁾면.

47) 救：기준본에는 ‘求’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1·2에 의해 고쳤다. 高大本에는 [추가 ‘救解’]가 있다.

48) 못흔：國中本1·2 ‘못흔’

〔○專恃此〕 此，謂聞善感發之處。

記疑0715 (節要1010：知舊門人問答25) (晦庵集 卷45)

答歐陽慶似【光祖】

〔○答歐陽慶似 反而求之〕 朱先生自謂。

記疑0716 (節要1011：知舊門人問答26) (晦庵集 卷45)

答嚴居厚【士敦】

〔○答嚴居厚 如此〕 爲事物所奪。

〔○此章〕 ‘浩然’章。

記疑0717 (節要1012：知舊門人問答27) (晦庵集 卷45)

答李深卿【詠】

〔○答李深卿 持示別緘⁴⁹⁾〕 深卿之別緘。⁵⁰⁾

〔吾一彼二〕 儒·釋之辨，只在分合之間。吾道合事物與吾心爲一，釋則分事物與吾心而爲二，故云。

〔輕視前輩之弊〕 深卿以此言告于朱先生故云。

〔所知所急〕 正獻之意，以爲堯·舜所知者，佛也；所急者，治天下之道也。○蓋所知者雖佛，而不可以佛治天下，故所急者治天下之道。正獻之意如此也。⁵¹⁾

〔所言所學爲二致〕 猶上文所知·所急，爲兩途也。

〔不智〕 “不當”之意，止此。

〔凡此二條〕 二條， 謂上文《中庸》首章“爲二”之弊·“輕視前輩”之弊。

〔彼此之殊也〕 “非如”之意，止此。

記疑0718 (節要1013：知舊門人問答28) (晦庵集 卷45)

49) 緘：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紙’。今按：《節要》에는 ‘緘’으로 되어 있고, [두주 ‘緘’, 唐本作‘紙’.]가 붙어 있다. 《全書》에는 ‘紙’로 되어 있다.

50) 緘：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紙’

51) 也：高大本 ‘云’

答胡寬夫

〔○答胡寬夫 空費日力〕 “切不可”之意，止此。

〔合做〕 맛당이 做힐.

〔留意〕 “承”字之意，止此。

〔書會〕 書會，如云‘文會’，謂聚會讀書之處。

〔按伏得下〕 心乙 按正ッホ 降伏ッ也 그리케 히리
오.

記疑0719 (節要1014：知舊門人問答29) (晦庵集 卷45)

答吳德夫【獵】

〔○答吳德夫 坐談〕 釋吐，坐談만.

〔問無齒決〕 齒決이 업스믈 문는 譏\.

記疑0720 (節要1015：知舊門人問答30) (晦庵集 卷45)

答楊子直【方】

- 〔○答楊子直 彼其〕 彼，謂陸棠.
〔歸之〕 以敬之名歸之於陸棠也.
〔不足行〕 陸之爲學，似持敬而從賊，故云不足行敬.
〔○一味〕 ㅎ ㄱ 52) 마티.
〔合殺〕 未詳其意.
〔見自無事〕 見，猶見今也.
〔厮炒〕 事乙 尋ッ也.
〔見責不能受人盡言〕 子直以不能受人盡言見責朱先生故云.
〔方於事上〕 上乙 事호매 모나라.53)
〔○楷〕 音개，楷書也.
〔納界行去〕 印札ッ也 去ッ又ヒ.
〔一棒〕 ‘棒’，音방，티다.
〔一攪〕 音깍，손바당으로54) 티다. 以比〈四箴〉之痛55)切也.56)

52) ㄱ：高大本 ‘갈’，國中本1 ‘늘’

53) 라：高大本·國中本1 ‘다’

54) 손바당으로：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손바다그로’

55) 痛：國中本2에는 뒤에 ‘意’가 있다.

56) 痛切也：國中本2에는 뒤에 ‘○捧，當從木，杖打也。攔，手打也。杖打則隨杖而有一條杖痕，手打則隨手而有一掌血漬，謂其言之痛著如此也。 “捧”，音방.’이 있다.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八

記疑0801（節要1016：知舊門人問答31）（晦庵集 卷45）

答廖子晦【德明】

〔答廖子晦〕

〔忽然有感〕 猶言頓悟。

〔披根拔本〕 指人心實然不可易者言。

〔意慮泯絕〕 極力尋究，用心¹⁾太²⁾過，則往往心路泯滅而斷絕。

〔○攝心坐禪〕 攝，持也，摠也，捕也。攝持其心，如捕捉然也。坐禪，靜坐參禪也。

〔既得後須放開〕 得，謂得道³⁾；須，必字意。

〔只是守者〕 吐，ハッサヒ。自‘既得’止此，亦程子語。守，謂下文‘守禮法’之守。

〔須放教開〕 釋，“모르미 放ッ也 ㅎ여곰 開케.” 卽是助長之病。

1) 心：國中本2‘力’

2) 太：高大本‘大’

3) 道：高大本‘通’

【○以我爲主以覺爲性】 卽是禪學.

【盡得我此知覺】 我矣⁴⁾ 此知覺乙 盡⁵⁾ 卽則. ‘得’是虛字, 不釋.

【皆是此物】 此物, 謂我之知覺.

【以水漚比】 問: “子晦以水漚比性, 固不可. 以水漚比氣, 何如?” 答: “以氣比水漚則可. 但纔以氣比, 便和理作聚散之物看. 人之見, 每每誤認於此, 不可不戒⁶⁾也.”

【以類而感應】 如下文上蔡所謂‘我之精神, 卽⁷⁾祖考之精神.’

【聖人所不欲言】 非謂聖人不以鬼神爲無⁸⁾故不欲言也. 聖人於鬼神之理, 知之至矣, 以爲無既不可, 以爲有亦不敢. 其於祭也, 雖自盡其至誠惻怛, 無所不用其極, 才得想見其精微恍惚之意, 而又猶止曰‘庶之而已’, 則其能歆饗與未, 若有所未敢必也, 而亦不可謂之未必

4) 矣: 國中本2 ‘의’

5) 乙盡: 高大本 ‘盡乙’

6) 不戒: 高大本 ‘戒不’

7) 卽: 高大本 ‘則’

8) 無: 高大本에는 [교정기 ‘有’]가 있고,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爲’下當有‘有’字.]가 있다. 다만 國中本2의 추가에는 삭제 표시가 있다. 今按: 내용상 ‘有’가 되거나 혹은 앞의 ‘不’을 삭제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響也。此聖人所以不欲言處也。

【一片大虛寂目之】 흔 片段이언 大虛寂로 指名之也。蓋非以大虛寂爲實然之理，乃以已死之知覺爲大虛寂中實然之理也。一片，猶一個。

【無常迅速而後學】 此禪語未詳。然其大意，謂‘人之有生，與大化質遷，變滅無常，而迅速如夢幻泡影。然於是怖死求免之心生，乃學爲參禪修道，求不生不滅之道，冀免輪迴之苦，故曰“爲生死事大·無常迅速然後學”也。’

【炳】 與‘熱’，音意同。

【○輕犯世禍】 德明以是戒朱先生故云。

【劉家大哥】 疑指劉平甫。先生於平甫父子有大恩義，故以教迪平甫爲己任而云云，然未敢必爾。

【○雖無邪⁹⁾心】 問：“邪心邪妄，異同何如？” 答：“邪心，故作之邪；邪妄，無心之邪。”

【蓋將卽此乃欲恃此】 兩‘此’字，指言存心。

【○無緊要處】 卽上所謂‘淺易處’。意者子晦讀書有揀其淺易處，置之不加工，而專立¹⁰⁾於深且難處，以爲

9) 邪：기준본에는 ‘雅’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節要》에 의해 고쳤다.

10) 立：國中本2 ‘意’；高大本에는 [추가 當作‘意’.]가 있다.

緊要而特地加工，不知是爲學之病，故以是戒之。

〔定疊〕 疑疊亦定也。

〔○事已如此〕 時子晦爲上官所怒，窘辱多端，子晦大不能堪，故先生極言所以處陵暴之道，使定其志而不爲威風所動也。

〔脊梁〕 등마려썤. 人之擔負重物¹¹⁾者，必硬著脊梁，乃能出力而勝重負。硬，堅也。蓋激勸子晦，令其抗厲志節，力當重任，毋¹²⁾受屈¹³⁾於彼。故以出力重負者比言之。

〔厮崖〕厮，猶相也。‘崖’或作‘捱’，亦作‘唯’。¹⁴⁾厮捱，疑相抗不屈伏之義。

〔對移〕 《禮記·王制》，“鄉學中不帥教者，右移左，左移右”，註謂之‘對移’，蓋黜惡令改過之事。宋時州縣下官有過，上官黜罰之，轉作他縣惡辱之任以示懲，謂之對移者，有故例。是時子晦上官欲以此加子晦，故先生勸其若任滿之日，彼便以己作對移¹⁵⁾，己無怵迫求

11) 物：國中本2 ‘於’

12) 毋：高大本 ‘無’

13) 屈：高大本 ‘辱’

14) 唯：기준본에는 ‘唯’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15) 對移：기준본에는 없으나, 高大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免之意，即當依其批書，離任而去，則彼之威風，無所可用於我矣。『使用也。』先生之意，謂彼窘辱子晦而折之以¹⁶⁾對移，子晦若不堪而祈求欲免，則眞成受屈，故勸之如此。

【使人】猶使者。

【指使】猶今使令。

【唱喏】‘喏’，音야.¹⁷⁾《字書》，“敬聲，蓋下爲上作尊敬祝願之聲，故《家禮》，‘子事父母，亦有唱喏之禮.’¹⁸⁾”

【押錄】猶今書吏。

【耆長】以民之耆老爲鄉里之任。

【枉陪】陪，重也，貳也，謂重疊添貳之也。『貳，加添之義。』重添¹⁹⁾許多卑下之情也。

【參取】‘不忘在溝壑’，只作在溝壑看，‘不忘喪其元’，只作喪其元看，便是死法。故‘不忘’者，謂隨時隨處隨所遭患難逆境，皆堅守此志而勿變，乃爲活法。故以二字爲活句而曰‘向此句語中參究而識取活法’云耳。²⁰⁾

16) 以：國中本2 ‘而’

17) 야：高大本에는 ‘也’로 되어있고, 옆에 작은 글씨 ‘야’가 있다.

18) 禮：高大本 ‘聲’

19) 添：기준본에는 ‘忝’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唐臣】 不知姓字爲何，乃是與子晦講論程·呂問答之人也。問，唐臣問也。自‘呂與叔’至‘皆是敬之事也’，呂問程答之言，唐臣舉而質之者也。

【曰】 程子答。

【自然無事】 以上，以實爲主而言也；以下，以虛爲主而言也。

【○一分見不盡時】 吐，“ハッ也 寸乙。”上文子晦知而行未至爲私意所撓，其言有合先生意，故教云：“苟有一分私欲，便有一分見不盡之時。”蓋有一分私欲²¹⁾，則爲其所蔽²²⁾，故其見必²³⁾盡於一分所蔽²⁴⁾之處。²⁵⁾

【無可思索】 ヽヒ. 子晦於此，隨文說義，無復餘蘊，據其所說，亦只是如此，無有未盡處云云，無可思索。而又引顏子‘雖欲從之，末由也已’之語，以明子晦雖能見能說而猶未²⁶⁾能行也。〔其曰‘此乃“雖欲從之，末由也已”處’，謂此是顏子云云之處也。〕

20) 耳：高大本에는 없다.

21) 欲：기준본에는 ‘言’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22) 蔽：기준본에는 ‘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23) 必：國中本2 ‘不’；高大本에는 [추가 ‘必’下疑有落字.]가 있다.

24) 蔽：기준본에는 ‘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25) 處：高大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26) 未：國中本2에는 없고 [소주 ‘未已’]가 있다.

《道中》²⁷⁾ 歸家道中。

《○徒守一物》 一物，猶言一事。

《差排》 未詳。疑與安排之義²⁸⁾相類。

《若不如此》 此即指上文博文約禮工夫。

《漫說爲學》 非實事，偶然虛說也。

《○拚得》 ‘拚’，音반。《韻會》，“楚人遺棄之物，謂之拚。”猶²⁹⁾言委棄³⁰⁾旬月工夫也。³¹⁾

《○所立卓爾》 德明³²⁾論顏子‘所立卓爾’之³³⁾語故云。

《只是見得》 見得，乃顏子之見得。

《但亦未有道理云云據爲己物耳》 言顏子雖所見如彼，然尚未有一個道理便可得入於其間，『其間，謂見得親切卓爾之處也。³⁴⁾』 據以爲我所有之物也。『既入其中則爲己物，今尚未入故云然。』

《大概實說》 言不當深究爲虛說，只可以大概明白處

27) 道中：高大本에는 이 조목이 없다.

28) 義：高大本 ‘意’

29) 猶：高大本 ‘獨’

30) 棄：國中本2 ‘其’

31) 也：高大本에는 없다.

32) 德明：高大本 ‘明德’

33) 之：高大本에는 없다.

34) 也：高大本에는 없다.

著實爲說.³⁵⁾

〔認取他〕 他，顏子。

〔○谷神不死〕 《老子》語。谷，虛也。谷神、。

〔與此粗細〕 此字，指光輝閃爍；粗細，指學問。

〔不得爲實見耳〕 自‘合下’云云止此，德明之語。

〔其意則善〕 姑以爲善而旋斥其非之辭也。

〔直指此物〕 此物，指光輝閃爍。

〔著緊〕 緊히之意。著是虛字，其意已入於緊히之說也。

〔直截根源〕 直截히 爲根源之計。直截，不迂曲也；根源，指無位。〔真人所在處。³⁶⁾〕

〔○考異³⁷⁾〕 朱子作《韓文考異》，考校諸本文字之同異而定取舍，往往有所論辨，今韓文諸本，皆宗其說。

〔未得其體〕 “疑”字之意，止此。

〔亦若自謂根源學問各有一種功夫者〕 朱先生嘗於《考異》中，論韓公見道之用而遺其體云云。今子晦因此說而誤疑以爲先生之意亦似以根源學問各分爲一種

35) 說：高大本 뒤에 ‘也’가 있다.

36) 處：高大本 뒤에 ‘也’가 있다.

37) 考異：高大本 ‘異考’

功夫。蓋子晦以無極·谷神爲根本工夫，學問·踐履爲零碎工夫，援³⁸⁾先生見用遺體之語以自附會，以謂³⁹⁾先生之說無異己說。先生於此，舉其說而斥其不然，因言前日《考異》中所論，吾意如此如此，非如你說也。

〔此是學問工夫云云緊切處〕指子晦誤入處與先生鐫誨處言也。

〔未覺其病〕先生自言未覺子晦之病處。

〔今幸見得〕亦自言見得子晦之病也。

〔詳看此說〕此說，朱先生說。

〔反覆〕相與反覆議論。

〔與書〕德明與書安卿。

〔不會說〕言太顛不能解說道理也。意者太顛短於敷衍說話故云。

〔修行〕釋氏參禪修道，謂之修行。

〔所未嘗聞〕謂太顛所言禪語韓公所未嘗聞也。

〔切中有病〕謂顛語切中韓公之病也。

〔坡公海外〕坡公，東坡。海外，儋州⁴⁰⁾ 昌化軍，在南海中。所謂子瞻謫海南也。

38) 援：高大本 앞에 ‘故’가 있다.

39) 謂：高大本 ‘爲’

40) 儋州：기준본에는 ‘澹州’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撈摸〕 撈，水中以手取物也。‘摸’，音莫，手捉也。東撈西摸⁴¹⁾，言不得其物而東西求取捉摸也。

記疑0802 (節要1101; 知舊門人問答32) (晦庵集 卷46)

答李瀛老【呂】

〔○答李瀛老 西山〕 瀛老先祖。

〔此枝〕 乃謂西山。

〔劉西澗〕 名煥，字凝之。棄官隱居廬山，歐公爲賦〈廬山高〉以美之。其子恕，字道原，亦棄官歸隱。

記疑0803 (節要1102; 知舊門人問答33) (晦庵集 卷46)

答汪太初

〔○答汪太初〕

41) 東撈西摸：國中本2‘東坡西坡’

〔康胡〕⁴²⁾ 未詳.

〔墳菴〕⁴³⁾ 寒泉精舍.

〔撐拄⁴⁴⁾過去〕 撐拄 번밀며⁴⁵⁾ 괴오며 바티다. 言不肯虛心受人, 硬執己意, 妄作言語, 以撐柱拒扞他人之說, 以過訖也.

〔○是此數事〕 指言正衣冠·一思慮等說.

〔○今茲需次〕 ‘需’與‘須’同, 待也. 時在官未替而後官前期除授, 則此官姑閒處以待時在官之替而後就任, 謂之需次. 〔如今預付訓導之類.〕

記疑0804 (節要1104; 知舊門人問答35) (晦庵集 卷46)

答呂士瞻【竦】

〔○答呂士瞻 道一〕 士瞻之子.

42) 康胡 : 高大本에는 [추가 ‘康胡’下當有圓, 圓其下有‘答方耕道’四字.]가 있다. 今按: ‘墳菴’ 이하는 《節要》에서 〈答方耕道〉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高大本의 추가는 그것을 지시한 것이다.

43) 墳菴 : 高大本에는 없고, [추가 ‘寒泉精舍’上, 當有‘墳菴’二字.]가 있다.

44) 撐拄 : 《記疑》제 판본과 《節要》(陶山本)에는 ‘撐柱’로 되어 있으나, 《節要》海州本과 《全書》에 의해 ‘撐拄’로 고쳤다. 아래 주석의 ‘撐拄’도 마찬가지이다.

45) 며 : 國中本2에는 없다.

〔爲己一著〕 一著，猶言一事也。比之棋者着手也。

〔今日乃言〕 士瞻言也。

〔日月長遠〕 士瞻⁴⁶⁾年少故云。

〔保任〕 믿브다.⁴⁷⁾

〔一時意思〕 士瞻⁴⁸⁾所言信得及意思。

〔爐鞴〕 ‘鞴’，音備。 고븐 불무예 불부는 것.

〔於此⁴⁹⁾兩句爲如何〕 謂涵養·求中兩句者是矣。此言程子以求中於未發之前爲⁵⁰⁾不可，而李先生之學則實爲求中於未發之前，故先生謂“不知李先生於此如⁵¹⁾何而⁵²⁾用工耶？”

〔儘不干事〕 謂南軒晚年亦改閑處承當之意，故其說話與未改前說不相干。○干事，猶言此事不干彼事也。

記疑0805 (節要1105; 知舊門人問答36) (晦庵集 卷46)

46) 士瞻：今按：내용상 呂士瞻이 아니라 그의 아들 呂道一이 옳은 듯하다.

47) 믿브다：高大本 ‘밋부다’，國中本2 ‘밋브다’

48) 士瞻：今按：내용상 呂士瞻이 아니라 그의 아들 呂道一이 옳은 듯하다.

49) 於此：國中本2 ‘此於’

50) 爲：高大本에는 없다.

51) 如：高大本 ‘爲’

52) 而：高大本 ‘以’

答呂道一

〔○答呂道一 或不能用〕 不能見用於世也。

〔一無有所爲者〕 不爲有異， 不爲有名， 不爲有利，
故⁵³⁾一無有所爲者。

〔○舉足〕 指言行其所知。

記疑0806 (節要1108; 知舊門人問答39) (晦庵集 卷46)

答黃商伯

〔○答黃商伯 當歸已久〕 其人當還之期過已多日故
云。

〔等候〕 等，亦待也。

〔出敕〕 敕，乃拜祠之敕也。⁵⁴⁾

〔喪服制度〕 此即國喪之制。

〔斜帛〕 如今團領之領，乃斜帛。

53) 故：高大本에는 뒤에 ‘云’이 있다.

54) 也：高大本에는 없다.

- 【接續盤繞】吐，“ㄴ ㅏ ㅓ 也 乙.”說⁵⁵⁾者之言，止此。
- 【手分世界中】不遵法制，妄出己見，任意任手，胡亂裁作，是其所作之服，從吾手分⁵⁶⁾世界而變化現出也。是恰似以吾手爲一段世界而化出事物也。
- 【一項】猶言一條。
- 【茅纏紙裏】纏之以茅，裏之以紙。此必古者苟且行禮者之事，如叔孫通綿蕞以習之類。然未詳出處。⁵⁷⁾
- 【○古經】經一章。
- 【○氣猶相近】即好生惡死・飢食渴飲之類。
- 【○註信州發來書】信州，商伯所居之地。書，即商伯之書。

記疑0807 (節要1109; 知舊門人問答40) (晦庵集 卷46)

答詹元善【體仁】

【○答詹元善】

55) 說：國中本1・國中本2에는 없다.

56) 分：高大本에는 옆에 작은 글씨로 ‘有“乎”字.’가 있다.

57) 處：高大本 에는 뒤에 ‘也’가 있다.

〔元履已歸〕 似謂歸朝也。

〔尉捕〕 縣尉以捕盜爲職，故曰尉捕。捕字，非職號也。

〔振業之〕 振，救也；業之，使得業也。

〔獲戾〕 言於上而或忤上意則獲罪也。⁵⁸⁾

〔○水經〕 元魏 桑欽著《水經》，記天下諸水也。

〔潘張〕 疑潘清逸·張子韶也。

〔○歸宗之請〕 體仁，幼出爲伯舅張氏後，既長，請於朝罷其繼後而歸其本宗。

〔范公之於朱氏〕 范文正之母，再適朱氏。文正少從母，於朱氏有恩義。既貴，厚報朱氏，與此不同而義同。

〔大除拜一番紛紜〕 大除拜，謂大除拜諸宰執諸清要官也。一時大除拜諸官，則陞遷換易，未免紛紜也。

〔其人〕 未詳指何人。

〔不作士大夫之心⁵⁹⁾〕 謂爲蔑禮亂常·頑頓嗜利之徒也。

〔大拍頭胡叫喚〕 ‘拍’，音白，如今用拍板以節樂也。頭者，如歌頭·詞頭·話頭之頭，奏曲之一頭段也。大拍

58) 也：高大本에는 없다.

59) 心：國中本2 ‘意’

頭，猶言大張樂也，以比大作氣勢也。胡叫喚，言亂叫呼也。子靜平日自負己見，與人論道，大張氣勢亂說，不下人也。⁶⁰⁾

【許教】許姓之人爲教官，故云“許教”，未詳其名。

記疑0808 (節要1110; 知舊門人問答41) (晦庵集 卷46)

答潘叔度

【○答潘叔度】

【標準襲取】標準，以舜爲標準。襲取，用《孟子》‘浩然非義襲而取之’之語。潘書必以是爲戒，故答如此。

【積漸將理】積漸，積久而漸爲之也。將理，猶言調理也。

【○坐忘坐馳】‘坐忘·坐馳’，見《莊子》。此言靜坐忘心，愈不能忘而心必外馳。故曰：“坐忘便是坐馳。”引之以證‘有意執持，此心先動’之說。

【名言小失】以持⁶¹⁾存名敬，乃名言之失。

60) 也：高大本에는 없다.

【○太瀾翻也】其言大⁶²⁾放肆鴻洞，如波瀾翻動也。

【○多者勝耳】在大冬，則霜凍多；在人心，則私欲惡念多。

【便和自家這裏】謂即并與吾身所爲而有病了。和，并與也。

【醍醐毒藥之喻】醍醐，以酥爲之，甘潤能養人。聖人立言垂世，益人如醍醐，後人假僞托真，以至⁶³⁾殺人如毒藥也。⁶⁴⁾

【如何必得】言後人於聖賢之言，或從或違，或真或僞，在其人之如何，聖賢如何而能期必得真從我言而不作爲⁶⁵⁾耶？

【衆盲摸象】衆盲，不知象之何狀，各以手摸⁶⁶⁾之而言之，狀各不同也。⁶⁷⁾

61) 持：高大本‘執’

62) 大：高大本·國中本1·國中本2‘太’

63) 以至：高大本에는 없다.

64) 也：高大本에는 없다.

65) 爲：高大本‘僞之’

66) 摸：高大本‘模’

67) 也：高大本에는 없다.

記疑0809 (節要1111; 知舊門人問答42) (晦庵集 卷46)

答潘叔昌⁶⁸⁾

〔○答潘叔昌〕

〔講聞⁶⁹⁾雋譽〕 講，猶論也。因人議論而聞⁷⁰⁾之也。

〔○代翕代張〕 代，謂更迭⁷¹⁾也。翕，閑絕消去也。張，復開張也。

〔○求之於彼〕 彼指禪學。

〔○李陸孫氏〕 疑李翱·陸贄·孫明復也。

〔入頭處〕 吐 ㄴ 五。

〔却看此等〕 ㄴ 面。

〔眼目少〕 謂所見少。

〔沈晦叔⁷²⁾章疏〕 劾晦叔之章疏。

〔○甚中一偏之敝〕 叔昌，婺州人。彼中人皆尚史學務博洽，不事性理之學，先生每言其不可。叔昌飾辭答之曰：“天上無不識字底神仙。”言神仙亦務博學，吾輩

68) 潘叔昌：高大本‘叔昌’

69) 聞：기준본에는 ‘問’로 되어 있으나, 《節要》 원문 및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70) 聞：기준본에는 ‘問’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71) 迭：高大本 ‘造’

72) 沈晦叔：《全書》와 《節要》에는 ‘沈叔晦’으로 되어 있다.

務博不爲非也。先生謂此論甚中云云，蓋當時又有專務禪學，不肯讀書者，其一偏之弊甚大，故曰‘甚中其弊’。其下復救叔昌不務理學之病，蓋終不以彼言爲是也。

【六國表】 司馬遷所作。

【赤幟已立】 韓信令伏兵入趙城，立漢赤幟，趙軍驚亂遂降，故決勝取服，人不敢抗爭，謂之⁷³⁾立赤幟。

【○子房孔明之所黽勉】 黽勉，謂心不欲而黽勉從之也。漢 高祖·昭烈，或有不正之事，留侯·武侯不能盡救，有時乎黽勉苟從，乃兩人欠處。

【多方⁷⁴⁾遷就】 謂失其正道，而多方變就於非義也。

【程正叔止⁷⁵⁾作宰相】 程正叔，守道行志，不肯枉尺而直尋；陳正己，強狼妄作，詭遇獲禽之人也。觀此處語意，叔昌書意，必以三代以下事不可一一行正道，雖以子房·孔明之賢，遇高祖·昭烈之君，猶有⁷⁶⁾黽勉苟從之事，況其他乎？故守志行道之眞儒，只可任教育⁷⁷⁾人才之事，不可作宰相以濟天下，惟有才業而能隨世就功名者，乃可以任經濟之責云云。其大意如此，

73) 之：高大本에는 없다.

74) 多方：高大本 ‘方多’

75) 止：高大本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다.

76) 猶有：高大本에는 없다.

77) 育：國中本1 ‘育’

故答之云云，若必如叔昌之言，是正叔只可作祭酒，正己當作宰相，其可乎？

〔○易傳二義〕 未詳當時所引。

〔禍根不除〕 叔昌謂：“陳蕃·竇武，當時欲盡⁷⁸⁾誅宦官，故取禍甚慘。若以漸除之，不至於敗。”故朱先生以爲，如此則禍根不除，亦無不取禍之理。’

〔王允〕 乃東漢末王允.⁷⁹⁾

〔五王〕 乃唐 中宗時五王。

記疑0810 (節要1112：知舊門人問答43) (晦庵集 卷46)

答劉叔文

〔○答劉叔文 各在一處〕 “不可”之意，止此。

〔未要硬便主張〕 叔文看理氣二物不透，而便以己見硬作主張，妄說道理，不肯虛心平看以至自然融會處。故以此喻之。◎古⁸⁰⁾今學者，有志於此事，而不能深有

78) 盡：高大本에는 없다.

79) 允：高大本·國中本1에는 뒤에 ‘也’가 있다.

80) 古：高大本 앞에 ‘如’가 있다.

所得，或入於異端者，皆由硬便主張之。故非惟⁸¹⁾不聽人好說話，亦不信聖賢話，皆欲⁸²⁾驅轡他人以從己意，其病不少，宜深戒之。

【放下此一說】即叔文⁸³⁾看未透而硬便主張之說，即理氣之說也。

【膠漆之盆】膠漆，皆粘著不解之物。盛膠漆於盆中，其粘著不解。可知以⁸⁴⁾自守不通之見，膠固執著，不肯舍己從人，虛心看理之人。

【○辨別性氣兩字不出】能辨別性氣兩字，爲辨⁸⁵⁾別出也。今叔文不能辨別，爲辨別不出也。《語錄》也。⁸⁶⁾

【論其徧體】徧，周徧也。論此理之周徧，爲萬物之體，則理無不在。

記疑0811 (節要1114 : 知舊門人問答45) (晦庵集 卷46)

答胡伯逢

81) 惟 : 기준본에는 ‘有’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82) 欲 : 高大本에는 없다.

83) 叔文 : 國中本1·國中本2 ‘文叔’

84) 以 : 高大本에는 뒤에 ‘此’가 있다.

85) 辨 : 高大本 ‘分’

86) 也 : 國中本1에는 없다.

【○答胡伯逢⁸⁷⁾言知人處】 《論語》“觀過，斯知仁矣。”先生訓以觀人之過，則其人之仁不仁，可知，即今《集註》云云之意也。當時諸人，則皆以爲自觀己過，則可知吾心所具之仁道。⁸⁸⁾先生每每力辨之，人多不信從，今伯逢亦然。故先生答之如此。

【郢書燕說】 郢，楚都也。郢人遺燕相國書者，夜書⁸⁹⁾，謂持燭者曰“舉燭”，而誤書“舉燭”。相受書曰⁹⁰⁾：“舉燭者，高明也。”舉賢而用之也。○韓非子曰：“先生⁹¹⁾有郢書，而後多燕說。”○朱先生引用此語，非⁹²⁾以《論語》之言，爲郢書之誤，只謂今人私意，妄解聖言，如燕人說耳。

【○搖蕩恣睢】 語出《莊子》。其註，“搖蕩，放蕩也；恣睢，從橫也。”‘睢’，許維反。

87) 答胡伯逢：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는 옆에 ‘胡伯逢’이 追記되어 있다; 高大本에는 [추가 ‘言知人處’上當有圓, ‘圓答胡伯逢’.]이 있다. 國中本2와 高大本 追記, 그리고 《節要》에 의해 ‘答胡伯逢’을 보충하였다.

88) 道：高大本에는 없다.

89) 書者夜書：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書書者夜’

90) 曰：國中本2 ‘日’[추가 ‘日’, 似是‘日’字]

91) 先生：今按: 《韓非子·外儲說左上》에는 ‘先王’으로 되어 있다.

92) 語非：高大本 ‘非語’

記疑0812 (節要1115 : 知舊門人問答46) (晦庵集 卷46)

答黃仁卿【東】

【○答黃仁卿 排定說殺】 想仁卿讀《春秋》，考其類例，排布爲定規，因論說其義，以求質於先生，故云云。殺字未詳，然疑是說了之意耳。

【著功夫】 “切忌”之意，止此。

追錄⁹³⁾

【答潘叔昌 代翕代張】 翕，斂合而欲去之也；張，張開⁹⁴⁾而復作也。言欲去人欲而更迭復作也。⁹⁵⁾

【天上無不識字神仙】 言此以比自古無不博學之聖賢也。叔昌，浙人。當時浙中諸人，尙史學，以通古今討世變爲務，不於根本上做工，先生力辨其非。故叔昌答以此言，乃掩過遂非之辭。先生又斥之如下文所云也。

93) 追錄 : 이하 내용은 《定本 退溪全書》〈答鄭子中別紙【庚午】〉(KNL1202)에도 수록되어 있다.

94) 張張開 : 高大本 ‘開張張’

95) 也 : 高大本에는 없다.

【答詹元善⁹⁶⁾ 大拍頭⁹⁷⁾】 ‘拍’，音白。《樂書》，“樂有拍板”，如今樂所用拍板也。生僧儒以拍板爲樂句，韓退之大稱賞。又王維見〈按樂圖〉曰：“此〈霓裳〉第三疊拍也。”又“虞美人草，有⁹⁸⁾爲〈虞美⁹⁹⁾人曲〉，則應拍而¹⁰⁰⁾”又“〈霓裳曲〉，散序六徧無拍，中序始有拍。”今以此等語參詳，拍者，乃樂節之名，合九板或六板，繩穿而手拍之，出聲以表樂曲之節，故謂之拍，如蔡瑛¹⁰¹⁾〈胡笳〉分¹⁰²⁾爲十八拍也。頭者，如歌頭詞頭¹⁰³⁾，是一拍之題頭也。其曰“大拍頭”者，言大張皇作曲拍，如今云大作長歌之類。以比¹⁰⁴⁾子靜平日自是已見，其於論學，大張皇作氣勢，勵¹⁰⁵⁾聲色，胡亂說道，無忌悼也。

96) 答詹元善：《節要》에는 권11 答黃商伯과 答潘叔度 사이에 수록되어 있다.

97) 大拍頭：기준본에는 표제어가 없으나, 國中本2의 追記에 의해 보충하였다.

98) 有：高大本에는 없다.

99) 美：기준본에는 ‘美’가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100) 應拍而：今按：《四庫全書》와 《定本 退溪全書》에 의하면 원문의 ‘應拍而’ 뒤에 ‘舞’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101) 蔡瑛：今按：‘蔡瑛’은 ‘蔡琰’인 듯하다. 蔡琰은 중국 後漢의 蔡邕의 딸. 《定本 退溪全書》에도 ‘蔡琰’으로 되어 있다.

102) 分：國中本2에는 뒤에 ‘之’가 있다.

103) 歌頭詞頭：高大本 ‘詞頭歌頭’

104) 比：기준본에는 ‘此’로 되어 있으나, 《定本 退溪全書》와 國中本2의 [추기 ‘比’]에 의해 ‘比’로 수정했다.

105) 勵：國中本2 ‘厲’. 今按：《定本 退溪全書》에도 ‘厲’로 되어 있다.

朱子書節要記疑 卷之九

記疑0901 (節要1117 : 知舊門人問答48) (晦庵集 卷47~48)

答呂子約【祖儉】

〔答呂子約書 第四書 既要如此又要如彼〕 其心疑慮，故 이뭇¹⁾ 이 마티 ㅎ살가 要ッ古, 또 더 마티 ㅎ살가 要ッ也.

〔到頭處〕 “不要”之意，止此.

〔○²⁾主一主事之不同〕 不同，乃子約之論. 朱先生言其同也，故云云.

〔瞻前顧後一前一却之論〕 乃其言論之不止³⁾也.

〔○傳於人上〕 子約以“傳不習乎”一句釋之，曰“以不習之事，傳於人”，故云云. ○不習乙 人ㄱ 傳ッ飛 p 上ㄱ 就ッ也 說.

〔○許多道理〕 乃支蔓道理，即子約之病.

〔此處〕 自然底道理出來處.

1) 이뭇 : 國中本2 ‘이뭇’

2)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3) 止 : 高大本 ‘正’

〔○煩碎繳〕 音교.

〔繞〕 子約之病.

〔先生〕 延平.

〔注引李先生〕⁴⁾ 朱先生論“三年無改”處，云：“若有事委曲宛轉而改之。延平先生云：‘哀痛切迫而改⁵⁾之，每事用心如此，恐⁶⁾所失却多云云.’” 朱先生前書引李先生之言而用之云，故云.

〔○先入者爲主〕 心知其無，故云“先入者爲主”.

〔○留情於此【云云】病痛也〕 於此，吐ッ也. ‘勿’字意，止於‘痛也’之下. 趙上舍云：“恐‘勿’字意，止於‘留情於此’一句.”

〔○⁷⁾我視我聽〕 顏淵，“非禮勿視，非禮勿聽”，上蔡以我視我聽釋之，故子約引問之.

〔所引〕 即上蔡言.

〔有我〕 나를 두미.⁸⁾ 我，即我視我聽之我.

〔○心無形體〕 心無形，故⁹⁾心無形體

4) 注引李先生：《節要》에 있는 自註의 내용을 표제로 삼은 것이다.

5) 改：高大本에는 [추가 註‘改’之下，一本有‘若宛轉委曲而改之’.]가 있다.

6) 恐：高大本에는 뒤에 ‘浸浸然’이 있다.

7) ○：기준본에는 없으나，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8) 미：高大本 ‘며’

9) 故：高大本에는 뒤에 ‘云’이 있다.

〔○摔〕¹⁰⁾ 音돌. 끌드다.¹¹⁾

〔○操此而已矣〕 此, 謂心也.

〔兩者〕 諸人及子約.

〔○言之而已〕 “但云”之意, 止此.

〔不得不任其責〕 叔度學佛之責, 伯恭不得不任.

〔○千里一曲〕 疑是黃河千里一曲. 故子約言“吾之學, 大綱既正, 則雖有其間小病, 如千里一曲, 何害之有”云. 故朱先生言之.

〔讀詩諸說〕 子約讀《詩》諸說.

〔韓巖〕 朱先生所會話處.

〔兼此語〕 乃始覺身心欠收拾之語.

〔明招堂〕¹²⁾ 朱先生會話處.

〔人之情僞〕 古書中所言, 古人之情僞.

〔○以彼爲重〕 彼, 謂通古今考世變, 乃史學.

〔了悟〕 乃頓悟也.

〔一時憤激所發〕 《中庸》·《詩·頌》·〈西銘〉等¹³⁾說, 皆極精密¹⁴⁾, 後書所謂不能下心細意於《中庸》·

10)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1·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1) 끌드다 : 國中本2에는 옆에 ‘參《韻會》, 音줄’이 있다.

12) 明招堂 : 高大本 ‘明哲堂’[추가 ‘明哲’, 一本作‘明招’.]

13) 等 : 高大本에는 없다.

《詩·頌》15)·〈西銘〉等說，特一時憤激所發耳.

〔同父事解〕 同父見禍而竟事解，故云.

〔呶呶〕 大聲貌.

〔辯博〕 同父辯博.

〔待除〕 除，除拜也.

〔呈身之說〕 唐時宰相¹⁶⁾，以不知之人爲御史，有人譏之. 宰相曰：“安有呈身御史耶?” 呈身，言呈身自薦¹⁷⁾也. 象先¹⁸⁾有呈身之說，故云云.

〔不爲久計〕 不爲久留朝廷之計.

〔杠夯〕 杠，드다. ‘夯’，音向，負荷也. 杜撰杠夯禪學也.

〔恭兄文字狀〕 恭兄文字，請刊行廣布之狀子.¹⁹⁾

〔面前事〕 先前²⁰⁾ 다투는 事斗.

〔託眞售僞〕 當時，有人看²¹⁾書，託名東萊之書，故

14) 密：기준본에는 ‘蜜’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1·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15) 頌：國中本1 ‘誦’

16) 宰相：高大本에는 없다.

17) 薦：기준본에는 ‘遷’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18) 象先：高大本 ‘家先生’[추가 ‘家先’一本作‘象先’, 無下‘生’字.]

19) 子：기준본에는 ‘字’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朱子大全筭疑輯補》의 〈記疑〉에도 ‘子’로 되어 있다.

20) 前：國中本1 ‘事’

21) 看：國中本1·國中本2 ‘著’

云.

〔○只問〕 朱先生問于同父也.

〔并文中子〕 同父頗好文中子²²⁾, 故云.

〔併²³⁾破除一上〕 혼가지로 破除하기를 一上ッヒ.
一上, 猶一番也.

〔令錄去〕 令子約扣同父, 錄送同父之書觀也. 去,
語助辭.

〔必竟〕 猶畢竟也.

〔智力中之²⁴⁾仁義〕 子約以漢·唐爲仁義, 故²⁵⁾朱先
生言漢²⁶⁾·唐雖間有仁義之事²⁷⁾, 非眞仁義, 乃²⁸⁾智力
中之仁義也.

〔○過意〕 마장.²⁹⁾

〔枉尺直尋〕 乃上文之所謂.³⁰⁾

〔○大著肚〕 肚, 腹也.

22) 子：高大本 ‘字’

23) 併：諸 異本에는 앞에 ‘一’이 있다.

24) 之：高大本에는 없다.

25) 故：高大本에는 없다.

26) 言漢：高大本 ‘書觀’

27) 事：高大本에는 없다.

28) 乃：高大本에는 뒤에 ‘事上’이 있다.

29) 장：國中本1 ‘장’

30) 謂：國中本1·國中本2에는 없다.

【○自做身主不起】身矣 主乙 做ッ也 起治 ㄴ³¹⁾ッ

古. 言身無主宰也.³²⁾

【臨事遲回瞻前顧後】子約之言.

【心術影子】子約之心術影子.

【不會減人氣力】“訓導後生之勞，減人氣力”，是子約之言，故朱先生云云.³³⁾

【○蹉過了他】他，謂古人也.

【家計³⁴⁾】家，猶國家.

【前人】謂伯恭.

【對班】宋時，對朝班奏經筵，故云.

【若此處】謂收斂人主心念也.

【○舊讀云云【止】放心之間】胡子《知言》ㄱ 或人
矣 放心云云 問乙 ㄴ³⁵⁾ 答ッ ㄱ 乙 讀ッ 古.

【覩】音羅.

【代之】代，胡子也.

【轉險】其語轉幽深也.

31) ㄴ : 高大本·國中本2 ‘못’

32) 也 : 高大本에는 없다.

33) 云 : 高大本에는 없다.

34) 家計 : 高大本에는 [추가 ‘家計’, 恐不然.]이 있고,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家計’, 註恐不然.]이 있다.

35) ㄴ : 高大本·國中本1 ‘ㄴ’

〔潑潑地〕此乃程子之言。

〔知得如此〕謂子約知得也。

〔論量〕“不要”之意，止此。

〔先儒說得〕先儒著注之說。

〔打疊交空〕³⁶⁾ 打疊，터버리다. 交，猶使也。打疊。

〔夏虫井蛙〕³⁷⁾ 語見《莊子·秋水篇》。大方，大道也。

〔史記時變之學〕《史記》^ㄱ 時變之學^ㄷ。乃呂氏之家學。

〔都人云云沲若之事³⁸⁾〕未詳。疑是當時主張《史記》之人，以此言上疏云云。

〔流弊〕史學流弊。

〔反爲所誘〕反爲上章之人所誘也。

〔公聽并觀〕不墮一偏之見，則是爲公聽并觀也。³⁹⁾

〔○前旒絰纁〕程子曰：“祭祀時，冕旒蔽目，絰纁塞

36) 打疊交空：高大本에는 이 조목이 없다.

37) 夏虫井蛙：高大本에는 이 조목이 없다.

38) 事：高大本 ‘章’

39) 公聽并觀也：高大本에는 뒤에 ‘〔○活潑潑地〕“須知”之意，止此。〔上句〕後獲〔求之也〕“非”字之意，止此.’가 있다. 國中本1·國中本2에는 뒤에 ‘〔○活潑潑地〕“須知”之意，止此。〔上句〕先難〔下句〕後獲〔求之也〕“非”字之意，止此.’가 있다.

耳。” ○‘耳無聞，目無見’，亦程子之言，子約并以爲問，故云云。

〔前項〕 謂‘耳無聞，目無見’也。

〔有能知能覺者〕 有能知能覺之理也。

〔不得合爲一說〕 但有能知能覺，無所知所能之事。此《易》卦，不爲無陽之象，乃未發也。若論復卦⁴⁰⁾，則須以有所知覺者當之，乃已發也。其⁴¹⁾未發已發，不得合爲一說也。⁴²⁾ ○子約欲守程門問者之說，謂‘未發時，耳無聞，目無見.’故所答如此。

〔○寂然感通〕 寂然未發，感通已發。

〔皆指已發〕 皆指已發ㄴㅅㅍ. 言之失ㄴ 有ㄴ 麻ㄴ.

〔蓋言〕 “言”字之意，止此。

〔問者〕 謂蘇季明。

〔引惹他〕 他，謂蘇季明也。他ㄷ 혀.

〔前後差舛〕 謂前云“耳無聞，目無見”，後云“耳須聞⁴³⁾，目須見。”故云“前後差舛”。

40) 不爲無陽之象……若論復卦：高大本에는 없고 [추가 註‘易卦’下，一本有‘純坤’二字.]가 있다.

41) 其：高大本에는 없다.

42) 也：國中本1에는 없다.

43) 聞：奎章閣本에는 ‘見’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此固未當】乃程子手書中之言也。手書，“凡言心者，指已發”，而隨即自謂“未當云云。”

【賓主】氣乃主也，道義賓也。

【能浩然而無餒乎】‘崎嶇詰曲以爲之說’，止此。

【連排三句】‘其爲氣也’·‘配義與道’·‘無是餒也’之三句。

【誦說】乃當時誦說也。

【○答之則】元德訓‘行’，與子約相對而言。故子約答之則。

【○以所能爲能】謂元德訓道爲行也。所能，謂道也；能，謂行也。

【以能爲所能】謂來喻⁴⁴⁾訓學爲義理之蘊也。能，謂⁴⁵⁾學也；所能，謂⁴⁶⁾義理之蘊也。⁴⁷⁾

【○見聞上】見聞，謂上文‘耳聞目見’也。

【請問記錄】蘇季明。

【上四句】“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和也者，天下之達道

44) 喻：國中本1·國中本2 ‘謂’；國中本2에는 [추가 ‘喻’]가 있다.

45) 謂：國中本1 ‘爲’

46) 謂：國中本1 ‘爲’

47) 也：高大本에는 없다.

也”，四句也.

《四到時節》 四到，猶俗云“스도로”.

《癡獸罔兩漢矣》 ‘獸’，音이. 癡獸⁴⁸⁾ ㄴ 古，罔兩 ㅎ
놈미.⁴⁹⁾

《○爲事》 子約謂：“未契，今姑當以涵養本原·勉強
實理⁵⁰⁾爲事，而俟其前論之契合。”故云云.

《鑽研勘覈》 鑽研勘覈其前論也.

《不只說完養思慮了便休也⁵¹⁾》 오직 完養思慮만 說
ㄴ 也 곧 마디아⁵²⁾니 ㅎ시니.⁵³⁾ 言并言涵詠⁵⁴⁾義理
也.⁵⁵⁾

《道我》 道，猶言也.

《此事》 學問也.

《豈更有【云云】他人耶》 各自努力，故不能管得他人
也.

《○如此用功》 “知得”之意，止此.

48) 獸：高大本에는 없다.

49) 미：國中本1·國中本2 ‘이’

50) 理：國中本2에는 [추가 ‘履’]가 있다.

51) 也：高大本에는 없다.

52) 아：國中本1 ‘이’

53) 니：高大本·國中本1 ‘리’

54) 詠：國中本1 ‘泳’. 今按：‘泳’이 옳은 듯하다.

55) 也：高大本에는 없다.

- 〔答問之際〕 與蘇季明答問也.
- 〔收殺了〕 막치시니.
- 〔兩塗〕 博文·約禮, 兩塗也.
- 〔○挨前〕 ‘挨’, 音애, 推也.
- 〔討〕 猶求也.
- 〔調度〕 猶法也.
- 〔自拔〕 拔自俗也.⁵⁶⁾
- 〔向在臨安相聚〕 朱先生向在臨安相聚也.
- 〔無及者〕 無及於漢卿者.
- 〔說話〕 漢卿之說話.
- 〔○四事〕 疑是未發·已發·博文·約禮也.
- 〔歸宿〕 歸宿乙 免홈만 끝디 못헉도⁵⁷⁾다. “反不得如”之意, 止此.

記疑0902 (節要1201 : 知舊門人問答49) (晦庵集 卷49)

答王子合【遇】

56) 自拔 : 高大本에는 이 조목이 아래 ‘說話’ 조목 앞에 있다.

57) 도 : 高大本에는 없다.

〔○答王子合 鵝湖〕 朱先生與伯恭諸人，會于寒泉精舍，纂《近思錄》，後送伯恭，至鵝湖。

〔奉祀已久〕 祠，祠錄⁵⁸⁾也。

〔每談志行之美〕 伯恭每談子合志行之美。

〔○向於彼〕 彼，謂窮理也。

〔○毫釐頃刻〕 謂易簣之間。

〔合禮可安與世周旋不得已而受之〕 其受簣事，子晦則以爲合禮可安，子合則以爲與世周旋不得已而受之。故先生云云。

〔○出門有礙〕 子合以爲應世接物，則出門有礙云。故先生云云。

〔應副將去〕 ‘自不妨之’意，止此。

〔此等意思〕 ‘出門有礙’之言。

〔不可作兩截看〕 兩截，猶言彼此本原不可作兩截看也。

〔○祠記〕 子合求祠記於先生，故云。

〔修學〕 修學校也。

〔與人遮屋壁〕 與，許也。打印⁵⁹⁾而造簇子，掛壁看

58) 錄：國中本1・國中本2 ‘錄’[추가 ‘錄’作‘祿’.]

59) 印：기존본에는 ‘印’로 되어 있으나,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之，乃與人遮屋壁也。

〔大學解義〕 子合《大學解義》也。

〔與否〕 “審”字之意，止此。

〔向前退後〕 向前，乃貧多也；退後，乃不貧多也。

〔無可講者〕 講ㄷ 者 ㄴ 업다。

〔自住不得〕 言漸進也。

〔生事也〕 “不須”之意，止此。

〔○擘畫分疏〕 擘ㄷ 畫ㄷ 分疏ㄷ 面。

〔鈴鏈〕 ‘鈴’，音兼，與‘鉗’通用。

〔催儻〕 儻字，疑亦‘催’字之意。

〔宿留〕 ‘宿’，音忖。留，去聲。有所希望而留之，謂‘宿留’。

〔新法課程〕 即着力催儻也。⁶⁰⁾

60) 即着力催儻也：國中本2에는 뒤에 ‘○“鈴”與“鉗”通，其淹切以鐵，有所劫束也。 “鏈”，當從手，以椎搥之也。 “鈴鏈”，以言檢制學者之嚴也。言吾見子餘爲長上之人，故不欲嚴加檢制，後來覺得如此恐誤朋友，乃始用力催趁功夫，而子餘行日已迫，不及有所成就矣。子餘去後，他人尙有留不去者，用新課嚴加檢責，則却覺有長進者。因復言曰：“寬學者，是小仁也，而致誤學者，所謂大仁之害也。嚴學者，無面目也，而其學長進，所謂長久人情也。” “儻”，《韻書》，“聚也。”然非但聚也，亦催促趁及之意。【〈答李仲久〉】’가 있다. 해당 내용은 《定本 退溪全書》5, 〈答李仲久問目【《朱子大全》疑義】〉 (KNL0095)에 수록되어 있다.

記疑0903 (節要1202 : 知舊門人問答50) (晦庵集 卷49)

答林伯和

〔○答林伯和 書賢者〕 伯和也.

〔高妙直截〕 禪學.

〔記誦文詞〕 史學.

〔尤被其害〕 敦篤慤實者, 其於異學亦敦篤慤實, 故尤被其害.

〔先儒之說〕 謂《論》·《孟》註也.

〔過計之憂〕 伯和不做切已工夫, 而先有旁通當世之務之心⁶¹⁾, 故云云.⁶²⁾

〔依本分無過惡〕 尋常⁶³⁾人也.

〔林兄昆弟〕⁶⁴⁾ 謂擇之⁶⁵⁾兄弟.

記疑0904 (節要1204 : 知舊門人問答52) (晦庵集 卷49)

61) 之心 : 高大本에는 없고 [추가 註‘務’, 一本作‘心’]이 있다.

62) 云云 : 高大本 ‘過計之憂’[추가 ‘過計之憂’作‘云云’.]

63) 尋常 : 國中本2 ‘尋常之’

64) 林兄昆弟 : 諸 異本에는 이 조목 뒤에 ‘〔○答林叔和 日下〕 猶日來也.’가 있다.

65) 擇之 : 기준본에는 ‘澤’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答陳膚仲【孔碩】

〔○答陳膚仲〕

〔傳注障礙〕 諸經文字，爲傳注⁶⁶⁾之⁶⁷⁾障⁶⁸⁾礙也。

〔婺州〕 謂東萊門人。史學也。

〔正坐〕 坐，猶言坐罪也。“正坐”之意，止於“衆善”之下。

〔○何故如此〕 膚仲嘗不貧，而云“用度不足”，故云“何故如此”。

〔○頗相信〕 相信其陳膚仲也。

〔靠〕 音고.

〔讀西銘說否〕 林栗作〈西銘說〉，故云。

〔向來辨論〕 謂與林栗論〈太極〉⁶⁹⁾。〈西銘〉時也。

〔理非不直〕⁷⁰⁾ 朱先生自言‘我之失笑，理非不直也。’

〔○新意〕 “要”字之意，止此。

〔著甚來由〕 ㄹ슴 來由乙 著ッ也。

66) 注：國中本1 ‘註’

67) 之：高大本 ‘矣’

68) 障：高大本 ‘障’

69) 太極：國中本2 ‘大極’

70) 理非不直：高大本에는 [추가 ‘理非不直’云者，非指失笑也，乃謂示論之事.]가 있다.

〔惹踢〕 引惹其踢.

〔不是做文章處〕⁷¹⁾ 原州韓文公，曾有題詠，而膚仲又求學記，故云“不是做文章處”.

〔怪他不得〕 고이히 녀⁷²⁾기디 못히리라.

〔○脫去排遣〕 脫去排遣其家務也.

〔偷〕 得少間隙時而爲之，故云云.

記疑0905 (節要1205 : 知舊門人問答53) (晦庵集 卷49)

答滕德粹【璘】

〔○答滕德粹〕

〔獲同土壤〕 德粹亦新安人，故云.

〔所欲去者〕 科學·佛·老也.

〔○⁷³⁾信其師者〕 此言師，謂聖賢訓戒也.

〔○補試〕 疑是大學館試取諸生，次次通仕，而首居

71) 不是做文章處 : 기준본에는 ‘不是做文處’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아래 주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72) 녀 : 高大本 ‘너’

73)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者已出，則後居 者補其首居之闕，故云“補試”。

〔計此〕 此乃補試也。

〔分定〕 得失之分定也。

〔斷置不下〕 得失之心，斷置不下也。

〔其間哉〕 謂得失之間也。

〔近思所疑〕 《近思錄》所疑。

〔○若有所喜〕 德粹言‘釋學若有所喜’，故云。

〔○用功處〕 “虛心體認”之意，止此。

〔立說〕 立文字也。

〔○自比於明道〕 明道出入於釋·老，汎濫諸家。德粹自謂已知爲學之大端，以比其身於明道，故朱子云云。

〔○⁷⁴疑其說之相似〕 明道疑其釋·老諸家之⁷⁵說相似於吾道也。

〔得失〕 異端吾學之得失。

〔當日〕 謂明道之時也。

記疑0906 (節要1206：知舊門人問答54) (晦庵集 卷49)

74)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75) 諸家之：國中本1 ‘諸之’，國中本2 ‘之諸’

答滕德章【珙】

〔○答滕德章 淹速〕 猶言遲速也。
〔不可以此〕⁷⁶⁾ 此，謂不敢看文字也。
〔○暇日〕 疑官事暇日也。

記疑0907 (節要1207 : 知舊門人問答55) (晦庵集 卷49)

答寥季碩【俔】

〔○答寥季碩 尤異登聞〕 尤異^히 登聞^{ッヒ}。尤異，
謂尤異於常也。言高捷科第也。

記疑0908 (節要1209 : 知舊門人問答57) (晦庵集 卷50)

答潘文叔【友文】

76) 不可以此 : 《節要》 본문에는 ‘《節要》’에는 ‘未可以此’로 되어 있다.

〔○答潘文叔〕

〔擔閣〕⁷⁷⁾ 연⁷⁸⁾저두다.

〔撤〕 허⁷⁹⁾티다.

〔一霎時間〕 ‘霎’, 音삽, 잠깐.⁸⁰⁾

〔斲輪相馬〕 文叔以“斲輪”·“相馬”, 比之知行之說, 故云.

〔壞證〕⁸¹⁾ 文叔紙尾有‘이리하면 壞ㄷ 證ㄴ’之言, 故云.

〔似已有之〕 文叔似已有之也.

〔胡思〕 胡, 어즈리이.

記疑0909 (節要1210 : 知舊門人問答58) (晦庵集 卷50)

77) 擔閣 :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擔閣 《語錄》云: “머므다.”, 此釋恐非也.]가 있다.

78) 연 : 高大本 ‘언’

79) 허 : 高大本 ‘해’

80) 깐 : 國中本2 ‘간’

81) 壞證 : 國中本2에는 [추가] 未詳. 然恐是病之深痼, 元氣壞敗, 不可救者, 謂之壞證. 此必文叔書指禪學陷溺之病爲壞證, 而文叔諸說却自有禪意, 故上文既有壁隙光影之說, 而於此又言爾所謂壞證, 爾身已自有之云耳. 【〈答李仲久〉】]가 있다. 해당 내용은 《定本 退溪全書》5, 〈答李仲久問目【《朱子大全》疑義】〉(KNL0095)에 수록되어 있다.

答潘端叔【友端】

- 〔○答潘端叔 求聞〕 求聞於世也.
〔○示喻子約〕 端叔示喻子約之書也.
〔渠〕 子約.
〔以其所守〕 朱先生之所守也.⁸²⁾

記疑0910 (節要1211 : 知舊門人問答59) (晦庵集 卷50)

答潘恭叔【友恭】

- 〔○答潘恭叔 詩說〕 恭叔《詩》說也.
〔○通鑑正史〕 書名.
〔○先生〕 謂朱先生.
〔不肯放下處〕 “說到”之意, 止此.
〔○此義〕 謂“將‘吝’字看得重”之義.
〔陰病裏證〕 陰病ㄴ ㄸ 裏證ㄴ.

82) 朱先生之所守也 : 高大本·國中本1에는 [추가 ‘以其所守’, 分明指子約之所守, 而註以爲先生之所守, 未詳.]이 있다. 國中本2에도 [추가 指子約, 註恐誤]가 있다. 今按: 내용상 子約의 所守로 보는 것이 옳은 듯하다.

記疑0911 (節要1212 : 知舊門人問答60) (晦庵集 卷50)

答鄭仲禮

〔○答鄭仲禮 疑義〕 鄭仲禮，南軒門人．疑義，即南軒門人疑義也．

〔厄於衆口，不能自伸〕 疑義中⁸³⁾鄭仲禮言也．

〔改名曲折〕 厄於衆口，改名，故云．

〔浮湘之便〕 朱先生嘗⁸⁴⁾知靖江府，若往靖江，則過湘，故云“浮湘之便”．

〔無復十年前意象⁸⁵⁾〕 不如前時也．⁸⁶⁾

〔切磨〕 “無由”之意，止此．

〔彼中〕 指長沙，南軒講學處．

〔不涉思慮言語之意〕 言禪學也．

〔○未必能通而未⁸⁷⁾誤〕 能히 通 ㄹ 古 誤티 아니

83) 中：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1의 [추가 ‘疑義’下, 有‘中’字.]와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84) 嘗：기준본에는 ‘賞’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85) 意象：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氣象]이 있다.

86) 不如前時也：기준본에는 ‘如前時也’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과 國中本1·國中本2의 [추가 ‘如’上, 有‘不’字.]에 의해 고쳤다.

87) 未：國中本2 ‘不’

호 88)를 必티 묻호 89)미 쓰너.

記疑0912 (節要1213 : 知舊門人問答61) (晦庵集 卷50)

答余占之

〔○答余占之 已歸在此〕⁹⁰⁾ 已歸而在此也.

記疑0913 (節要1214 : 知舊門人問答62) (晦庵集 卷50)

答程正思

〔○答程正思〕

〔注潘陽〕‘潘’, 音파.

〔讀禮之暇〕 端蒙在喪, 故云“讀《禮》”. 《禮》, 喪禮也.

88) 호 : 高大本 ‘흠’

89) 호 : 高大本 ‘흠’

90) 已歸在此 : 國中本2에는 [추가 胡季隨, 名大時, 五峯之子.]가 있다.

〔諸說〕 乃注也.

〔○靜敬二字該之〕 以“靜敬”二字，該之於致知力行也.

〔○昨告擇之〕 以力行爲重，告之也.

〔○清卿省處〕 正思之書，有“清卿有省處”之言，故云云.

〔不得〕 “恐”字之意，止此.

〔鈍滯了人〕 指言清卿.

〔○⁹¹⁾無益於事〕 “切不可”之意，止此.

〔○侍旁〕 謂正思.

〔無疑〕 正思之言.

〔致疑耳〕⁹²⁾ “覺”字之意，止此.

〔眞假〕 眞，謂吾學；假，謂異學.

〔○省試〕 會試.⁹³⁾

〔祝汀洲見責〕 疑是祝以不排異端責先生，故下文云云.

〔曾學禪宗〕 朱先生自謂.

9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1·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92) 致疑耳 : 國中本2에는 [추가 ‘致疑’註恐誤.]가 있다.

93) 會試 : 高大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渠〕 禪也.

〔其徒〕 包顯道輩, 陸氏門人.

〔唯阿⁹⁴⁾〕 猶⁹⁵⁾言 오냐오냐.

〔浙⁹⁶⁾學〕 東萊之學.

〔辦此〕 疑元善能辦排異端, 故⁹⁷⁾云云.

〔放過此著〕 이리 하느 이⁹⁸⁾를 放過 〃 也.

〔見功寡也〕 “深慚”之意, 止此.

〔○或告〕 告張天覺也.

〔相公〕 張天覺也.

〔機數〕 機, 機變; 數, 數術.

〔漢〕 놔미⁹⁹⁾라.

〔一般也〕 果老之言, 止此.

〔待他〕 他, 陳正己也. 待, 관계¹⁰⁰⁾타. “待”字之意, 止於“不周”之下. 正己嘗謂“伊川用處不周”, 正思引而論之, 故云云.

94) 阿: 高大本 ‘何’

95) 猶: 高大本 ‘唯’

96) 浙: 高大本 ‘浙’

97) 端故: 國中本1 ‘故端’

98) 논이: 國中本2 ‘느니’

99) 미: 國中本2 ‘이’

100) 계: 國中本2 ‘거’

〔伊川與爾〕 爾，陳正己也。

記疑0914 (節要1215：知舊門人問答63) (晦庵集 卷50)

答汪子文

〔○答汪子文 進取〕 進取於仕路也。急於¹⁰¹⁾進取，而禱於神怪，而¹⁰²⁾爲神怪所感，故云云。

記疑0915 (節要1217：知舊門人問答65) (晦庵集 卷50)

答周舜弼【謨】

〔○答周舜弼〕

〔臨行所說〕 舜弼臨行，先生所說也。

〔務實一事〕 舜弼自錄語云：“寒泉之別，請教，曰：‘務實云云。’”

101) 急於：國中本1 ‘於急’

102) 而：國中本2에는 없다.

- 〔○彼中朋友〕 彼，南康也。
- 〔向時〕 先生在南康時也。
- 〔○思學〕 疑指《論語》“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
- 〔曾子一段文意〕 論曾子一段文意。
- 〔說得行〕 說得、行、尹、行，猶줄너다。
- 〔同與不同〕 “却看”之意，止此。
- 〔○所謂〕 謂，朱先生自謂也。下“所謂”¹⁰³⁾同。
- 〔穀種〕 程子云“心如穀種”，愛者，其生之¹⁰⁴⁾理也。
- 〔正所謂〕 程子所謂。
- 〔分曉處〕 “不須”之意，止此。
- 〔兩事〕 ¹⁰⁵⁾ 舜弼以‘仁·義·禮·智’爲兩事，故云。
- 〔○更宜相與〕 ¹⁰⁶⁾ 舜弼相與也。
- 〔爲高也〕 “不知”之意，止此。敬子·長孺等不知也。
- 〔親養未便〕 疑舜弼曾謂“不仕，則親養未便；出仕，則難於應世云云”，故云。

103) 謂：國中本1에는 없다.

104) 之：高大本에는 없다.

105) 兩事：高大本에는 [추기 舜弼以‘性’與‘仁義’爲兩事. 註說恐非.]，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기 舜弼以‘性’與‘仁義禮智’爲兩事. 註說恐未然.]이 있다.

106) 更宜相與：기준본에는 ‘更相宜與’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節要》 본문에 의해 고쳤다.

- 〔○不輕自恕〕 不輕自恕於我也。
〔孤高〕 舜弼患其孤高，故云。
〔○當此歲寒〕 僞學黨起，故云“歲寒”。

記疑0916（節要1218：知舊門人問答66）（晦庵集 卷51）

答董叔重【銖】

- 〔○答董叔重〕
〔却究諸說〕 諸說，乃註¹⁰⁷⁾也。
〔體當〕 猶言體驗也。
〔○涵養之〕 ㄸ ㅍ。叔重之言。
〔拈出此字〕 此字，‘敬’字。
〔○搜尋〕 搜尋其心也。
〔發見〕 心之發見也。¹⁰⁸⁾
〔○詳先生〕 先生，朱先生也。
〔實體〕 道之實體。
〔不爲所累〕 爲所累，則乃正心也。

107) 註：高大本‘注’

108) 也：國中本2에는 없다.

〔下句〕¹⁰⁹⁾ “活潑潑地”一句也.

〔精彩〕 猶¹¹⁰⁾精神也.

〔小註 未嘗有所爲¹¹¹⁾〕 有所爲, 則是助長也.

記疑0917 (節要1219 : 知舊門人問答67) (晦庵集 卷51)

答黃子耕

〔○答黃子耕〕

〔時事〕 時政也.

〔大段〕

〔作無益語〕 無益語 乙 作 ㅎ 요 몬.¹¹²⁾

〔○說盡曲折〕 “欲爲”之意, 止此.

〔重重障礙〕 重重 ㅅ ㅍ 障礙¹¹³⁾ 乙 生出 ㅅ 也.

〔脫離〕 脫離障礙枝葉也.

109) 下句 : 기준본에는 이 표제가 없고 ‘○’으로 앞의 주석에 이어져 편집되어 있으나, 國中本2의 追記에 의해 보충하였다.

110) 猶 : 高大本에는 뒤에 ‘言’이 있다.

111) 未嘗有所爲 : 기준본에는 未嘗有爲‘로 되어 있으나, 《節要》 본문에 의해 고쳤다.

112) 요몬 : 高大本 ‘음은’

113) 障礙 : 國中本2에는 없다.

- 〔○亦得一二〕 謂北溪 陳淳也.
- 〔爲此行〕 朱子知漳州，故云云.
- 〔○憂悴無慄〕 ‘慄’與‘聊’，音義同.
- 〔治葬〕 乃朱塾之喪.
- 〔結廬〕 結廬于考亭¹¹⁴⁾也.
- 〔造小書院〕 造小書院于考亭.
- 〔○湘中之行〕 朱子除湖南運副，而竟不行.
- 〔投劾〕 投自劾之章，乃經界不行事.
- 〔○病中〕¹¹⁵⁾ 子耕病中.
- 〔○初意到此〕 到南康也.
- 〔議此〕 議招之事.
- 〔○所聞〕¹¹⁶⁾ 子耕之書，有所問之事，故云.
- 〔○爲尋的便〕 的便乙 尋ッ也.
- 〔改秩〕 子耕改秩也.
- 〔○既無冒進之嫌〕 從詮部調邑，乃參部也，非宰相薦舉之類，故云“既無冒進之嫌”.
- 〔○打成一片〕 表裏精粗，通貫浹洽，乃所以打成一

114) 亭：國中本2 ‘淳’[추가 ‘亭’]

115) 病中：高大本에는 [추가 ‘病中’上，一本有‘〔以此〕亦謂經界不行之事。’]가 있다.

116) 所聞：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所問’. 國中本2에는 [추가 ‘所問’之‘問’，本文作‘聞’.]이 있다.

片也.

記疑0918 (節要1220 : 知舊門人問答68) (晦庵集 卷51)

答曹立之

【○答曹立之 錄示陸兄書意】 錄示ッ P 陸兄書意.

【言彼】 彼, 謂象山.

【不得不然】 象山, 向以讀書講議爲虛事, 而今雖回頭, 但謂‘隨世¹¹⁷⁾立教, 乃不得不然’. 不得不然者, 強許之謂.

【其惑也】 “不若”之意, 止此.

【○錄示二書】 象山二書.

【一說片言立定門戶】 如上文標準之類.

【箴藥】 ‘箴’, 與‘鍼’通用, 音침.¹¹⁸⁾

【理會不得也】 “無所”之意, 止此.

【亦不可云云不遠者】 亦不可謂以‘隨己分修¹¹⁹⁾習, 隨¹²⁰⁾己見觀書’爲雖不中不遠者, 而. ○“亦不可謂”之

117) 世 : 國中本2 ‘時’

118) 침 : 國中本2 ‘針’

119) 修 : 國中本1 ‘終’

意，止於“奇特工夫也”之下。

《見識無以異也》 無以異於我也。

《渠輩》¹²¹⁾ 立之·趙子直也。

120) 隨：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高大本에는 옆에 작은 글씨로 ‘隨’가 있다.

121) 渠輩：國中本1·國中本2에는 이 조목이 ‘見識無以異也’ 조목의 앞에 있다.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

記疑1001 (節要1221 : 知舊門人問答69) (晦庵集 卷51)

答萬正淳

〔答萬正淳〕

〔櫛柄〕 ‘櫛’, 音뎨. 櫛柄즈르.

〔撈〕¹⁾ 音노, 거²⁾리다.

〔摸〕 音莫, 又音模, 手捉也.

〔○義而可舍〕 義乙 可히 舍爲乙.

〔○嫡婦祔於妾祖姑〕³⁾ 嫡婦, 乃妾祖姑之孫之妻也. 中原則嫡妾之子, 皆通仕路. 故妾祖姑之子, 雖曰妾子, 其孫則娶妻於士族之家, 其孫妻則乃士族之女也. 故曰‘嫡婦’. 以士族之女, 雖曰孫之妻, 祔於妾祖姑, 則嫡妾不明, 故云誠似未安.

1) 撈 : 國中本2에는 ‘撈’ 옆에 [소주 〈答李仲久〉曰: ‘撈’, 手取水中物也. ‘摸’, 以手索取也. 恐無撈摸, 猶言無可探索取得也.]가 있다. 해당 내용은 《定本 退溪全書》5, 〈答李仲久問目【《朱子大全》疑義】〉(KNL0095)에 수록되어 있다.

2) 거 : 國中本2 ‘건’

3) 嫡婦祔於妾祖姑 : 諸 異本에는 [추가 註說拘於我國之俗釋之, 殊失禮之本意. 妾子娶妻, 士族與否, 非所論也. 雖庶人之女爲妻, 亦當入祖廟, 無疑矣.]가 있다.

【 祔於親者之文 】 〈檀弓〉曰：“婦祔於祖姑，祖姑三人，則祔於親者。” ○今雖嫡婦，祔於其妾祖姑，則乃是⁴⁾祔於其親之意.

【 ○正義 】 〈喪小記〉註也.

【 於孫否 】 否，乃不祭也.

【 考仲子之宮 】 考，成也. 仲子，惠公妾也.

【 孟子 】 惠公之妻.

【 無祭享之所 】 不爲也.

【 諸侯不再娶云云 】 禮，禮⁵⁾文也. 諸侯之妾子，亦可以即位，故言不再娶. “諸侯不再娶云云”，乃諸侯之文，故⁶⁾可通於天子.

【 ○疏義之說 】 乃上文《正義》‘妾母不世祭於孫否’之說.

【 ○父子異宮 】 宮，家也.

【 ○所居之左右前後⁷⁾ 】 父子⁸⁾所居之左右前後也.

【 ○楊氏 】 龜山.

4) 乃是：高大本 ‘是乃’

5) 禮禮：高大本·國中本1 ‘禮禮記’，國中本2 ‘禮記’

6) 故：高大本에는 없고, 옆에 작은 글씨로 ‘故云’이 있다.

7) 左右前後：《記疑》의 諸 板本에는 ‘前後左右’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8) 子：기존본에는 ‘母’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仁義不足以盡道〕 《易》，“立人之道，曰仁與義。”
今龜山云：“仁義不足以盡道，是乃少仁義也。”故萬正
淳云：“恐未安。”

〔○稱停〕 저울⁹⁾림을 ¹⁰⁾맞거든 멋¹¹⁾초니 之意.

〔陽離陰合〕 陽雖離乎老莊，而陰實合也。

〔急袞處〕 急히 범더미릴디.

〔以此〕 此，乃老莊也。

〔論此〕 此，乃仁義不足以盡道之言。

記疑1002 (節要1301：知舊門人問答70) (晦庵集 卷52)

答吳伯豐【必大】

〔○答吳伯豐 其曰云云止所以然〕 程子之言.¹⁾

〔來信〕 來爲乙 信ㄴ.

〔亦可反覆〕 亦可反覆而觀也。

9) ㄷ：高大本‘들’，國中本1・國中本2‘들’

10) 을：高大本・國中本1・國中本2‘을’

11) 멋：高大本・國中本1・國中本2‘멋’

1) 言：國中本2‘意’

〔云亦嘗得從游也〕 萬人傑云：“嘗與伯豐得從遊也。”

〔○徧數〕 一番下讀，謂之徧。

〔顛倒〕 猶俗云‘倒誦’也。

〔無可得看〕 通貫浹洽，盡得其旨，則無可看之事。

〔況所比校〕 以《庸》·《學》比校也。

〔番得〕 ‘番’與‘翻’同。

〔因其本明〕 《大學》“本體之明，有未嘗息者云云，因其所發而遂明之。”語，伯豐問之，故答之。

〔察識端倪〕 端倪，心之端倪也。

〔湖南說不同〕 湖南，南軒也。南軒云“察識端倪”，故云不同。

〔奔程趁²⁾限〕 程_厓 奔爲_亦，限_厓 趁³⁾爲也。

〔○趙守〕 趙守，伯豐之長官。伯豐以除禮長官事，請簡于朱先生，故先生言之。

〔政不必如此〕 政不必如此簡通⁴⁾也。

〔立異〕 廢其常禮，則異於常，故云“立異”。

〔沙隨〕 程迥。

〔相知云〕 與伯豐相知也。

2) 趁：기준본에는 ‘趨’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3) 趁：기준본에는 ‘趨’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4) 簡通：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通簡’

〔赴省〕 赴省試也.

〔○遭此禍故〕 塾之喪.

〔撫孤〕 孤, 塾之子.

〔宦學〕 猶仕與學也.

〔此間寓居〕 乃同由橋.

〔五夫〕 五夫里也.

〔見就此〕 見⁵⁾, 猶見今也.

〔架一小書樓〕 架一小書樓于考亭也.

〔殿院〕 職名.

〔薦目中〕 《一統志》云⁶⁾: “陳襄, 福州 侯管人. 講明知天盡性之說. 舉進士, 累官⁷⁾知通進銀臺司兼侍讀判尚書. 襄莅官所至, 務與學校, 講求民間利病. 在經筵, 神宗待之甚厚. 嘗薦司馬光等三十三人, 時號古靈先生.” 吳賁亦參於薦目中也.

〔粗了〕 考亭營室粗成也.

〔元料〕 猶本計也.

〔○歸來〕 自漳州歸來也.

〔相信〕 不相信⁸⁾於我也.

5) 見: 기준본에는 ‘今’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1·國中本2에 의해서 고쳤다.

6) 云: 國中本2에는 없다.

7) 官: 國中本2 ‘宦’

〔相彊〕 彊, 구퇴여. 言難以強使我出仕也.

〔早晚〕 猶早暮也.

〔徑⁹⁾趨簡約〕 禪學.

〔專務外馳〕 史學.

〔略注其間〕 朱先生註於疑義之間也.

〔○所疑〕 伯豐所疑.

〔○秀才學究〕¹⁰⁾ 秀才及學究·天人, 皆科名. 若不爲舉子業, 則可以濟事. 此則乃科舉之故云: “變秀才爲學究, 又不濟事耳.”

〔南康諸書〕 朱子在南康時所著諸書也. 乃經書註也.

〔端的〕 猶言定寄.

〔罵邪氣者不足恤矣〕 當時僞學黨謂之邪氣. 伯豐論罵邪氣者, 而語侵黃文叔.¹¹⁾ 故云: “罵邪氣者, 不足恤矣.”

〔○此來〕 知潭州也.

〔交事〕 交, 代也.

8) 相信: 기준본에는 ‘自信’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1·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9) 徑: 기준본에는 ‘經’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1·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10) 秀才學究: 高大本에는 [추가 秀才學究, 注說未詳.]이 있고,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秀才學究下註未詳. 恐未然. 以註說參看, 此註非是.]가 있다.

11) 黃文叔: 기준본에는 ‘黃大叔’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1·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奉諱〕 孝宗升遐.¹²⁾

〔宣布霽恩〕 寧宗即位.

〔收召魂魄〕 自收召其魂魄也.¹³⁾

〔須出〕 須, 猶必也.

〔○迎侍之官〕 迎親去¹⁴⁾官也.

〔糾掾〕 如尉之屬.

〔目苦內障〕 內障乙 苦爲也.

〔殯陵〕 草葬謂之殯. 朱子嘗以孝宗之葬改陵事上疏云. 故云: “嘗議殯陵.”

〔議相先后者〕 議、 서르 先後호던 者、.

〔論事之傳〕 傳, 猶傳聞也. 朱子作論事上疏之傳聞也.

〔不明・無勇〕 未敢發, 故云“不明”・“無勇”.

〔近報復爾〕 報, 邸報也. 復爾, 言行遣之事如前也.

〔隨衆〕 隨衆, 行遣也.

〔○入城〕 乃伯豐赴任之城.

〔○不知渠〕 渠, 正淳.

〔他虞〕 如僞學之禁.

12) 升遐: 諸 異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13) 自收召其魂魄也: 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朱先生自收召其魂魄也.’

14) 去: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去官’之‘去’, 當作‘之’字.]가 있다.

〔○攝事都幕〕¹⁵⁾ 都幕，猶都監之幕也。攝事于都幕也。

〔及人〕 其恩及人。

〔不幸至此〕 疑都監之長官非賢者，故¹⁶⁾不幸至此。

〔往還書〕 子約之書¹⁷⁾。

〔不虛〕 不聽人言，故云云。

〔見前〕 ‘見’，音顯。¹⁸⁾

〔寶花亂墜〕 佛家說法。꽃잘흐면 天雨曼陀羅花。○寶花，乃蔓¹⁹⁾陀羅花。

〔○編禮〕 《儀禮經傳》，朱先生分授諸門人編次，故云云。

記疑1003 (節要1302 : 知舊門人問答71) (晦庵集 卷52)

答姜叔權【大中】

15) 攝事都幕：高大本 [추가 一本, ‘攝事’上, 有‘《自致人言》如僞學幕’.]이 있다.

16) 故：高大本은 뒤에 ‘云’이 있다.

17) 書：高大本 ‘言’

18) 顯：國中本1 ‘현’

19) 蔓：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蔓’

【○答姜叔權 知仁爲愛之理則】 仁、愛爲理
주를 안則.

【○江西】 陸門.

【自說見處】 스스로 見處을 說乎戈.20)

記疑1004 (節要1303：知舊門人問答72) (晦庵集 卷52)

答汪長孺【德輔】

【○答汪長孺】

【性有神靈】 神靈，乃魂魄也。故下文云不然。

【正墮於此】 此，謂性有神靈也。

【性立天下之有】 五峯《知言》之言。下卷：〈答方賓王〉，朱子曰：“但謂之道，則散在萬殊，而無緒之可尋。若求之於心，則其理之在是者，皆有定體，而不可易耳。理之在心，即所謂性。” ○胡氏“性立天下之有”，與朱子此言同意。

【方君之言】 方君釋“性立天下之有”之言也。

20) 戈：高大本·國中本1‘代’

〔邵子之言〕 “心者，性之郛郭；身者，心之郛郭。”
邵子之言也。

〔○此兩事〕 自分功夫長進與點檢他人也。

〔遏捺〕 ‘捺’，音²¹⁾列遏。捺，그치누르다。

〔不是故意〕 이짐즉흔 빠디 아니니. “見得”之意，至此。

〔○即曉此〕 ㄸ為ヒ. 程子之言.²²⁾

〔○可以來格〕 ㄸ為ヒ. 乃上蔡之言。

〔○色斯之舉〕 長孺，有以色斯舉之事，問于朱先生也。

〔無絲毫之隔〕 自“識得八病”止此，亦長孺言。

〔全不相應〕 自“便有氣盈”至此，長孺之言。

〔胡亥語〕 胡亥“今日即位，明日射人”之言。

〔戲之〕 朱子說也.²³⁾

記疑1005 (節要1304：知舊門人問答73) (晦庵集 卷52)

21) 捺音：國中本2에는 옆에 [소주 《韻會》，“乃曷切. 날. 手按也.”]가 있다.

22) 程子之言：諸 異本에는 [추가 此ヒ, 合內外之道也ㄸ히. 程子之言, 止此. 此註不是.]가 있다.

23) 朱子說也：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朱子舉胡亥，語戲江西之徒.’

答李叔文

【○答李叔文²⁴⁾ 不須註解】 반드시 註解 할 거시 아니라.

【添着一求仁字】 叔文以求仁字，着於求放心，故云云.

記疑1006 (節要1305 : 知舊門人問答74) (晦庵集 卷52)

答都昌縣學諸生

【○答都昌縣學諸生】 都昌縣，南康屬縣.

【不在於大】 不爲也. 此范氏之言.

記疑1007 (節要1306 : 知舊門人問答75) (晦庵集 卷52)

答白鹿長貳

24) 答李叔文 : 諸 異本에는 뒤에 ‘【竊食】 嘗爲祠祿故云. 【○所說性善】 朱子說也.’가 있다.

〔○答白鹿長貳〕

〔長貳〕 長果貳人. 貳, 猶副也. 皆學職也.

〔建昌〕 南康屬縣.

〔領袖諸賢〕 領袖, 猶長貳也.

記疑1008 (節要1307 : 知舊門人問答76) (晦庵集 卷53)

答劉公度【孟容】

〔○答劉公度〕

〔已見〕 ‘見’, 音현.

〔令叔〕²⁵⁾ 令, 猶善也. 疑季章於公度乃叔也, 故云云.

〔未穩〕 持守處, 未穩之事.

〔其言之發〕 其言, 許與之言.

〔新學〕 禪學.

〔孔子家法〕 人爲此. 伯恭之言, 止此. 公度有輕人

25) 令叔 : 高大本에는 [추가 ‘令叔’, 印冊指子澄, 與此注不同. 未詳孰是.], 國中本1에는 [추가 ‘令叔’, 印冊指子澄, 與此不同.]이 있다. 今按: 高大本과 國中本1의 추가에서 ‘印冊’이라 한 것은 간행된 《節要》를 가리킨다.

之病，故云。

〔○所益多矣〕 公爲ヒ，以上公度之言也。朱子與林侍郎論²⁶⁾《易》·〈西銘〉，未免失笑，竟致劾罷。故公度以此言，糾責朱先生。先生以下文所言，答之。

〔今者紛紛〕 乃林栗劾罷朱子事。

〔臨川〕 公度所居之地。

〔荊舒祠記〕 王荊公祠記。王安石亦臨川人。

〔此等事〕 臨川近說及〈荊舒詞²⁷⁾記〉之言。

〔都無人管〕 猶言無人關之也。

〔衡州之去〕 衡州，劉子澄。去，去國也。

〔邂逅〕 猶言不意也。

〔不說話也〕 說話何ヒ ㅎ기를 相學할 거시 아니
라。“不須”之意，止此。

〔○奮發猛舍〕 公度之自言。

〔一時意氣〕 即奮發猛舍也。

〔○見成說底〕 乃聖賢遺言。

〔不容離叛〕 不容離叛於‘見成說底’也。

〔○家計〕 自“舊見”至此，乃公度之言也。

26) 論：高大本‘語’

27) 詞：高大本·國中本1‘祠’

〔自有合不得處也〕 스스로 합디 못 흘고디 인논.

記疑1009 (節要1308 : 知舊門人問答77) (晦庵集 卷53)

答劉仲升²⁸⁾

〔○答劉仲升 第二書說時〕 說 ㄹ²⁹⁾ 時 ㄴ.

〔自然快活〕 顏子之樂.

〔克伐怨欲〕 原憲之間.

記疑1010 (節要1309 : 知舊門人問答78) (晦庵集 卷53)

答劉季章

〔○答劉季章〕

〔無所得也〕 “覺得”之意, 止此.

〔○渠〕 葉尉也.

28) 答劉仲升 : 國中本2에는 해당 편지에 대한 이하 주석 내용이 없다.

29) ㄹ : 高大本·國中本1 ‘爲’

〔○私下創立條貫太多〕 아릅 데로 創立헌 條貫、
太多爲古.

〔今又相合〕 與子約相合處也.

〔○外事〕³⁰⁾ 時事也.

〔○靠裏〕 裏厓 靠爲也.

〔趨向者〕³¹⁾ 直卿·敬子說, 誘得後生也.

〔近上〕 近來也.

〔○求其尊人〕 尊人, 晋輔父也.

〔渠〕 王晋輔.

〔仁里諸賢〕 仁里, 指季章所居之里. 諸賢, 子約輩
也.

〔彼或〕 彼, ‘仁里諸賢’也.

〔杜元凱〕 預也.

〔○省闈〕 省, 試也.

〔不肯求去〕 去, 去國也.

〔如此〕 疑有見罷之事.

〔出氣〕³²⁾ 심심탄 말³³⁾리라.

30) 事 : 기준본 등에는 ‘處’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추가 《朱書》, ‘處’作‘事’, 是也.]가 있다. 이 추가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31) 趨向者 : 《節要》에는 ‘趣鄉者’로 되어 있다.

32) 出氣 : 高大本에는 [추가 ‘出氣’, 猶言出氣力. 註說恐非.],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出氣’, 註不是. ‘出氣’, 猶言出氣力也.]가 있다.

〔○攢³⁴⁾掇³⁵⁾結褵〕‘攢掇’，音獵脫³⁶⁾，理持也，又持也。獵脫³⁷⁾，猶거도잡다。結褵，못다。劉五十哥³⁸⁾，疑劉子羽從兄弟之子。五十哥放浪縱侈，幾至敗家，今則收放浪之心，不如舊時縱侈，故云“攢掇結褵”。

〔靜作〕猶動靜也。

〔子壽〕彭龜年也。朱先生曾與子壽，其³⁹⁾議劾韓侂冑，作章將上之時，子壽見逐也。“子壽事後”，子壽見逐之後也。

〔其黨〕侂冑黨也。

〔國是〕舉國皆曰是，故曰‘國是’。

〔○背却經文〕‘背’，音佩。

〔必有兩途〕是非也。

〔○烹不免〕不免見罷也。

〔後段〕如竄逐事也。

〔○所說曾無疑事〕季章方論董子功利之說，而下句

33) 말：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마’

34)攢：國中本2에는 옆에 ‘넙’이 있다.

35)掇：高大本 ‘脫’

36)攢掇音獵脫：國中本1 ‘獵脫，音獵掇’，國中本2 ‘攢掇，音獵掇’

37)脫：國中本2 ‘掇’

38)劉五十哥：高大本에는 [추가 ‘五十哥’，疑劉坪.].，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劉五十哥’，疑劉坪也.]가 있다.

39)其：國中本1·國中本2 ‘共’

引說曾無疑事。

《如此所論》論，謂季章之論⁴⁰⁾。

《○去彼而取此》⁴¹⁾彼，謂仁義；此，謂利也。

《剖判》剖判義利也。

《以利隨義而言》此利字，‘仁義未嘗不利’之利也。

《偏僻》以利隨義而言，故云“偏僻”。

《○文集之議》當時有刊行朱子文集之議，故云。

《廣南》竄逐之地。○刊行文集，則疑有竄逐之事，故云云。

《止之》止文集之義⁴²⁾。

《書能益人與否》書，謂古書也。若着實讀書，則有益；若不着實⁴³⁾讀書，則無益也。其益與否，在心，故云云。

《只在此心等說》“此心”以上，季章之言。

《不須如此》無吐，連下文讀之。

《立說取勝》“不須”之意，止此。‘書能益人與否，只此此文’⁴⁴⁾之說，乃季章與人爭辯之說，故云云。

40) 論：高大本‘語’

41) 去彼而取此：國中本2에는 [추가 ‘去彼而取此’註大誤. 彼, 謂利, 此, 謂仁義.]가 있다.

42) 義：高大本‘儀’

43) 實：國中本1·國中本2 ‘實’

- 〔走作閒說〕 謂季章‘書能益人與否，只在此心’之說。
- 〔江西〕 陸門。
- 〔自由自在〕 제 마음대로 하는 데라.
- 〔一抹橫說〕 한번 쓰어밋기 說 為ヒ. 謂倒讀也。
- 〔臨川前後一二公〕 臨川，季章所居之地。一二公，并指安石。
- 〔因見無疑〕 季章因見無疑。
- 〔此紙〕 謂簡書也。
- 〔路脈底心力〕 “換了”之意，至此。
- 〔○自住不得〕 言所學漸進也。
- 〔此外無難除之病〕 季章言，懶惰之外，無難除之病。
- 〔自以爲無則〕 無，謂‘無難除之病’之無。
- 〔所存無幾〕 善類所存者。
- 〔此等人〕 ‘纔見消磨得去’之人。
- 〔得之〕 得其畢也。
- 〔勸他〕 他，謂王晉輔也。
- 〔閒管〕 管，即上文‘莫管’之管字。
- 〔無頓自己身心處〕 自己身心 乙 頓 할 處을 업는디라.

44) 只此此文：高大本‘只在此心’；國中本2에는 앞의 此와 文에 삭제 표시가 있다.
今按：‘只在此心’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今始能究其說】 謂上卷〈與周益公〉書也.

【軒輊】 詩云：“如軒如輊.” 猶言輕重也.

【疾少間⁴⁵⁾】 季章疾少間⁴⁶⁾也.

【○禮書】 《儀禮》書也.

【與陳伯堅 彼之妄言⁴⁷⁾】 異端之妄言.

記疑1011 (節要1311 : 知舊門人問答80) (晦庵集 卷53)

答胡季履【大壯】

【○答胡季履 必有非苟然者】 樂取諸人以爲善，非苟然者.

記疑1012 (節要1312 : 知舊門人問答81) (晦庵集 卷53)

45) 間 : 기준본에는 ‘閒’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1·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46) 間 : 기준본에는 ‘閒’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1·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47) 妄言 : 國中本1 ‘忘言’

答胡季隨【大時】

〔○答胡季隨 見得是非〕 道理是非.

〔就此〕 此, 謂‘理會極’也.

〔徹尾〕 “不曾見”之意, 止此.

〔綽得幾句〕 幾句 쓰리더 得 爲 亦.

〔所喻文定〕 疑季隨, 文定之孫, 故言文定事.

〔少日〕 猶少年也.

〔泛讀耶〕 “又安知”之意, 止此.

〔差錯之效〕 “却是”之意, 止此.

〔隨手〕 手, 謂修削之手也.

〔○先生〕 程先生也.

〔將作易看〕 《易》, 乃占書也. 程子以謂理釋之, 故云“將作占書看面”.⁴⁸⁾

〔○第四書 與獨字〕 謂謹獨之獨.

〔全體工夫〕 謂“無時無處不下工夫”, 故云“全體工夫”.

〔前段〕 謂‘道不可離’也.

48) 看面 : 高大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諸 異本에는 [추가 ‘看面也’, 未詳. 程子以理看, 朱子以占看. 註說未穩.]이 있다.

〔後段〕“莫見乎隱云云.”

〔純熟未易言也〕 純熟乙 쉬이 나르디 못⁴⁹⁾을 거시
라 하니.

〔○戒懼〕 ‘戒愼乎其所不睹，恐懼乎其所不聞’之戒
懼.

〔○恐不可分〕 涵養·省察，恐不可分.

〔○作兩事〕 以戒懼·愼獨，作兩事.

〔兩節〕 戒懼·愼獨兩節.

〔○省察他〕 “不是”之意，止此.

〔開眼〕⁵⁰⁾ 謂‘欲發’也.

〔○涵養工夫〕 “只是道”之意，止此.

〔獨云者〕 “愼獨”之‘獨’.

〔○兵家攻守〕 攻，比‘遏人欲’；守，比‘存天理’.

〔○於是二者〕 涵養與省察也.

〔○所示問答〕 季隨與諸友問答，即上文所問于朱先
生者也.

〔夫謂〕 謂，季隨謂也. 下三‘謂’⁵¹⁾皆同.

49) 못 : 高大本 ‘못’

50) 開眼 : 高大本 [추가] 開眼, 다시 눈뜨 보단 말이라. 乃開眼加察, 非致之謂也. 註說
恐不然.], 國中本1·國中本2 [추가] 開眼者, 다시 눈떠 보단 마리라. 乃開眼加察, 非
致敬之謂也. 退溪註說恐不然.]이 있다.

51) 謂 : 國中本1 ‘問’

- 〔彼中〕 謂上文問答者⁵²⁾.
- 〔元是說甚底〕 元是說 흔는 거시 므서 신고하야 記得디 아니하니.
- 〔○其說〕 子靜之說.
- 〔所講〕 朱先生自謂先生.⁵³⁾
- 〔此處〕 敬也.
- 〔究竟地位〕 究竟地位 厓 到乎 매 ㄴ.⁵⁴⁾
- 〔妄意云云懸絕處〕 頓悟・懸絕處 乙 妄意思想 為 也.
- 〔所安〕⁵⁵⁾ “不須”之意，止此.
- 〔○悵悵〕 見本註.
- 〔學有家傳〕 季隨乃五峯之孫，故云.
- 〔無入頭處〕 오래도록 入頭處 乙 업는디라.
- 〔浮說所動〕 “常疑”之意，止此.
- 〔艮復〕 艮卦・復卦.
- 〔徇彼自欺〕 彼，謂禪學也. 禪學不思不惟，故云.
- 〔不見其睫〕 唐人詩“睫在眼前長不見，道非身外更何求.”

52) 者：高大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53) 先生：國中本1・國中本2 ‘所講’

54) 매 ㄴ：國中本1 ‘厓 到乎 매 ㄴ’

55) 所安：國中本1・國中本2 ‘所安也’

〔爲人所誑〕 猶‘徇彼自欺’也。

〔○縱有力持守〕 若無洒然云云凍解處，則縱有力持守。

〔○此一條〕 謂上文‘學者問’一條也。

〔遏棕〕 그치 누르다. ‘棕’，音날.

〔本意〕 輔漢卿之言，止此。

〔此個地位〕 洒然冰釋凍解處也。

〔湖南學者〕 南軒門徒。

〔令之之心○原其所因〕 原其大時之言所因也。

〔○意思不同〕 敬·誠，意思不同。

〔○將來〕 가져와.

〔主人公〕 謂心也。

〔常在常覺〕 常在爲亦 常覺게 홀디니라.

〔○纔有此意〕 此意，謂‘令之之心’也。

〔疏略放肆之異名〕 猶言疏略放肆호며셔 名、 다를 만 홀디니⁵⁶⁾라.

〔古語〕 《參同契》言，引古語。言此者，猶言工夫極處則可變氣質云云也。蓋積累工夫，則可知洒落處之意。

56) 니：諸 異本에는 없다.

〔判著〕“不要”之意，止此。

〔黃太史〕山谷也。山谷〈濂溪詩序〉有“胸次洒落，如光風霽月”之言。

〔自得底⁵⁷⁾氣象〕濂溪深造自得底⁵⁸⁾氣象也。

〔似已無可得說〕이딴 가⁵⁹⁾히 시리곰 說호암즉 흠이⁶⁰⁾ 업거니와。

〔更說甚講學〕또 르슴 講學乙 說爲乙古.⁶¹⁾

〔省事也〕省，減也。

〔○先訓之嚴〕謂五峯也。

〔日月易得〕已去之日月，皆身所經歷，故云“得”。

〔益光前烈〕季隨，五峯之孫，故云。

記疑1013 (節要1313：知舊門人問答82) (晦庵集 卷53)

答高應朝

57) 底：高大本‘這’

58) 底：高大本‘這’

59) 가：國中本1‘可’

60) 흠이：國中本1·國中本2‘호미’

61) 爲乙古：國中本1‘호고’，國中本2‘호乙古’

〔○62〕答高應朝〕

〔○63〕所示講義〕 疑高應朝爲其地教官也.

〔三段所學諸書〕 所示講義, 三段所學諸書.

〔捺生做熟〕 生乙 捺爲也 熟乙 做호는 디라.

記疑1014 (節要1314 : 知舊門人問答83) (晦庵集 卷53)

答石天民

〔○答石天民 平生爲學〕 朱先生所自言.

〔浙中〕 宋朝也.

〔丹丘〕 台州也. 台州有天台山, 故謂台州爲丹丘.

〔殊未相領〕 誠之殊未相領.

記疑1015 (節要1315 : 知舊門人問答84) (晦庵集 卷53)

答沈叔晦

62)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63)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答沈叔晦〕

〔帥幕〕 叔晦爲帥幕下官，故云．

〔務爲學而不觀書〕 陸學也．

〔廢經而治史〕 東萊史學．

〔不察此心存亡之端〕 史學治⁶⁴⁾爲管·商功利之學，故云．

〔○兩塗之疑〕 省身·求善⁶⁵⁾之事．

〔門庭〕 呂氏門庭也．

〔小有變異〕 史學流爲管·商功利之學，故云．

〔不得不苦口耳〕 朱子自不得不苦口言之耳．

〔一派〕 史學一派．

〔輓〕 與‘混’通用．⁶⁶⁾

〔周旋人情〕 “尊畏前輩，不敢違異”，乃周旋人情也．

〔當否矣〕 “更不”之意，止此．

〔亦未見外面尋義理之意〕 叔晦以“非義襲而取之”之句，爲外面尋義理，故云“亦未見外面尋義理之意”也．

64) 治：高大本에는 [추가 ‘治’一本作‘流’.]가 있다.

65) 善：高大本·國中本1 ‘言’

66) 通用：國中本2 ‘同’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

記疑1016 (節要1401：知舊門人問答85) (晦庵集 卷54)

答孫季和【應時】

〔○答孫季和 第二書 漢唐之論〕 子約以漢·唐三代同論，故云云。見上卷。

〔乃邪心者〕 〈無妄〉《傳》曰：“雖無邪心，苟不合正理則妄也，乃邪心也。”

〔讀書修己〕 “未曾理會”之意，止此。

〔一副當〕 흥가지.

〔落草〕 기은덕 落ㅎ다.

〔外面氣象〕 外面氣象，謂‘功利之心，落草由徑之計’也。

記疑1017 (節要1402：知舊門人問答86) (晦庵集 卷54)

答石應之

〔○答石應之〕

〔所示文字〕 疑章疏⁶⁷⁾之類.

〔面陳〕 面陳於君前也.

〔喙喙〕 猶言‘부우리가 지니마당’.

〔誤人也〕 “愈覺”之意, 止此.

〔○黨錮之禍〕 謂僞學黨錮之禍.

〔賢者〕 謂石應之.

〔自明者〕 猶自明其身.

〔拙者〕 朱先生自謂也.

〔視而不暝〕 《左傳》語. 視, 爲也. 暝티 묻히다.

記疑1018 (節要1403 : 知舊門人問答87) (晦庵集 卷54)

答諸葛誠之

〔○答諸葛誠之〕

〔競辯⁶⁸⁾之端〕 陸門人·朱門人, 競辯⁶⁹⁾之端.

〔曹表之故〕 表, 墓表也. 朱先生嘗作曹立之墓表.

67) 章疏 : 國中本1 ‘疏章’

68) 辯 : 기준본에는 ‘辨’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69) 辯 : 기준본에는 ‘辨’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墓表中言，見本註．

〔彼之〕 陸門也．

〔賢〕⁷⁰⁾ 諸葛誠之也．

〔片辭⁷¹⁾取信〕 片辭，朱先生自言．

記疑1019 (節要1404 : 知舊門人問答88) (晦庵集 卷54)

答項平父【安世】

〔○答項平父〕

〔元是聖賢〕 猶‘人皆可以爲堯·舜’之意也．

〔一個敬字〕 “識得”·“見得”，乃敬工夫，故云云．

〔識得記得〕 平父之言．

〔從上〕 猶從來也．

〔陸國正〕 陸子靜爲國子學正．

〔彼學者〕 陸學也．

〔左右佩劍〕 左佩劍者，右拔劍；⁷²⁾ 右佩劍者，左拔

70) 賢：國中本2 ‘賢者’

71) 辭：《記疑》의 諸 板本에는 ‘言’으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아래 주석의 ‘辭’도 마찬가지이다.

劍.言相反之甚.⁷³⁾

〔程課〕 課마련타.

〔虛間〕 間, 猶虛已間, 不急迫也.

〔○偃偃〕 失路貌.

〔儒釋者〕 平父之言.

〔偏廢也〕 “非實見”之意, 止.⁷⁴⁾

〔難曉〕 曉其釋學之非.

〔不至之心〕 平父之言.

〔存誠愈固養氣愈充〕 平父自謂“存誠愈固, 養氣愈充.”

〔一夫〕 謂異端也.

〔淺陋〕 正則不自知其身之淺陋.

〔誑諄衆⁷⁵⁾生〕 ‘諄’, 荒故切, 號呼也. 即《孟子》
“噉爾”之‘噉’同.

〔范甯議王弼〕 見《通鑑》.

〔下落處〕 “略見”之意, 止此.

72) 右拔劍：高大本 ‘右拔佩劍’

73) 甚：高大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74) 止：今按: 뒤에 ‘此’가 있어야 할 듯하다.

75) 衆：기존본에는 ‘象’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1·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追錄⁷⁶⁾

【答劉季章 榛中蜿蜒稍稍引去】 以當時群小比蛇虺云耳.

【攬掇結裏】 ‘攬’, 當作‘獵’, 音獵, 理持也. ‘裏’作‘曩’者, 誤. 結裏, 猶言了畢無他也. 劉五十哥, 不知何人, 恐是劉子羽家子弟也. 其人曾多失德, 而近日稍自斂飭, 無大過惡, 故云某人且得如此維持掇拾, 了訖無他矣, 而此后事, 亦未可保云耳.

【夜底道理】 “夜底道理”, 對上文說晝而言. 晝夜字, 只取一彼一此互相反之意.

【逃閃】 逃閃, 逃藏也. 小兒迷藏之戲, 一去東邊索, 一去西邊藏; 此來這邊索, 彼又去那邊藏. 此互相逃閃之義. 各說一邊道理以求相勝者, 似之.

76) 追錄: 기준본에는 없지만 國中本2 권10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이하 내용을 본문으로 수록하였다. 今按: 여기 追錄의 내용은 《定本 退溪全書》5, 〈答李仲久問目【『朱子大全』疑義】〉(KNL0095)에 그대로 나온다.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一

記疑1101（節要1408：知舊門人問答92）（晦庵集 卷54）

答周叔謹【葉公謹，改姓字。】

〔答周叔謹〕

〔學於兩家〕 兩家，呂·陸兩家也。

〔未切耳〕 “正坐”意，止此。

〔○所論二人〕 所論，叔謹所論也。二人疑公謹·彥章也。

〔外內之偏〕 一則偏於外，一則偏於內也。

〔○計較得失〕 “不須”之意，止此。

〔小異〕 小異於史學也。

〔不甚相遠者〕 不甚相遠於史學也。

記疑1102（節要1409：知舊門人問答93）（晦庵集 卷54）

答王季和【鉛】

〔○答王季和 第二書 高第第子¹⁾〕 上“第”字，猶次第之第。

〔以相授納〕 授納，猶授受也。“豈不能”之意，止此。

記疑1103 (節要1410 : 知舊門人問答94) (晦庵集 卷54)

答傅子淵〔夢泉〕

〔○答傅子淵〕

〔荊州〕 南軒也。南軒謂傅夢泉，有“拈搥豎拂意思”云，故朱先生引而言之。

〔初不領略〕 初不領略荊州之言。

〔左右〕 夢泉也。

〔渠〕 荊州也，亦無復語而正之。

〔報之〕 朱子報之於德起也。²⁾

〔封殖〕³⁾ 封，猶붓도드다。殖，猶부려⁴⁾나다。言封殖

1) 子：高大本‘字’

2) 也：기준본에는 ‘之’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3) 封殖：國中本1·國中本2 [추가 殖亦封之意，非息字之意也.] 今按：國中本1·國中本2의 추가의 ‘殖’은 ‘殖’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4) 러：國中本1·國中本2 ‘러’

其學問也.

〔恃此〕 此, 指激昂之氣.

〔○本領〕 猶大概也.

〔猛舍〕 猛舍舊聞也. 朱先生, 正苦其顯道不能猛舍舊聞也.

〔旦評〕 月旦評也. 謂傅夢泉·二包等也. 朱先生見絕於旦評也.

〔○⁵⁾緝熙光明云〕 傅夢泉之學亦禪, 故徒知心地工夫則是主敬也而緝熙光明乃主敬工夫也, 然不知窮理者也. 故朱子言吾學所謂主敬·窮理者, 於其子淵緝熙光明之處, 并所不可已者也, 以明主敬·窮理之不可偏廢也.

〔渙然心喻〕 子淵云: “若做心地工夫, 則自然渙然心喻.” 故朱先生云: “主敬·窮理, 初亦不在⁶⁾渙然心喻者之外也.” ‘渙然心喻’, 如一超頓悟之意.

〔包黃〕 包, 顯道也. 黃, 不知何人.

〔一向掠虛〕 흔닐마티 虛乙 掠為尸 則虛寂也, 乃禪學也.

5)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6) 在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改換名目】 雖曰指去舊習，而一向虛掠，則只是改換名目耳.⁷⁾

【就彼】 彼，謂子淵處也.

【稍過於簡約】 子淵用功於心地，而不知窮理，則是過於簡約者也. 超宗則未知用力於着實處，就子淵處商量，而雖稍過於簡約，亦無害也.⁸⁾

記疑1104 (節要1411 : 知舊門人問答95) (晦庵集 卷54)

陳正巳【剛】

【○答陳正巳】

【靈明空見】 謂禪學也.

【伯恭⁹⁾以是相規】 疑陳正巳嘗從游於伯恭¹⁰⁾之門，故云

【天理二字】 程子以上，無“天理”二字.

7) 耳：高大本‘也’

8) 也：國中本1에는 없다.

9) 伯恭：國中本1 ‘白恭’

10) 伯恭：國中本1 ‘白恭’

【帖體出來者】 帖，倍帖也。體，體得也。明道言：“天理二字，自家倍帖體得而出來也。”

【真不妄也】 朱先生言‘我亦得於斯，故乃知程子之言真不妄也。’

【許渤】 程子一時人。

【語錄】 程子《語錄》。

【終日不易】 篤實，故終日不易。

【不聞隔窓事者】 許渤之子，於隔窓處讀書，而許渤不聞讀書聲云。

【非寄寂言¹¹⁾不聞】 陳正巳，以許渤不聞隔窓之事，爲必有寄心空寂，而言其不聞云。故朱子乃言其非寄寂言不聞也。

【此條之下】 《語錄》記不聞隔窓事之條下。

【曷嘗有如此聖人】 當時以許渤爲聖人，故程子云云。

【便儼】 便，捷；儼，利也。利를 나다。

【不可尙】 猶不可加也。

記疑1105 (節要1412 : 知舊門人問答96) (晦庵集 卷54)

11) 言 : 國中本2에는 [추가 ‘欲’]이 있다. 이는 주석의 ‘言不聞’의 ‘言’에도 적용된다.

答路德章

【○答路德章 離內外判心迹】 離其內與外也，判其心與迹也。“使正道無用於天下，而經世之務皆私智之鑿”，則是離內外，判心迹也。○經濟維持與平日道學，分爲二事，則亦是離內外，判心迹。故引龜山譏王氏之言，言之。

【儻遇漢祖唐宗】 德章泛言凡人儻遇漢祖·唐宗。

【放過處】 “爭不得·且放過”，乃是苟且，故朱先生明言之。

【舊時意思】 德章舊時意思也。

【一豪】 ‘豪’，與‘毫’通用。

【分明】 正當ㄷ 道理 乙 見得 ㅎ기를 分明 屎 ㅎ야.

【走作】 헤든다. 猶背正道而走作也。

【宛¹²⁾轉回護¹³⁾】 若走作， 則雖言¹⁴⁾宛¹⁵⁾轉回護，其走作之事，亦不可得矣。

12) 宛：國中本1 ‘完’

13) 護：《記疑》의 諸 板本에는 ‘互’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아래 주석의 ‘護’도 마찬가지이다.

14) 言：國中本2에는 [추기 ‘欲’]이 있다.

15) 宛：國中本1 ‘完’

【○¹⁶⁾屈曲準備了矣】“水到渠成”，乃是古語，而德章引¹⁷⁾而用之。其所引用，不知爲某事也。但其引用意思，有在渠上未放水東流之時，先作屈曲準備了矣之意，故朱先生言之。屈曲，言放水不直而屈曲也。德章之意，屈曲 헛다 엇더료헛다。屈曲 屨 準備 호믈 作 헛다。準備，猶俗言 준비。

【自由也】德章言‘雖言回頭，而尙爲舊習所牽，不得自由’云。故¹⁸⁾朱子云云。

【○奉一日告】猶奉一日書也。

【羞於出入】疑德章前爲微官，今已去職，而謂‘羞於出入，故去其職’，則。

【厭請托】他人之請托也。謂‘厭其他人之請托，而去其職’，則。

【所入】¹⁹⁾ 祿俸也。請²⁰⁾‘祿俸之薄不足自資，故去其職’，則。

【得失】官之得失也。

16)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7) 引：高大本 ‘因’

18) 云故：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故云’

19) 所入：國中本2에는 이 조목이 없다.

20) 請：今按: ‘謂’가 되어야 할 듯하다.

- 〔豐約〕 祿之豐約.
- 〔或者〕 猶言‘倘或’.
- 〔爲此〕 爲此, 去職也.
- 〔偪仄〕 모를 기오리다. 言不能安其身也.
- 〔寡陋者〕 乃德章之言.
- 〔忌克〕 忌克其他人之能也.
- 〔兩者之謂〕 上文“抑”下·“將”下所言也.
- 〔編集春秋〕 德章編集《春秋》也.
- 〔涵養之務〕 “奉勸”之意, 止此.
- 〔心利其成〕 朱子言‘吾心利其編集之成也.’
- 〔說殺〕 編集말²¹⁾라 헉기를 헉골 마티 說爲也 못
디 말오져 헉다니.
- 〔自悔自咎〕 朱子自自悔自咎‘其爲人謀不忠’也.
- 〔布問〕 ‘問’, 與‘聞’通.
- 〔○彼中〕 德章所居之地.
- 〔臨安〕 宋都.
- 〔參選〕 參選吏部也.
- 〔姿稟〕 德章姿稟也.
- 〔相棄之意〕 德章以朱子不薦己爲官, 爲相棄也. 故

21) 말 : 國中本1·國中本2 ‘마’

朱子云云.

【相忘於江湖】 莊子云：“魚²²⁾、 무턱나셔, 相煦²³⁾以沫, 相濡以濕²⁴⁾, 不若相忘於江湖.”

【捺下身心】 捺下憤鬱之身心也.

【擘畫去參了】 擘畫, 猶經營規畫也. 有安排措置之意. 參, 參選吏部也.

【本等合入差遣】 本等, 猶本品也. 合入, 非預付職而待闕也, 乃付職而即拜也.

【忖過】 忖 爲 也 디내다.

【管取後日】 猶待其後日也.

【打破家事】 打破家事, 猶세간티다. 或云: “家, 漢音가, 家事, 乃俗云가식라.”

【覺得意思一時平了】 伯恭於《論語》“躬自厚而薄責於人”處, 悔過回心. 故云“覺得意思一時平了”也. 意思, 自言其意思.

【無暴怒】 伯恭之言, 止此.

【說及此事否】 伯恭平日云云, 說及此事否?

【○剗除鱗甲】 魚變爲龍時, 必剗除鱗甲也. 以比²⁵⁾

22) 魚: 기준본에는 앞에 ‘去’가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삭제하였다.

23) 煦: 國中本2에는 [추가 ‘煦’]가 있다.

24) 濕: 國中本1 ‘汙’, 國中本2 ‘沫’[추가 ‘濕’]

變氣質也.

〔渠〕直卿.

記疑1106 (節要1413 : 知舊門人問答97) (晦庵集 卷54)

答康炳道

〔○答康炳道〕

〔非敢有所與奪〕 與其吾學之致知，而奪其世俗之致知也.

〔排闢假借〕 邪說之害吾道者，若既闢而今又假借之，則.

記疑1107 (節要1414 : 知舊門人問答98) (晦庵集 卷54)

答郭希呂〔律〕

25) 比：國中本2 ‘況’

〔○答郭希呂〕

〔不敢躡等言之〕 孝悌，學問中一事也。希呂以學問，爲大端不敢躡等，姑從事於孝悌云。故朱子非之。

〔昆仲〕 希呂昆仲。

〔別求一術〕 希呂以孝悌非學問事，故朱先生云“別求一術”。

〔○苟不明此〕 此，即此心全體也。

〔此之〕 學問。

〔書院〕 希呂有構書院之事。

〔事實上〕 事實，猶言實事，乃書院實事也。

〔○耐煩專一〕 《語》·《孟》·《庸》·《學》，雖似煩，當耐其煩而專一細看。

記疑1108（節要1416：知舊門人問答99）（晦庵集 卷54）

答時子雲

〔○答時子雲〕

〔見得太重〕 見得科名太重也。

【那三五分²⁶⁾功夫】 那，移也。移其科舉三五分功夫。

【自然放得下矣】 見得太重之心，自然放得下矣。

【向此途矣】 向學問之途。²⁷⁾

【栽種培養】 時子雲，從游²⁸⁾伯恭，故云云。

記疑1109 (節要1417 : 知舊門人問答101) (晦庵集 卷54)

答楊深父

【○答楊深父】

【含容】 深父自患其柔懦，而又言²⁹⁾務於寬大含容，故云云。

【○若如來意則】 深父以刑政爲道外之物，故云云。

記疑1110 (節要1418 : 知舊門人問答102) (晦庵集 卷54)

26) 分：《記疑》의 諸 板本에는 없으나, 《節要》에 의해 보충하였다.

27) 途：國中本1 ‘道’

28) 從游：高大本에는 [추가 註‘從游’下, 一本作‘學於’]가 있다.

29) 言：國中本2에는 [추가 ‘欲’]이 있다.

答汪子卿

〔○答汪子卿〕

〔數條言仁〕 如“不違不害”之類。

〔所謂變通之術〕 子卿‘於窮通得喪之際，有變通之術’之言，故朱子非之。

〔兩者之間〕 謂貧富之間。

〔求出於此也〕 求其趨出乎貧富之外也。

〔如有物之可指〕 見仁如有物之可指。

記疑1111（節要1419：知舊門人問答103）（晦庵集 卷54）

答趙幾道【師淵】

〔○答趙幾道 時學之弊〕 當時俗學之弊。

〔冷淡生活〕 謂禪學也。

〔反遲禍大〕 乃晁錯之言。朱先生引而用之。見《通鑑》吳王濞事。

〔吾黨〕 小人方盛，故云：“吾黨孤弱。”雖禪學者，

亦有君子人，故并謂之禪學。³⁰⁾

〔於中〕 吾黨之中.

〔一味〕 흥 곧 마티

〔渠輩〕 禪學之類.

〔○詞采〕 猶文采也.

〔讀其書〕 書，史遷之書也.

〔其說〕 史遷之說.

〔折衷於夫子〕 乃史遷之言.

〔又不及此〕 又不及史遷³¹⁾也.

〔必熱必寒〕 言其爲善之必然也.

〔不殺不穀〕 亦言其不爲不善之必然.

〔竊脂〕 鳥名. 不食穀.

〔雖其下〕 ㄴ. 《史序》之下.

〔此個話頭〕 乃上文《史序》數句.

記疑1112 (節要1420 : 知舊門人問答104) (晦庵集 卷54)

30) 禪學 : 高大本·國中本2 ‘吾黨’

31) 史遷 : 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書遷’ ; 高大本에는 ‘書遷’ 옆에 ‘史遷’이라고 써 있다.

答劉仲則【槩】

〔○答劉仲則〕

〔中於幾會〕‘中’，去聲。

記疑1113（節要1421：知舊門人問答105）（晦庵集 卷54）

答黃冕仲

〔○答黃冕仲〕

〔見得日用周旋無非至善〕 冕仲自言“見得日用周旋無非至善”，故朱先生云云。

〔恐迫切而反失〕 恐迫切而反，故“不必大段着力把捉”也。

〔悠悠〕 넉지³²⁾시. 不迫切之意。

〔向說〕 朱先生向說也。冕仲疑之，故云。

〔恃此〕 恃其小善也。

32) 지：高大本‘즈’

記疑1114 (節要1422 : 知舊門人問答106) (晦庵集 卷54)

答楊簡卿【迪】

〔○答楊簡卿〕

〔書考〕 考，猶褒貶也. 書，謂‘褒貶時，書其上中下之事’，故云“書考”. 如陽城“撫字心勞，催科政拙，考下下”之類也.

〔所論趙帥書〕 簡卿以薦己事於趙帥處，請簡于朱先生，故云云.

〔前舉未登科〕 簡卿於前舉登科，故云.

〔亦要舉狀關陞也〕 要，要求也. 舉狀，舉_ッ飛_ル狀_ノ狀_ノ. 關陞，陞品之謂.

〔不敢爲³³⁾此〕 爲此“舉狀開陞”之類.

〔爲人〕 ‘爲’，去聲.

〔井伯雖實相愛〕 井伯勸簡卿舉狀陞品，故云云.

記疑1115 (節要1423 : 知舊門人問答107) (晦庵集 卷54)

33) 爲 : 기준본에는 ‘如’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 추가 및 《節要》에 의해서 고쳤다.
이는 아래 주석의 ‘爲’도 마찬가지이다.

答吳宜之【南】

〔○答吳宜之 非復昔人矣〕 言吳宜之非復昔日之人也。

〔屢聞此言〕 此言謂“大段勇猛精進”之言。

〔所說〕 ‘說’，音열.

〔○他說〕 他說，非他人之說，吳宜所言之他說也。

〔一味〕 흔 늘 마³⁴⁾티

〔開導之〕 吳宜之之言也。

〔登舟〕 朱子登舟也。

〔無可言者〕 可屨 言헛얌³⁵⁾즉 흔 이리 업슨디라.

〔他時之困〕 疑吳宜之當時有困辱之事。

〔得失〕 “所論”之意，止此。

〔接物之方〕 “平日所見”之意，止此。

〔○求館求試〕 吳宜之以求館舍³⁶⁾·求參試，請簡于朱先生，故云云。

〔黃直卿〕 竟不得第，乃以朱子蔭爲仕。

34) 마：國中本1 ‘근’

35) 얌：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얌’

36) 舍：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客’

〔兼平生〕 兼，猶空。

記疑1116（節要1424：知舊門人問答108）（晦庵集 卷54）

答徐斯遠【文卿】

〔○答徐斯遠〕

〔不肯自將來下毒手彈駮〕 스스로 毒手乙 將爲也 와
下爲也 彈駮호믈 肯티 아니흐니.

〔火煨〕 火厓 노기다.

〔琉璃瓶子禪〕 琉璃，雖珍貴，而不堅，不可作器者也。琉璃瓶，雖好，不可用，如學禪而誤入者，自以爲得道，不欲爭辨於禪學者。故學禪誤入而自以爲得道，不欲爭辨於知禪學者，僧家謂之‘琉璃瓶子禪’。皆“護惜己見”之謂。

〔○悲撓〕 疑朱子喪子時。

〔枝葉〕 昌父能文詞，故云“枝葉”。

〔今渠〕 渠，昌父也。

〔雖不止此〕 雖不止於騷人·墨客。

記疑1117 (節要1425 : 知舊門人問答109) (晦庵集 卷54)

答趙昌甫【蕃】

〔○答趙昌甫〕

〔斯遠殊可念〕 疑斯遠不能固窮，故云：“斯遠殊可念。”

〔文士〕 斯遠乃能文詞之人，故如是云云。

〔章雷州〕 章惇。

〔梁師成〕 宦官。

〔絕無而僅有〕 絕無 홀 거시어늘 僅有 하니。

記疑1118 (節要1426 : 知舊門人問答110) (晦庵集 卷54)

答徐彥章

〔○答徐彥章 不可謂無物情性無二更無虛靜時節〕
彥章厭禪學空寂之言，而乃爲之說曰：“未發之前，不可謂無物。情性無二，更無虛靜時節。”皆過當之言。

故朱子云云.

〔侵過界分處〕³⁷⁾ 疑彦章厭空寂之學，而欲改³⁸⁾主靜爲主善，故云云.

〔○主善之云〕 疑彦章厭³⁹⁾空寂之學，而欲改主靜爲主善，故云云.

〔廢也〕 廢其靜也.

〔○分別體用〕 乃老·釋之言.

〔其間固有動靜之殊〕 動靜皆當主一， 故主一之中，固有動靜之殊.

〔無一息之暫停〕 言無靜也. “非曰”之意，止此.

〔說於靜〕 ‘說’，音悅.

記疑1119 (節要1427 : 知舊門人問答111) (晦庵集 卷54)

答包定之

〔○答包定之〕

37) 侵過界分處 : 高大本에는 [추가 侵過已發界分.], 國中本1·國中本2 [추가 侵過界分處, 厭空寂之學, 而欲改主靜, 侵過, 已發界分.]이 있다.

38) 改 : 高大本에는 없다.

39) 厭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講習家庭》疑包定之，包顯道之子弟。

《行思坐誦空言》疑古語。

《會相見》會，만춤。

《○大抵其說》其說，《中庸》之說。

記疑1120（節要1428：知舊門人問答112）（晦庵集 卷55）

答潘謙之【柄】

《○答潘謙之》

《觀理》孔·孟之言，乃□⁴⁰⁾處也。

記疑1121（節要1429：知舊門人問答113）（晦庵集 卷55）

答楊至之【至】

《○答楊至之》

40) □：高大本‘用’

〔膚淺⁴¹⁾之病〕 “面說”之意，止此.

〔濬治之功〕 有膚淺⁴²⁾之病，故云“濬治之功”. 濬⁴³⁾，
猶深也. 濬 ヽ 也 治 ヽ 飛 尸 功 乙.

〔後之〕 字也.

〔病作〕 朱飛卿病作也.

〔未可量也〕 猶言其進未可量也.

記疑1122 (節要1430~31 : 知舊門人問答114~115) (晦庵集 卷55)

答李守約【閑祖】

〔○答李守約 前輩〕 如程門人.

〔反成坐馳〕 “不必”之意，止此.

〔○識以俟問〕 ‘識’，去聲.

〔相值〕 所疑之處，與心相值也.

〔殊勝問而後通〕 問 ヽ 尸 後 厓 通 ㅎ도 곧 殊勝 爲 乙

41) 膚淺 : 기준본에는 ‘淺膚’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42) 膚淺 : 기준본에는 ‘淺膚’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43) 濬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人。

【向來所苦】 猶若病也。

【般移應接】 般，移也。般移，猶세간을미⁴⁴⁾다。般移應接，疑移考亭時。

【君逸臣勞】 內，君也；外，臣也。內外雖皆勞擾，然奔走服役之時，內之勞擾，不若外之勞擾。故雖內外勞擾，亦言君逸臣勞。蓋無外勞之時，則徒苦內勞而生病。若有外勞，則內勞稍弛，而君逸臣勞，故云“要訣”。

【○若隨宜區處則】 若因其所問而隨宜區處，則。

【以禮許人】 〈擅弓〉曰：“司土 賁告於子游曰：‘請襲於怵。’子游曰：‘諾。’縣子聞之曰：‘汰哉，叔氏！專以禮許人。’”○《疏》云：“賁，司土之名也。禮，始死，廢怵而置尸於地，及改而不生，則尸改登怵，襲者斂之以衣也。襲於怵者，禮也。後世禮失而襲於地，則褻矣。司土知禮，而請於子游。子游不稱禮而答之以諾，所以起縣子之譏也。汰，矜大也。言凡有咨問禮者，當據禮答之，子游專輒許諾，則如禮自己出矣，是自矜大也。叔氏，子游字。”

【見得】 朱子見得也。“見得”之意，止於“常不快意”

44) 올미：高大本 ‘옴기’

之下.

〔○失解〕 解，鄉試也.

〔上蔡發明〕 名利關之語.

〔大中之說〕 大中至正之說.

〔致和〕 全體及致中，靜時存養工夫；時中·致和，動時省察工夫.⁴⁵⁾

〔全體也〕 “不可說”之意，止此.

〔○前日所喻〕 疑當時黨錮禍起，李守約亦勸朱子變其所守. 若不變則禍當及身云云，故朱子如此云.

〔消息〕 “與時消息”，亦子約勸朱子之言. ○《易》云：“與時消息.”

〔並行〕 “與時消息”與所守，並行.

〔○斯仁至矣〕 《論語》“仁遠乎哉？我欲仁，斯仁至矣”之言.

〔○亡之〕 亡，《韻會》云：“不在.”

〔○吝之所有〕 有，如有財物之有. 吝 爲也 두는 마는.

〔盈虛歉實〕 虛，驕也. 實，吝也. 歉，恨也，少也. 實乙 歉히 녀기오，猶言‘다함 實코져 녀기다’. ○此

45) 工夫：高大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論驕·吝，皆言驕·吝之相爲用也。

記疑1123（節要1433：知舊門人問答117）（晦庵集 卷55）

答劉定夫

〔○答劉定夫〕

〔尋行數墨〕‘行’，音항. 行乙 尋爲尋 墨乙 數호다.

〔最怕人說〕“說”下無吐。“最怕”之意，止於“大脫空”。

〔佔畢〕《禮記》。佔，視也；畢，簡也。

〔脫空〕거짓거시라.

記疑1124（節要1434：知舊門人問答118）（晦庵集 卷55）

答包顯道【揚】

〔○答包顯道 致曲〕致推，致曲一偏也。顯道疑其一

偏而問之，故朱先生答之.

【少⁴⁶⁾得耶】 少得，猶無之也. 업시 ㅎ고져 ㅎ미라.
○少得其致曲也.⁴⁷⁾

【○既未免讀書則云云止理會】 顯道既云“變其前日之禪學，而未免讀書”，又云“不曾大段着力理會”，則前後之言不同，故朱先生怪而問⁴⁸⁾之.

【前學程文】 顯道前學之程文也.

【從頭罵去】 其程文從頭罵去也.

【不可救勸】 當街打人 ㅎ기닐 마⁴⁹⁾라 ㅎ야 可屨 救勸티 몬 ㅎ리어닐.

記疑1125 (節要1435 : 知舊門人問答119) (晦庵集 卷55)

答包詳道

【○答包詳道 前書云云】 前書有褒詳道之語.

46) 少 : 기준본에는 ‘小’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의 추가 및 《節要》에 의해서 고쳤다. 아래 주석의 ‘少’도 마찬가지이다.

47) 也 : 諸 異本에는 없다.

48) 問 : 國中本2 ‘答’

49) 마: 高大本·國中本2 ‘말’

〔熟處〕 乃詳道舊學也.

〔所驟聞者〕 所聞於朱子者.

〔大學鄙說〕 《大學》註也.

〔方略竄定〕 竄定, 乃塗改文字也. 言에 우티고 고티다.

〔此中些說話〕 猶言吾學中說話也.

〔○作捺扭担〕 ‘捺’, 音날. ‘扭担’, 音뉴넬.

〔○如此用力〕 謂心地工夫.

〔東坡作蓮華云止譏衛朴云⁵⁰⁾〕 東坡作徐州〈蓮華漏銘〉曰: “故禮部侍郎燕公肅⁵¹⁾, 以創物之智, 聞於天下, 作蓮華漏〔漏名⁵²⁾〕, 世服其精. 州郡往往而在, 雖有巧者, 莫敢損益. 而徐州獨有瞽人衛朴所造, 廢法而任意, 有壺而無箭. 自以無目而廢天下之視, 使守者伺其滿則決之而更注, 人莫不笑之云云.”

〔無⁵³⁾乃亦類此乎〕 詳道自以其學入禪之故, 欲用心工夫, 而廢其讀書窮理之事, 與衛朴廢天下之視同. 故云云.

50) 云: 國中本1·國中本2 ‘云云’

51) 肅: 高大本 ‘甫’[추가 ‘甫’, 一本作‘肅’]

52) 名: 國中本1에는 없다.

53) 無: 《記疑》의 諸 板本에는 ‘無’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記疑1126 (節要1436 : 知舊門人問答120) (晦庵集 卷55)

答包敏道

〔○答包敏道〕

〔軌則〕 存心之軌則也.

記疑1127 (節要1438 : 知舊門人問答122) (晦庵集 卷55)

答符復仲【初】

〔○答符復仲〕

〔難擇者〕 “難擇者”，乃復仲之言，故朱先生反言之.

〔不解有過當也〕 舍去近利之事，過當也.

〔就此持守〕 就陸丈之言而持守也. 疑復仲，陸門之人.

記疑1128 (節要1439 : 知舊門人問答123) (晦庵集 卷55)

答符國瑞

〔○答符國瑞 所需〕 需，猶須也。

記疑1129 (節要1440 : 知舊門人問答124) (晦庵集 卷55)

答陳超宗

〔○答陳超宗 合下立志〕 超宗合下立志也。

〔平做將去〕 無“愧懼”·“勇決”之志也。

〔○繆札〕 ‘繆’與‘糸+人+小’⁵⁴⁾同。繆札，謂朱先生所書超宗之齋號也。

〔擬議粧裝⁵⁵⁾點邪〕 如“安立標榜”之類。

記疑1130 (節要1441 : 知舊門人問答125) (晦庵集 卷55)

54) 糸+人+小 : 今按: 표제의 글자와 결국 같은 글자이므로, 내용상 ‘謬’가 되어야 할 듯하다.

55) 粧 : 《節要》(陶山本)에는 ‘裝’으로 되어 있으나, 《節要》海州本과 《全書》에는 ‘粧’으로 되어 있다.

答顏子堅

【○答顏子堅 統之宗會之元】‘統宗’，疑曆家之說，而未詳其義。‘會元’，乃邵子所謂一元十二會也。子堅之意，以爲學問不在讀書，必有統之於宗·會之於元之處。‘宗元’，疑指禪家心地工夫一超頓悟也。

【張陸】南軒·象山也。疑子堅嘗從游於張·陸之人。

【助緣】緣，謂僧家因緣也。緣乙 助爲다. 中原受牒之時，節夫有助緣事。

【祠曹牒】祠曹，如今禮曹也。牒，度牒也。

【髡鬻】削髮謂鬻。‘鬻’，音테.

【附遞】遞，遞所也。中原有遞所。갑받고 던테로 보내는디라.

【必無異論】子靜若勸削髮，則是無異論也。

記疑1131 (節要1442 : 知舊門人問答126) (晦庵集 卷55)

答熊夢兆

【○答熊夢兆 支遣思慮不去】 支遣, 보내다.⁵⁶⁾

記疑1132 (節要1443 : 知舊門人問答127) (晦庵集 卷55)

答安仁吳生

【○答安仁吳生】 安仁疑地名.

【易簡理得可久可大⁵⁷⁾之君子】 〈繫辭〉, “乾以易知, 坤以簡能. 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
吳生⁵⁸⁾自以其身, 爲易簡理得可久可大之君子, 故朱先生云云. 易簡之理 乙 得 爲 p 可久可大之君子.

【汲汲】 求欲⁵⁹⁾之心汲汲也.

【不稱其父兄之命】 《禮記》. 凡有父兄者, 送⁶⁰⁾物於人, 皆稱其父兄之命者, 以示不擅家物之意也.

56) 보내다 : 諸 異本에는 뒤에 [소주 ‘支’字之意, 未詳.]이 있다.

57) 可久可大 : 《記疑》의 諸 板本에는 ‘可大可久’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뒤의 주석의 ‘可久可大’도 마찬가지이다.

58) 生 : 高大本에는 앞에 ‘先’이 있다.

59) 欲 : 國中本2 ‘知’

60) 送 : 高大本에는 없다.

記疑1133 (節要1444 : 知舊門人問答128)

答趙然道【師雍】

【○⁶¹⁾恨不及見】 趙然道恨不及見也. “恨不及見”之意, 止“底止”之下.

【千金弊帚】 魏 吳質言: “人有弊帚, 享之千金.” 享, 猶當也. 弊帚不貴而享之千金, 是珍貴其所有之物也. 趙然道勸朱子循俗學, 故朱子云‘豈肯⁶²⁾以我千金, 易人之弊帚哉?’ 千金弊帚之言, 朱子反其意而言之.

記疑1134 (節要1445 : 知舊門人問答129) (晦庵集 卷55)

答康戶曹【仲穎. 一本無‘仲’字.】

【○答康戶曹 其心之所存】 聖賢之心.

6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62) 肯 : 高大本 ‘有’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一

記疑1135 (節要1446 : 知舊門人問答130) (晦庵集 卷55)

答邵叔義答邵叔義【一本無‘叔義’二字，有‘機’字.】

〔○答邵叔義 表裏〕 所問之言表裏也.

〔○墻壁⁶³⁾標榜〕 墻亦謂壁也，壁通謂之墻. ‘墻壁標榜’，如齋號之類.

〔○暴揚〕⁶⁴⁾ 暴揚，露也.

記疑1136 (節要1447 : 知舊門人問答131) (晦庵集 卷55)

答王德修

〔○答王德修〕

〔先君子〕 韋齋.

〔官中秘書〕 先君子、中秘書乙 官爲也 겨설제 侍
手ヒ.

〔少監〕 秘書少監也.

63) 壁：今按：《節要》와 《全書》에는 ‘屋’으로 되어 있다.

64) 暴揚：國中本2 ‘暴’으로 되어있고, 뒤의 주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論語之說〕 《論語》之說，和靖所著也。

〔音旨〕 論辨意趣也。

〔老丈〕 王德修。

〔所粗得〕 乃上文所謂“粗得其味”也。

〔一二〕 正叔所聞於左右者 一二乙 朱子得之也。

〔終有守者〕 伊川謂：“尹焞魯，張繹俊。俊恐過之，魯者終有守也。”

〔二說〕 未知指何說，疑指如《論語》說之類。

記疑1137（節要1448：知舊門人問答132）（晦庵集 卷55）

答蘇晉叟〔溱〕

〔○答蘇晉叟〕

〔非獨安靖純一〕 如操存時也非獨安靖純一而已。

〔西銘說〕 林栗所作〈西銘說〉也。

〔渠〕 林栗。

〔前日紛紛〕 紛紛，乃譴逐朱子事，前日乃寄之後，〈答蘇晉叟〉書之前。

〔不答乃退〕 自上不答也.

〔○學患〕 學之患也.⁶⁵⁾

〔○積欠〕 欠，如逋欠之欠. 逋欠處不一，故云“積欠”.

〔治伐金石⁶⁶⁾〕 墓文，或冶金而刻之，或伐石而刻之，故云云.

〔所示文字〕 如行狀之屬.

〔在〕 乃朱在也.

〔親迎〕 ‘迎’，去聲.

記疑1138 (節要1501 : 知舊門人問答133) (晦庵集 卷56)

答趙子欽【彥肅】

〔○答趙子欽¹⁾ 豈不會說〕²⁾ “豈不”之意，止於“浮

65) 也 : 高大本에는 없다.

66) 治伐金石 : 《記疑》의 諸 板本에는 ‘冶金伐石’으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서 고쳤다.

1) 趙子欽 : 高大本·國中本1 ‘子欽’

2) 會說 : 高大本에는 [추가 ‘會說ㄷ.’ 註說誤.]가 있고, 國中本1·國中本2에도 [추가 ‘會說ㄷ.’ 此註說恐誤.]가 있다.

說”之下.

【說得七分】 伊川以《易傳》示門人曰：“只說得七分，後人更須自體究.”

【亦言】 猶程子之言亦言也. “亦言”之意，止於“著力”之下.

【外料】 料，猶用也.

【自如其舊】 舊，謂‘大亨利正’之意.

【喜聞】 朱子喜聞也.

【○左右之】 猶使之也.

【形體】 聖賢之言，形體也.

【○就此】 此，謂不得曉處.

記疑1139 (節要1502 : 知舊門人問答134) (晦庵集 卷56)

答詹子厚

【○答詹³⁾子厚⁴⁾ 喻趙】 二人，不知何人.

3) 詹：高大本·國中本1에는 없다.

4) 詹子厚：기존본에는 ‘詹子厚’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復齋〕 陸復齋。

〔汪喻〕 二人姓，亦不知何人。

記疑1140（節要1504：知舊門人問答136）（晦庵集 卷56）

答徐載叔〔賡〕

〔○答徐載叔〕¹⁾

〔排雲叫閭〕 以上疏事往，故云云。

〔稿草〕 疏草也。

〔經題〕 如疑義之題，其時必出題，別生奇意問之，故云“破碎”。

〔江東未得請時〕 先生嘗爲²⁾江東轉運副使，以疾辭。此則辭而未得請時。

〔到官〕 到江東。

〔所申〕 報經義題也。

〔入一文字〕 文字，乃奏狀之屬。

1) 答徐載叔：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答徐載厚’

2) 爲：高大本 ‘謂’

〔昏俗〕 “嘗欲³⁾”之意，止此。

〔爲害等爾〕 棄本逐末，則古文・時文，爲害同也。今之爲古文者，乃失古文之本意，故‘爲害等爾’。

〔不當以是爲當務切切留意〕 是，謂古文也。徐載叔知時文之弊，以古文爲當務而切切留意，故朱子言古文之不當留意也。

〔放翁〕 名陸遊。

〔如此篇〕 徐載叔所送放翁詩篇也。

〔去國〕 放翁去國也。

〔不合做此好詩〕 이 好詩乙 做乎未 맞당티 아니하니, 所以罰令不得好官也，猶詩能窮人之言，朱先生戲言之。

記疑1141 (節要1505 : 知舊門人問答137) (晦庵集 卷56)

答葉正則【適】

〔○答葉正則 毫毛鈞石之喻〕 未知指何事而言。但正則石喻有‘所失如毫毛，所得如鈞石，則猶可爲之’之

3) 欲 : 기준본에는 ‘言’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意。

〔其實之所在〕 爲己之實。

〔百餘年來〕 濂溪以後。

〔講貫〕 猶講論通貫也。

〔遽以爲未合於聖賢之中耶〕 正則以百餘年來之所講貫者，以爲未合聖賢之中云。故朱先生謂‘百餘年來之所講貫者，正則果以爲指何事而充之入爲也 遽以爲未合於聖賢之中耶?’

〔○寓舍〕 猶⁴⁾旅寓之舍。疑先生入都之時。

〔囁嚅〕 欲言不能之貌。

〔所著書〕 正則所著。

〔搏量〕 흔디 몽쇼오려 量ッ々。如升斗量之之時，必搏而量之也。

〔不敢分明道着實處〕 敢屏 分明屏 著實處乙 道티 못하니。

〔如此聲勢〕 學問聲勢。

〔強作撐柱〕 구티여 撐柱乙 作爲也。

〔便須〕 須，必字之意。

〔不能與治道相亂〕 正則之意，以爲佛書乃自是世外

4) 猶：國中本1・國中本2 ‘疑’

壞奇之說，雖行於世，不能與治道相亂也。⁵⁾

〔參雜辨爭〕 儒·釋之道，參雜辨爭。

〔模樣〕 “不須”之意，止此。

〔究其根原〕 究其不動心之根原。

記疑1142 (節要1506：知舊門人問答138) (晦庵集 卷56)

答徐居厚【元德】

〔○答徐居厚 大病新復〕 居厚之病，新復也。復，猶差也。

〔將來看時〕 歇得數月後讀書，故云“將來看時”。看，謂書讀。¹⁾

〔此等〕 如讀書之事。

〔問官〕 問官於剡子。○音郟。

〔不學〕 “但見”之意，止此。

〔他〕 謂孔子。

5) 也：高大本에는 없다.

1) 書讀：國中本1·國中本2 ‘讀書’

〔甚次第〕 언마나흔.

〔嫁〕 言“學養子而後嫁”，以示躡等之病.

〔爲病〕 ‘爲’，去聲.²⁾

記疑1143 (節要1507 : 知舊門人問答139) (晦庵集 卷56)

答方賓王【誼】

〔○答方賓王 先人〕 韋齋.

〔辱慰薦焉〕 慰薦乙 辱爲也加ヒ.

〔門下〕 疑賓王之門下.

〔鄉往〕 心之鄉往.

〔不言不語³⁾底功夫〕 如禪學之類.

〔行狀中語〕 中語，朱子所作行狀中有“求中未發之前”之言.

〔所聞〕 朱子所聞.

〔用功〕 延平用功.

2) 爲：諸 異本에는 [추가 爲, 平聲爲是.]가 있다.

3) 不語：高大本에는 [추가 ‘不語’, 一本作‘不笑’]가 있다.

〔入處〕 學問所入之處.

〔未免更有商量也〕 短之之辭.

〔○擊壤集序〕 〈擊壤集序〉, 《邵康節集》自作序.

〔其意〕 邵子之意.

〔○端緒爲仁〕 賓王以發生流動之端爲仁⁴⁾言之.

〔義外之病〕 賓王徒知流動之爲義, 而不知集義之在內, 故云義外之病.

〔形比〕 形比, 見類.

〔○刊訂〕 學者條折者, 朱先生刊訂.

〔不復可得〕 言失也.

〔不復可得〕 言記得也.

〔○性者道之形體云云〕 上文所記一條, 乃略爲刊訂, 而檢尋不得者也. 此一條, 姑據所見, 略具別紙者也. 故前後二條, 意同而文異.

〔擎斂作〕 ‘斂’, 音向, 負荷也.

〔此用便息〕 心之用也.

〔不離此處〕 此處, 謂‘頃刻間正當處’也.

〔○聞道〕 賓王問“朝聞道”之‘聞道’二字, 故答之.

〔但到此地〕 到聞道地位也.

4) 仁 : 기준본에는 ‘言’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⁵⁾外廷〕 朝廷也.

〔不易扶持得且如此〕 扶持得호믈 쏘 이ㄴ티 호미
易治阿ヒ爲ヒ. 扶持士學.

〔向上一節〕 疑石⁶⁾君德.

〔○詭僞舊聞〕 當時目朱子爲僞學, 故朱子亦自謂詭
僞.

〔○舊書讀之〕 舊書, 朱子所著. 讀之如經傳之類.

〔咄咄〕 驚怪聲.

〔○既爾〕 이믹⁷⁾ 이려⁸⁾하니.

〔覺得間斷〕 間斷乙 覺得乎未ㄴ.

〔講學工⁹⁾夫〕 此乃格物工夫也.

記疑1144 (節要1508 : 知舊門人問答140) (晦庵集 卷56)

答陳師德【定】

5)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6) 石 : 今按: ‘指’를 잘못 쓴 것인 듯하다.

7) 믱 : 高大本 ‘미’

8) 려 : 高大本 ‘러’

9) 工 : 高大本 ‘功’

【○答陳師德 玩意之久】 師德玩意於持敬·致知也。

記疑1145（節要1509：知舊門人問答141）（晦庵集 卷56）

答李周翰

【○答李周翰 作止】 猶言動靜。

【既見之願】 既見君子之願。

【向來妄論】 疑朱先生曾論周翰之病，而周翰此言改過之事，故如是云云。

記疑1146（節要1510：知舊門人問答142）（晦庵集 卷56）

答朱飛卿

【○答朱飛卿 著意安排】 非自然收斂也，乃著意安排於收斂也。

【○此是就命上理會】 此，謂富貴貧賤也。

〔得喪榮辱〕 謂富貴貧賤也.

記疑1147 (節要1511 : 知舊門人問答143) (晦庵集 卷56)

答鄭子上【可學】

〔○答鄭子上 此事之外〕 ‘求放心’之外.

〔此本〕 心也.

〔○¹⁾浙人〕 東萊之史學.²⁾

〔○³⁾去泰甚〕 黃霸云: “治道, 去其泰甚者.” 重聽·何害·去泰甚之言, 本出於黃老之意.⁴⁾

〔吾言〕 吾學之言.

〔準則定當〕 言大綱已正也.

〔漫漶〕 不分別也.

〔○設教二字〕 〈繫辭〉云: “聖人以神道設教.” 神, 謂神奇也.

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2) 史學 : 國中本1 ‘士學’

3)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4) 意 : 國中本2 ‘言’

【吾欲扶教】 溫公⁵⁾此言，如“姑爲是言以設教也”之言，故朱子非之。

【○仁便是動義便是靜】 仁·義，理也。言此仁義之動靜，以明理之所以動靜。子上之意，氣有動靜而理無動靜，故朱先生云云。

【○和靖專主於內】 和靖論敬，“其心收斂，不容一物”云。故子上疑其專主於內。

【避地入山】 不知何事避地入山。

【火色如此】 猶言時論如此也。不敢直言時論，故託言火色如此也。

記疑1148 (節要1512 : 知舊門人問答144) (晦庵集 卷57)

答林一之【揆】

【○答林一之 養氣一章】 一之所論‘養氣’一章。

【不雜其他說支蔓耳】 一之論‘養氣’章時，不雜其他

5) 溫公 :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溫公之關佛, “吾欲扶教云云”, 此言恐無語病.]이 있다.

說支蔓耳。

【得失之證】 其議論之得失也。一之有繁雜之病，而於此⁶⁾不雜他說，則其議論得也。

記疑1149 (節要1513：知舊門人問答145) (晦庵集 卷57)

答李堯卿【唐咨】

【○答李堯卿】

【見成文義】 前聖見成說底文義也。

【昏期不遠】 安卿乃堯卿之壻。此乃約昏之時。

【區區南官】 南，謂漳州。先生知漳州時，安卿以州人受學。

【○固不謂淫祀】 堯卿之意，以爲夫子曰“敬鬼神”，亦當敬以遠之乎云云。故朱子答云：“敬而遠之之鬼神，固不謂淫祀鬼神。”

【既不當其位】 既不當所除去之位也。

【○禮經】 《禮經》中立宗法之說。

6) 此：國中本1·國中本2‘地’

〔且實植於趺〕⁷⁾ 진실로 趺_居 植_{為古}.

〔不可動〕 朱子之意，蓋以爲不可輕動變改也.

〔上闕高祖之祭〕 舍姪之家，既⁸⁾祧遷高祖，而堯卿之家，則不行時祭，故云云. 上闕高祖之祭，下無禰祭之義，亦同. 堯卿之家，不行禰祭，故云云.

〔某家〕 堯卿之家.

〔祭禰之月〕 季秋.

〔二祭〕 時祭·禰祭.

〔○親盡而祭〕 墓祭，親盡而⁹⁾祭義，詳見《家禮》.

記疑1150 (節要1514 : 知舊門人問答146) (晦庵集 卷57)

答陳安卿【淳】

〔○答陳安卿 着力去求之時〕 去求義理.

〔到老¹⁰⁾〕 老，謂“不知老之將至”之‘老’.

7) 且實植於趺 : 高大本에는 [추가 ‘實植’, 註‘진실로’, 恐不然. 實은척와 趺의 植하다. 謂充實之植立於趺之空穴也.]가 있고, 國中本2에는 [추가 退溪註云‘實, 진실로’, 恐不然. 實은척와 趺의 植하다. 謂充實之植立於趺之空穴也.]가 있다.

8) 既 : 기준본에는 ‘改’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9) 而 : 諸 異本에는 없다.

〔○下句〕 謂“不知老之將至”之句。

〔○不化〕 哀心化也。

〔飲胙燕賓〕 送葬日，飲胙燕賓也。¹¹⁾

〔謝氏此章之說〕 謝氏，於‘哭處不歌’之言，有其說。

〔○聞韶忘味之說〕 謝氏亦有聞韶忘味之說，亦以忘爲正，故云云。¹²⁾

〔○又不可分輕重〕 又不可分天倫·父命之輕重。

〔○道院中〕 疑道觀也。

〔○大碩人生朝〕 大碩人，乃慶國卓夫人劉珙母。

○“有壽”之意，止此。

〔豈〕 豈不之意。

〔不容已處否〕 “豈”字之意，止此。

〔○此等事〕 壽母生朝·大碩人生朝之事。

〔力量〕 守禮之力量也。

〔放過了處〕 不守禮法，謂之‘放過’。

〔情各不同〕 與程子所言，情各不同也。

〔○能動靜〕 能然。

〔必動必靜〕 必然。

10) 到老：《記疑》의 諸 板本에는 ‘老到’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11) 也：國中本1에는 없다.

12) 云云：國中本1·國中本2 ‘云’

〔當動當靜〕 當然.

〔正就事言者〕 謂當然也.

〔○非勉強所能〕 呂氏說, 止此.

追錄¹³⁾

〔答徐斯遠 琉璃瓶子禪〕 琉璃作瓶子, 自以爲寶, 而其爲物不堅, 如有觸著, 即便破碎, 以比學禪未得而認假爲眞者, 才遇高禪, 一語撞著, 便成粉碎. 此必禪門有此譬諭, 先生引之, 以言彦章護惜己見而不肯求正於有道之病也. 〈答李仲久〉. 下同.

〔答李守約 般移應接〕 般, 亦移也. 疑此是先生自五夫舊居移于考亭時事. 蓋移家, 多冗細應接, 遂因外勞而內之心病自愈也.

〔答劉定夫 一場大脫空〕 一場, 猶言一段一次之類. 脫空, 疏脫空虛也. 言學不用書, 則終無收拾, 只成一段大疏脫空虛之學也.

13) 追錄 : 기준본에는 없지만 國中本2 권11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追錄을 편의상 본문에 수록하였다. 今按: 여기 追錄의 내용은 《定本 退溪全書》5, 〈答李仲久問目【《朱子大全》疑義】〉(KNL0095)에 그대로 나온다.

【答方賓王 料理簡書】 料理，料檢整理之謂。《世說》“料理”，亦同此意。簡書，即書簡，非〈小明〉“簡書”之義。

【擎斲作弄】 謂擎奉負荷，而作為誇弄，認作本來大事看也。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二

記疑1201 (節要1601 : 知舊門人問答147) (晦庵集 卷58)

答楊仲思

〔○答楊仲思〕

〔尊丈〕 仲思之父.

記疑1202 (節要1602 : 知舊門人問答148) (晦庵集 卷58)

答謝誠之

〔○答謝誠之 身外之悠悠〕 指時論.

〔黜闇〕 이미타.

記疑1203 (節要1604 : 知舊門人問答150) (晦庵集 卷58)

答陳廉夫

【○答陳廉夫 分別一個是非】 分別一個是非之意，并檢身·居家·窮理處觀之。

【方好尋人商量】 人乙 尋ッ也 商量乎未 方好ッ P.

【蹉過却】 그르티다.

【鉗錘】 ‘鉗’，音箝，以鐵有所劫束。‘錘’，上聲，鍛器¹⁾也。《莊子》，“鑪錘之間”。

記疑1204 (節要1606：知舊門人問答152) (晦庵集 卷58)

答舒提幹

【○答舒提幹】

【示喻兩條】 疑舒提幹勸先生不仕，故先生下文云云。

【發藥】 猶言用藥。

記疑1205 (節要1607：知舊門人問答153) (晦庵集 卷58)

答顏子壽【鑄】

1) 器：高大本‘光’

〔○答顏子壽 苟異必同〕 與世俗苟異·必同也。

記疑1206 (節要1608 : 知舊門人問答154) (晦庵集 卷58)

答李次張

〔○答李次張 七篇〕 《孟子》七篇。

記疑1207 (節要1609 : 知舊門人問答155) (晦庵集 卷58)

答方平叔【銓】

〔○答方平叔〕

〔省事〕 省事，猶解事。

〔變於已〕 “觀其”之意，止此。

〔憂其不合〕 憂其先生之不合於世也。

記疑1208 (節要1610 : 知舊門人問答156) (晦庵集 卷58)

答王欽之

〔○答王欽之 求之於此〕 此，謂程書。

〔不使加乎其身〕 不使‘踐履不至’加乎其身也。

〔所須問目〕 須，猶待也。

〔循序讀書〕 “都不”之意，止此。

〔留心〕 足屨 留心티 아니 함즉흔 거시오.

〔僕僕〕 見《孟子》。

記疑1209 (節要1611 : 知舊門人問答157) (晦庵集 卷58)

答胡平一【元衡】

〔○答胡平一 可難〕 難，論難也。

〔切己之功則〕 “與其”之意，止此。

〔片言半詞之可疑者〕 詞、可屨 의심되오미업슨
者、¹⁾

〔置其心於此〕 此，謂《庸》·《學》·《論》·《孟》。

1) 、：高大本에는 없다.

〔彼之崎嶇〕 如正朔之類。

記疑1210 (節要1612 : 知舊門人問答158) (晦庵集 卷58)

答楊志仁【璫】

〔○答楊志仁 交他〕 他 又 헉여곰. ‘交’，與‘教’同，平聲。他，謂世間道理也。

〔未敢以爲然也〕 未敢以先生之意爲然也。

記疑1211 (節要1613 : 知舊門人問答159) (晦庵集 卷58)

答徐子融【昭然】

〔○答徐子融 見正叔云云止契合〕 正叔 ハ 說 乎 戈，徐子融 닐오되 “曾參多一唯”之句 乙 아리¹⁾ 得 ッ 也。深有契合 ハッカハッロ 니르거늘 見 ッヒ. 見，先生見也。多，剩也。“曾參多一唯”，古詩句。

1) 리 : 國中本1 ‘리’

- 〔他頭上〕 他，謂曾子。
〔○鷄抱卵〕 養心方言，如鷄抱卵，如猫伺鼠。
〔僧言〕 禪家養心之言。
〔不究彼〕 彼，謂僧也。
〔凡皆類此〕 疑作‘凡此類皆’。
〔力攻其失〕 力攻才卿之失。
〔心不服〕 不服先生之言。
〔北門〕 疑地名。
〔審細辨認〕 審히기를 細屛 히야 辨認ッ也。
〔○無人敢如此道〕 敢히 이곤²⁾티 道히리 업스니。
〔太虛〕 橫渠指理爲虛。
〔父子君臣〕 虎狼之父子，蜂蟻之君臣。
〔生物〕 生ッ^p 物。生，猶有生也，草木之類。
〔兩性〕 氣質·本然。
〔醜差〕 猶言大差也。
〔自爲一性〕 “蓋由不知”之意，止此。
〔除是無物〕 是乙 除ッ也 物^レ 업세³⁾야。
〔人陰爲土〕 《禮記》。‘陰’，去聲，瘞葬也。

2) 곤：國中本1·國中本2 ‘マ’

3) 세：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서’

【信口信意】 信，如信馬之信，猶任也。

【午節】 端午。

【幾似爭十年前氣血矣】 爭，猶異也。

【相觀而善】 《禮記》言。言相觀而爲善也。

記疑1212（節要1614：知舊門人問答160）（晦庵集 卷58）

答宋深之【之源】

【○答宋深之 第三書 蘇范】 蘇，未知何人。范，疑文叔。

記疑1213（節要1615：知舊門人問答161）（晦庵集 卷58）

答宋容之【之汪】

【○答宋容之】

【慣得意思】 意思、長時忙迫乎勿慣得也。

記疑1214 (節要1616 : 知舊門人問答162) (晦庵集 卷58)

答宋澤之

【○答宋澤之 書封內】‘內’與‘納’，音義同。

【定省】澤之侍母，故云。

記疑1215 (節要1617 : 知舊門人問答163) (晦庵集 卷58)

答陳器之

【○答陳器之 木鍾集】出《禮記》。木謂學者，鍾謂教者。攻堅木者，必先其易而後其堅，如學者之先其易後其難。鼓鍾者，大其鼓則聲亦大，小其鼓則聲亦小，如教者問大則答亦大，問小則答亦小，隨問而答之也。

記疑1216 (節要1618 : 知舊門人問答164) (晦庵集 卷58)

答陳器之【問〈玉山講義〉.】

【○答陳器之【問〈玉山講義〉】 講義】 陳潛室問〈玉山講義〉，故此答書，與講義所記大同。○玉山，信州別號。先生自臨安大歸時，過玉山，信州宰司馬迓，請先生講論于學舍，故有〈玉山講義〉。

【綱理】 大綱條理也。

【無星之秤】 秤，即稱也。

【何以知其粲然有條如此】 自設問也。

【開鍵】 仁義爲禮智之開鍵。

【立之者兩耳】 兩，謂仁義也。

【是以謂之藏也】 惻隱·羞惡·恭敬之所歸藏也。

【萬化之機軸】 言貞終·元始，靜動所由處。

記疑1217（節要1619：知舊門人問答165）（晦庵集 卷58）

答葉味道【賀孫】

【○答葉味道】 名賀孫，一曰‘賀括’，蒼人也。

【力主此說】 此說，“主不當復于寢”之說。

【易擔改塗】 ‘擔’與‘簷’同。

【更釁】釁，與‘釁鍾’之‘釁’同。釁，塗其廟也。

【納新祔之主】自“《穀梁》”至此，言遷廟時節次。

【穀梁所謂】此下，論禮之可疑者。

【祭法】《禮記》篇名。

【叔母世母】《儀禮》。父之弟妻曰‘叔母’；父之兄妻曰‘世母’。

【可以通行】“食肉飲酒”之文，可以通行乎？

【自如】謂食肉飲酒。

【禫而從御吉復寢】《禮記》本註云：“從，鄭氏謂‘御婦人。’”杜預謂“從政而御職事”，杜說近是。吉祭，四時之常祭也。禫祭之月，則踰月而吉祭，乃復寢也。復寢，乃平時婦人當御之寢耳。

【禮既無文即當自如】小功總，則禮既無文，即當自如也。自如，謂‘飲食居處，不異於常日’也。

【就成於女家】就成婚禮於女家也。

【女之本喪喪】或云：“當作‘奔’。”

【若女之父母死止如之何】出嫁之女，爲其父母服，有降等之禮。但女雖已嫁，不歸夫家而在其父母家，則與出家女不同，故疑而問之。此謂女雖嫁而不歸夫家者也。

〔原頭不是〕 初不親迎，而就成於女家，久而未歸，此即原頭不是處。

〔在塗之禮〕 《禮記·曾子問篇》，有女之在塗奔喪之禮。

〔服自當降〕 雖不往夫家之女，既嫁則服有當降也。

〔趙丞相〕 汝愚。

〔姑姊妹〕 姑，父之姊妹。姊妹，己之姊妹也。

〔妻之黨〕 姑姊妹之黨。

〔主之而〕 妻之黨主之。

〔捨兄弟姪〕 捨，捨置也。

〔既無所附〕 捨兄弟姪之外，無爲主者，則無所附矣。不得已姑之兄弟姪之中主喪矣。

〔不貳斬〕 既當爲舅服斬，而又爲己父斬，則是貳斬也。故只服期，蓋尊無二之義也。

〔賤婦〕 味道自謂其妻。

〔反終其月數〕 歸其家而終其月數。

〔他人〕 雖指言他人，實則自謂其妻。

〔汰哉之謂〕 “汰哉⁴⁾叔氏！專以禮許人。”○註，“汰，矜大也。”⁵⁾

4) 汰哉：高大本에는 [추가 註‘汰哉’上, 一本有‘《禮記·檀弓》曰’.]이 있다.

〔門生之禮〕 門，謂恩門。

〔行間〕 衆人行列⁶⁾之間也。言不在前例也。

〔李敬子〕 燾，南康人。《宋史》在〈道學傳〉。

記疑1218 (節要1620 : 知舊門人問答166) (晦庵集 卷58)

答徐居甫

〔○答徐居甫〕 名寓，嘉興人。見《語類》。

〔分疏〕 情分之疏也。

記疑1219 (節要1621 : 知舊門人問答167) (晦庵集 卷58)

答徐志伯【造】

〔○答徐志伯〕

〔恨渠已去〕 渠，子澄。去，去衡州也。子澄知衡州，

5) 註汰矜大也：高大本에는 [소주 先生自謂.]가 있다.

6) 列：기존본에는 ‘例’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の 추기에 의해 고쳤다.

爲人所劾罷。

記疑1220 (節要1622 : 知舊門人問答168) (晦庵集 卷58)

答鄧衛老【綱。問《近思錄》。】

〔○答鄧衛老〕 名綱。

〔今作字〕 綱自謂也。

〔伊川在講筵〕 伊川嘗爲崇政殿說書。

〔不曾請俸〕 俸，祿俸也。如今受祿者，必請於該曹受祿牌，然後受祿，宋時亦然。伊川則不曾請俸。

〔封叙〕 封，謂封贈。叙，謂蔭叙。

〔常調〕 猶常例也。

〔却不當如此〕 不當如此，必請然後頒祿，必乞然後封蔭也。

〔難言之也〕 當時有人，以不曾請俸·不求封叙，問于伊川。伊川答云“其說甚長，難言之也”云。故先生引之。

〔從科舉法都改變了〕 科舉法조차 다 改變ㄴ也。

記疑1221 (節要1623 : 知舊門人問答169) (晦庵集 卷58)

答張敬之【顯父】

〔○答張敬之〕 顯父.

〔不揆〕 不揆其分也.

記疑1222 (節要1624 : 知舊門人問答170) (晦庵集 卷58)

答丁賓臣【碩】

〔○答丁賓臣〕

〔如以爲然〕 以先生之言爲然也.

〔幸寬其咎〕 寬其先生直言之咎.

記疑1223 (節要1625 : 知舊門人問答171) (晦庵集 卷58)

答黃嵩老

〔○答黃嵩老〕 名景中。

〔中歲〕 五十。

記疑1224 (節要1626：知舊門人問答172) (晦庵集 卷58)

答黃令裕【一作‘黃敬之’。】

〔○答黃令裕〕 孝恭。

記疑1225 (節要1627：知舊門人問答173) (晦庵集 卷59)

答林正卿

〔○答林正卿〕 名學蒙，福州人。道南書院山人。

〔誤得他人〕 他人을 그르 믿드라。

〔馳驚於外〕 以上言季通病處。

〔吾人〕 謂正卿。

〔好處止所偏〕 季通之好處與所偏也。

〔問 渠謫居〕 渠，亦指季通。

【旬呈】 謫居之人，有旬呈之事。疑如今旬日手本之事。正卿欲令季通免旬呈之事，故先生云。

【第二 排布硬說】 以私意安排布置，而堅硬作道理說。

【旁行橫讀將去】 마르리라단 말¹⁾리라.

記疑1226 (節要1629 : 知舊門人問答175) (晦庵集 卷59)

答程次卿

【○答程次卿】 永奇²⁾，號格齋。

【示喻存心之說】 次卿之意，以爲存心之法不當出位而思云云，而未知心有主宰則千思萬慮未害其爲存心，故先生如此云云。

記疑1227 (節要1630 : 知舊門人問答176) (晦庵集 卷59)

1) 말 : 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마’

2) 永奇 : 기준본에는 ‘永寄’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答龔伯著

〔○答龔伯著〕³⁾

〔不免兩用其心〕 伯著喻以門戶衰⁴⁾微⁵⁾故，而不免用心於科學之文云云。

記疑1228 (節要1631 : 知舊門人問答177) (晦庵集 卷59)

答汪叔耕

〔○答汪叔耕〕

〔用力於文詞〕 叔耕徒有嚮道之勤·衛道之切，而不求其所謂道者；用力於文詞，而不知窮經觀史，故先生云云。

〔鄉往於人〕 謂‘鄉道之勤·衛道之功’。

〔口舌馳說〕 謂‘用力於文詞’。

3) 答龔伯著 : 今按:《全書》에는 ‘答龔伯善’으로 되어 있으나, 그 校勘注에 閩本·浙本·天順本에는 모두 ‘答龔伯著’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4) 衰 : 國中本2 ‘衰’

5) 微 : 國中本1 ‘微’

【校其利害】校其文詞之利害.

【第二 蔽】音치.

【果然一飽】《莊子》云：“腹有果然.”果，猶充也.

【所論】叔耕之所論也.

【單傳密付之三昧】⁶⁾單傳又密付 ㄷ 則. ○疑皆佛經語. 單傳，猶一言傳道也. 三昧，詩家註“正受也”，乃妙得之意. 西域以‘三’字釋云‘正’，但未詳‘昧’字爲‘受’耳.

【不欺論中】叔耕嘗作〈不欺論〉，送示于先生，故云云.

【忘心忘形】自此至“每現輒變”，皆〈不欺論〉中語.

【接物】“將從”之意，止此.

【求之】求其學問.

【狂易】易，如字. 狂者，易其常性，故云狂易.

記疑1229 (節要1632 : 知舊門人問答178) (晦庵集 卷59)

6) 單傳密付之三昧 : 高大本에는 [추가 ‘昧’, 此云‘正定’, 非謂梵語‘正受’. 但謂正定中受之法耳. 見《法華經》註.]가 있고,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昧’, 此云‘正定’, 非謂梵語云‘正受’, 但謂猶正定中受用之法耳. 見《法華經》註.]가 있다.

答李元翰

〔○答李元翰 未說到行處〕 行處，即義也。

〔纔說合於心者〕 疑元翰之說，合於心者行之，不合於心者不行，便是仁云云耳。

〔此心常存〕 仁。

〔審度事理〕 義。

〔蓋此〕 此，謂仁。

記疑1230 (節要1633 : 知舊門人問答179) (晦庵集 卷59)

答方履之

〔○答方履之 難者過之〕 文義之難曉處，不強求通而過之。杜詩⁷⁾，“讀書難字過”，方欲效此耳。

記疑1231 (節要1634 : 知舊門人問答180) (晦庵集 卷59)

7) 詩 : 기준본에는 ‘時’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1·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答方若水【壬】

〔○答方若水〕 壬.¹⁾

〔靜退之說〕 不求名利而靜退也.

記疑1232 (節要1636 : 知舊門人問答182) (晦庵集 卷59)

答竇文卿

〔○答竇文卿〕 從周.²⁾ 丹陽人.

〔似彼〕 彼, 謂卞論而不能行者. 下‘彼’字同.

〔第二 向裏³⁾工夫〕 “切忌”之意, 止此.

〔當時祭〕 맞당히 時祭乙 爲乙거시잇가 말거시잇가.

〔熹家則〕 此下先生言爲內子喪時事.

〔忌者喪之餘〕 文卿亦問, 爲妻喪時, 行祖先忌祭與否, 故答之.

1) 壬 : 高大本·國中本1 ‘任’

2) 從周 : 高大本 ‘從用’

3) 裏 : 기준본에는 ‘理’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年月篇中】疑文卿妾子，而問所生之母，題主何稱，祭於何所，故此下如是答之。

【母字下】此‘母’字，以妾子言其母。

記疑1233 (節要1637 : 知舊門人問答183) (晦庵集 卷59)

答李公晦

【○答李公晦】⁴⁾名方子，號果齋。

【火點】猶點火. 불혀다.

記疑1234 (節要1638 : 知舊門人問答184) (晦庵集 卷59)

答李處謙

【○答李處謙】守約.⁵⁾ 濱老之子。

4) 答李公晦 : 기준본에는 ‘答公晦’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5) 守約 : 今按: ‘守約’은 李處謙의 형인 閔祖의 字이므로 李處謙의 이름인 ‘壯祖’가 적합할 듯하다. 《節要》에 붙인 小註에는 ‘壯祖’라 하였다.

〔有無之實〕 謂已長.

〔舍此拙法〕 拙法, 謂“欲去之心, 便是能去之藥”也.

記疑1235 (節要1640 : 知舊門人問答186) (晦庵集 卷59)

答楊子順【履正】

〔○答楊子順〕 履正.

〔曰此亦口耳之習耳〕 道學便曰: “此亦出口入耳之習耳.”

〔吾將求其躬行力踐之實〕 躬行力踐之實, 指謂禪家心地工夫.

〔猜防〕 以猜忌之心, 防備他人.

〔入得他〕 他, 指聖賢.

〔此等處〕 謂‘猜忿¹⁾’·‘猜防’處.

〔打得過〕 粗疏, 故此等處, 却似打得過也.

1) 猜忿: 今按: 《節要》(陶山本) 해당 본문에는 ‘猜忿’으로 되어 있으나, 《節要》海州本과 《全書》에는 ‘猜忿’으로 되어 있다. 《記疑》의 대본이 《節要》海州本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記疑1236 (節要1641 : 知舊門人問答187) (晦庵集 卷59)

答吳仲【玘】

〔○答吳仲〕‘玘’，與‘蟻’通用，音玘，一音玘。

〔乃可相授〕章子厚請學數學於康節，康節云：“徒長奸雄。”遂絕之。

〔此數端者〕謂‘新奇’·‘偏宕’處。

記疑1237 (節要1642 : 知舊門人問答188) (晦庵集 卷59)

答吳斗南【人傑】

〔○答吳斗南〕人傑。

〔未有以自入〕自，謂入收放心工夫入頭處。

〔已在是矣〕言其心不放也。

〔見問參考〕斗南，‘見聞之博·參考之詳’之人，故亦言此。

【第二 心不耐閒】 閒，虛閒也。心地活夷，不爲事物之累，謂之虛閒¹⁾也。²⁾

【根本之學】 自“此³⁾後”至此，斗南之言。

【無思無爲】 〈繫辭〉“易，無思，無爲也，寂然不動，感而遂通天下之故。”斗南無思無爲而問之，故答之云云。

記疑1238 (節要1643 : 知舊門人問答189) (晦庵集 卷59)

答輔漢卿【廣】

【○答輔漢卿】 漢卿，嘉興人。嘉興，去臨安不遠，疑往來于都城，故云身在都城。

【金華同門】 金華山在婺州，婺州亦謂金華。指呂東萊。漢卿曾從東萊。

【○⁴⁾第二 舊作諸書】 先生自言其舊作諸書。

1) 閒：國中本1 ‘用’

2) 也：高大本에는 없다.

3) 此：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의 [추가 ‘此’]에 의해 보충하였다.

4)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⁵⁾徙居閒曠】⁶⁾疑漢卿徙語溪時.

【風力稍勁】⁷⁾小人攻善類之聲威氣勢，謂之風力.⁸⁾
稍勁，謂漸緊也.⁹⁾

【報漕司考校之語】柴中行報漕司¹⁰⁾事，見《宋鑑》
寧宗 慶元三年. ○漕司，轉運使¹¹⁾，如今監司.¹²⁾考
校，褒貶考校也，大概薦狀事也. 是時，不係僞學云云
然後乃薦.¹³⁾

【州郡申省狀】州郡申狀于中書省，言“某人年滿七
十，當致仕云云.”

【斷置】斷置其禍機.

【阻止者】阻止其申狀也.

【書館】漢卿之書館也.

【在彼者】摠指在都中人.

5)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6) 徙居閒曠：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徙居’上, 有‘【見此】，“見”，猶見今也.】’가 있다.

7) 風力稍勁：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風力’上, 有‘【挨泊】，撥合也，依泊也.】’가 있다.

8) 風力：諸 異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9) 漸緊也：高大本에는 ‘也’가 없다.

10) 漕司：國中本1 ‘曹司’

11) 使：諸 異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12) 監司：高大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13) 云云然後乃薦：高大本에는 [소주 云云然後乃薦.]으로 되어 있다.

〔○¹⁴⁾相呈〕 相呈，其‘大疑’·‘大悟’處也.

記疑1239 (節要1644 : 知舊門人問答190) (晦庵集 卷59)

答陳思誠【景思】

〔○答陳思誠〕 景思.

〔詭僞之學〕 當時，道學爲僞學故云云.

〔正則之言〕 思誠問正則之言，故答之.

〔提空名〕 學問之空名.

記疑1240 (節要1645 : 知舊門人問答191) (晦庵集 卷59)

答陳衛道【鞏】

〔○答陳衛道〕 鞏.

〔裏許〕 許，猶所也.

〔舉起處〕 舉起處，亦禪語，如云“運水般柴”也. 衛

1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道引舉起處，問于先生，故云云。

〔其中更無是非〕 釋氏於其作用，則不分眞妄，而皆以爲眞，故云：“其中更無是非。”◎舉起之中，更無是非也。

〔○第二¹⁾ 所謂樂處〕 衛道言“有處樂”，故云云。

〔拈向一邊〕 所謂樂處，姑撥置別處，勿爲想像也。

〔攪聒〕 攪，猶搖動也。聒，어수선타. 攪聒于人。

〔六用不行〕 《楞嚴》，六入謂之六用。眼入色，耳入聲，鼻入香，舌入味，身入觸，意入法。

〔不須如此〕 此，謂‘顛倒作用’。

〔前書所譏〕 乃前書“用處七顛八倒，無有是處”之言。

〔不謂如此〕 不謂如此，“其接人處云云”止“不須如此”。

〔行處顛錯〕 言我前書所譏，不謂如公所云云之說，正謂其行處顛錯，故爲非也。

〔霎〕 삼. 잠간.²⁾

〔必竟〕 猶畢竟也。

〔舉起便是〕 舉起 ヽ ㅍ ㅅ 맛당이³⁾ 곧 이러하니.

1) 第二：高大本에는 없다.

2) 삼잠간：國中本1 ‘삼. 잠간’，高大本 ‘잠간’

〔此邊來〕 此邊，謂吾學。

〔一星子〕 星子，稱上斤兩之目，猶言無一點是處也。

記疑1241 (節要1646 : 知舊門人問答192) (晦庵集 卷59)

答陳才卿

〔○答陳才卿〕 文蔚，上繞人。

〔葛藤⁴⁾不斷〕 言不間斷也。此亦禪語，借用之。

〔○⁵⁾第二⁶⁾只是一本〕 “參前倚衡”，乃行之事，與“格物致知”，只是一本也。

〔○⁷⁾第三⁸⁾忽此紛紛〕 時論紛紛。

〔○⁹⁾第五¹⁰⁾水北〕 水北，必¹¹⁾是傅兄講學之所，未

3) 맞당이 : 高大本 ‘마당’

4) 葛藤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葛藤’上, 有‘〔**棒喝禪宗**〕 棒喝 ヽ 飛 P 禪宗 ㄴ. 禪宗問道, 或用棒打, 或呵喝而令悟道.’가 있다.

5)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6) 第二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第二’上, 有‘〔**對搭說相輪**〕 解見下.’가 있다.

7)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8) 三 : 國中本2에는 [추가 ‘二’]가 있다.

9)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0) 五 : 國中本2에는 [추가 ‘四’]가 있다.

11) 必 : 高大本·國中本1 ‘疑’. 今按: 문맥상 ‘疑’가 옳은 듯하다.

詳何地.

【相去不遠】與才卿所居之處, 相去不遠也.

【○12)第六13)擔閣】凡言止而不行謂之擔閣.

【不濟事】속절업다之意.

【○14)第七15)康節文字】謂數學.¹⁶⁾

【○17)第八18)硬差排不得】硬差排, 此心令其疏豁也. 不得, 못ㄷ다.

記疑1242 (節要1647 : 知舊門人問答193) (晦庵集 卷59)

答余正叔

【○答余正叔】大雅. 上饒人.

【這下】예.¹⁹⁾

12)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3) 六 : 國中本2에는 [소주 ‘五’]가 있다.

1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5) 七 : 今按: 《節要》의 편성 순서에 의하면 ‘八’이 되어야 할 듯하다.

16) 數學 : 國中本1·國中本2 ‘教學’ ; 國中本2에는 [추가 ‘教’疑‘數’. 【他本作‘數’】]가 있다.

17)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8) 八 : 今按: 《節要》의 편성 순서에 의하면 ‘九’가 되어야 할 듯하다.

〔兩片〕 義·利.
〔墮在此中〕 “遲疑支蔓之病”中.
〔○²⁰⁾第二 息念〕 息其思念.
〔就此〕 無事之時.²¹⁾
〔一直如此〕 猶言一向直如此也.
〔上蔡之說〕 惺惺法.

記疑1243 (節要1648 : 知舊門人問答194) (晦庵集 卷59)

答余方叔【大猷】

〔○答余¹⁾方叔大猷 并與其知覺者〕 此言草木之無知覺¹⁾, 非謂草木有知覺也.

19) 예 : 高大本에는 없다.

20)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21) 就此無事之時 : 高大本에는 없고, [추가 ‘〔就此〕 無事之時’, 當在‘一直’之上.]이 있다.

1) 余 : 國中本1 ‘如’

1) 覺 : 諸 異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記疑1244 (節要1649 : 知舊門人問答195) (晦庵集 卷59)

答趙共父【師鄭】

〔○答趙共父〕 師鄭.

〔第三 眞知而自欺〕 知而不行是‘自欺’.

〔委頓〕 困憊也.

〔尋求〕 “又不是”之意, 止此.

〔退一步低一頭〕 恭父言處世之事, 如言遜之類.

〔勿太近前〕 如“退一步·低一頭”之事.

記疑1245 (節要1650 : 知舊門人問答196) (晦庵集 卷59)

答趙致道【師夏】

〔○答趙致道〕 師夏.

〔理不可以偏全論〕 本原處都是理, 不可以偏全論也.

〔○¹⁾胡子同體而異用〕 五峯《知言》云: “天理人欲, 同體²⁾而異用, 同行而異情.” 朱子與南軒·東萊議

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曰：“同體異用，非矣。同行異情則是。”蓋食飲男女，聖人與衆人，皆不可無者。而但其情有公私不同，故同行異情爲是。

〔寄生〕 겨으사리.

〔疣贅〕疣, 혹. 贅,贅肉.

〔此雖亦誠之動〕 何叔京論龜山“人欲非性”之語，而³⁾不知何自而有此人欲？先生曰：“此問最繁。人欲云者，正天理之反耳。謂‘因天理而有人欲’，則可；謂‘人欲亦是天理’，則⁴⁾不可。蓋天理中本無人欲，惟其流之，有差，遂生出人欲來云云。”故惡亦謂誠之動也。

〔兩端〕善·惡.

〔○⁵⁾緣景而生〕未詳其義.

〔遽低一級〕一級乙 傳遞又 低ッヒ P.

〔作用〕猶言動作發用也.

〔感物〕

〔○⁶⁾或言爲富貴所移〕或，謂程子之言，“仕宦奪人志者，乃爲富貴所移也云云。”

2) 體：高大本‘行’

3) 而：今按：뒤에 ‘曰’ 혹은 ‘問’이 빠진 듯하다.

4) 則：高大本‘中’

5)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6)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窒礙處】 才仕宦，則或拘於法，或拘於人情，便是窒礙處也.

記疑1246 (節要1701 : 知舊門人問答197) (晦庵集 卷60)

答朱朋孫

【○答朱朋孫⁷⁾ 書冊之外別有實下工夫】 如主敬·窮理工夫.

【更易】 更易舊習也.

記疑1247 (節要1702 : 知舊門人問答198) (晦庵集 卷60)

答周純仁

【○答周純仁】 樣.

【固不足爲吾道之重輕】 新除拜之人，未能大賢，固不足爲吾道之重輕.

7) 朱朋孫 : 기준본에는 ‘朱明孫’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略能垂意〕 廟堂之人，略能垂意。

〔便起妄念〕 純仁，時居謫所，因除拜之事，便起放還之念，故云云。

〔固宜謹出〕 退溪先生言‘謹其出入’也，趙士敬疑‘謹出’字乃‘讀書’字之誤⁸⁾也。此說近是。⁹⁾

〔許多〕 許多書也。

〔來往勞費〕 純仁居謫，所以賀書冊事送人于先生處，故云。

〔內外之患〕 內，謂‘心無寧靜閒退¹⁰⁾之意’；外，謂‘飛揚躁擾之氣’。

記疑1248 (節要1703：知舊門人問答199) (晦庵集 卷60)

答周南仲【南】

〔○答周南仲〕 南.¹¹⁾

8) 誤：高大本‘語’

9) 是：高大本‘之’

10) 閒退：國中本1‘閒居’，國中本2‘閒’[추가‘閒退’]

11) 南：高大本에는 없다.

【如九方皋相馬之說】 秦穆公使方皋求良馬，得而反曰：“牝而黃。”往觀之，牡而驪。公不悅，伯樂曰：“皋得其精而遺其粗，在其內而忘其外焉。”馬至，果天下之良馬。

【言語之外也】 言語，聖賢言語也。“切不可”之意，止此。

【第二 三五次】 猶言三五番。

記疑1249（節要1704：知舊門人問答200）（晦庵集 卷60）

答孟良夫【猷】

【○答孟良夫 奉薦】 奉薦良夫也。

記疑1250（節要1705：知舊門人問答201）（晦庵集 卷60）

答許生【中應】

【○答許生 比擬非倫】 《禮記》曰：“擬人必於其

倫.¹²⁾”非倫，先生自謂。

【看話頭者】謂其言之題頭也。禪家謂：“道無不在，只謾舉一話頭，道便在此云云。”

【益信其幻妄而】彼既悟道之後，益信其恩·義·風·教爲幻妄，而處之愈安。

記疑1251 (節要1706 : 知舊門人問答202) (晦庵集 卷60)

答章季思【康】

【○答章季思 只以兩端】兩端¹³⁾，博文·約禮。

記疑1252 (節要1707 : 知舊門人問答203) (晦庵集 卷60)

答杜叔高【游】

【○答杜叔高¹⁴⁾】旌.¹⁵⁾

12) 倫 :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과 《禮記·曲禮下》에 의해 고쳤다.

13) 兩端 : 高大本에는 없다.

14) 杜叔高 : 高大本·國中本1 ‘叔高’

- 【仁里諸賢】 叔高，婺州人。諸賢，即諸呂等人也。¹⁶⁾
- 【第二 千生萬受】 生受，漢語云：“艱苦也。”千生萬受，言其艱苦之甚。
- 【胡說亂道】 胡說¹⁵⁾ 亂道¹⁶⁾也。胡，간대로.
- 【冷看】 우이¹⁷⁾ 녀겨보다. “若被”之意，止此。
- 【辛丈】 辛幼安，字棄疾。本生長于金，與¹⁸⁾其友讀書，一日得其卜¹⁹⁾，來宋。號稼軒。有將略。
- 【彼中見聞】 彼中，謂叔高所居之處；見聞，謂見聞辛丈之事。

追錄²⁰⁾

【答余正叔 對塔²¹⁾說相輪】 本程子語。塔之有相輪，未詳何物。其意謂‘觀塔者，不由中而上，層層歷覽，但身²²⁾在平地²³⁾，對塔而指說相輪之狀，雖能言之，其

15) 旂：今按：《節要》와 《全書》에는 ‘游’로 되어 있다.

16) 等人也：高大本에는 없다.

17) 우이：國中本1 ‘위이’

18) 與：기준본에는 ‘興’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19) 卜：기준본에는 ‘福’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20) 追錄：여기 追錄의 내용은 《定本 退溪全書》5, 〈答李仲久問目【《朱子大全》疑義】〉(KNL0095)에 그대로 나온다.

21) 塔：高大本 ‘櫺’

於觀塔，了無實得.’此空言不淺實者，終無實得之比。謂‘正叔平日，此意慣熟，所以其病如此，須是勇改，乃佳.’

【答徐子融 鷄抱卵】²⁴⁾ 鷄之抱卵，無時廢輟，令溫氣接續則成雛，才冷則不成矣。僧家以此比其功夫接續，乃能成佛。此言非失也，但其所學之道非耳。子融不辨其道之非，而惟攻其言之失，故云云。

【答輔漢卿 鈍者既難揍泊】 揍，訓投也。言‘鈍質無受教之地，道理無所投聚停泊也。敏質又輕捷，容易聽受過了，不能堪耐勞煩積久功夫也.’

【看此火色】 此指言當時世道氣象，而或云風色，或云風力，蓋不欲斥言，故爲隱語以見意耳。

【答陳衛道 運水般柴】 運般，轉移也。彼以轉移柴水之類，皆爲神通妙用，更不問道理如何也。

22) 身：高大本에는 없다.

23) 地：기준본에는 뒤에 ‘上’이 있으나, 國中本2와 《定本 退溪全書》에 의해 삭제하였다.

24) 答徐子融鷄抱卵；이 조목부터는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해당 내용은 마찬가지로 《定本 退溪全書》5, 〈答李仲久問目【《朱子大全》疑義】〉(KNL0095)에 그대로 나온다.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三

記疑1301 (節要1708：知舊門人問答204) (晦庵集 卷60)

答汪易直

〔答汪易直 芻豢〕 獸，食草曰‘芻¹⁾’，食穀曰‘豢’。芻豢，食草穀之獸也。

〔禁制抑遏〕 如自訟之事。

記疑1302 (節要1709：知舊門人問答205) (晦庵集 卷60)

答彭子壽【龜年】

〔○答彭子壽〕 龜年。

〔大學於此〕 疑子壽之齋號‘毋自欺’。

〔摯御之箴〕 ‘摯’與‘褻’同。褻御，近習之常侍左右者。

1) 芻：高大本·國中本2 ‘芻’

記疑1303 (節要1710 : 知舊門人問答206) (晦庵集 卷60)

答折子明

〔○答²⁾折子明 使人〕 ‘使’, 音시.

〔快於其心〕 快於小人之心.

〔四面之責〕 責, 謂求墓文之責.

記疑1304 (節要1711 : 知舊門人問答207) (晦庵集 卷60)

答劉君房【元城之孫】

〔○答劉君房〕 元城之孫.

〔餘論〕 白水之餘論.

〔爲憂〕 以門戶衰微爲憂也.

記疑1305 (節要1712 : 知舊門人問答208) (晦庵集 卷60)

2) 答 : 高大本·國中本1에는 없다.

答曾無疑【三異】

〔○答曾無疑〕 名三異.

〔三復以還〕 以還，猶以來也.

〔不止於此者〕 此，謂詩文.

〔藩籬〕³⁾ 世俗之藩籬也.

〔彼善於此〕 彼，謂學問；此，謂詩文.

〔如前之說〕 ‘一闢其藩籬，彼善於此之計’也.

〔如後之說〕 ‘勇革舊習，一蹴至道’也.⁴⁾

〔科禁〕 僞學之科禁也.

〔恐非賢者進取之利〕 ‘枉顧’之事，恐非賢者進取之利也.

〔未動之前〕 未發行之前.

〔○⁵⁾第二 固有而循習之者〕 即‘人之所異於禽獸者’也.

〔昔之舊者〕 即‘自謂學無本原’也.

3) 藩籬：高大本에는 [추가] 道學之藩籬，非世俗之藩籬. 註說不然.]이 있고,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一闢藩籬’, ‘藩籬’者, 道理之藩籬, 非世俗之藩籬也. 註說恐未然也.]가 있다.

4) 也：高大本에는 없다.

5)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今日之新矣】 即‘古聖賢之遺訓’也. “知”字⁶⁾意, 止此.

【吾人】 謂曾無疑.

【一知半解】 一知, 乃一事之知; 半解, 乃半言之解.

【○⁷⁾第三 令兄喪期】 兄喪服制之期.

【○⁸⁾第四 非如前者】 謂‘淺言之’也.

【檢狎】 狎, 猶檢束.

【今且以所舉】 無疑之所舉.

【自辨⁹⁾以求合】 無疑, 於孝悌忠恕¹⁰⁾, 欲其自辨以求合, 故如是云云.

【放下】 放下其自辨¹¹⁾求合之心¹²⁾也.

【便依¹³⁾此說】 先生自謂此書中所言之說.

【○¹⁴⁾盡所懷爾】 “計”字之意, 止此.

6) 字 : 기준본에는 ‘學’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의 추기에 의해 고쳤다.

7)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8)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9) 辨 : 《記疑》의 諸 板本에는 ‘卜’으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아래 주석의 ‘辨’도 마찬가지이다.

10) 恕 : 기준본에는 ‘信’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의 [추기 ‘恕’]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11) 辨 : 《記疑》의 諸 板本에는 ‘卜’으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12) 心 : 高大本 ‘意’

13) 便依 : 기준본에는 ‘便’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 및 《節要》에 의해 고쳤다.

1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記疑1306 (節要1713 : 知舊門人問答209) (晦庵集 卷60)

答曾擇之【祖道】

〔○答曾擇之〕

〔以今人〕 通謂唐時之人。

記疑1307 (節要1715 : 知舊門人問答211) (晦庵集 卷60)

答李誠之【誥】

〔○答李誠之〕 註，“苗·劉之變．金人將至楊州，高宗亟出車駕，駐¹⁵⁾驛抗州．御營將苗傅·劉正彥作亂，露刃宮門，請上禪位於皇子敷．【音孚】¹⁶⁾上¹⁷⁾樓撫諭，李邴亟趨前，責叱二凶，欲欲稍息．又諭殿帥王元擊賊，元唯唯．公扣宰相朱勝非，問計策．傅等皆在，邴反覆鐫詰，人爲公危，公無懼色，退勸勝非密引外援制

15) 駐：國中本1 ‘輕’

16) 音孚：기준본에는 본문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에 의해 小註로 고쳤다.

17) 上：國中本2에는 [추가 ‘登’]이 있다.

賊. 又謂傅所驗者正彥, 正彥則倚王世修爲謀主, 宜陽許世修侍從以間之, 蔑不濟矣. 見《言行錄》及《史略》云云.”

〔先正〕 李邴.

〔少見〕 音現.

〔別嫌明微〕

〔尊復明¹⁸⁾辟四字〕 苗·劉之變, 高宗見廢, 邴與張守分¹⁹⁾撰請復辟表及批答. 上御朝明日, 賜公親札²⁰⁾, 略曰: “卿毅然正詞氣, 折兇醜, 萬象動色, 具臣覲顏云云.” 先生所作序, 有“離貳逆黨, 尊復明辟”之語.²¹⁾

〔雖由外濟之語〕 苗·劉之變, 呂頤浩·張俊帥師勤王, 韓世忠爲前軍, 張俊翼之, 見《史略》. 是乃外濟之功. 故朱先生作序, 有“平賊之功, 雖由外濟”之語. 誠之欲專歸功於其父, 欲去‘外濟’之語, 故先生云云.

〔朱丞相所記〕 朱勝非欲免後世之譏議, 詳當時之事以明之.

〔呂張〕 呂頤浩·張俊.

18) 復明: 기준본에는 ‘明’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 및 《節要》에 의해 고쳤다.

19) 張守分: 기준본에는 ‘長守分’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20) 札: 기준본에는 ‘扎’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21) 辟之語: 高大本에는 뒤에 ‘云云’이 있다.

〔李趙〕 李綱·趙鼎.²²⁾

記疑1308 (節要1716 : 知舊門人問答212) (晦庵集 卷60)

答徐崇父〔僑〕

〔○答徐崇父〕²³⁾ 疑其非本有耶〕 崇父以“隱几而卧”，既以爲然，而又疑‘敖惰，非聖人本有之性’，不知‘當敖惰而敖惰，是乃當然之性’，故云云.

〔偏却〕 謂偏僻處.

〔照管〕 “恐”字之意，止此.

〔看此重處〕 看《大學》之意. 止此.²⁴⁾

〔正意〕 《大學》之正意.

記疑1309 (節要1718 : 知舊門人問答214) (晦庵集 卷60)

22) 鼎 : 高大本 ‘正’

23) 答徐崇父 : 기준본에는 ‘答徐崇文’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節要》에 의해 고쳤다. 아래 주석의 ‘崇父’도 마찬가지이다.

24) 止此 : 今按: 衍文인 듯하다.

答潘子善【時學】

〔○答潘子善〕²⁵⁾

〔學之難易〕 獨學爲難，而從師友則易.

〔○²⁶⁾自有所至矣〕 自“人之爲學”至此，程子言. 見《近思錄》.

〔觀顏子〕 “觀”字之意，止於“進步”下.

〔○²⁷⁾略綽〕 綽，漢語，쓰리티다.

〔彼說〕 敬仲之說.

〔判斷〕 先生判斷也.

〔純仁可念〕 純仁見謫，故可念.

〔○²⁸⁾自是一般〕 言非吾學也.

〔○²⁹⁾所編書〕 謂《儀禮》也.

〔書雖讀了〕 泛言讀書事.

25) 潘子善 : 기준본에는 ‘藩子善’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26)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27)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28)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29)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記疑1310 (節要1719 : 知舊門人問答215) (晦庵集 卷61)

答林德久【至】

〔○答林德久〕

〔蓋此等³⁰⁾〕 泛言題³¹⁾書事.

〔司馬宰〕 司馬 邊爲信州宰.

〔兩次〕³²⁾ 玉山說話及與一朋友說也.

〔○³³⁾彭書荷留意〕 先生與彭公書, 寄³⁴⁾林以傳, 而彼已謹傳, 故云.

〔外廷〕 朝廷也.

〔本根³⁵⁾之慮〕 本根乃君德也.

〔非晚〕 猶近者.

〔定須〕 須, 必也.

〔只見得他說〕 他說, 佛·老之語.

30) 等 : 기준본에는 ‘事’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31) 題 : 高大本에는 [추가 註‘題’恐‘著’字.]가 있고,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題’恐‘著’字.]가 있다. 今按: ‘著’가 옳은 듯하다.

32) 兩次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兩次’上, 有‘(一朋友) 陳老之.’]가 있다.

33)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34) 寄 : 기준본에는 ‘記’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과 國中本1·國中本2의 [추가 ‘記’恐‘寄’字.]에 의해 고쳤다.

35) 本根 : 《記疑》의 諸 板本에는 ‘根本’으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아래 주석의 ‘本根’도 마찬가지이다.

【意思情狀】 四者之意思情狀也.

【○³⁶)第四³⁷)終日於此】 於此, 謂持敬工夫.

【界限之說】 仁·義·禮·智·信之界限.

【○³⁸)第五³⁹)向來所論】 先生所論.

【○⁴⁰)融融洩洩】 融融, 和洽貌. 洩洩, 《韻會》, “舒散貌.”

【○⁴¹)近地教官】 德久欲求教官, 故云云.

【合須過嶺】 過嶺, 謂見謫也.

【○⁴²)常茶飯】 言常例也.

【干堂慣了】 干, 求也. 堂, 中書堂也. 當時宰相有用人一路, 人多求此, 故云云.

【俱往】 與事俱往.

【○⁴³)引年告老】 引, 猶引證也. 考戶籍, 而引證其年也.

【臺評播告後】 當時臺諫, 欲令先生致仕, 申明過年

36)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37) 四 : 國中本2에는 [추가 ‘五’]가 있다. 今按: ‘五’가 되어야 할 듯하다.

38)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39) 五 : 國中本2에는 [추가 ‘六’]이 있다.

40)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4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42)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43)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不致仕之法。

〔尸居餘氣〕 《莊子》云：“尸居而龍見，淵默而雷聲。”

記疑1311（節要1720：知舊門人問答216）（晦庵集 卷61）

答歐陽希遜〔謙之〕

〔○答歐陽希遜〕 謙之。

〔所謂徒守云云〔止〕作方〕 希遜之言。

記疑1312（節要1721：知舊門人問答217）（晦庵集 卷61）

答嚴時亨〔世文〕

〔○答嚴時亨〕

〔第二 疏義〕 漢唐諸儒於諸經，有〈疏〉，有〈正

義〉.

【首尾】 禮書首尾也.

【○⁴⁴⁾隙中日光之論】 隙之大小, 日光有大小. 程子喻以氣之清濁粹駁⁴⁵⁾, 性有不同也.

【同中識其所異】 同, 謂本然之理, 未嘗不同也. 異, 謂因其氣稟之不同, 而所賦之理, 因亦異也.

【○⁴⁶⁾上齒】 ‘上’與‘尙’同.

【即所謂遵也】 即《禮記》所謂遵也.

記疑1313 (節要1722 : 知舊門人問答218) (晦庵集 卷61)

答曾光祖【興宗】

【○答曾光祖⁴⁷⁾ 所論內外賓主之辨⁴⁸⁾】 “內外賓主”, 乃張子言. 詳見《論語》“回也, 三月不違仁.”註下.

4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45) 駁 : 今按: 문맥상 ‘駁’이 옳은 듯하다.

46)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47) 祖 : 高大本 ‘佐’

48) 辨 : 《記疑》의 諸 板本에는 ‘卞’으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아래 주석의 ‘辨’도 마찬가지이다.

光祖⁴⁹⁾論其內外賓主之辨，稟于先生，故云云。

〔只如前論用功〕 窮理而用功。⁵⁰⁾

〔要領〕 光祖已得其要領。

〔不易〕 “不易”之意，止於“致思”也。

〔○⁵¹⁾建昌之境〕 建昌，南康屬縣。此行，疑是知南康之行也。

記疑1314 (節要1723 : 知舊門人問答219) (晦庵集 卷61)

答曾景建

〔○答曾景建 先世遺法〕 先世，謂曾南豐。

〔空無簡便〕 指禪學。

〔專以是〕 是，謂文字。

〔不必似之也〕 南豐之言，止此。

〔及此乎〕 此，謂文章。

〔指本心〕 謂禪學。

49) 祖：高大本‘佐’

50) 窮理而用功：諸 異本에는 앞에 ‘只如所論，求其放心’가 있다.

51) ○：기존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講端緒〕 似指湖南學者.

〔○⁵²〕徧⁵³參〕 禪語. 徧造知道, 參謁而問道, 謂之‘徧參’. 先生引而用之.

〔爲喜也〕 景建爲喜也. “備知”之意, 止此.

〔二事〕 “主一”·“窮理”.

〔領解〕 猶領知也.

〔與柴君書〕 柴君, 柴中行也.⁵⁴ 景建與柴君書也.

〔外貪內虛〕 外攘夷狄, 內虛其國.⁵⁵ 比以此⁵⁶外攘異端而內欠工夫也.

〔於此等〕 謂排異端也. 景建有外貪內虛⁵⁷之病, 故云云.

〔○⁵⁸〕今因其行〕 因季通竄逐之行.

〔料理事〕 料理, 乃料檢整理之意.

〔○⁵⁹〕爲餘事〕 景建能文, 故如是云云.

52)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53) 徧 : 기준본에는 ‘編’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따라 고쳤다. 아래 주석의 ‘徧’도 마찬가지이다.

54) 也 : 高大本에는 없다.

55) 其國 : 國中本1·國中本2 본문에는 없다 ; 國中本2에는 [추가 ‘其國’]이 있다.

56) 比以此 : 國中本1 ‘欠以比’

57) 外貪內虛 : 기준본에는 ‘內貪外虛’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58)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59)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不好處〕 謂時文。

〔○⁶⁰⁾征苗之說〕 景建所作征苗之說。

記疑1315 (節要1724 : 知舊門人問答220) (晦庵集 卷61)

答張元德【洽】

〔○答張元德〕

〔縫罅〕 ‘縫’，去聲。 罅⁶¹⁾이라. 縫罅，道理之界分也。

〔各註其後〕 各註疏問說之後。

〔○信未及放不下〕 不能信命，而亦不放下科舉也。

〔且將此字〕 此字，乃命也。

〔未全得力〕 未全得力于命也。

〔見送行語〕 元德兄弟作甘君送行語。見，先生見之也。

〔令兄意〕 令兄，元德之兄。

〔○⁶²⁾衡陽之訃〕 趙汝愚見謫，而行至衡州，爲主守

60)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61) 罅 : 高大本 ‘罅’

所迫蹴，不得其死。

【勸彭丈】 元德，以學之事，勸彭丈也。然此戲言之者，豈可作實意看耶？

【成誦之說】 橫渠云：“教人讀必成誦。”

【寧略母詳寧疏母密】 先生語李方子，‘寧略母詳’等語，言固各有當也。略，是摠⁶³⁾略之略，非忽略之謂。疏，是疏通之疏，非疏漏之謂。《韻會》作‘疎’，或作‘疏’。詳，則細碎之謂，而非詳審之意也。⁶⁴⁾密，則拘滯之謂，而非精密之意也。

【歐嚴譚君⁶⁵⁾】 歐，歐陽希遜；嚴，嚴時亨；譚君，未知何人。

【○⁶⁶⁾通復二字】 《通書》云：“元亨，誠之通。利貞，誠之復。”⁶⁷⁾

【○⁶⁸⁾配義與道之說】 《孟子》“其爲氣也，配義與

62)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63) 摠：國中本1·國中本2 ‘總’

64) 也：高大本에는 없다.

65) 譚君：기준본에는 ‘譚君’으로 되어 있으나, 《節要》(陶山本)에 의해 고쳤다. 아래 주석의 ‘譚君’도 마찬가지이다. 今按: 《全書》에도 ‘譚君’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節要》(海州本)에는 ‘譚君’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記疑》의 대본이 海州本이었음을 암시한다.

66)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67) 通復……之復：高大本에는 없다.

68)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道”⁶⁹⁾，元德作說，稟于先生，故云云。

〔說得到此〕“怕見”及“都忘了⁷⁰⁾”之意，止此。

〔子約所說〕子約所說‘配義與道’也。⁷¹⁾

〔○⁷²⁾物欲之根存焉之說〕元德之⁷³⁾說。

〔○⁷⁴⁾只在學中〕如書院之類。

〔○⁷⁵⁾不解人意〕人，先生自謂。

〔根鈍〕氣質本鈍。

〔已上〕‘已’，音이。向上工夫也。

〔二三君〕歐·嚴及元德。

記疑1316 (節要1727：知舊門人問答223) (晦庵集 卷62)

答王晋輔【峴】

〔○答王晋輔 第三⁷⁶⁾恐彼此〕彼，謂晋輔。此，先

69) 孟子……與道：高大本에는 없다.

70) 了：國中本1·國中本2 ‘行’

71) 也：高大本에는 없다.

72)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73) 之：國中本2 ‘無’[추가 ‘了之’]

74)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75)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生自謂.

〔罪戾之蹤〕 先生自謂.

〔每言鄉學之意〕 每言晉輔鄉學之意. ◎晉輔乃子約之壻.

〔伐石攻木以爲事〕 言以刻碑爲事也.

〔鄙文何乃爲此〕 晉輔請刊行先生之文, 故云云.

〔載禍相餉〕 東漢 夏馥避黨禍, 爲治家傭, 弟靜載縑帛, 追之共宿, 中夜密呼靜曰: “吾苟全性命, 弟奈何載物相求, 是以禍見追也.”

〔○77)先儒說〕 先儒墓祭之說.

〔程糾〕 疑是程允夫. 糾, 如尉78)之屬.

〔年譜〕 未知何人年譜.

〔不被人瞞〕 音만, 平目也, 又目臉低也. ○欺瞞也. 人矣 欺瞞79)乙 被타80) 아니타.

〔可力致之〕 謂季章若未來, 晉輔當極力招致耳.

76) 三: 國中本2 ‘二’[추가 ‘三’], 高大本 ‘二’

77)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78) 尉: 高大本 ‘糾’

79) 欺瞞: 高大本 ‘기만’

80) 타: 高大本 ‘치’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三

記疑1317 (節要1729 : 知舊門人問答225) (晦庵集 卷62)

答杜仁仲

〔○答杜仁仲〕

〔第二 不小自恕〕 죠고매도⁸¹⁾ 스스로⁸²⁾恕타⁸³⁾
말면. 不自恕⁸⁴⁾, 謂不自寬假也.

〔○⁸⁵⁾二先生〕 謂兩程. 程子之言, 見《論語》.

〔○⁸⁶⁾又自表其〕 表, 明著也.

記疑1318 (節要1730 : 知舊門人問答226) (晦庵集 卷62)

答杜貫道

〔○答杜貫道〕

81) 죠고매도 : 高大本 ‘됴고매도’

82) 스스로 : 高大本 ‘스스로’

83) 타 : 高大本 ‘치’

84) 不自恕 : 高大本에는 없다.

85)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86)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多得⁸⁷⁾相處〕 先生與之相處也.

記疑1319 (節要1731 : 知舊門人問答227) (晦庵集 卷62)

答池從周

〔○答池從周〕

〔自有說處〕 ‘說’, 音열.

記疑1320 (節要1732 : 知舊門人問答228) (晦庵集 卷62)

答明文叔【璟】

〔○答明文叔⁸⁸⁾ 似已察於此者〕 察‘用心於內者, 失於驚高遠之學’.

87) 多得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多得’上, 有‘〔節次〕 吏文, 버금디금.]이 있다.

88) 明文叔 : 今按: 《節要》의 退溪注에 의하면 ‘胡文叔’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全書》에도 ‘胡文叔’으로 되어 있다.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三

記疑1321 (節要1733 : 知舊門人問答229) (晦庵集 卷62)

答奚仲淵

〔○答奚仲淵 示喻所聞〕 仲淵以所聞示喻.

〔義理之間〕 ‘理’當作‘利’.

〔恐坐此也〕 此, 無格致·敬直之功也.

〔舊遊〕 舊所同遊之人.

〔所與渠書〕 仲淵與德廣之書.

記疑1322 (節要1734 : 知舊門人問答230) (晦庵集 卷62)

答黎季忱

〔○答黎季忱 四者之先〕 四者, 謂《詩》·《書》·
《禮》·《樂》.

〔遽及此耶〕 此, 謂《易》也.

記疑1323 (節要1736 : 知舊門人問答232) (晦庵集 卷62)

答傅誠子

〔○答傅誠子〕

〔第二條〕 誠子⁸⁹⁾所問第二條.

〔討個書讀〕 書乙 討ッ也 讀ッ也.

記疑1324 (節要1737 : 知舊門人問答233) (晦庵集 卷62)

答高國楹

〔○答高國楹〕

〔力與之競〕 欲去‘不能處事’之病，而力與之競，猶與病爲敵之說也.

記疑1325 (節要1738 : 知舊門人問答234) (晦庵集 卷62)

89) 誠子：國中本1 ‘敬子’

答常鄭卿

〔○答常鄭卿〕

〔聞學中〕⁹⁰⁾ 疑鄭卿爲縣宰所構之學.⁹¹⁾

〔招致其餘〕 招致其未至者.

〔依本分識道理能作舉業者三數輩〕 此段重在‘依本分識道理’六字. 旣不能廢舉業, 只得如此, 所謂“教亦多術⁹²⁾”也.

〔圖之〕 圖其上所謂“三數輩”.

記疑1326 (節要1739 : 知舊門人問答235) (晦庵集 卷62)

答李晦叔【燁】

〔○答李晦叔 表裏〕 ‘讀書’, 表; ‘持敬’, 裏.

〔○⁹³⁾便疑都不曾做工夫〕 朱先生云: “若不知持敬·

90) 聞學中: 高大本 ‘聞學中’

91) 所構之學: 諸 異本에는 뒤에 ‘之也.’가 있다. 國中本2에는 ‘之’에 삭제 표시가 있다.

92) 多術: 高大本 ‘多術業’

93)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讀書爲一事，而有所偏，則便疑其人不做工夫。”疑，先生疑之也。

〔○⁹⁴〕向見說〕 “向見說”之意，至於“焚之”之下。

〔○⁹⁵〕問 便覺得身心如此〕 謂‘肥膚之會，筋⁹⁶骸之束’。

〔不當作兩句看〕 當作一意看。

〔著意安排也〕 晦叔所問，‘便覺得身心如此’與‘誠覺得如此’，乃著意安排也。

〔○⁹⁷〕伯叔兄弟〕 伯叔及兄弟。

〔相戾矣〕 吉服，則與常時無異，故云相戾矣。

〔冒哀守常〕 程子之意，蓋謂諸生遭期功之服，冒哀在學中如常者，不禁。

〔不暫釋〕⁹⁸) 此並言在官·赴學者。

〔○⁹⁹〕亦不謂此〕 龜山之說，亦不謂“爲已存者說¹⁰⁰)”也。

94)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95)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96) 筋：기준본에는 ‘筋’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97)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98) 不暫釋：高大本 ‘不暫釋麻’

99)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00) 說：今按：《節要》에 의하면 ‘設’이 되어야 할 듯하다.

【○¹⁰¹】諸侯之禮】 諸侯無二嫡之禮.

【橫渠之說】 乃“附¹⁰²以首娶，繼室別所”之說. ○
第六卷，答陳明仲書云“繼室爲別廟”，而此處則以橫渠
之說爲非. 蓋陳書五廟之說，恐只以龕爲廟耳.

【爲允】 允，猶當也.

記疑1327 (節要1740 : 知舊門人問答236) (晦庵集 卷62)

答余國秀【宋傑】

【○答余國秀 貼裏者】 貼裏，猶向裏也，乃古語.

【人之類耳】 “但謂不可”之意，止此.

【此】¹⁰³ 國秀所送之冊.

【○¹⁰⁴】著意舉一二事】 欲¹⁰⁵矯“苟且因循”之病，而
著意舉一二事也.

【說之】¹⁰⁶ 音열.

10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02) 附 : 今按: ‘附’가 되어야 할 듯하다.

103) 此 : 國中本2 ‘此冊’

10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05) 欲 : 高大本 ‘猶’

記疑1328 (節要1741 : 知舊門人問答237) (晦庵集 卷62)

答李敬子【燾】

【○答李敬子 不須如此做伎倆】 爲學，當平平地做將去久自有得處. 今云“以四勿靠定，又以義理融液¹⁰⁷⁾之”，是所以別做. 伎倆，猶技能也.

【才覺】 才覺爲害之時.

【○¹⁰⁸⁾隨其所知】 謂日用間所知之事.

【○¹⁰⁹⁾問 儲之堂前】 此一條，燾欲爲同居之計，故如是云云.

【○¹¹⁰⁾若無正定義理則】 其爲不仕，若無正定義理則.

【○¹¹¹⁾以希恩霈者】 九十以上，有月致之事，故云

106) 說之：今按: 이 조목은 《節要》(陶山本) 이 편지 끝부분의 “此亦足以見其玩之未深矣.”에서 ‘玩之’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節要》 海州本·定州本에는 해당 글자가 ‘說之’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시 이 조목의 앞에 ‘○’을 보충하여야 한다.

107) 液：國中本1 ‘泛’

108)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09)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10)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11)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云.

【○¹¹²陳乞者】“恐”字之意，止此.

【刺破】刺破，猶改正也. 刺破冒增親年之事.

【乞備申省部】呈狀子于州縣，刺破冒¹¹³增親年，又乞其備狀子申于省部也. 備，猶거더. ◎六部并屬于¹¹⁴中書省，故六部皆云‘省部’. 此省部，疑戶部.

【照會】校正也.

【○¹¹⁵問¹¹⁶冒貫】貫，鄉貫也.

【○¹¹⁷經之所言】謂“知止而后有定，能靜·安·慮·得”也.

【知有淺深得有大小】知之淺則得亦小，知之深則得亦大.

【○¹¹⁸第五倫爲鑑】五倫云：“兄之子病，一夜十起而往見，能寐；吾子病，雖不往見，不能寐云云.”

【常欲二字】宋傑“常欲愛之”之‘常欲’二字.

112)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13) 冒：諸 異本에는 앞에 ‘其’가 있다.

114) 于：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於’

115)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16) 問：國中本2에는 없다.

117)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18)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雖有差等】古聖云：“愛兄之子如己之子。”張子云：“‘如’字是等處.¹¹⁹⁾”

【○¹²⁰⁾威如之吉】《易·家人卦》上九爻辭.¹²¹⁾ 治家之道，以正身爲本，故云.¹²²⁾

記疑1329 (節要1801 : 知舊門人問答238) (晦庵集 卷63)

答胡伯量【泳】

【○答胡伯量¹²³⁾ 詢諸人】以風水之事，審諸己，詢諸人也.

【塋竈】塋，塋域也. ‘竈’，音刳，壙中也.

【○¹²⁴⁾墳土未乾】言三年之內.

【○¹²⁵⁾執紼】紼，挽喪輦大索也. 古之送葬，執紼以

119) 等處：高大本에는 없다.

120)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21) 爻辭：高大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122) 故云：기준본에는 ‘云故’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高大本에는 없다.

123) 胡伯量：高大本·國中本1 ‘伯量’

124)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25)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隨之.

〔皆有所遺〕 遺，贈遺也.

〔○¹²⁶吉凶相襲〕 吉，薦新・告朔之禮. 凶，居喪.
若居喪親行此禮於宗廟，則此吉凶相襲也.

〔已除者〕 子弟中輕服，或¹²⁷已除者.

〔○¹²⁸祠版〕 謂位牌也.

〔家間〕 先生自言家中之事.

〔小孫〕 謂塾之子. 時塾已卒，故稱孫.

記疑1330 (節要1802 : 知舊門人問答239) (晦庵集 卷63)

答李繼善【孝述】

〔○答李繼善〕 敬子之姪.

〔已用力處〕 已, 이미.

〔○¹²⁹尊厭之例〕 於此尊厭，不備禮. 未詳¹³⁰何意.

126)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27) 或 : 高大本에는 없다.

128)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29)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30) 詳 : 國中本1·國中本2 ‘嘗’[추가 詳]

記疑1331 (節要1803 : 知舊門人問答240) (晦庵集 卷63)

與旻亞夫【淵】

〔○與旻亞夫〕 名淵.¹³¹⁾ ‘旻’, 音 환.¹³²⁾

〔信蜀土之多奇也〕 古語也. 范文叔·劉德修·游判院·旻亞夫, 皆蜀人也.

〔直待於此〕 於此, 謂持敬工夫也. “直待”之意, 止於“如一”之下.

〔○¹³³⁾區區僞學〕 先生自稱.

記疑1332 (節要1804 : 知舊門人問答241) (晦庵集 卷63)

答郭子從【叔雲】

〔○答郭子從〕 名¹³⁴⁾叔雲.

131) 名淵 : 高大本·國中本2에는 없다.

132) 환 : 國中本2 ‘환’

133)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34) 名 : 高大本에는 없다.

〔人子之遭此〕 遭其父尊信浮屠。

記疑1333 (節要1805 : 知舊門人問答242) (晦庵集 卷63)

答葉仁父

〔○答葉仁父 其自至者〕 指“榮悴休戚”而言.¹³⁵⁾

〔其不至者〕 亦指“榮悴休戚”.¹³⁶⁾

〔區區〕 先生自謂。

〔嘗言之〕 爲其人言之而求其官也。

記疑1334 (節要1806 : 知舊門人問答243) (晦庵集 卷63)

答孫敬甫

〔○答孫敬甫 尙恨未際〕 際，會見也。

〔盛言〕 敬甫也。

135) 而言 : 高大本에는 없다.

136) 其不……休戚 : 高大本에는 없다.

- 《 既曰 》 敬甫既曰也.
- 《 反疑云云 》 此亦¹³⁷⁾敬甫之言.
- 《 見告 》 見告于朱先生.¹³⁸⁾
- 《 以先後之也 》 主敬·致知，以先後之也.
- 《 猶不失於爲己者 》 如心學者之類.
- 《 雖所未論 》 程子兩言，來喻中所未論.
- 《 顧恐於此 》 此謂“循序致一·積累漸進”之功.
- 《 薄冗 》 薄，猶迫也. 薄於冗事也.
- 《 ○¹³⁹⁾所能避就也 》 避禍就安.
- 《 不可不存 》 “因胸次”以下止此，敬甫之所言.
- 《 所居既廣 》 “持敬”，故所居既廣.
- 《 所向坦然 》 “致知”，故所向坦然.
- 《 見得此意 》 此謂“持敬·致知”.
- 《 非其匹儔 》 陸氏之學，固自卓然，非浮淺頗僻議論¹⁴⁰⁾者之¹⁴¹⁾匹儔也.
- 《 分明招認 》 招認，乃복토타답이라. 晁·陳，自以禪

137) 亦：高大本‘是’，國中本1·國中本2‘示’[추가 ‘亦’]

138) 朱先生：高大本‘先生’

139)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40) 論：國中本1‘語’

141) 之：高大本·國中本1·國中本2‘之所能’

學，分明招認也。

〔著實受用〕 以禪著實受用。

〔得力處〕 於禪學有得力處也。

〔不必如此〕 “不必如此”之意，止“之域也”之下。

〔須但知其如此〕 知其禪學之如此。

〔釘釘膠粘〕 釘釘，몬¹⁴²⁾마가 굿게 혼단¹⁴³⁾마리오.¹⁴⁴⁾ 膠粘，플로¹⁴⁵⁾브티듯 혼다 마리라.¹⁴⁶⁾

〔索漏露處〕 索，ㄴ장之¹⁴⁷⁾意。

〔所自來〕 禪。自禪學之來也。

〔有兩語云〕 “瞑目”止“端緒”，是兩語也。¹⁴⁸⁾

〔譏杜季良〕 馬援譏杜，而終以此被禍，故云云。“切勿”之意，止此。

〔此意〕 太極之意。

〔瞑目切齒〕 禪學者伎倆也。¹⁴⁹⁾

〔蔭補事〕 當時，有以致仕恩澤官一子之法。此間蔭

142) 몬：高大本 ‘뭇’

143) 단：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다’

144) 마리오：高大本 ‘말이오’

145) 로：高大本 ‘노’

146) 마리라：高大本 ‘말이라’

147) 之：高大本에는 없다.

148) 也：高大本에는 없다.

149) 也：諸 異本에는 없다.

補事，乃官一子之事，故其下云云.

【前期】謂蔭補之前期.

【審之省曹否耶】省曹，戶部¹⁵⁰⁾也. 猶言審其官年於省曹¹⁵¹⁾否耶.

【○¹⁵²⁾想象個無所不通底意象】想象，其格物致知無所不通底意象也.

【見得此意頗分明】此意，格致之意也. 修禮書，則“必從事於其實”·“博考”·“參稽”，故因修禮書，而見得此意頗分明.

【○¹⁵³⁾動著他】他，謂心也.

【渠信未及】渠，子約.

【正命之說】《孟子》，“盡其道而死者，正命也.”
敬甫問之，故答之.

【近世前輩】未知何人.

【亦須識得】識得其‘前輩與聖賢做處不同者’.

150) 部：高大本‘曹’

151) 曹：國中本2‘部’

152)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53)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記疑1335 (節要1807 : 知舊門人問答244) (晦庵集 卷63)

答孫仁甫【自任】

〔○答孫仁甫〕 154)

〔愈隙〕 “今世講學”止此，仁甫所論。

〔待者〕 “不必王道之行”止此，亦仁甫之言。

〔能出於此者〕 此，謂道學也。¹⁵⁵⁾

〔賢兄〕 仁甫之兄。

〔○¹⁵⁶⁾其或有之〕 有其英¹⁵⁷⁾氣也。

〔皆無此矣〕 無小學之事。

〔一時信筆之所及〕 謂不以素所積疑悻憤者爲問，特因一時，從筆墨所及之事而問之。言其¹⁵⁸⁾不切也。

記疑1336 (節要1808 : 知舊門人問答245) (晦庵集 卷63)

154) 答孫仁甫：高大本‘孫仁甫’

155) 也：高大本에는 없다.

156)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57) 英：國中本2에는 없다.

158) 言其：高大本‘其言’

答余正甫

〔○答余正甫 陳義〕 陳其義理。
〔不必同〕 乃正甫之意。
〔有以脅之〕 脅之先生也。
〔是不可同〕 未知指何言語。
〔且爲荊舒〕 謂王安石也。 正甫此言過當，非與長者言謙順之意，故¹⁵⁹⁾先生非之。
〔如前〕 猶云如前說也。
〔○¹⁶⁰⁾北使〕 謂金使也。
〔辭〕 北使辭歸之日。
〔南內問安之日〕 南內，光宗所居之宮。
〔遂即其處〕 其處，南內也。
〔北使弔祭〕 弔孝宗之喪也。
〔受之〕 受其辭也。◎於南內受其辭，而不於殯宮者，不欲以衰服受其辭故也。故¹⁶¹⁾高宗之喪，王丞相必欲歸南內見使人也。

159) 故：高大本에는 없다.

160)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61) 故：高大本에는 없다.

【必欲歸南內】此南內，高宗皇后所居之宮。

【正衙受弔之說】正衙受弔，正甫所問之說。

【○¹⁶²）短喪 爲高宗服】‘爲’，去聲。孝宗爲高宗服喪三年。

【但爲人君】‘爲’，亦去聲。

【自不爲服】以日易月，故自不爲服。

【當時】孝宗時。

【機會】“破去千載之謬”，以爲一代制之機會。

【君服於上而臣除於下】孝宗行三年之喪，而群臣則短喪，故云：“君服於上，而¹⁶³）臣除於下。”

【去歲】孝宗之喪。

【大行】人主初喪，未葬稱爲‘大行’，猶今人遠行。

【亦不復講】寧宗爲孝宗喪¹⁶⁴），不能三年喪，故云：“孝宗所服之服亦不復講。”

【羔裘玄冠】正甫言“皂衫爲禪”，故引羔裘玄冠以言其非。

【選人小使臣】選人，乃參選吏部之人。小使臣，未詳，疑外方爲名¹⁶⁵）使臣，而官卑秩賤者也。選人¹⁶⁶）。

162) ○：기존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63) 君服於上而：高大本에는 없다.

164) 喪：高大本에는 없다.

小使臣，既非顯官之列，亦非庶人之例，故制爲服制。

【綿繻】如此習儀¹⁶⁷⁾也。

【小註 初喪】上文不言初喪節次，故於此言之。

【小註 以臨】哭臨也。

【○¹⁶⁸⁾魏元成加服】魏元成，魏徵也。

【加至五月】《儀禮》，曾祖之服，本齊衰三月，而魏元成仍爲齊衰，而加至五月也¹⁶⁹⁾，非降爲小功五月也。

【仍遵用之】曾祖之服¹⁷⁰⁾加至五月之法，仍遵用之。

【舊服小功】¹⁷¹⁾舊謂《儀禮》。

【同服大功】魏徵之意，以謂‘衆子婦則服小功，而兄弟之子婦則服大功，似爲倒置.’故奏云：“衆子婦小功之服，請與兄弟之子婦同服大功。”

【自無兄弟子婦之文】自無¹⁷²⁾兄弟子婦¹⁷³⁾服某服之文。

165) 爲名：高大本 ‘名爲’

166) 選人：高大本에는 없다.

167) 儀：高大本 ‘禮’

168)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69) 也：高大本에는 없다.

170) 曾祖之服：高大本에는 없다.

171) 舊服小功：高大本에는 [추가 一本‘舊服’上有爲有加. 古則齊衰三月，而元成加至五月，故云，爲有加.]가 있다.

172) 無：高大本에는 뒤에 ‘有’가 있다.

173) 子婦：기준본에는 ‘婦’라고만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庶婦】衆子婦也.

【親疏倒置】衆子婦則小功，而兄弟子婦則大功，故云：“親疏倒置.”

【同爲一等之服】同服大功.

【亦未見其倒置人倫之罪】正甫以元成同服大功之法，倒置¹⁷⁴⁾人倫之罪，故如是云云.¹⁷⁵⁾

【嫂叔之服】兄弟之妻謂嫂，夫之兄弟謂叔.

【先儒】程子.

【亦可】嫂叔，《儀禮》本無服，故程子曰：“雖制服¹⁷⁶⁾亦可.”

【徵議】徵亦嫂叔制服，故¹⁷⁷⁾云云.

【姨與舅】母之女兄弟謂姨，母之男兄弟謂舅.

【以同於姨則爲失耳】《儀禮》，舅之服總麻，姨之服小功也. 而¹⁷⁸⁾徵反加舅總麻之服，以同於姨之小功之服，則舅·姨之服，與外祖父母小功之服無差等，故爲失耳. ○姨，乃己之從母也，有母之道，故《儀禮》

174) 倒置：高大本 ‘爲倒置’，國中本1·國中本2 ‘置’가 없다.

175) 云云：高大本 ‘云’

176) 制服：기준본에는 ‘服制’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177) 制服故：기준본에는 ‘服制’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178) 而：高大本에는 없다.

姨之服，乃重於舅之服.

〔增損服制〕 乃謂元成增損服制.

〔坐以〕 坐，坐罪也.

〔失節事讐〕 正甫，以元成失節事讐・增損服制，合爲一罪，故先生如是云云.

〔當取節焉〕 當取其一節焉.

〔株連〕 株，猶條也.

〔○¹⁷⁹神坐上右 后主〕 后妃之主.

〔見於何處〕 正甫問“漢儀后主在帝之右”之說，故先生云：“不知見於何處.”

〔所定〕 《開元禮》所定.

〔不相似〕 《開元禮》，府君・夫人配位，以尙左，故云不相似.

〔考東妣西〕 正甫欲以考東妣西，故如是云云.

〔○¹⁸⁰皮弁素積〕 ‘積’，音冬. 素積，服名. 皮弁・素積，皆白色，此言天子常時之事.

〔○¹⁸¹禮經〕 《儀禮》.

〔嚴嫡〕 嫡，謂長子.

179)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80)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8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正經〕 謂《禮儀》.182)

〔無文〕 《儀禮》無兄弟子婦之文， 故云：“正經無文.”

〔報服 又 183)使然〕 衆子婦之服小功，而184)舊制兄弟子婦爲之大功，故云：“乃更重於衆子之婦.” 其所以於兄弟子婦爲大功者，兄弟子之婦爲夫伯叔父母亦服大功，故云：“報服使然.”

〔但升嫡婦以期〕 《儀禮》，嫡婦大功，而舊制兄弟子之婦亦大功， 而185)今升衆子婦小功之服， 與兄弟186)之婦同爲大功， 則與《儀禮》嫡婦大功之服187)無差等，而亦無嚴嫡之禮. 故且升嫡婦爲期.

〔不察其〕 正甫不察也.

〔○188)正位之北〕 東向之位，以南爲上，則以北爲下也. 故配位在正位之北.189)

182) 禮儀：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儀禮’

183) 又：高大本에는 없다.

184) 而：高大本에는 없다.

185) 而：高大本에는 없다.

186) 弟：國中本2에는 [추가 ‘弟子’]가 있다.

187) 服：國中本1·國中本2 ‘婦’

188) ○：기준본에는 없으나,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89) 正位之北：高大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記疑1337 (節要1810 : 知舊門人問答247) (晦庵集 卷64)

答鞏仲至【豐】

〔叔昌〕 潘叔昌也.

〔輕棄簞瓢之句〕 乃¹⁹⁰⁾仲至所作詩句.

〔武夷續詩〕 亦仲至之詩.

〔詩序〕 亦仲至所作.

〔駭俗聽耳〕 俗則以謂聖俞不及山谷, 而仲至則詆江西而進宛陵, 故駭俗聽耳.

〔河豚等篇〕 聖俞所作也.¹⁹¹⁾ 一時諸公, 稱道〈河豚篇〉, 謂之‘梅〈河豚〉’.

〔張徐之論〕 疑張文潛, 徐師川.

〔短章〕 聖俞所作.

〔○¹⁹²⁾尤先於言語〕 修辭居首, 故云云.

〔猶恐此事〕 此事疑‘修辭’.

〔或者賦詩之所咏嘆則〕 或者以修辭齋詩賦咏嘆.

190) 乃 : 高大本에는 없다.

191) 也 : 高大本에는 없다.

192)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然念此事〕亦指‘修辭’。

〔頓拙〕‘頓’，與‘鈍’通用。

〔顏謝〕顏延年，謝靈運。

〔沈宋〕沈休文，宋之問。

〔妄欲抄取〕“抄取”之意，止於“興衛”之下。“妄欲”之意，止於“胸次”之下。

〔若以爲可語此者故〕仲至之意，以我若以爲可語詩者，故。

〔漱六藝止眞澹〕仲至所論，作詩之法。

〔夙生〕猶言自初生。

〔此語〕“漱六藝之芳潤以求眞澹”之言。

〔透得此關〕此關，謂‘洗滌盡腸胃’之關。

〔權度未審〕在我之權度未審也。

〔彼時〕面論之時。

〔結絕修辭公案〕公案，乃公事文案也。修辭公案乙結絶호를 要爲乙地P大P.193)

〔○194)平談二字誤盡天下詩195)人〕非仲至之言，乃他人之言。仲至之書，引而論之。

193) 爲乙地P大P：高大本‘홀던덴’

194)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95) 詩：기준본에는 ‘時’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 및 《節要》에 의해 고쳤다.

- 〔出此〕 出於平淡.
- 〔沿革矣〕 仲至之言.
- 〔察於此者〕 謂平淡也.
- 〔近體〕 律詩謂之近體.
- 〔即非純古〕 仲至之言.
- 〔水落石出自歸此路〕 亦仲至之言. 仲至言‘作詩之功深造, 則自然出於平淡¹⁹⁶⁾, 如水落石出自歸此路’云. 故先生言其非也.¹⁹⁷⁾
- 〔英莖〕 太古之樂.
- 〔慮此〕 慮此, 爲有力者所牽挽也.
- 〔略同者〕 不知何謂.
- 〔○¹⁹⁸⁾烏石靈源〕 疑地名, 乃新詩所作之處.
- 〔寒門〕 北方有寒門.
- 〔記文〕 仲至所作記文.
- 〔悟老〕 記文所言之人, 疑僧也.
- 〔塌了一兩人〕 塌, 頽下也. 放翁晚年爲韓侂胄所迫, 作〈南園記〉. 其記但言南園¹⁹⁹⁾之景致, 雖不盛贊侂

196) 淡: 高大本·國中本2에는 뒤에 ‘路’가 있다. 國中本1 앞에 ‘路’가 있다.

197) 也: 高大本에는 없다.

198)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99) 南園: 기준본에는 南原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胄，而一時多有議論。先生此言，疑爲放翁作記事發也。然未詳。

記疑1338 (節要1811 : 知舊門人問答248) (晦庵集 卷64)

答易簡

〔○答易簡〕 姓林。

〔語在戾太子傳²⁰⁰⁾〕 語，謂太子致敗之語，非謂漢武游燕事也。

追錄²⁰¹⁾

〔答張元德〕 以今之某字某語，配合古之某字某語，以明其義，謂‘襯貼’。以今之某字某語，代易古之某字某語，以明其訓，謂之‘替換’。如釋‘明德’，以所得乎天言

200) 傳：國中本2에는 없다.

201) 追錄：기준본에는 이하의 追錄의 내용이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追錄의 내용은 《定本 退溪全書》5, 〈答李仲久問目【《朱子大全》疑義】〉(KNL0095)에 들어있다.

德字，以虛靈不昧言明字，是謂襯貼。如釋‘格物’，以至訓格，以事訓物，是謂替換也。‘歷落’，後卷一處有歷歷分明之語，《周禮》註，釋‘適歷’，云：“稀密得所之狀。”合此等語意觀之，‘歷落’，當是分明脫落之義。【〈答李仲久〉】

【答孫敬甫 杲老與張侍郎書】 宗杲，宋南渡後禪宗，其徒所謂普覺大慧禪者也。呂居仁·汪聖錫輩皆北面師之，張九成侍郎亦其一也。張名爲大儒，實陷禪寂，其原皆出於杲。此書乃杲教張用儒文禪之術，故其言如此。櫛亦柄也。杲知張可用其術，捭闔惑衆，故云：“櫛柄入手。”以此看得，其文義不難曉也。

【官年實年】 官年，入籍年也，與其人實年，或有增減異同，故有實年²⁰²⁾之說。當時仕者年滿七十，乞致仕，朝廷聽許，而與子弟蔭補，例也，故有致仕恩澤之語。但不知當時敬甫所難處者曲折如何。然觀語意，似是官年已滿，當致仕得蔭補，而實年未滿，又官年滿否，亦有未詳知者，以此難處，故先生教之，令前期審之於省曹也。省曹，戶曹，在尙書省中，故云“省曹”。

【答余正甫 徵奏微意徵義失節事讎】 唐太宗時，議

202) 實年：《定本 退溪全書》에는 앞에 ‘官年’이 있다.

五服之制，用魏徵議，有所增加，所謂魏元成加服也。今正甫論其加服之失，而并及失節事讎之罪，故先生云然。

【答鞏仲至 塌了一兩人】塌，頽下也。言‘故舊中往往有一兩人不能自立而隨俗頽下者，令人憤鬱。’

【答陳謩 出舉錢商子本】民間以物納質富人，而借錢若干，以興販取利，謂之‘舉錢’。及其贖還元物也，於本錢數外，復還息數加民間以物納質富人，而借錢若干，以興販取利，謂之舉錢。及其贖還元物也，於本錢數外，復還息數加²⁰³⁾本錢之數，其本數曰‘母錢’，息數曰‘子錢’。

【答或人 不能一剪剪斷直下剖判】剪，剪刀也。言‘一次用剪子，快剪得斷’，猶言‘一劒兩段’，言‘判斷義理，不能如此也。’

【答劉公度 如何捺生硬做得成】‘捺’，乃葛切，抑也，按也。言‘素無積累純熟之功，豈可以生硬身心，強爲抑按而做得成乎？’

203) 加：《定本 退溪全書》에는 ‘如’로 되어 있다. 今按: ‘加’가 옳을 듯하다.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四

記疑1401 (節要1812 : 知舊門人問答249) (晦庵集 卷64)

答何倅

〔○答何倅 曰感物而動〕 曰,《禮記》曰也.

〔言亦性所有也〕 《禮記》此言之意,蓋言感物而動之理,性所有也. 譯¹⁾云 쏘 ㄴ ㅍ 性 ㅅ 인 ㄴ ㄴ 2) 배라 니르 미라.

〔不可以欲言矣〕 雖感物而動,不可以人欲言矣.

記疑1402 (節要1813 : 知舊門人問答250) (晦庵集 卷64)

答江彥謀

〔○答江彥謀〕

〔研究其說〕 《正蒙》之說.

1) 譯 : 高大本 ‘釋’

2) ㄴ ㅍ 性 ㅅ 인 ㄴ ㄴ : 高大本 ‘홍홍性애잇ㄴ’, 國中本1 ‘為隱性 ㅅ 有인ㄴ’

〔必合〕 乃不差，故必合。

〔正謂是爾〕 是，謂求一而合一之法也。

〔貫之者〕 “不惟”之意，止此。

〔卒無得也〕 “病”字之意，止此。行狀之言，亦止此。

記疑1403 (節要1814 : 知舊門人問答251) (晦庵集 卷64)

答吳尉

〔○答吳尉 憲臺〕 如今監司也，兼風憲之任，故謂之憲臺。

〔初官僻縣〕 吳尉³⁾初官僻縣也。

〔○⁴⁾只此便是學問底道理〕 因其問而答之，故云云。

〔妄念〕 乃躁進之妄念也。

〔○⁵⁾依倚〕 依倚於權勢之家。

〔不比鄉居〕 猶不如鄉居也。

3) 吳尉 : 高大本 앞에 ‘謂’가 있다.

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5)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記疑1404 (節要1815 : 知舊門人問答252) (晦庵集 卷64)

答卓周佐

〔○答卓周佐〕

〔爲小官時〕 朱先生⁶⁾自謂.

〔作書求薦〕⁷⁾ 作書求薦於親舊在官者處也.

〔此事〕 爲人薦舉之事.

〔奉告矣〕 奉告于周佐也.

〔合薦者〕 合, 猶宜也.

〔見其如此〕 見其如此之貪躁.

〔求薦耶〕 先生言‘我若在官時, 有人雖合薦者, 見其如此之貪躁, 則亦不復薦之矣. 況今閒居, 豈爲如此貪躁之人作書, 而宛轉求薦耶?’

記疑1405 (節要1816 : 知舊門人問答253) (晦庵集 卷64)

6) 朱先生 : 高大本 ‘先生’

7) 作書求薦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作書’上, 有‘〔叨冒刺舉〕 “刺”, 猶貶也; “舉”, 猶褒也. 先生嘗爲浙東茶鹽公事, 故云.’]이 있다.

答任行甫

〔○答任行甫〕

〔治甲銷鈔〕 鈔，錢屬，少於錢而用如錢，但非錢也。法久則弊生，當時用鈔既久而弊生。故令銷其鈔，使之不用也。任行甫嘗爲治甲銷鈔之任，故如是云云。

〔相知之意〕 相知信任之意。

〔○⁸⁾新官〕 行甫之上官。

〔不敢不自警者〕 行甫書中言。

〔區區敦學〕 如館客⁹⁾之類。

記疑1406 (節要1817：知舊門人問答254) (晦庵集 卷64)

答江端伯

〔○答江端伯 逆料〕 此端伯書中言。

〔方便〕 多般計較，得其好處，謂之‘方便’。

8)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9) 客：國中本2 ‘舍’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四

記疑1407 (節要1819 : 知舊門人問答256) (晦庵集 卷64)

答陳謩

〔○答陳謩 非其人也〕 非其先知先覺之人也。 陳謩以先知先覺稱先生，故如是¹⁰⁾云云。

記疑1408 (節要1820 : 知舊門人問答257) (晦庵集 卷64)

答劉朝弼

〔○答劉朝弼〕

〔今之學者〕 如科學之學。

〔古人之事〕 “致知以明之云云”，止“充之以光大。”

〔由今之所爲〕 “馳騁於末流云云”，止“誦說之不工。”

記疑1409 (節要1822 : 知舊門人問答259) (晦庵集 卷64)

10) 如是：高大本에는 없다.

答李好古

〔○答李好古〕

〔陸刪定〕 謂陸子靜也. 刪定, 官名, 如程子看詳學制之類.

〔所聞如何〕 好古, 游陸門之人, 故云云.

〔若以爲然〕 以子靜之言爲然也.

〔就此處〕 謂子靜之言.

〔所受〕 子靜處所受之言.

〔學問之實〕 “不當”之意, 止此.¹¹⁾

記疑1410 (節要1823 : 知舊門人問答260) (晦庵集 卷64)

答孫吉甫

〔○答孫吉甫 變化之道〕 “氣質過剛云云”止此, 言吉甫之言.

11) 不當之意止此 : 高大本에는 [추가 ‘不當’之意, 止於‘遠求也’之下. 註云“止於‘學問之實’之下”, 恐不合. 更詳之.]가 있고,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不當’之意, 止於‘遠求也’之下. 註云“止於‘學問之實’之下, 恐未合. 更詳之.]가 있다.

〔蓋不如是〕 蓋不講學.

記疑1411 (節要1824 : 知舊門人問答261) (晦庵集 卷64)

與湖南諸公論中和第一書

〔○與湖南諸公論中和第一書 前日之說〕 目¹²⁾“心爲已發，性爲未發”之說.

〔全無本領〕 以未發已發爲此心流行之體，而無涵養之功，故云：“全無本領.”

〔當體〕 猶當身也.

〔亦必以是〕 亦必以‘莊敬涵養之功’.

〔此乃指赤子心而言〕 《孟子》：“大人者，不失其赤子之心.” 孟子之言，指赤子之心動處純一無僞¹³⁾，故程子已發之言，此乃指赤子心而言.

〔遂以爲未當〕 以程子之言，遂以爲未當.

12) 目 : 高大本에는 없다.

13) 僞 : 기준본에는 ‘爲’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記疑1412 (節要1825~1826 : 知舊門人問答262~263) (晦庵集 卷64)

答或人

【○答或人】

【兩途】¹⁴⁾ 或人以存養·格致爲問, 故如是云云.

【即此而在矣】 即此¹⁵⁾而心在也.

【○¹⁶⁾橫以義理】 ‘橫’, 去聲.

【加之】 橫以己見義理, 加之經文也.

【○¹⁷⁾題跋】 或人所作之題跋.¹⁸⁾

【復措詞¹⁹⁾也】 或人作題跋, 送于先生, 又請先生之文, 故如是云云.

【○²⁰⁾無垢此言】 無垢, 乃張九成, 字²¹⁾子韶. “當惻隱, 體其仁”, 乃無垢之言.

【認得此個精靈】 謂體其仁之意.

14) 兩途 : 高大本 ‘兩道’

15) 此 : 高大本 ‘在’

16)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7)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8) 之題跋 : 高大本에는 없다.

19) 詞 : 《記疑》의 諸 板本에는 ‘辭’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20)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21) 字 : 國中本2 앞에 ‘號’가 있다.

〔一處通透四處廓然〕 此亦無垢之言。無垢此言之意，蓋以爲體其仁而得之廓然於義・禮・智矣。

〔○²²⁾察於天行〕 胡安國云：“察於天行，取其自強不息之義而歸諸己；察於地行，取其厚德載物之義而歸諸己云云。”詳見《大學或問》格物章。

〔度諸身者〕 程子之言，止“者”字上。

〔宛轉〕 胡氏之言，蓋取物理，歸己宛轉也。

〔○²³⁾前賢之說〕 前賢，傳註之說。

〔今雖〕 今之爲傳註者。

〔見此意思〕 上文所謂“却有淺迫”之意思。

〔淘汰〕 ‘陶’與‘淘’通，乃淘金之淘。陶 ヽ 汰 ヽ 也。

〔○²⁴⁾軒輊〕 《詩》，“如軒如輊。”

〔○²⁵⁾只此數卷〕 謂《近思錄》也。²⁶⁾

〔頭邊〕²⁷⁾ 猶本末也。道理之頭邊也。

22)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23)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2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25)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26) 也 : 高大本에는 없다.

27) 頭邊 : 高大本에는 [추가 ‘頭邊’註說, 恐非是.]가 있고,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頭邊’之註, 恐非是.]가 있다.

〔○²⁸⁾答者〕 或人以自中問答，問于先生，故如是云云.

〔○²⁹⁾見善³⁰⁾明用心剛〕 此乃或人所問，故如是云云.

〔不然則〕 不以“平日功夫爲先”.

記疑1413 (節要1827~1828 : 知舊門人問答264~265) (晦庵集 卷64)

答劉公度

〔○答劉公度〕

〔緩於請益〕 此乃公度之言.

〔干名〕 彼自衒鬻而干名.

〔方肯如此着力〕 方肯於主敬處着力也.³¹⁾

〔以求³²⁾理之所在者〕 自“齊心”止此，乃公度之言也.³³⁾

28)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29)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30) 見善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見善’上, 有‘〔一剪〕 흔ㄷ애로.』가 있다.

31) 也 : 高大本에는 없다.

32) 以求 : 기준본에는 ‘以永’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國中本2 및 《節要》에 의해 ‘以求’로 고쳤다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以求’上, 有‘〔捺生硬〕 설우거든거슬 눌너.』가 있다.

〔省力³⁴⁾處〕 省, 猶減也.

〔論事文字〕 公度所作論事文字.

〔病之在此〕 “綱領不甚分明”之病, 在於不曾讀書講學之處.

〔○³⁵⁾喝罵將去³⁶⁾〕 喝, 우리티다. 喝 ヽ ㄱ 罵 ヽ 也.

〔却不知道〕 知道, 아다. “却不知道”之意, 止於“狂妄愈甚”之下.

記疑1414 (節要1815 : 知舊門人問答252) (晦庵集 卷64)

答卓周佐

〔○答卓周佐³⁷⁾ 舉削〕 薦人謂之舉削, 亦所未詳.

33) 也 : 高大本에는 없다.

34) 省力 : 高大本에는 [추가 一本, ‘省力’上, 有‘〔勾當〕 猶主管也.』가 있다.

35)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今按: 이 조목에 해당하는 편지는 《節要》(陶山本)에는 〈答或人〉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節要》海州本과 定州本에는 여기에서처럼 〈答劉公度〉에 속한 것으로 이어서 편성되어 있다. 《全書》에서는 〈答或人〉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36) 去 : 기준본에는 ‘法’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37) 答卓周佐 : 國中本2에는 [추가 卓周佐一條, 當移上本條注中]가 있다. 今按: 이 조목은 앞의 ‘節要1815: 知舊門人問答252’ 〈答卓周佐〉에 통합 편성되는 것이 옳을 듯하다. 國中本2의 주기는 그것을 지적한 것이다.

或云：“不欲示私恩，即削其稿，謂之舉削.” 未知是否也.³⁸⁾

38) 也：國中本2에는 뒤에 ‘舉削, 亦云“薦削”. 或曰: “‘削’疑‘剡’字之意.”가 있다.

朱子書節要記疑 續集¹⁾

記疑1415 (節要1901 : 續集01) (晦庵集續集 卷1)

答黃直卿

【○答黃直卿 鄭台州】 疑是鄭伯熊，字景望。

【書來】 台州之書來²⁾也。

【可惜】 “可惜”之意，止於“步也”之下。

【○計亦未必可得】 “丐歸”之計，亦未必可得也。先生自謂也。³⁾

【○羞惡未亡者】 當時有一人，嘗從事於道學，及僞學之禁起，乃變素守，往附於彼。然其於道學，亦頗向意，直卿謂是羞惡未亡者處云云，故⁴⁾答之。

【一番拍試】 小人拍試道學人也。拍ッホ 試ッ也。猶試驗也。

【揀汰僞冒】 僞學之禁起，其向道不誠，而僞冒於學

1) 朱子書節要記疑續集：國中本1에는 《朱子書節要記疑》 卷15 뒤에 수록되어 있다.

2) 書來：高大本 ‘來書’

3) 也：高大本에는 없다.

4) 云云故：高大本 ‘故云云’

問者，盡棄素學，往附彼邊⁵⁾，是僞學之禁一番拍試，而揀汰僞冒也。僞冒乙 揀ッふ 汰ッヒ。

【大段得力】大段得力於學問。

【聚徒】講問事。

【不知如何處置】不知如何處置，而使其來聚也。

【義利⁶⁾明白】義利⁷⁾明白ッ乙 巨寸ハ ッ其乙。⁸⁾

【便靠⁹⁾不得】不得便靠道義也。

【○許令首正】當時薦人之狀書云：“此人不係僞學，故乃薦云云。”若誤舉僞學人，則許令誤薦人首正也。首正，猶先告也。

【王漕文字】當時王姓人爲轉運使，而薦王子合。故子合受得王漕薦學文字也。

【其所厚者云云止寄聲】伯豐所厚之人，乃韓侂胄黨也。故伯豐書云：“其所厚之人，以伯豐無所私禱於己，寄其聲欲繩治伯豐云云。”

【不但道學而已】并謂國之休戚也。

5) 邊：高大本‘過’

6) 利：高大本·國中本1·國中本2‘理’

7) 利：高大本·國中本1·國中本2‘理’

8) ッ其乙：高大本‘헉거늘’

9) 靠：國中本2에는 아래에 [소주 ‘고곡’]이 있다.

〔○¹⁰⁾累渠〕 渠，謂任尉。

〔因書〕 蓋季通所居邑宰，乃直卿所知之人。故因其送邑宰書也。

〔○諸人狼狽〕 不能守道之謂。

〔終是好〕 子約上疏，救趙汝愚爲韓所嫉。先生言此，乃指其事。

〔快活¹¹⁾〕 其行遣乃快活。

〔○何所關於近習而惡之若是耶〕 疑商伯爲某郡宰，力爲救荒，而反爲近習所惡。故先生¹²⁾如是云云。

〔駭機飛語〕 駭，驚駭也，出於不意也。機，禍機也。
駭ッ P 機ホ 飛ッ P 語ヽ.¹³⁾

〔○局生〕 局，格局也。파니¹⁴⁾선디라.

〔就其中〕 “親歷”之中。

〔前官事〕 前官，前交代也。

〔爲非〕 以趙汝愚之言爲非也。

10) ○：今按：이 표시는 앞의 ‘〔其所厚者云云止寄聲〕’ 조목의 ‘其’ 앞으로 옮겨야 할 듯하다.

11) 活：기존본에는 ‘括’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아래 주석에서의 ‘活’도 마찬가지이다.

12) 先生：高大本에는 없다.

13) 語ヽ：高大本 ‘語라.’

14) 파니：高大本·國中本2 ‘판이’

〔通達處〕 “前官事不須理會”云，則其不欲見惡於人如此，故如是云云。

〔便宜了也〕 言‘今世剛強之人，不容於世，每不得便宜.’ 故云：“八九分不得便宜”。

〔○鍛煉〕 鍛煉《大學》也。

〔○生一秦矣〕 謂生一敵國也。

〔艱窘〕 謂貧窮也。

〔自困涸轍〕 先生自言.¹⁵⁾

〔○書中有數句〕 先生所答王峴詩句。

〔竟坐其事〕 不知何事，疑僞學之事也。

〔取索〕 取索其文書之類。

〔何罪〕 不知何輩之意，欲令共父坐以何罪也。

〔回申〕 以發明事回申也。

〔發去矣〕 恭父¹⁶⁾發去矣。

〔不知〕 子直不知也。

〔亦只避得可避底〕 ㄱ ㄷ 可 ㄹ 避 ㄷ 也 音 則 ㄷ ㄹ
ㄴ 乙 个 ㄹ 避 ㄷ 乙 注 乙 阿 地 ㄴ 古。

〔○來歲之計〕 藏修之計。

15) 言：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謂’

16) 父：기준본에는 ‘文’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後山〕 直卿往來藏修之所也.¹⁷⁾

〔未及寫去〕 論太極答問，未及寫去于直卿處也.

〔○諸司文字〕 薦舉文字也.

〔取之〕 取人之薦舉也.

〔使人無疑耳〕 時方讐嫉道學，而伯豐亦以道學之人，得諸司之薦舉，其間不¹⁸⁾無所疑，故如是云云. 薦伯豐之人，疑是韓黨.

〔未有其比〕 未有伯豐之比也.¹⁹⁾

〔於事有難言者〕 先生欲言于伯豐，而於事勢有難言者.

〔因與之語〕 直卿因與伯豐語.

〔欲見害者〕 爲小人欲見害者.

〔例如此〕 “皆爲外間浮論攻擊，不能自安”之謂.

〔激惱人〕 사르 물²⁰⁾ 숯달러 심심케 한다.

〔○可惡〕 ‘惡’，去聲.

〔同父〕 同父之學，入於管·商.

〔此類〕 同父之類.

17) 也：高大本에는 없다.

18) 不：기준본에는 ‘必’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의 추기에 의해 고쳤다.

19) 也：高大本에는 없다.

20) 사르 물：高大本·國中本1 ‘사름을’

【○伯豐絕交云云止不能辦】伯豐嘗所厚之人，乃韓²¹⁾黨也。故先生云：“伯豐於所厚之人絕交之事，必不能辦斷。”

【引却】引身却退也。

【誤受舉削之故】舉削，釋見上〈答卓周佐書〉。誠之必曾受僞學人舉狀，時議以是爲咎，而不改秩。誠之²²⁾不以介意。

【固多可議】固有多病可議處也。

【若與之】直卿若與伯豐。

【及此意】誠之斷置之意。

【○得江西書】未知得江西某人書。

【法門】佛語。佛家謂其門徒，謂法門。先生借用之。

【中庸首章】謂論中和。

【章句之說】乃先生所註《庸》·《學》之章句也。子壽見章句之說，而釋然於首章，故如是云云。

【且在】言不死也。

【一帶】猶^{한줄}。言一帶之人也。²³⁾

【湛滯】‘湛’，與‘沈’通用。

21) 韓：國中本1·國中本2 ‘辨’；國中本2에는 [추가 ‘韓’]이 있다.

22) 誠之：기준본에는 ‘成之’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23) 也：高大本에는 없다.

〔○得近問〕 得直卿近問也。

〔知却劉倅之請〕 當時，劉姓人爲倅，請直卿爲館²⁴⁾也。

〔宗官衡陽之嫌〕 未詳何謂。

〔安與否〕 雖違衆，而不失道理，則安；雖隨衆，而失其道，則否。

〔○一傳到此〕 一傳爲陳正己之學。

〔○覺得上面云云止去處了〕 伯起之學，頗末端的，故若循其學而不變，則止於此而已，覺得上面無去處也。“方與痛說”之意，止此。

〔○夫子之教〕 “不能”意，止此。

〔其言〕 子靜之言。

〔○外書〕 《程氏外書》也。²⁵⁾

〔僻見〕 直卿所論，未能專是，故云云。

〔此處〕 直卿所論未當處。

〔○韜仲事〕 疑韜仲終未守正。

〔新宰〕 新宰，疑先生所知之人，故如是云云。

〔了不得〕 善治官事，謂之了；不能治官事，謂之了

24) 館：高大本에는 뒤에 ‘客’이 있다.

25) 也：高大本에는 없다.

不得。

〔變通〕 循常守轍，若無變通。

〔遣家歸廬陵〕 子澄知衡州時事。廬陵，子澄故家。

〔俟命〕 子澄知衡州時，爲人所殫劾。命，乃罷逐之命。

〔消息來得〕 消息乃殫劾之奇來于衡州也。

〔帶累〕 帶，猶連也。

〔○季通乙韜仲、說〕 乎代。

〔相約〕 季通與直卿相約。

〔○輅孫〕 直卿之子。

〔外翁否〕 外翁，先生自謂。輅孫曾長養于先生家，而送于直卿處不久，故如是云云。

〔渠〕 輅也。

〔背起與看〕 背起，乃後倍也。背起、也 看、也。

〔他〕 輅也。

〔○居廬讀禮〕 直卿居廬讀《禮》。

〔乃能如此〕 “不易”之意，止此。

〔一番〕 謂僞學之禁。

〔○日者〕 推命之人。

〔不好〕 先生自謂。

〔此書〕 謂《儀禮》也.

〔○²⁶⁾不易其敢來〕 敢來, 謂來此講學也. 敢來 ヽ 기
易티 아니하니.

〔目之〕 題品也.

〔○似渠〕 伯豐.

〔○相信得及〕 相信得及其道學也. “甚不易”之意,
止此.

〔○學履安卿〕 林學履, 字安卿.

〔分付入試朋友〕 分付, 謂與也, 非兩書分付之謂也.

〔到城日〕 安卿到城日.

〔題壁揭榜〕 當時譏其道學, 或題于壁, 或揭其榜, 故
云.

〔渠〕 子合.

〔○藏府不秘〕 秘, 艱澁也.

〔○²⁷⁾陳坂上對面一寺中〕 陳坂, 地名. 陳坂上厓 對
面 ヽ 一寺中厓 歸 ヽ 히.

〔買得〕 季通買得也.

〔其前〕 寺前也.

26)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27)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行自病也〕 先生自謂. 行, 猶²⁸⁾將也.

〔○子細讀〕 “不易”之意, 止此.

〔渠前此〕 渠, 留正也.

〔至到〕 至到處也.

〔警欬²⁹⁾〕 《莊子·徐無鬼篇》云: “久矣, 莫以眞人之言警欬吾君之側.” 此言警欬, 蓋本於警欬.³⁰⁾ 《莊》註³¹⁾, “喉中之聲也.”

〔○相從〕 與直卿相從也.

〔渠此幾日〕 渠、예와 몇날.³²⁾

〔保官〕 證保之官. “致仕文字”中保官也.

〔○胡走作〕 간대로 走作ッヒ.

〔自做工夫〕 勸直卿自做工夫也.

〔接引〕 接引學者也.

〔○不肯保奏〕 申于中書, 謂之省狀; 直達君前, 謂之奏狀. 保奏, 謂奏狀之證保也.³³⁾

〔不暇求十全矣〕 申省則已得, 而保奏則未得, 故云

28) 猶: 기준본에는 ‘有’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29) 警欬: 高大本에는 [추가 ‘큰 기침 흥단말’]이 있다.

30) 警欬: 高大本 ‘此’

31) 莊註: 高大本에는 뒤에 ‘警欬’가 있다.

32) 몇날: 高大本 ‘몇낫날’, 國中本1 ‘몇나랄’, 國中本2 ‘몇날을’

33) 也: 高大本에는 없다.

不暇求十全矣。

〔志仁〕 楊復。

〔○二孫〕 塾子。

〔得解〕 得參選之類。³⁴⁾

〔要入太學〕 太學館也。

〔科第也〕 “不曾說”之意，止此。

〔臺章指目矣〕 臺官欲令先生致仕，申明年滿七十不致仕之法。‘臺章指目矣’，蓋謂此³⁵⁾也。詳見于此。³⁶⁾

〔隱約〕 韓退之〈閔已賦〉，“在隱約而平寬。”《通鑑·章帝紀》，“論隱約窮問。”此言隱約者，乃窮居入工夫之謂。

〔此章〕 致仕文字。

〔曉然〕 已有臺章指目，今雖致仕，其不害也，明矣。故如是云云。

〔想已聞之〕 直卿聞之也。

〔徐子宜〕 名宜。趙汝愚同心之人也。³⁷⁾

〔窠子〕 闕也。

34) 選之類：高大本‘鄉試也’

35) 謂此：國中本1‘此謂’

36) 此：高大本에는 없고, 國中本2에는 삭제 표시가 있다.

37) 也：高大本에는 없다.

〔書社甚盛〕 直卿之書社甚盛。

〔浮議也〕 “防”字之意，止此。

〔○番陽〕 ‘番’，音斗。番陽，豫章。

〔○豈章子厚之所能爲耶〕 范純仁爲章子厚之所逐，初謫近地，後移配遠方時，渡一江，失足舟中，衣裳盡濕，顧謂同行子弟曰：“此豈章子厚之所能爲耶？”言天命也。先生引用之。

〔○行持〕 惺惺法也。

〔試過〕 謂僞學禁起也。

〔時學〕 時文也。

〔重輕耶〕 此豈足爲吾道之重輕耶？

〔○乃復被繳〕 當時凡拜官，必制誥，然後肅拜。若拜官不當人，則中書舍人及給事中，不制其誥而防啓，謂之繳。孫從之爲當時奸黨所疾，故被繳也。

〔牙癰〕 齒病。

〔不必如此也〕 不必如此憂懼也。

〔所說〕 直卿所說。

〔諸朋友〕 直卿處諸朋友。

〔○果如所論〕 通老當時往直卿處，直卿論其通老善處，故如是云云。

〔病倦〕 先生自謂.

〔其病〕 仲至之病.

〔正怪其如此〕 正怪其仲至之病如此.

〔渠〕 仲至.

〔貼律〕 貼入規律也.

〔○乃止於此〕³⁸⁾ 其學乃止於此.

〔○鄭明州〕 疑是上文鄭台州也.

〔章中〕 薦狀中也.

〔○林采訴冤於朝³⁹⁾〕 先生湖南安⁴⁰⁾撫使時, 論罪湖南官吏林采. 已定其罪, 先生見罷後, 林采訴冤于⁴¹⁾朝廷.

〔委官〕 推官也.

〔案牘〕⁴²⁾ 先生論罪之案牘.

〔如其所請〕⁴³⁾ 如其委官改送, 他官之請.

38) 乃止於此 : 기준본에는 ‘乃止此’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 및 《節要》에 의해 고쳤다.

39) 於朝 : 高大本에는 없다.

40) 安 : 高大本 ‘按’

41) 于 : 高大本·國中本1 ‘於’

42) 案牘 : 기준본에는 ‘安牘’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아래 주석의 ‘案牘’도 마찬가지이다.

43) 如其所請 : 기준본에는 ‘如有所請’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料理〕 諸人掃剝已盡，次第當及先生．故云⁴⁴⁾‘小人或須作別話頭，料理先生也．’

〔未去時〕 臨死而未死之時．

〔○爲急〕 “看得”之意，止此．

〔都曉不得也〕 教者·學者，都曉不得也．

〔註 永嘉尤甚〕 永嘉，陳傳良所居之地．

記疑1416 (節要1902 : 續集02) (晦庵集續集 卷2~3)

答蔡季通

〔○答蔡季通 方持此戒〕 當時季通方作大頭段不好事，故此書前後，嚴責如此．且請請簡于先生，故如是云云．

〔中甚自愧〕 季通書中言．

〔落筆之時〕 來書落筆之時．

〔○精舍數日〕 與季通會于精舍數日也．

〔條約〕 精舍中條約也．

44) 故云 : 기준본에는 ‘云故’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山間〕 武夷也.

〔○相見〕 季通相見也.

〔懸知〕 懸，懸遠也. 懸知，猶遙度也.

〔此事〕 道理也.

〔攻之〕 攻其伯諫也.

〔甚然之者〕 季通謂“與伯諫議，伯諫有甚然之者云云”，故如是云云.

〔○句斷〕⁴⁵⁾ 에우티다.

〔教他〕 他，謂《春秋》.

〔俟取得〕 季通請⁴⁶⁾欲見《易》說，而《易》說適往他處，故云：“俟取得.”

〔○驗其是非〕 “惟敬能存其心”之是非也.

〔功夫〕 學問功夫也.⁴⁷⁾

〔○語錄已領〕 疑季通送程子《語錄》于先生，故如是云云. 領，猶領納也.

〔數編〕 《語錄》數編也.

〔所論諸疑〕 季通所論龜山諸疑也.

〔其病〕 龜山之病.

45) 句斷：기준본에는 ‘句斷’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46) 請：高大本에는 없다.

47) 也：高大本에는 없다.

【一格】 一格局也.

【下學上達處則】 明道云：“釋氏躡等於上達，而無下學⁴⁸⁾工夫云云.” 故先生略而言之.

【造次顛沛必於是】 季通書中所論也.

【所謂是者】 是，乃“必於是”之‘是’，謂仁也.

【下學處】 “造次顛沛必於是”之言，亦是下學處，故先生如是云云.

【縣揣】 ‘縣’，與‘懸’通用. 懸⁴⁹⁾，遠也.

【賢者之自咎】 賢者謂季通.

【相聚兩日】 先生與季通相聚也.

【又復發見】 因疑季通如此也.

【○小人共事之說】 小人共事，明道不非新法事. 季通論之，故答之.

【循常守正】 如明道小人共事也.

【○⁵⁰⁾示⁵¹⁾喻創艾】 季通云：“前日之過創艾.” 故如是云云.

【發作】 “創艾之意”發作也.⁵²⁾ 謂表著于外也.

48) 學：기준본에는 ‘字’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49) 懸：高大本에는 없다.

50)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51) 示：《記疑》의 諸 板本에는 ‘所’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歇滅〕“創艾之意”歇滅也.

〔○前書所云〕前書嚴責之言.

〔亦自不易也〕‘爲惡無近刑’亦自不易也. 謂季通之過近刑也.

〔○⁵³⁾病不在此〕在於季通自省處.

〔求去未獲〕疑是先生知南康時也.⁵⁴⁾

〔不報〕先生已上辭狀, 故云: “度更不報.”

〔詞訴〕訟牒也.

〔○其不能此者〕不能‘性靜向⁵⁵⁾學, 能思索檢討’者.

〔○⁵⁶⁾鄙說〕謂先生〈太極圖說〉.⁵⁷⁾

〔其說〕⁵⁸⁾ 林栗攻鄙說之說.

〔不知何人所發也〕鄙說, 不知爲何人所發流布於世也.⁵⁹⁾

〔○⁶⁰⁾卦印〕畫卦用筆, 則難得精整如一, 故刻木作

52) 也 : 高大本에는 없다.

53)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54) 也 : 高大本에는 없다.

55) 向 : 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而’ ;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向’]이 있다.

56)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57) 謂先生太極圖說 : 기준본에는 ‘林栗攻鄙說之說’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58) 其說 : 이 표제는 기준본에는 없으나, 諸 異本에 의해 보충하였다.

59) 也 : 高大本에는 없다.

60)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卦而印之，謂之卦印。◎先生必欲刻三圖者，蓋兩漢以後，《易》說幾廢，或以〈河圖〉爲〈洛書〉，或以〈洛書〉爲〈河圖〉，而世變難測，故必欲刻石以留示後人。

〔送伯謨處也〕⁶¹⁾ 伯謨能書，故以書篆事，遣人送伯謨處也。

〔○⁶²⁾公濟山頭日用工夫之問〕 季通作精舍于西山，以藏修焉。故公濟有⁶³⁾山頭日用工夫之問。山頭，謂西山也。

〔彼說雖偏〕 公濟禪學也。故云：“彼說雖偏。”

〔鹵莽〕 謂季通也。

〔兩日〕 前書“相聚兩日”之‘兩日’。

〔何地〕 謂當持敬也。

〔○來奉⁶⁴⁾邀〕 以館客奉邀季通也。

〔歸來〕 當時季通適往他處，故云云。

〔重然諾〕 蓋季通輕許徐貢父⁶⁵⁾奉邀，故云云。

61) 送伯謨處也：今按：이 조목 ‘送’ 앞에 ‘○’이 있어야 할 듯하다.

62) ○：기존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63) 有：기존본에는 뒤에 ‘公濟’가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삭제하였다.

64) 奉：기존본에는 ‘敬’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65) 父：기존본에는 ‘公’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託以爲詞〕 言季通雖來精舍，見他人則云“往他處云云”也。此乃‘託以爲詞’之謂。

〔○⁶⁶⁾費隱儘有說〕 季通問費隱，故如是答之。

〔溫養工夫〕 日用無安處之時，若稍得閒坐，則又貪溫養工夫，不暇安排費隱之文義也。

〔○白鹿云云止曲折〕 春卿往季通處，故先生云：“春卿必能言白鹿之規模曲折于季通也。”

〔撥得些小〕 撥得些小之田，非永屬書院之田，而乃是官家⁶⁷⁾屯田，姑⁶⁸⁾許書院。故下文云：“亦非久計。”

〔諸刻〕 先生知南康時，多刻書籍，故云云。

〔一角〕 猶一件。

〔雲谷大隱〕 雲谷，晦菴也。大隱，武夷精舍也。武夷精舍構於大隱屏下，而當初未定厥號，故云“大隱”。

〔馬道士〕 守晦菴之人。

〔堂基〕 大隱精舍堂基也。

〔彼〕 謂大隱也。

〔量與口食〕 在大隱之道人，計須量與口食也。

〔支也〕 支，支給也。

66)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67) 家：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元’

68) 姑：國中本2 ‘始’[소주 ‘始’恐作‘姑’.]

〔○69)所論〕 先生所論也. 季通疑其所論言之.

〔求容〕 求容於世也.⁷⁰⁾

〔當靈者〕 謂人也.

〔此事〕 道理也.

〔○登龍湖〕 疑是天湖山. 先生母墳在處也.

〔書堂〕 疑是寒泉精舍.

〔○71)山間〕 武夷也.

〔每以此〕 每以“山間却無此擾”爲言也.⁷²⁾

〔○73)或入大源⁷⁴⁾〕 疑公濟所居之⁷⁵⁾地.

〔所在〕 “平心和氣”至此, 乃公濟之言.

〔不患無鄰矣〕 “德不孤, 必有鄰.” 公濟既“平心和氣以觀義理之所在”云, 則亦當不患無鄰矣.

〔絕交之書〕 公濟所絕交者, 亦非當絕交之人, 故如是云云.

〔○76)中庸所改〕 先生自改章句也.⁷⁷⁾

69)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70) 也 : 高大本에는 없다.

7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72) 也 : 高大本에는 없다.

73)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74) 大源 : 기준본에는 ‘太原’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 추기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75) 之 : 高大本에는 없다.

- 〔○所議〕 季通嘗與先生有所議之事，然未知何事。
- 〔觀理之是非〕 自“遽⁷⁸⁾忘”至此，程子〈定性書〉語。
- 〔○臨行〕 相聚之地，臨行也。
- 〔○文字間也〕 “已勸令”之意，至⁷⁹⁾此。
- 〔○見推者〕 推尊先生也。
- 〔○氣象〕 季通之言。
- 〔二友〕 未詳何人。
- 〔○⁸⁰⁾見收公濟書〕 伯諫、公濟矣 書乙 収ッ也 叱
巨尸乙 見ッヒ。
- 〔○⁸¹⁾日邊人尙未還〕 持去辭狀之人尙未還。
- 〔所示卦象〕 季通以先生行止嘗爲蓍占，初得〈復卦〉，變爲〈夬卦〉，送于先生，故如是云云。
- 〔揚⁸²⁾庭孚號〕 〈夬卦〉文。
- 〔有攸往夙吉〕 〈復卦〉文。
- 〔用此占也〕 此占，謂攸⁸³⁾往夙吉，而今不以夙，則

76)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77) 也：高大本에는 없다.

78) 遽：기준본에는 ‘處’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과 《節要》에 의해 고쳤다.

79) 至：高大本 ‘止’

80)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81)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82) 揚：《記疑》의 諸 板本에는 ‘楊’으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83) 攸：高大本 ‘有攸’

有復而已矣.

〔○⁸⁴〕都昌〕 南康屬縣.

〔於此〕 謂此學.

〔○⁸⁵〕旋運〕 即上文所謂“肱運”也.

〔牛刀割鷄也〕 小試參同之萬一，以治旋運，則當如牛刀割鷄也，言治之之易也.

〔○山水之勝〕 不知指的何處.

〔未睹〕 目所未曾睹也.⁸⁶⁾ 言其甚好也.

〔去取〕 去取季通也.

〔○一二朋友來〕 “值”字之意，止此.

〔相報〕 相報于季通處.

〔數日相聚〕 謂北岩相會也.

〔蘆山〕 晦菴也.

〔小僧〕 先生之子兒名，但未知何人名.

〔少竹木〕 少⁸⁷⁾, 저그나. 蘆山與季通所居之地相近，故令季通種植少竹木于蘆山也.

〔○⁸⁸〕章丈〕 疑章穎.

8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85)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86) 也 : 高大本에는 없다.

87) 少 : 기준본에는 ‘小’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敦勸〕 敦勸先生不上辭章也.

〔亦云爾〕 亦敦勸也.

〔擔子〕 짐.

〔別作出場〕 別作出場辭免之計.

〔○⁸⁹⁾晚間〕 發程之日晚間也.

〔歸來〕 先生別季通歸來也.

〔窺伺者〕 窺伺先生者.

〔自知之〕⁹⁰⁾ 先生云: “吾雖不言, 季通久當自知此處窺伺之意.”

〔○到彼〕 到, 謫所也, 乃道州也.

〔○⁹¹⁾更省〕 減省也.

〔○居夷〕 謂季通謫所也. 取孔子“欲居九夷”之意言之.

〔三哥不快〕 時蔡沈得病, 故云云.

〔放未下〕 見謫之事, 似放未下.

〔永嘉〕 陳傳良所居之地.

88)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89)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90) 自知之 : 國中本2에는 [추가 ‘自知之’者, 自知不免遷謫也. 此註恐非是.○註恐是.]가 있다.

9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更無縫罅〕言其《參同契》無闕處也。

〔亦無云云止得他〕言不能用力於《參同契》也。他，謂《參同契》也。

〔劉安之鷄犬〕季通嘗用功於《參同契》，故以劉安比季通。鷄犬，先生自謂。⁹²⁾

〔○⁹³⁾正要得力〕正要得力之地。

〔易通〕易通于季通處也。

〔○疾疢〕‘疢’，音딘。⁹⁴⁾ 季通之疾疢也。

〔已放得下〕季通已放得下也。然其不能自然放得下，故下文云云。

〔○法器〕疑是佛語。猶言受傳學之器。

〔有分〕有性分也。⁹⁵⁾

〔自家〕先生自謂。

〔楊子直書〕楊子直寄先生之書。

〔奉問〕奉問于季通也。

〔不敢相聞〕子直書云：“時議如此，不敢相聞季通云

92) 謂：高大本‘比’

93)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94) 딴：高大本‘진’

95) 有性分也：기준본에는 ‘性也分’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1에 의해 고쳤다. 高大本·國中本2에는 ‘性分也’로 되어 있다.

云。”故如是責⁹⁶⁾之。◎‘聞’，與‘問’通用。

〔答之〕 答子直書也。⁹⁷⁾

〔不曾入題〕 不曾入題者，謂答書不明言，如季通之人，豈顧時議而不問耶？大概言之，如下文云云也。

〔盡殺之〕 此一段，并言趙·李·胡三人。

〔天也〕 答子直書言，止此。

〔眼不識人〕 嘗以子直爲好人，而今之所言乃如此，故如是云云。

〔在營道〕 營道，縣名。陳廷臣亦嘗謫道州之人也。當時已死，而季通書有‘人不識陳廷臣’之言，故如是答之也。

〔見濂溪有詩及之〕 《陰君丹訣》乙 濂溪 〰⁹⁸⁾ 詩乙 두어 及ッ신 디 見ッヒ。

〔當是此書〕 《陰君丹訣》之書。

〔不能見者〕 不能見《參同》之好法也。

〔○⁹⁹⁾豈欲大施〕 豈欲，豈不欲之意。

〔久駐〕 久駐於謫所也。

96) 責：高大本‘答’

97) 也：高大本에는 없다.

98) 〰：高大本에는 없다.

99) ○：기존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此〕 先生自謂.

記疑1417 (節要1903 : 續集03) (晦庵集續集 卷3)

答蔡伯靜

〔○答蔡伯靜〕

〔尊堂〕 伯靜之母.

〔處之〕 處於患禍也.

〔不能不以¹⁰⁰爲念〕 尊堂, 於季通竄謫, 不能不以爲念.

〔遠出一番〕 季通遇謫前年, 嘗一作遠方之行. ○

〔註 過彼〕 彼, 乃曾景憲處.

〔○¹⁰¹公晦之說〕 公晦必勸伯靜處患之道, 而頗失正道, 故如是云云.

〔面論〕 與伯靜面論也.

100) 以 : 《記疑》의 諸 板本에는 없으나, 《節要》에 의해 보충하였다.

10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記疑1418 (節要1904：續集04) (晦庵集續集 卷3)

答蔡仲默

〔○答蔡仲默 喻及〕 先生云‘因思向日仲默喻及先生之言’。

〔難通〕 自《尚書》至此，乃仲默通喻之言。

〔撥置〕 撥置雜事。

〔此來〕 猶來此也。

記疑1419 (節要1905：續集05) (晦庵集續集 卷4上)

答劉晦伯

〔○答劉晦伯〕

〔按發贓吏之故〕 先生提舉浙東茶鹽事時，知台州 唐仲友，與時相王淮，同里爲姻家，遷江西提刑。未行，先生行部，【行至台州。】訟者紛然得姦贓·僞造楮弊等事劾之。時久旱而雨，奏淮匿¹⁰²⁾不以聞。仲友亦自辯，

102) 匿：國中本2‘上匿’，高大本‘匿奏’

且言弟婦王氏驚悸病。先生¹⁰³⁾篤論愈力，章至十。上事下紹興府鞠之，獄具情得，乃奪其新命，換先生。先生以爲是蹊田而奪之牛，辭不拜，遂歸。

【相害】 相害先生也。

【到官之後】 官，謂江西也。

【分水嶺】 自閩去臨安所過處。

記疑1420 (節要1907 : 續集07) (晦庵集續集 卷5)

答呂東萊

【○答呂東萊 漠然不以爲意】 ‘如果於忘世’之謂。
“又不敢”之意，止此。

記疑1421 (節要1908 : 續集08) (晦庵集續集 卷5)

與田侍郎【子眞】

103) 先生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與田侍郎〕

〔違條礙貫〕 條・貫，猶¹⁰⁴⁾法也。

〔報行章疏〕 行遣善類^은 章疏^는 105) 報^은 거슬 看
ッヒ，小人之章疏也。

〔首身投免〕 首身，猶先告也。首身ッ也 投免ッ也^도。

〔○所喻不平者〕 田侍郎有“邪正兩黨不平”之言，故
如是云云。不平，乃¹⁰⁶⁾不調停之謂。

〔此等〕 君子・小人，相攻擊之事。

〔漸平〕 田侍郎有“邪正兩黨漸平”之言。

〔愈偏〕 邪黨激而愈偏也。

〔病根〕 時事之病根。

〔所得水石〕 田侍郎“新得水石”云，故如是云云。

〔○舊居〕 田侍郎舊居。

〔新居〕 亦侍郎新居也。

〔此間〕 謂考亭也。

〔行戶〕 猶遞所之類。

〔東遷〕 東遷考亭也。

〔賢者〕 田侍郎。

104) 猶：高大本‘謂’

105) 是：高大本에는 없다.

106) 乃：高大本에는 없다.

〔○同官〕 侍郎之同官。

〔其間〕 同官之中。

〔來書前後不同〕 田侍郎書前後不同也。來書之意，蓋以先生之致仕，疑之望致仕恩澤，而力止致仕。故下文力言之。

〔東閣郎君〕 田書中之言。唐李義山，與令狐楚相交。及楚爲相，以義山爲賓客，尊待之。及楚之子陶爲相，待之薄而一不見邀。義山怨陶，九月九日作詩，與陶云：“十年泉下無消息，九日樽前有所思”云云，“郎君官貴施行馬，東閣無因得再窺。”凡朋之子謂之郎君，但田書東閣郎君者，未詳何謂。

〔老丈〕 田侍郎父兄也。

〔其書〕 老丈之書也。

〔此意〕 疑先生望致仕恩澤，力止之意。

〔事始〕 致仕之事。

〔某〕 先生自謂。

〔却望復職致仕〕 復職이어나 致仕어나 望々也。

〔作奏〕 直達君前謂之奏。

〔書割〕 私割也。

〔狀內〕 申省狀也。

〔其意〕 不望致仕恩澤之意。

〔謝事條制〕 謝事，謂致仕也。致仕條制也。黃書之意，止此。

〔渠〕 黃本中¹⁰⁷⁾也。

〔謝胡〕 謝，未詳。胡，乃紘。邪黨也。

〔有¹⁰⁸⁾爲而發〕 ‘爲’，去聲。爲先生致仕而發。◎嚴，乃申嚴之謂。

〔因以治之〕 或是邪黨，因申嚴謝事，逼先生速其必來，而因以治之也。來，來朝也。治，攻治也。

〔據禮〕 據七十致仕之禮。

〔看他〕 他，謂小人。

〔一章〕 邪黨排詆先生之一¹⁰⁹⁾章。

〔及此一事〕 致仕一事也。¹¹⁰⁾

記疑1422 (節要1909：續集09) (晦庵集續集 卷5)

107) 中：國中本2에는 [추가 ‘仲’]이 있다.

108) 有：高大本 ‘乃’

109) 一：高大本에는 없다.

110) 也：諸 異本에는 없다.

與章侍郎【茂獻】

〔○與章侍郎 趣尙¹¹¹⁾之同〕 吾等趣尙之同.
〔上饒〕 章侍郎西歸所過之地.
〔壽張幻惑〕
〔成行否〕 引退之行.
〔欠此一級〕 謂引退之事.
〔當爲天下惜之〕 謝安携妓東山，期功之慘，不輟絲竹，或言之曰：“天下寶，當爲天下惜之.” 先生引用之.

記疑1423 (節要1910 : 續集10) (晦庵集續集 卷5)

答郭察院【邦瑞】

〔○答郭察院 鄉黨交遊〕 疑郭察院同鄉之人.

111) 尙：기준본에는 ‘尙’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아래 주석의 ‘尙’도 마찬가지이다.

記疑1424 (節要1911 : 續集11) (晦庵集續集 卷5)

答羅參議

〔○答羅參議〕 《記善錄》，乃《涪陵記善錄》，和靖門人祈寬所錄也。寬，字居之。

〔未及細觀〕 《記善錄》還送于羅處，故未及細觀。

〔相見〕 羅參議相見也。

〔爲務〕 “本爲”之意，止此。

〔視其所視云云之說〕 〈論語序〉中語。

〔引用之事〕 〈序〉中引用之事。

〔爲疑〕 先生疑其〈序〉中言.¹¹²⁾

〔嘗收安問¹¹³⁾〕 猶平安之書。收，猶承也。

〔衡山〕

〔○¹¹⁴⁾脫然處〕 謂先生。

〔高致〕 羅參議高致也。

112) 言：國中本2 ‘語’

113) 安問：기준본에는 ‘問安’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114)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記疑1425 (節要1912 : 續集12) (晦庵集續集 卷5)

答羅縣尉【南劍 沙縣人.】

〔○答羅縣尉 四大輕安〕

記疑1426 (節要1913 : 續集13) (晦庵集續集 卷6)

與趙昌甫

〔○與趙昌甫〕

〔的便〕 猶信便也.

〔渠〕 長孺.

〔黃〕 未詳何人.

〔建中而去〕 疑黃亦是善類, 故如是云云.

〔已去者〕 謂邪黨.

〔令人〕¹¹⁵⁾ 善人.

〔學易集〕 不知何人所著.

115) 令人 : 高大本에는 [추가 ‘令人’, 令善人入也.]가 있다.

- 〔試取一觀〕 昌甫試取《學易集》一觀.
- 〔爲法也〕 以“愁居懾處”爲法也.
- 〔○¹¹⁶⁾抽了一兩人〕 抽了而遠謫也.
- 〔不得渠書〕 渠, 斯遠也.
- 〔○¹¹⁷⁾說此事〕 《參同契》妙法也.
- 〔盡曉〕 先生自謂不能盡曉《參同契》也.
- 〔其言〕 《參同契》言. 下同.
- 〔○¹¹⁸⁾挂¹¹⁹⁾冠之牖〕 致仕文字.
- 〔政遠〕 兩地相去, 政遠也.
- 〔眷集〕¹²⁰⁾ 昌甫之妻, 乃先生之族親, 故云“眷集”.
眷集, 猶眷屬也.

記疑1427 (節要1914 : 續集14) (晦庵集續集 卷6)

答江隱居

116)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17)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18)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19) 挂 : 《記疑》의 諸 板本에는 ‘掛’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120) 眷集 : 諸 異本에는 [추가 ‘眷集’註說, 可疑.]가 있다.

〔○江隱居〕

〔沒可說〕 無可說之處.

〔與此〕 此, 謂龜山之語.

〔變化〕 乃江泳之言, 不知何謂, 疑是如一超頓悟之謂.

〔和順於道德而理於義〕 《楚辭》之言.

〔精微之義云云所云乎〕 〈繫辭〉云¹²¹⁾“精義入神”, 義_厶 精_ッ也, 神_厶 入_ッ夕之意. 江泳以“精義入神”爲精微之義, 故此書上下力辨¹²²⁾之.

〔精字之義〕 此‘義’字, 非“精義”之‘義’.

記疑1428 (節要1915 : 續集15) (晦庵集續集 卷6)

與饒廷老

〔○與饒廷老 能碎千金云云破釜¹²³⁾何耶〕 東坡云: “能碎千金之璧, 而不能不失聲於破釜.” 上文云“誠之

121) 云: 高大本에는 없다.

122) 辨: 國中本2 ‘辨’

123) 釜: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의 추기와 《節要》에 의해 보충하였다.

誤受薦狀，十年不陞¹²⁴⁾，能斷是置¹²⁵⁾”，碎壁處；“參選”，乃破釜處。

【○¹²⁶⁾只爭十來歲】 爭異也。

【○¹²⁷⁾道學二字】 當初排斥善類，不名以僞學，而名爲道學，故云。

【保任虛實】 如薦狀不係僞學云云之類。

記疑1429 (節要1916 : 續集16) (晦庵集續集 卷6)

答劉德修

【○答劉德修 如何出場】 欲見時人之妄作末稍作如何出場。

記疑1430 (節要1917 : 續集17) (晦庵集續集 卷6)

124) 陞 : 國中本2에는 [추가 ‘而’]가 있다.

125) 是置 : 高大本 ‘置是’

126)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27)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答方耕道

〔○答方耕道 當并拜狀〕 拜狀于耕道處也.

〔幕客〕 耕道，乃南軒之幕客，故下文云云.

〔誦言〕¹²⁸⁾ 南軒當時俾有不當之事，故耕道乃欲於公廳摺笏，納割誦言也.

〔所辟兩人〕 南軒所辟兩人.

〔游〕 疑誠之也.

〔更做去就〕 老兄，若因南軒不當之事，更做去就.

記疑1431 (節要1918 : 續集18) (晦庵集續集 卷6)

答儲行之

〔○答儲行之〕 麻沙，地名。行之嘗爲麻沙邑宰，而棄官歸家，不顧麻沙救荒事，故下文如是云云.

〔如林成川〕 民窮之極，盜賊大起之謂.

〔復來〕 行之已歸家，故云復來于麻沙也.

128) 誦言 : 高大本에는 [추가 ‘誦言’, 耕道侏誦言, 南軒不當之事於公廳.]이 있다.

〔蔡倉〕 蔡姓¹²⁹⁾人爲麻沙倉官者.

〔可者〕 告蔡倉之言, 止此.

〔○¹³⁰⁾東坡帖〕 此乃東坡在謫所時書.

〔吾人不合〕 吾人, 謂儲行之.

〔不足之歎〕 “不合”之意, 止此.

〔在此〕 先生自謂.

〔○¹³¹⁾司馬守〕 疑司馬迓.¹³²⁾

〔見山臺〕 山臺在獨樂園中.

〔陶隱居〕 乃弘景也.

〔泯滅〕 “猶欲”之意, 止此.

〔○¹³³⁾觀人之失〕 儲行之問‘觀人之失, 不得其正’,
故答之.

〔○¹³⁴⁾且得如此〕 未知何事, 疑是固窮也.

記疑1432 (節要1919 : 續集19) (晦庵集續集 卷7)

129) 姓 : 기준본에는 ‘城’으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130)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3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32) 迓 : 諸 異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133)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3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答黃子厚【銖】

〔○答黃子厚〕

〔極感勤念〕 子厚示喻，疑是傷歎善類遭禍，故如是云云。

〔編置〕 編，如編氓之編。以編氓之例，置其謫所也。編，乃戶籍之謂。

記疑1433（節要1920：續集20）（晦庵集續集 卷7）

與劉平父

〔○與劉平父 范丈〕 伯修之父。

〔不約而同〕 與先生之言，不約而同。

〔二公〕 未知何人。

〔自肆其心乎〕 “豈不優”之意，止此。

〔然則〕 居建陽則。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四

記疑1434 (節要1921：續集21) (晦庵集續集 卷7)

與方伯謨

〔○與方伯謨 又不熟〕 先生自謂。

〔着題也〕 着題於“隨衆備禮·趕趨程限”之謂。

記疑1435 (節要1923：續集23) (晦庵集續集 卷7)

答余景思

〔○答余景思〕

〔享用〕 享，猶享福也。用，謂用其有聞之事。

記疑1436 (節要1924：續集24) (晦庵集續集 卷8)

答江清卿

〔○答江清卿〕

【周憲】當時，周姓人爲轉運使之職。

【寧少忍之】周憲之心，寧少忍之。

追錄¹³⁵⁾

【答黃直卿書¹³⁶⁾】“不足”，即來喻所云不相能之謂也。但其上云“氣習偏蔽，各任己私，難責一人”，不是。又云“江鄉人，失之固執”，其意似以敬子爲非也。其下却云“安卿須移出舊齋，不與精舍諸人相干”，則又若歸責於安卿，未詳其如何耳。

【請直卿掛牌秉拂】按《宋史》黃公本傳，變此一句又¹³⁷⁾曰：“便可代即講席。”蓋掛牌秉拂，本僧家升座說法者事，此戲借以爲升座講學之喻耳。

135) 追錄：追錄의 내용은 《定本 退溪全書》7, 〈答李剛而問目【『朱書』】〉(KNL0755)에 수록되어 있다.

136) 書：國中本2에는 없다. 《定本 退溪全書》에는 표제로서 ‘敬子與安卿不足’이 있다.

137) 又：《定本 退溪全書》에는 ‘文’으로 되어 있다.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五

記疑1501 (節要1926：續集26) (晦庵集續集 卷8)

答馮奇之【椅】

〔答馮奇之 商量〕 與正父商量也。

〔成編〕 正父所成編，即禮書也。

〔比舊無甚改易〕 舊，謂中間與之商量未合¹⁾者也。言今見其編書，比前日商量未合者，無甚改易，而編得甚好也。

〔獨至無助〕 古語。蓋正父所見獨至，而編得好，吾之言，無所助於其間也。

〔二呂〕 呂德遠·德昭，兄弟也。此書中所言諸人，皆南康人，奇之亦南康人，故及之。

記疑1502 (節要1927：續集27) (晦庵集續集 卷8)

1) 合：國中本1‘洽’

與長子受之書

〔○與長子受之書〕²⁾

〔候見〕 候，侍也．候見呂東萊也．

〔歸安下處〕 安下處_厓 歸_ッ也³⁾，思省_ッ也．

〔往報之〕⁴⁾ 彼來見，而我往報之也．

〔言語差錯〕 此乃飲酒之時言語差錯也．⁵⁾

〔亦自合見得五七分〕 ㄸ_ッ ㅍ 스승로 맞당이 見得
朋友之善惡五七分也．

〔更問〕 更問于先生．

〔未敢言〕 好事，故欲言而未敢言．

〔不欲言〕 不好事，故不欲言而未免爲憂也．

〔伎倆〕 伎，能也．

〔討店〕 討，求也．

〔呂正字〕 東萊，時爲秘書正字．

〔端受〕 端坐而受拜也．

〔又再拜〕 前拜未受，未成拜，故得請而再拜，乃成

2) 與長子受之書：기존본에는 ‘與長子受書’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3) 安下處_厓 歸_ッ也：國中本2 ‘下處_厓 歸安_ッ也’

4) 往報之：高大本에는 이 조목이 〈答馮奇之〉의 ‘〔二呂〕’ 조목 뒤에 있다.

5) 言語差錯：高大本에는 이 조목이 〈答馮奇之〉의 ‘〔二呂〕’ 조목 뒤에 있다.

拜也.

〔願賜開允〕 願賜開允 과다하야.

〔郎中公〕 郎中公⁶⁾, 即東萊之父也.

〔參拜〕 拜, 猶謁也.

〔一炷〕 一條香.

〔令弟宣教〕 令弟乃子約也.

〔謁其弟〕 其弟, 即子約也.

〔郎中大丈〕

記疑1503 (節要1928 : 續集28) (晦庵集續集 卷8)

韋齋與祝公書

〔○韋齋與祝公書〕 祝公, 韋齋冰君.

〔孀子〕 韋齋之母.

〔小五娘〕 小謙之⁷⁾辭. 五, 乃兄弟次第. 娘夫謂妻爲‘娘’.

〔所攝〕 所攝, 乃權職官也.

6) 郎中公, : 高大本에는 없다.

7) 之 : 高大本에는 없다.

〔入尤溪〕 韋齋嘗爲尤溪尉，而有相知者，故避亂再來。◎朱子生于尤溪。

〔程帥〕 程帥⁸⁾，未詳何人。

〔二舍弟〕 둘재 舍弟。

〔至此非其本心也〕 賊之至此⁹⁾尤溪，非其本心也。

〔還縣〕 自遯處還尤溪縣也。

〔請官〕 請其官員招喻也。一云：“請以官職授賊招安也。”

〔招安〕 招賊而慰安也。

〔還狀〕 賊還報就招狀也。

〔犒設〕 招安之後饗宴謂之“犒設”。

〔程壽隆近書〕 韋齋母程氏，程壽隆，當是韋齋外親也。¹⁰⁾ 新安人。近書，近日之書也。

〔鄉里〕 鄉里，新安也。

〔切近江淞〕 新安，切近江淞。江淞，宋都。

〔婺源〕 婺源，新安別號，非婺州也。

〔相勸以歸〕 相勸以歸于婺源也。

8) 程帥：高大本에는 없다.

9) 此：高大本에는 없다.

10) 也：高大本에는 없다.

記疑1504 (節要1930 : 續集30) (晦庵集續集 卷10)

答李孝述繼善問目【燾之姪.】

〔○答李孝述〕 季燾之姪, 南康人.¹⁾

〔氣之始〕

〔騰倒〕 紛綸升降·錯揉往來之謂.

〔○²⁾似皆有可實之處〕 ‘定·靜·安·慮’四字, 泛言之, 則無下落著實處, 如孝述所言看之, 則四字皆有下落處. 故云“似皆有可實之處”.

〔解中〕 謂註解之中, 疑指《大學章句³⁾》也.

〔○⁴⁾對同勘合〕 對校而驗其同, 勘合相勘.⁵⁾

〔○⁶⁾贅屬〕 《莊子》, “縣疣附贅.” ‘贅’亦自附意.⁷⁾

〔若內若外〕 本無內外, 見其合也. 認為若內若外, 豈非所見非眞也?

1) 季燾之姪, 南康人 : 高大本에는 없다.

2)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3) 章句 : 國中本1 ‘句章’

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5) 勘合相勘 : 高大本 ‘相勘而勘見其合’ 今按: 高大本이 옳을 듯하다.

6)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7) 亦自附意 : 高大本 ‘亦有附字意’

〔本無此事〕 此事，孝述自指所論之事.

〔○⁸⁾未勝喪〕 襁褓之子未勝喪也.

〔遂自主喪〕 孝述自主喪也.

〔只從弟稱〕 오직 弟稱^ㄷ 從^ㅎ얏더니. ◎稱, 猶稱號也.

〔及領尊教〕 “若已立後，則無此疑”之教.

〔不能勝喪之疑〕 從兄之子爲之後者不勝喪也.

〔攝主〕

〔換栗板時〕 古者，虞祭用桑主，而至練換栗，故云，“換栗板時”.

〔易題所稱〕 前祠板之稱，只從弟稱，而練祭換栗之時，易題爲後者，故云“易題所稱”.

〔收立〕 爲後也.

〔即可主祭〕 祭，廟祭⁹⁾也.

〔祠板之變〕

〔固合異日遷廟之稱〕

〔○議親〕 ‘親’，去聲.

〔○¹⁰⁾難行〕 難行醺禮也.

8)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9) 廟祭 : 高大本에는 [추가 註‘廟祭’, 一本作‘宗廟’.]가 있다.

10)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上條〕 乃叔父主婚事.

記疑1505 (節要2001 : 別集/時事出處帖01) (晦庵集別集 卷1)

劉共甫〔珙〕

〔○劉共甫 二姦〕 謂曾覲¹¹⁾·龍大淵.¹²⁾

〔所當論〕 論, 論諫也.

〔造朝〕 時, 共甫以近官召歸, 故云“造朝”.

〔爲上〕 爲上策也.

〔又無疑矣〕 亟行又無疑矣.

〔○¹³⁾第二書¹⁴⁾ 參貳樞筦〕 共甫爲樞密副使¹⁵⁾, 故云“參貳樞筦”.

〔明命〕

〔贊喜〕

〔魏公〕 張浚.

11) 曾覲 : 기준본에는 ‘龍覲’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12) 龍大淵 : 기준본에는 ‘曾大淵’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13)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4) 第二書 : 高大本에는 없다.

15) 使 : 國中本1·國中本2에는 없다.

〔出老兄筆否〕 共甫曾爲中書舍人，而詔誥皆出舍人手，故云“出老兄筆否”。

〔嘆咤〕 ‘咤’，《韻會》，“痛惜曰咤。”

〔奉令承教之臣〕 制詔之臣。

〔譬之人子事親之道〕 當時因天變而作，謂“奴詬大
臣，豕視庶位”，故如下文“悅適”·“快已”云云。

〔委也〕 ‘委’，《韻》，“任也，猶言信也。”

〔交急〕 交，非一之謂。

〔大根大本〕 謂君德也。

〔陳公〕 陳俊卿。

〔近詔〕 近詔，乃上文所言之謂也。

〔作此〕 作此書也。

〔大者〕 即下文¹⁶⁾“論薦人材”乃大者也。¹⁷⁾

〔益州〕 疑汪應辰。汪公知成都，故云。

〔吳興〕 未詳。

〔義諦〕 諦，義當也。

〔狂疾〕 朱子有從頭濯洗之手段，故如是云云。

〔二公〕 謂陳公與劉共甫。

16) 文：기존본에는 ‘又’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17) 也：高大本에는 없다.

〔爲親〕 時，母夫人在，故爲親。

記疑1506（節要2002：別集/時事出處帖02）（晦庵集別集 卷1）

彭子壽〔龜年〕

〔○彭子壽〕

〔請違〕 違，離違也。請字，義未詳。

〔里門〕 鄉里之門。

〔詞職〕

〔鳬鴈〕 朱子自謂也。楊雄〈解嘲〉云：“乘鴈集不爲之多，雙鳬飛不爲之少。”

〔從人〕 ‘從’，上聲。子壽之從人也。猶侍史。

〔偶便〕 偶因歸便也。

〔林君〕 偶便送書，又托于林君，使之傳致也。

記疑1507（節要2003：別集/時事出處帖03）（晦庵集別集 卷1）

魏元履【揆之】

〔○魏元履〕

〔龜齡〕 王龜齡也.

〔無甚治法〕 甚, 音合.

記疑1508 (節要2004 : 別集/時事出處帖04) (晦庵集別集 卷1)

向伯元

〔○向伯元〕 鄉林¹⁸⁾ 向子諲之子.¹⁹⁾

〔周南之策〕 疑是上疏之事.

〔清議在下〕 如東漢末.

〔○趙子直〕 如愚也.²⁰⁾

〔呬〕 압. 흥머곰.

18) 鄉林 : 高大本 ‘鄉林’

19) 向子諲之子 : 기준분에는 ‘向子諲’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20) 如愚也. : 高大本에는 없다.

朱子書節要記疑 卷之十五

記疑1509 (節要2005 : 別集/時事出處帖05) (晦庵集別集 卷1)

林井伯【成季】

〔○林井伯〕

〔山谷語云云〕 黃山谷之妹，嫁歸夫家，其夫薄待，舅姑亦大惡。山谷之妹，沈江而死，故山谷作此詩。

〔○昨日自彼〕 彼謂餘于。

〔風波甚可駭愕²¹⁾〕 韓侂胄逐趙如愚時。

記疑1510 (節要2006 : 別集/時事出處帖06) (晦庵集別集 卷1)

劉德修【光祖】

〔○劉德修〕 蜀人。

〔剗切〕 메타듯.

〔慄〕 與‘悚’同意。

〔轉以聞於左右〕 令同志君子，轉以聞於左右。

21) 可駭愕：《記疑》의 諸 板本에는 ‘惡’으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 〔此豈〕 “豈”字之意，止於“戚”字.
- 〔○單守〕 單，音션. 單之守也.
- 〔奉告之辱〕 奉承下書之辱問.
- 〔東溪先生〕 劉伯熊. 德修同姓親也.
- 〔起疾〕 “聞”字意，止此.
- 〔前輩〕 謂東溪.
- 〔遡峽〕 峽，三峽也. 德修蜀人，故云云.
- 〔同人〕 ‘同人’當作‘家人’.²²⁾
- 〔遯尾好遯之占〕
- 〔○幸復聯名〕 聯名僞籍.
- 〔不稱〕 칭.
- 〔側聽〕 側，側身也.
- 〔門牆〕 德修之門牆.
- 〔終教之也〕 周卿蜀人，來見先生而還蜀，故²³⁾囑德修以終教之.
- 〔○去住無策〕 不能決去，故云“去住無策”.

22) 同人當作家人：今按：현재 《節要》(陶山本)에는 ‘家人’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海州本에는 ‘同人’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 책(《記疑》)의 대본, 곧 이 책에 수록된 퇴계 강의록의 대본이 海州本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郭齊·尹波編注, 《朱熹文集編年評注》제12책(福建人民出版社, 2019)에는 ‘家人’으로 되어 있고, [교감기 ‘家’, 日本翻刻明嘉靖本校曰: ‘《行狀》作“同”.’]이 있다.

23) 故：高大本에는 없다.

記疑1511（節要2007：別集/時事出處帖07）（晦庵集別集 卷2）

李端甫

〔○李端甫 零陵〕 即趙汝愚也。零陵乃道州，而趙公將謫零陵，故云云。

記疑1512（節要2008：別集/時事出處帖08）（晦庵集別集 卷2）

祝汝玉

〔○祝汝玉 鄙性於此〕 此，謂“謝絕生徒”也。

〔未遽止此〕 과그리 此애만 止티 아니홀디니.

〔巍然當坐〕 謂塑像也。

〔孤豚〕 《莊子》，“郊祭之犧牛，以入太廟。雖欲爲孤豚，豈可得乎？”先生用此說也。

記疑1513（節要2009：別集/時事出處帖09）（晦庵集別集 卷2）

劉公度

〔○劉公度〕

〔長沙時〕 湖南安撫使時.

〔意思〕 公度意思.

〔議親〕 見上.

記疑1514 (節要2010 : 別集/時事出處帖10) (晦庵集別集 卷2)

蔡季通

〔○蔡季通 命已下〕 不許自劾之章.

〔見此草奏〕 見此, 今也. 今此草其奏也.

記疑1515 (節要2011 : 別集/時事出處帖11) (晦庵集別集 卷2)

劉智夫【崇之】

〔○劉智夫 壽皇〕 孝宗.

〔藩守〕 朱子, 時知潭州, 故云“藩守”.

〔○再辭〕²⁴⁾ 辭煥章閣待制時.²⁵⁾

〔面辭新命〕 當君, 面辭新職.

〔○中聞〕 中間所聞.

〔以赴事功〕²⁶⁾ 非謂善類也.

〔從之〕 未詳其義.

〔懸鶉百結〕 謂子直也.

〔中熟〕 熟, 歲熟也. 中熟, 非大熟之謂. ◎劉智夫嘗爲湖·湘間之職, 故²⁷⁾云云.

〔法應相避〕 廷老官湖·湘間, 以親嫌當替, 故云.

〔渠〕 廷老.

〔道學文字鉤連隅落止營壘〕 言攻道學章疏, 委曲周密, 比之兵法, 正如武侯八陣營壘, 四方八面, 互相鉤連, 略無疏闕處也. 隅落, 言方面也. 但“華宗浪戰”之語, 古必有不知兵法浪戰者, 其名字爲華宗, 今未考得耳.

24) 再辭: 今按: 《節要》와 《全書》에는 ‘再詞’로 되어 있다.

25) 時: 高大本에는 없다.

26) 以赴事功: 諸 異本에는 [추가 ‘以赴事功’註說非是.]가 있다.

27) 故: 기준본에는 없으나, 高大本·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華宗浪戰〕28) 未詳.

記疑1516 (節要2012 : 別集/時事出處帖12) (晦庵集別集 卷2)

與長兒書

〔○與長兒書〕

〔台越之事〕指劾唐仲友事. 台乃越地, 故云“台越”.

〔先辦得此一著〕亦指言劾唐事.

〔扼腕時節〕時人以劾唐仲友之事, 扼腕驚怪也.

〔眞試一過〕謂劾唐仲友事.

〔叔昌〕塾之妻叔父²⁹⁾.

〔渠〕子約.³⁰⁾

〔渠〕³¹⁾ 上同.

〔問訊〕問訊于朱子.

〔欲相見〕欲相見朱子也.

28) 華宗浪戰 : 高大本에는 이 조목이 없다.

29) 父 : 高大本에는 없다.

30) 子約 : 高大本에는 뒤에 ‘下同’이 있다.

31) 渠 : 高大本에는 이 조목이 없다.

〔可寫報子約〕 今塾可寫報子約也.

〔潘丈〕 景憲. 塾冰翁.

〔便來相聚矣〕

〔未能來〕 未能來于玉山也.

〔彼人凶猾〕 彼, 不知何人. 必是謀害塾者也.

〔渠〕 彼人也.

〔準擬〕 準擬彼³²⁾人之改過也.

記疑1517 (節要2014 : 別集/講學及雜往來帖01) (晦庵集別集 卷3)

程允夫【詢. ○以下講學及雜往來帖.】

〔○程允夫〕

〔上蔡之言〕 惺惺法之言.

〔彼此〕 彼謂允夫, 此乃朱子.

〔解紛〕 人之相鬪者, 諭而解之謂之‘解紛’. 允夫之友嘗相鬪, 而允夫諭而解之, 故云云.

〔前說自恕〕

32) 彼 : 기준본에는 ‘被’로 되어 있으나, 諸 異本에 의해 고쳤다.

〔草本〕 朱子曾爲允夫作〈尊德性齋銘〉³³⁾，而允夫失其銘，復求書其銘，故云云。

〔識之〕‘識’，去聲。

〔有以發於愚言矣〕 세곰 愚言 發호미 인는 차기
비스.

記疑1518 (節要2015 : 別集/講學及雜往來帖02) (晦庵集別集 卷3)

程欽國【後更字允夫.】

〔○程欽國 於斯〕 斯，謂講學。

〔此等文字〕 《正蒙》也。

〔無收拾〕

〔妄言綺語〕

〔○須要識得〕 識得明道之言。

記疑1519 (節要2016 : 別集/講學及雜往來帖03) (晦庵集別集 卷3)

33) 尊德性齋銘 : 기준본에는 ‘尊性齋銘’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彭子壽【龜年】

〔○彭子壽 此說推之〕 此說，上文所言之說。

〔○乍歸〕 乍，猶纔也。

記疑1520（節要2017：別集/講學及雜往來帖04）（晦庵集別集 卷3）

孫季和【應時】

〔○孫季和 燭溪蕭寺〕³⁴⁾ 蕭寺，菴子之類。昔齊，蕭子雲善書，嘗書‘蕭’字而棄之。有僧取此，歸卦³⁵⁾寺壁，寺之爲蕭，自此始矣。

〔著語〕³⁶⁾ 季和次送精舍諸作，故云云。

〔○紙尾無可講說之云〕 季和簡末有“人不力學，紙尾無可講說”，故如是云云。

〔日子鋪排〕

34) 燭溪蕭寺：高大本·國中本1에는 ‘燭溪蕭寺’가 표제어가 아닌 주석 내용으로 되어 있다.

35) 卦：高大本 ‘掛’

36) 著語：今按: 《節要》와 《全書》에는 ‘着語’로 되어 있다.

〔不徧矣〕 事多日少，故云“不徧矣”。

〔不可學也〕

記疑1521（節要2018：別集/講學及雜往來帖05）（晦庵集別集 卷3）

劉子澄【清之】

〔○劉子澄 黃子〕 銖。

〔于役有相〕 子澄方赴召入都，故云“于役有相”。于役，“君子于役”也。相，猶‘神相’之相。

〔在所〕 在所，行在所，謂臨安也。

〔正學以言〕 或謂公孫弘曰：“務正學以言，毋曲學以阿世。”

〔○吾人〕 謂子澄。

〔長句四言〕 皆子澄所作。

〔膏肓之病〕 謂“局迫意思”。

〔近思續錄〕 子澄所編。

〔比舊本大不干³⁷⁾事，未可量也〕³⁸⁾ 其進未可量也。

37) 不干：기준본에는 ‘于’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彼中〕 都中.

〔史老〕 疑史浩也.

〔保社〕 四鄰爲‘保’, 二十五家爲‘社’.

〔○朱幡皂蓋〕 子澄嘗知州時.

〔在甚處〕 在途時, 故云“在甚處”.

〔喻玉泉〕 未知何人. 但其議論無主角之人, 故如是云云.

〔○愛直記文〕 子澄所作也. 韓文亦有愛直文.

〔舊京原廟〕 乃南京 鴻慶宮也. 朱子雖主管南京 鴻慶宮, 南京已爲金地, 故其所主管者³⁹⁾, 乃假設而遙祭⁴⁰⁾之所也. 故云“舊京原廟則久烟塵”矣. ◎鴻慶宮, 乃祭宋先帝之宮.

〔千門〕 鴻慶宮之千門.

〔空引籍〕 其所主管鴻慶宮者, 非眞也, 乃假也. 故云空引籍. 釋속절⁴¹⁾업시 籍乙 引爲也寸匕. 籍, 乃記

38) 比舊本大不干事, 未可量也 : 기준본에는 이 조목을 앞의 ‘近思續錄’ 조목의 하위 주석으로, 그리고 ‘其進未可量也’를 이 주석에 대한 小註로 편집해 놓았으나, 내용상 별도의 조목과 주석으로 편집하였다.

39) 者 : 高大本에는 없다.

40) 遙祭 : 高大本에는 [추가 註‘遙祭’以下, 一本作‘非眞, 故空引籍. 籍, 記籍也. ’]가 있다.

41) 절 : 國中本1·國中本2 ‘질’

籍也.

〔去朝眞〕 去ッ也 眞乙 朝ッ乙コ. 此乃假也, 故云云.

〔○吳大年附到春間所予書〕 子澄所予朱子之書也. 春間所予書乙 附ッ也 到巨ヘッヒ.

〔似於此〕 此, 謂“求去不遂”之事.

〔記憶之語〕 未詳何意.

記疑1522 (節要2019 : 別集/講學及雜往來帖06) (晦庵集別集 卷4)

劉共甫

〔○劉共甫 鄂渚〕 鄂州, 乃江水所過之地, 故鄂州云“鄂渚”.

〔上流之重〕 荊州, 乃大江之上流, 故謂之上流. 時, 共甫出知荊州, 故云.

〔當此之際〕 宋·金地⁴²⁾, 限於荊州, 故云. 當此之際, 猶言當此之時.

42) 地 : 高大本 ‘之地’

〔中外〕 中外之人.

〔竊議〕 “毋使”之意, 止此.

〔增崇望實〕

〔填〕 鎮⁴³⁾字之意.

〔華靡細娛〕 共甫知荊州時, 有酒色之病, 故云“華靡細娛”.

〔於此不難處〕⁴⁴⁾ 於此不難處去就也.

〔禍罰〕

〔想其⁴⁵⁾未免⁴⁶⁾於此〕 想共甫其未免於學問草草之病.

記疑1523 (節要2020 : 別集/講學及雜往來帖07) (晦庵集別集 卷4)

何叔京【鎬】

43) 鎮 : 기준본에는 ‘填’으로 되어 있으나, 高大本에 의해 고쳤다.

44) 於此不難處 : 기준본에는 ‘於此不難處於此’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高大本에는 ‘於此’를 표제어로, ‘不難處於此’는 주석으로 편집하였다. 여기에서 주석은 高大本에 따랐다.

45) 其 : 《記疑》의 諸 板本에는 ‘亦’으로 되어 있으나, 《節要》에 의해 고쳤다. 아래 주석의 ‘其’도 마찬가지이다.

46) 未免 : 高大本에는 [추가 ‘未免’, 非謂共甫也. 似指欽夫也.]가 있고,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未免’者, 非謂共甫也. 似指欽夫也.]가 있다.

〔○何叔京 豈曰放僻止外乎〕 何叔京書論持敬處。

記疑1524（節要2021：別集/講學及雜往來帖08）（晦庵集別集 卷4）

汪時法【大度】

〔○汪時法〕 疑子約門人。

〔遷客〕 乃子約也。

〔有愧於彼〕 彼，謂子約。子約抗疏訟趙汝愚，故云云。

〔廬陵〕 指子約。子約安置吉州，吉州即廬陵，所謂餘干州是也。

〔又得賢者〕

記疑1525（節要2022：別集/講學及雜往來帖09）（晦庵集別集 卷4）

向伯元【澹】

〔○向伯元 長者〕 向伯元.

〔○書府〕 謂伯元藏書之所.

〔陶公詩〕 “說”字之意, 止此. 康節所手書陶公詩也.

〔○小得過從〕 過從之人.

〔○周公〕 必大.

〔婦家〕 疑必大婦家在義興也.

〔寄得一書〕 寄書之時, 必大留義興, 乃在都之時, 故下文有“速歸”·“蚤⁴⁷⁾去”之言.

〔速歸〕 謂去國歸家也.

〔相見〕 周公相見伯元也.

〔當能道所以然者〕

〔○去替不遠〕 替, 替代也. 子澄知荊州, 去替任不遠也. 替⁴⁸⁾ 去乎來.

〔醜正之人〕 小人也. 正乙 醜ッ飞尸 人⁴⁸⁾.

〔以憂去〕 遭喪而去也.

〔善罷〕 罷, 罷任也.

〔得免〕 子澄未替荊州時, 爲小人所劾去, 故云.

47) 蚤 : 기준본에는 ‘早’로 되어 있으나, 《節要》(陶山本)와 《全書》에 의해 고쳤다.
다만 海州本과 定州本에는 ‘早’로 되어 있다.

48) 乙 : 高大本에는 없다.

記疑1526 (節要2023 : 別集/講學及雜往來帖10) (晦庵集別集 卷4)

林井伯【成季】

【○林井伯】

【簡卿文字】 蓋簡卿由井伯，求薦己文字於先生。先生意有所不滿於其人，不欲苟循人情，而強與薦書，故其言如此。

【畏人來奪文字】者⁴⁹⁾，謂我不欲薦書彼，而彼強來索取文字，是無異於奪取而⁵⁰⁾去，故云‘畏人之如是爲’耳。⁵¹⁾ 先生嘗薦學古，故⁵²⁾云：“如學古之事，乃我自作薦彼文字，非因學古人來索而應副苟爲之⁵³⁾也。”

【所賤者】 朱子以求知爲賤，故云云。

【自首薦之】 朱子之薦學古，不待人言，而朱子自首薦之。

【○伏臘之計不至入思慮否】

49) 者：高大本에는 표제에 포함시켰다；國中本2에는 없다.

50) 而：高大本 ‘以’

51) 故云……爲耳：高大本 ‘故云“畏而強與薦書”，故其言如此。學古’。今按：高大本에는 무언가 빠진 게 있는 듯하다.

52) 故：國中本2에는 없다.

53) 之：高大本에는 뒤에 ‘事’가 있다.

〔窮極處〕 乃老境也.

〔觸動〕 機關.⁵⁴⁾

〔翻騰一上〕

〔○歸享甲第之勝〕

〔開府〕 晉·唐之後，有開府之名，鄭公嘗爲開府.

〔再遣〕

〔渠〕 鄭公也.

記疑1527 (節要2024 : 別集/講學及雜往來帖11) (晦庵集別集 卷4)

趙子欽【彥肅】

〔○趙子欽 勞苦〕 ‘勞’，去聲.

記疑1528 (節要2025 : 別集/講學及雜往來帖12) (晦庵集別集 卷5)

方耕道【耒】

54) 機關 : 今按: 기준본에는 주석으로 되어 있으나, 표제의 일부로 보아야 할 듯하다.

〔○方耕道 寇〕⁵⁵⁾ 耕道嘗爲邑宰，而其處有寇，故問之.⁵⁶⁾

〔彼亦〕 彼，受歸怨之人.

〔源頭理會〕

〔彭中丞〕 彭思永.⁵⁷⁾

記疑1529 (節要2026 : 別集/講學及雜往來帖13) (晦庵集別集 卷5)

鄭景明【昭先】

〔○⁵⁸⁾鄭景明 大湖〕 地名.

〔保伍〕 如五家長法 .

〔倚賴如此〕 爲強豪所撓敗，官府不足倚賴於法如此.

〔子厚〕 亦太湖間人.

〔勸之〕 勸其不遷也.

〔凌上之風〕 爲小人凌上之風，作保伍法，而豪強所

55) 寇：諸 異本에는 뒤에 ‘事’가 있다.

56) 問之：高大本 ‘云云’

57) 彭思永：기준본에는 ‘彭永思’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1·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58)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撓敗，不能行法，故如是云云.

〔 邑大夫 〕 非縣尉之類，乃上官也.

〔 縣道⁵⁹⁾政事 〕 鄭景明，時爲太湖間縣尉之屬，故云.
道，所當然之道也. 縣矣 道^ノ 政事^ノ.⁶⁰⁾

記疑1530 (節要2027 : 別集/講學及雜往來帖14) (晦庵集別集 卷5)

朱魯叔

〔 ○⁶¹⁾朱魯叔 一兩段 〕 魯叔書云“朱子附去文字，爲官事所撓，專不看得”，故如是云云.

〔 韓子之言也詣違 〕⁶²⁾ 猶進別也.

記疑1531 (節要2029 : 別集/講學及雜往來帖16) (晦庵集別集 卷5)

59) 縣道 : 諸 異本에는 [추가 ‘縣道’, 《漢書》, “梅福, 屬[數]因縣道上(言)變事.” 此縣道, 不可分釋. 退溪釋, 恐未穩.]이 있다.

60) 〰 : 高大本에는 없다.

61)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62) 韓子之言也詣違 : 高大本에는 앞에 ‘劉德修’가 있다. 今按: 실제로 해당 내용은 劉德修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지만 편집 사항이므로 여기에서는 고치지 않았다.

忠南上人

〔○忠南上人 方有公事〕 朱子提舉浙東常平茶鹽事時也。天台，乃台州之山。台州，乃浙東之地。故時唐仲友知台州，朱子以贓論罪。⁶³⁾

〔想見〕 想像而見也。

〔寒山子〕 詩僧。

〔彼中〕 天台。

〔餅〕 茶乙 편지어 물된 거슬 謂之餅，即片也。

〔視至〕 至巨乎 視ッ乎。

記疑1532 (節要2030 : 別集/講學及雜往來帖17) (晦庵集別集 卷5)

西原崔嘉彥

〔○西原崔嘉彥〕

〔三峽〕 廬山亦有三峽。

〔楞伽折桂〕 皆道士觀名。⁶⁴⁾

63) 罪 : 高大本에는 없다.

【神用】 神用，與神觀，同而異意。神用，有料事用心之意。

【方丈】 方又 丈，與環堵同。

【○⁶⁵⁾親斲】 嘉彥書，“親斲竹萌，敢送云云”，故如是答之。

【便令施工】 栽竹木處，將平築之地，故云云。便令施功力也。

記疑1533 (節要2031 : 別集/講學及雜往來帖18) (晦庵集別集 卷5)

林師魯

【○林師魯】

【芸齋公】 師魯之父，但未知其名。

【相與遊之善】 韋齋與芸相與遊之善。

【大禍】 韋齋之卒。

【深山窮谷】 謂五夫里。

【蔣丈】 未詳何人。

64) 觀名：高大本 ‘館名’[소주 ‘道觀名’]

65)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 〔 茲邑 〕 崇安.
- 〔 請問 〕 請問而語也.
- 〔 以訪先君子之舊遊 〕 以訪問先君子舊所交遊之人.
- 〔 問學 〕 猶學問也.
- 〔 行義 〕 ‘行’, 去聲.
- 〔 不鄙過門 〕 不鄙我而過門.
- 〔 學者 〕 “怪”字意, 止此.
- 〔 見屬之意 〕 見屬先生之意也. 送行序, 師魯所作.
- 〔 其來 〕 淵源所自來.
- 〔 歸時 〕 擇之歸時.
- 〔 事契 〕 事ㄴ 契ㄴ.
- 〔 捐惠 〕 ⁶⁶⁾ 捐, 猶虛, 捐道德也.
- 〔 牋 〕 謂書也.
- 〔 劄目 〕 乃問目也.
- 〔 行李往來 〕 凡人行李往來也. 行李, 《左傳》云:
“‘李’與‘理’同.”
- 〔 大學集傳 〕 乃《章句》也.

66) 捐惠 : 기준본에는 ‘損惠’로 되어 있으나, 《節要》(陶山本)에 의해 고쳤다. 아래 주석의 ‘捐’도 마찬가지이다. 今按: 《節要》(海州本)에는 ‘損害’로 되어 있다. 이것 역시 《記疑》의 대본이 《節要》海州本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記疑1534 (節要2032 : 別集/講學及雜往來帖19) (晦庵集別集 卷5)

林熙之

〔○林熙之〕

〔款⁶⁷⁾奉名理〕 “凡物有名則有理”，熙之所論名理之言。

〔有成〕 成其學問也。

〔不易處者〕 熙之與師魯，切磋義重⁶⁸⁾ 聞⁶⁹⁾師魯之死，嘆惜驚動⁷⁰⁾不易處者。

〔三者皆心〕 熙之仁說中有“三者皆心。” ‘皆心’之言⁷¹⁾，但未知何意。

〔推而上之〕 此亦熙之仁說中言。 ‘因三⁷²⁾者而⁷³⁾推而上之’之謂。

〔當處〕 仁之當處。

67) 款：高大本 ‘欽’

68) 잉：國中本2에는 없다.

69) 聞：기존본에는 ‘間’으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에 의해 고쳤다.

70) 動：國中本2 ‘慟’

71) 皆心之言：高大本에는 없다.

72) 三：高大本 앞에 ‘此’가 있다.

73) 而：高大本에는 없다.

記疑1535 (節要2033 : 別集/講學及雜往來帖20) (晦庵集別集 卷6)

林擇之【用中】

〔○⁷⁴⁾林擇之 老人〕 擇之父母.

〔盛禮〕 親迎之禮.

〔馬肝之論〕 本漢景帝語, 見《史記》. 《治平要覽》註: “走馬肝有毒殺人, 故云: ‘食肉不食馬肝, 未爲不知味也.’” 言文王三分天下有其二, 亦非人臣之義, 聖人⁷⁵⁾所處, 非常人所能及知. 雖置而不論, 未爲不知義理也.

〔石丈〕 石子重.

〔一來〕 自延平來于先生處, 相聚也.

〔在此〕 諸朋友、此_ㄹ 在_은 제 及_고 也.

〔○至節〕 冬至節.

〔痛割不自堪〕 先生居母喪時, 故云云.

〔展拓處〕 ‘拓’, 音탁. 展拓, 猶擴充也.

〔爲計〕 以上言行.

7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75) 聖人 : 高大本 앞에 ‘而’가 있다.

〔講學〕 以下言知。

〔○來此間〕 來南康也。

〔比於〕 比及也。

〔涪州一行氣力也〕 程子於涪州，得靜中工夫，做得⁷⁶⁾《易傳》。

〔○所請〕 辭免之請。

〔添差〕 添義未詳。

〔擴之亦有說〕 擴之，因擇之所示諸說，亦有說也。

〔因來〕 因來便也。

〔計此所校〕 ‘校’，與‘較’同，不等也。計컨댄 此⁷⁾校乎未，與擇之相校也。

〔大着之病〕⁷⁷⁾ 執着之病。

〔此不能無〕 此，先生自謂。

〔劍浦劉親〕 劍浦，地名。先生之婿，有劉學古，劉親乃學古家也。

〔告語之者〕 擇之，於深卿，告語之者。

〔此書〕 即上文所云〈答深卿書〉。

〔致意〕 令擇之煩致此意于深卿。意，乃下文所言之

76) 做得：高大本에는 없다.

77) 大着之病：今按：《節要》와 《節要》에는 ‘太着之病’으로 되어 있다.

意.

〔須有些巴鼻⁷⁸⁾也〕 須，必字意.

〔將他〕 他，謂明道.⁷⁹⁾

〔看他〕⁸⁰⁾ 他，謂明道.

〔自家〕 深卿.

〔前書所論〕 深卿前書所論.

〔馮道呂舜徒〕 呂舜徒，乃靖康之亂，降於金者也.
深卿論馮道·呂舜徒，而多有隱諱回互之意，故責之.

〔發明義理〕 當是⁸¹⁾呂氏先世所著書名.

〔此亦有之〕 此，先生云此處.

〔不曾見〕 擇之不曾見也.

〔渠家〕 呂家.

〔死水裏渰殺〕 ‘渰’，音菴，與‘淹’通，沒也. ‘殺’，去聲. 《韻會》，“衰少之貌，又削然⁸²⁾意.” 未穩當.

〔超脫處矣〕 곧 오직 이 死水裏 向 也 渰殺，
則超脫處 83) 無 里 死水，非活水.

78) 巴鼻：高大本에는 [추가 ‘巴鼻’，猶言著莫也.]가 있다.

79) 明道：高大本에는 뒤에 ‘下看，他之他亦同.’가 있다.

80) 看他：高大本에는 이 조목이 없다.

81) 是：國中本2 ‘時’[추가 ‘是’]

82) 然：高大本 ‘也’

83) 〳：高大本 ‘矣’

〔因甚〕 甚，合。

〔脩顥遊〕 “一段”之說，止此。

〔項掾〕 平父。

〔勸之〕 勸之學問也。

〔錯了路陌〕 趙彥德專務科舉，故云“錯了路陌”。

〔○渠還覺不〕⁸⁴⁾ 渠，深卿。

〔亦是偏處〕 擇之押韻處，言有過當，故云“亦是偏處”。

〔這個意思〕 過強底意思。

〔○⁸⁵⁾註 府中之餽〕 未知何事，但疑如祠祿之祿。

〔薄禮〕 致祭深父之薄禮。

〔就彼〕 就擇之處也。

〔有狀〕 先生修狀。

〔不得一見〕 不得一見深父也。

〔反復議論〕 反復，猶異也。反覆前日之見也。저기
反復 ㅅ ㅍ 議論 ㄷ 有호되.

〔如此之難〕 謂欽夫。

〔託人宛轉〕 如私⁸⁶⁾送割字之類。

84) 渠還覺不：今按：《節要》와 《全書》에는 ‘渠還覺不’로 되어 있다.

85)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86) 私：國中本2에는 [소주 ‘스’]가 있다.

〔此事〕 辭職事。

〔刊書〕 此即書肆刊板賣冊事。

〔○學中〕 擇之自尤溪 石子重處，復往他處，爲館客。

〔遽去〕 恨擇之之遽去他處。

〔到彼〕 到尤溪。

〔因遂過此〕 因遂尤溪之來過此處。

〔前書之志〕 與擇之前書中，所言之志。志，著書之志也。

〔○是日〕 見辱書之日。

〔被人轉却〕⁸⁷⁾ 欽夫樂聞過，勇遷善，皆欽夫之長處。而德美則以欽夫長處爲見大本未明⁸⁸⁾，所以其言誤矣。

〔○日下〕 猶日來也。

〔廓然〕 議論廓然也。是時，先生疑擇之不力於學，故云云。

〔二余〕

〔冷淡〕 二余氣味冷淡也。

〔邑中〕 擇之所居邑中也。⁸⁹⁾

〔○惊〕 《禮部韻》，“慮也。”

87) 被人轉却：國中本1 ‘被人轉却’

88) 明：高大本 앞에 ‘分’이 있다.

89) 也：高大本에는 없다.

〔音容邈然〕 先生在母喪時，故云．

〔無甚倫理〕 諸人救⁹⁰⁾季通病，故講學無甚倫理．

〔入城計〕 諸人便爲入城計．

〔榻前〕 御榻之前．

〔○吾友〕 擇之．

〔凡陋〕 先生自謂也．

〔○渠以爲如何〕 渠，深卿．

〔此書了〕 答深卿書了．

〔○得失〕 疑科場得失．

〔太府曆頭〕⁹¹⁾

〔來已不相及〕 “遊山開正即行”，則但恐擇之之來，已不相及於吾行也．

〔來彼相及〕 擇之來婺女⁹²⁾而相及也．

〔敗露〕 敗露奸術．

〔向日之言〕

〔一兩月期〕⁹³⁾ 期，定期也．

90) 救：高大本 앞에 ‘以’가 있다.

91) 太府曆頭：諸 異本에는 [추가 ‘大府曆頭’，程子在經筵，不曾請俸．諸公遂牒(報)戶部，問不支俸戶部案前任曆子，先生云：“某起自草萊，無前任曆子．”遂令戶部自爲出券．曆太府，恐是戶部．曆頭，恐曆子也.]가 있다.

92) 女：高大本 ‘安’

93) 一兩月期：기존본에는 ‘一兩月期’로 되어 있으나, 國中本2와 《節要》에 의해 고쳤다.

【須如此耳】 須如此入山僧寺也.

【○子弟賓客】 時官之子弟·賓客也.

【○⁹⁴⁾福公】 陳俊卿.

【恐已歸】 擇之, 古田人, 福公, 甫田人, 相去遠.⁹⁵⁾
恐擇之已歸于福公處也.⁹⁶⁾

【自別托去也】⁹⁷⁾ 自別送人, 托在書簡也.

【得帥止之】⁹⁸⁾ 帥⁹⁹⁾, 趙汝愚也. 汝愚分建寧府時,
爲先生欲作精舍. 先生力止之, 趙帥且止之, 故云云.

【許多紛紛】¹⁰⁰⁾ 此乃先生作武夷精舍, 有紛紛之議,
非上文造屋¹⁰¹⁾事.

【首篇中一我字生出來】 首篇詩, “琴書四十年¹⁰²⁾,
幾作此山客.¹⁰³⁾ 一日茅棟成, 居然我泉石.”

9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95) 遠 : 高大本 ‘不遠’. 今按: ‘不遠’이 옳을 듯하다.

96) 恐已歸 : 諸 異本에는 [추가 ‘恐已歸’, 福公已歸他處也. 非謂擇之歸福公處也. 註說未詳.]이 있다.

97) 自別托去也 : 今按: 《節要》에는 ‘自別宅去也’로 되어 있고, 편지 말미에 [소주 ‘宅’當作‘托’]이 있다. 《全書》에는 ‘自別寄去也’로 되어 있다. 《全書》에는 [교감기 ‘寄’, 原作‘宅’, 據《正訛》改.]가 있다.

98) 得帥止之 : 國中本1 ‘得師止之’

99) 帥 : 國中本1 ‘師’

100) 許多紛紛 : 諸 異本에는 [추가 ‘許多紛紛’云者, 泛論許多紛擾之事, 非但此一事. 註說更詳之.]가 있다.

101) 造屋 : 國中本2에는 [추가 ‘屋造’]가 있다.

102) 琴書四十年 : 國中本1 ‘琴書曰十年’

〔此字〕“我”字.

〔百病之根〕

〔斫不倒止作災怪也〕

記疑1536 (節要2034 : 別集/講學及雜往來帖21) (晦庵集別集 卷6)

黃商伯

〔○黃商伯〕

〔罪去〕知南康時.

〔何所向耳〕謫竄何所向耳.

〔○¹⁰⁴山北〕即濂溪也.

〔樊籠〕¹⁰⁵樊, 乃藩也. 山樊之樊, 乃山足也.

〔未有近期〕商伯 南康人, 故云云.

記疑1537 (節要2035 : 別集/講學及雜往來帖22) (晦庵集別集 卷6)

103) 此山客 : 高大本·國中本1·國中本2 ‘山中客’

104)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105) 樊籠 : 國中本1·國中本2에는 [추가 ‘樊’, 山樊之樊, 乃山足也. 註說可疑.]가 있다.

楊伯起

〔○楊伯起〕

〔新泉三疊〕 乃瀑布也. 三疊, 猶三層也.

〔摩莎〕 ‘莎’, 與‘拏’同用.¹⁰⁶⁾

〔謬說〕 謂《本義》.¹⁰⁷⁾

記疑1538 (節要2036 : 別集/講學及雜往來帖23) (晦庵集別集 卷6)

葉永卿·吳唐卿·周得之·李深子

〔○葉永卿〕

〔白鹿田〕 田, 學田.

〔大成殿〕

〔○¹⁰⁸⁾遽然如此〕 謂圖“形像置之其間”事.

〔唐卿〕 南康人.

〔菖蒲平安之報〕 昔李德祐¹⁰⁹⁾, 嘗出守州府, 其處

106) 用 : 高大本에는 없다.

107) 本義 : 高大本 앞에 ‘易’이 있다.

108) ○ : 기준본에는 없으나, 國中本2에 의해 보충하였다.

無竹，而北都有竹，頗憂¹¹⁰⁾之，置人於北都，日報竹之平安。先生之言，本於此。菖蒲，乃先生在南康時愛玩者也，故云云。

追錄¹¹¹⁾

【答黃直卿 時魚多骨金橘太酸】‘時魚’，魚名。二者美物而有二病，喻子約賢而多病痛。

【若道一例【至】運氣】上文歷言子澄以下諸人遭彈被屈等事，於此復歎曰：“若言今時之人一例如是無罪，而遭彈被屈耶，則他人又却無如此者，惟吾黨之人，便有受此許多攻擊，亦可笑耳。”‘築’，以杵築物，‘磕’，石相築聲。‘築磕’，言攻擊也。‘大家’，猶言大段。又言豈非天意大段行一不好之氣數而然耶？抑吾之命薄而然也？

【彭子壽行遣云云一番光鮮】‘行遣’，猶逐去也。‘放’，舍置也，非放流之放。放了徐子宜，言欲逐徐而未逐，是

109) 祐：高大本‘裕’

110) 憂：高大本·國中本1·國中本2‘愛’

111) 追錄：기준본에는 없지만 國中本2 권15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이하 내용을 본문으로 수록하였다. 여기 追錄의 내용은 《定本 退溪全書》5, 〈答李仲久問目【《朱子書》疑語】〉(KNL0090A)에도 수록되어 있다.

舍置徐子宜也。時新聞逐彭而言曰“此事之所以然者，其初，欲逐徐子宜而不果，是姦黨之所以作氣勢攻正類者，若少衰息無光燄，故又別把一人來，充填放子宜之窠闕以逐去之，謀令前日攻擊人之威聲中息者更發采色，使之一番光鮮，以聳動一時之觀聽”云耳。

【仙遊不成舉措云云【至】亦不多爭】 ‘仙遊’，縣名。此指言其邑宰，今未知爲何人。此本是吾黨之人，而其所爲之事，亦非不好，但於舉措，有失當處，故惜之云“不成舉措”，而又以一然字轉語意云：“其所爲既如此，與今之受不係僞學舉狀者，亦無以相遠也。”‘爭’，謂爭分數之多寡，謂所異之分數不多也。受不係僞學舉狀，謂舉人者於舉狀中，說此人不係僞學，被薦者受此狀而用之也。

【答蔡季通 先天須刻卦印印之】 畫卦，用筆則難得精整如一，故刻木作卦而印之，謂之卦印。

【王參政早歲休官云云【至】談龍肉而實未得嘗】 王參政，王次翁也。附檜事，《宋史》可考。但朱衣道士諄諄之誨，未知何謂耳。《陰君丹訣》以下，與王參政一段不連看，爲可。陰君未知何人。此言《陰君丹法》，不及《參同契》，然彼能行此而得壽考，吾輩知《參

同》妙訣，而不免衰病，故其言如此。此皆西山書所稱，故答語及之。

《與田侍郎 元祐之調停元符之建中》‘建中’，取兩平之意，與調停同義也。唐 德宗初元以建中爲號，欲兩平楊炎·劉晏分黨相傾陷也。哲宗 紹聖·元符中，章·蔡得志，治元祐黨人，極矣。徽宗初，政清明，稍進正人，逐章·蔡。時議者以爲元祐·紹聖均有所失，欲以大公至正消釋朋黨，遂詔改明年元爲建中靖國。由是，邪正雜進，未幾，君子盡逐，而滿朝皆小人，馴致靖康之禍。其詔改元，實在元符末年內，故云元符之建中也。

《荀卿子曰皓天不復云云》言昊天不復回治世，則吾之憂無疆也。然而亂極當治，千秋必反於治，古來常道也。門人弟子但當力學以俟時，天心必不忘斯世也。

《答羅參議 都不筍著痛處》‘筍’，刺也。針病者不刺痛處，不足以治其病也。

《與饒廷老 換闕》必是廷老將被換任他闕處，而非其所願，因此憂惱。故曉之如此云。

《答林擇之 馬肝之論》本漢 景帝語，見《史記》。《治平要覽》註：“走馬肝有毒殺人。故云：‘食肉而不食馬肝，未爲不知味也。’”言文王三分天下有其二，亦

非人臣之義。聖人所處，非常人所能及知，雖置而不論，未爲不知義理也。

【○權行倚閣】凡事姑置不行，謂之倚閣。巴鼻，猶言著莫也。自家這下，指吾儒學問而言也。李深卿溺於禪學，今勸其姑置禪語而從事於此學，故曰：“試將詖淫等說，權行倚閣，却就自家學問，實著工夫。如此一兩年看如何，則必有著莫處矣。”【〈答徐彥章書〉，“未有形影著莫。”】不直言屏去異學，而曰權行倚閣者，棄其所信，而從其所不信，非彼所欲，故設爲方便之言以誘引之也。

【○文字錢【至】兌錢一千云云】‘文字錢’，未詳其事，然詳下文所云，似是刊行書冊所貿之錢，擇之所主，而官省所領者也。【先生與諸人嘗設書肆，刊印書冊。】‘兌’字，多見於先生救荒條法內，其事如今各司傳請。今各司其司物用盡，傳報該曹，請他司之物而用之也。此言‘吾曾見其弟，說道擇之處有文字錢，爾可就彼傳請，可得錢一千矣。【告弟之言止此，此下，仍告擇之云。】且此錢所領官司處，并已有狀，【官省有狀，則取錢無礙也。】香茶則曾已附在其弟處，以此等物請擇之煩爲云云。’蓋深父與擇之，皆古田人。深父客死他鄉，其弟往治其喪，歸途見先生。

先生語其弟云云，而復與擇之書，令其設奠，故其言如此。書肆所印書冊所貿之錢，雖在擇之處，亦朋友間可以隨便通用之物，故如是處之耳。¹¹²⁾

112) 國中本2에는 이어서 별도의 追錄이 이어서 편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卷1 2板 ‘王之望’ 조목으로부터 卷20 35板 ‘五辛’ 조목까지이다. 역시 퇴계의 講錄 중 하나로 추정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지만, 그 성격상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여기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